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6호 2009. 12

차례

특집 근대 일본 역사가들의 동아시아상

- 박현숙 | 津田左右吉의 단일민족설과 고대 한·일 민족관계 인식 7
- 김보한 | 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 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 35
- 박찬홍 |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65
- 송완범 | 식민지 조선의 黑板勝美와 修史사업의 실상과 허상 95

논문

- 정호섭 | 고구려 벽화고분의 類型 133
 - 이석현 | '瀋淵의 盟'의 성립과 宋人의 認識 165
 - 원재연 | 17~19세기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 연구 205
 - 김원수 |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263
- 일본의 만한정책과 연계하여
 - 이인철 | 中國 統一的 多民族國家의 歷史認識과 그에 대한 對應論理 297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342

Contents

Special Issue **Modern Japanese Historian's Perspectives Towards East Asia**

- Park, Hyunsook | Tsuda Shoukichi's uni-race theory and his perception of Korea-Japan relationship 7
- Kim, Bohan | Japanese "Sea Power Sphere" and the Perception of the Sea in East Asia after Modern Age 35
- Park, Chanheung | Shiratori Kurakichi (白鳥庫吉) and the founding of Manseonsaghak (滿鮮史學) 65
- Song, Whanbhum | Kuroita Katsumi of colonial Joseon and historiography 95

Articles

- Jung, Hosub | Study on types of Goguryeo mural tombs 133
- Lee, Sukhyun | The conclusion of Treaty of Chanyuan and Cognition in Sung dynasty 165
- Won, Jaeyeon | A study on the acting spaces of the diplomatic mission from Joseon, in Beijing during the 17~19th centuries 205
- Kim, Wonsoo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and the Gando Agreement, 1907~1909: connected with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Korea & Manchuria 263
- Yi, Inchol | China's Historical Awareness and its Corresponding Logic 297

특집

근대 일본 역사가들의 동아시아상



津田左右吉의 단일민족설과 고대 한·일 민족관계 인식

박현숙 |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머리말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의 일본사 연구는 ‘쓰다[津田] 史學’, ‘쓰다 思想史學’으로 불리우면서, 메이지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쓰다는 일본 사학계에서 第一人者로 자리잡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고대사 연구의 패러다임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神代史를 ‘역사적 사실’로써 규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대인의 ‘思想’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쓰다 사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연구 방법이 획기적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학자로서의 상징적 이미지와 일본 국내에 조성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 그리고 전후에 일본에서 채택된 상징천황제 등과 부합되면서 쓰다는 그동안 과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¹⁾

※ 투고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1) 關根英行, 2007, 「쓰다 사학(津田史學) 신대사 해석과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

그러나 쓰다에 대한 일본에서의 평가는 쓰다 사학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한국 사학계에도 받아들여졌다. 쓰다의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와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의 모순을 지적한 연구도 있었지만,²⁾ 그 뒤 역사학계에서의 후속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가 그의 연구에서 쓰다 사학의 신대사 해석과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를 다루면서, 쓰다 사학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자 한 것은³⁾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한국사의 관점에서 쓰다 사학의 진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單一民族論에서 출발한다. 日帝의 皇國史觀과 관련된 日鮮同祖論⁴⁾에 대해서 “쓰다가 내세운 단일민족론은 과연 일선동조론을 극복한 것이었는가” 하는 물음에서이다. 역사학 분야에서 ‘한일병합’을 전후로 한 단일민족론의 대표적 논자로 쓰다를 들 수 있으며, 그가 전후의 단일민족론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쓰다의 단일민족론의 실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쓰다 사학이 그리고자 했던 일본 古代史像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쓰다가 일본 神代史와 上代史 연구를 통해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쓰다가 주장한 단일민족론과 일본 상대사 연구의 실제,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고대 한·일 민족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한일병합’을 전후로 한 일본 역사가들의 동아시아상의 단면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日本思想』 12호에서 津田史學의 과대평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쓰다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이 보이고 있다. 永原慶二, 2003, 『20世紀日本の歴史學』, 吉川弘文館, 129~132쪽; 一瀬陽子, 2005, 『津田左右吉にみる戦前と戦後の間—科學をめぐって』, 『大阪大學言語文化學』 14; 有田穎右, 2008, 『白鳥庫吉博士と津田左右吉博士』, 『千里山文學論集』 79 등.

2) 崔在錫, 1990, 『日本古代史研究批判』, 一志社.

3) 關根英行, 2007, 앞의 글.

4) 喜田貞日, 1910, 『韓國の併合と國史』, 三省堂書店, 2~3쪽.

II. 쓰다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

쓰다는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의 고대사 연구의 맥을 이은 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시라토리보다 8세 연하였고, 岐阜縣의 佐幕派 士族 가정에서 태어나 도쿄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토에서 교직에 있었다. 그러나 1895년 21세에 상경하여 시라토리에게서 학문과 생활을 동시에 도움받는 관계가 되었다. 그 후 關東 인근 현의 중학교 역사 교사를 했는데, 교사생활에 싫증을 느껴 학교를 전전하다가, 34세인 1907년에 만철 산하의 만선역사지리 조사실의 연구원이 되었다.⁵⁾

그의 일본 神代史와 上代史에 대한 연구는 1892년부터 시작하여 1962년까지 70여 년간 계속되었다. 88년의 생애를 통해 진행된 쓰다의 학문적 업적은 문헌고증학적 연구, 일본 고전의 비판적 연구, 국민사상사 연구, 중국 고대 사상사 연구 등으로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

먼저 쓰다는 동북 3성과 조선의 역사지리적인 문헌고증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만선역사지리 조사실에 들어가 ‘조선역사지리’를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한국사 연구와 관련해서 본다면, 만선역사지리 조사실에 소속됨으로써 시작된 쓰다의 한국 고대사 연구는 역사지리 고증에 대한 연구로부터 비롯되었고, ‘만선사학’의 큰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고대사는 ‘만주’ 고대사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선반도의 역사=조선사’인 백제·신라·가야의 역사는 일본과 만주사의 일부인 고구려·발해 사이에서 타율적으로 진행된 역사라고 인식하였다.⁷⁾

둘째는 일본 고대사, 그 가운데서도 『고사기』·『일본서기』 두 책을 중심으

5) 오구마 에이치 지음, 조현설 옮김, 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사.

6) 芳賀登, 1974, 『批判 近代日本史學思想史』, 柏書房, 158쪽.

7) 박찬홍,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로 한 일본 고전의 분석적인 비판적 연구이다. 그는 1910년 이후 '조선역사지리' 연구를 발판으로 해서 일본 '상대사' 연구로 그 대상과 폭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 들어서는 『神代史의 研究』, 『古事記 및 日本書紀研究』, 『日本上代史研究』, 『上代日本の 社會 및 思想』의 이른바 '上代史' 4부작을 잇달아 출간하였다. 쓰다의 역사연구의 진면목은 '일본 상대사' 연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쓰다 사학의 특징은 당시 새로이 유행하고 있던 민속학과 유물사관적 역사연구 방법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사료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주장하였다. 그의 상대사 연구의 출발점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대한 철저한 사료 비판이었다.

셋째로는 그의 필생의 작업이었던 대작 『문학에 나타난 우리 국민사상의 연구』 4책을 중심으로 한 '국민사상사' 연구이다. 쓰다는 『문학에 나타난 우리 국민사상의 연구』에서 "국민사상이란 국민생활의 심적 측면을 일시적으로 이룸붙인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 실제생활에서 생겨나서 이와 함께 계속 변해가며 전개된 것"이라고⁸⁾ 정의했다. 또 "일본이 받았던 중국 문화의 영향은 일부분의 권력자나 지식인에 그치고, 국민은 따로이 일본 독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⁹⁾ 강조하는 등 일본 사상사 연구에 몰두하였다.¹⁰⁾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다는 『道家의 사상과 그 전개』, 『左傳의 사상사적 연구』 등 중국 古代 思想의 해명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쓰다는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혐오한 반면, 歐美文化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그는 일본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동양의 일부가 아니라 歐美文化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세계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歐美文化는 중국 문화를 중화시켜 주는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고 생각했다.¹¹⁾

쓰다의 연구업적은 1945년 이전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으나, 戰後에는 '戰前 최고의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1940년 스이코

8) 芳賀登, 1974, 앞의 책, 159쪽.

9) 津田左右吉, 1966a, 『津田左右吉全集』 別卷 第2, 63~64쪽.

10) 永原慶二, 2003, 앞의 책, 66~69쪽.

11) 오구마 에이지 지음, 조현설 옮김, 2003, 앞의 책, 380쪽.

[推古]天皇 이전의 천황의 비실제성을 언급한 탓으로 『神代史의 研究』를 비롯한 4권의 저서가 판매금지 처분되고, 출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대학에서 해임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쓰다는 戰前에 ‘황국사관에 맞서 탄압당한 영웅’으로 우리러 받아들여졌으며, 그의 연구성과는 戰後 사학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¹²⁾

Ⅲ. 『고사기』·『일본서기』 비판을 통한 일본 神代史 연구

근대 일본의 민족주의가 직면했던 최대의 모순 가운데 하나는 일본이 영토를 확대했을 때, “조선인이나 타이완인 등을 ‘일본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도 일본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차별 철폐론자와 ‘일본인’ 개념을 확장하여 조선을 영토로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자의 지향이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국민주의자와 조선인을 파멸하고자 하는 우생학자나 자민족지상주의자들이 ‘일본인’ 개념을 축소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화와 고대사를 무대roman 해석의 투쟁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쓰다의 신대사 해석은 그의 스승인 시라토리를 계승한 것이었다.¹⁴⁾ 쓰다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단일민족론자였던 시라토리는 신대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나오는 천손민족·야마토·이즈모·구마소 등을 민족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으로 파악했다.¹⁵⁾ 그는 일본열도에서 원래부터 일

12) 家永三郎, 1972, 『津田左右吉の思想史的研究』, 岩波書店.

13) 오구마 에이치 지음, 조현설 옮김, 2003, 앞의 책.

14) 小雄英二, 1995, 『單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畫像の系譜』, 新曜社, 280~281쪽.

15) 白鳥庫吉, 1995, 「日本人種郎論に對天する批判」, 『東亞之光』10권 8호.

본 민족 이외에는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결과 천손강림이 2,60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는 『고사기』나 『일본서기』 기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천황이 생기기 전부터 일본 민족이 성립됨으로써 천황이 일본 민족의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라토리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 바로 “신대사를 역사가 아닌 가공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었다.¹⁶⁾

쓰다도 시라토리의 영향을 받아 1913년 초 저작인 『神代史의 새로운 연구』에서 처음으로 神代史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쓰다는 『神代史의 새로운 연구』의 서문에서 “신대사는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고사기』·『일본서기』觀을 표명한 시라토리의 강연을 들은 날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상세한 텍스트 분석에 따라 『고사기』·『일본서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역설하였다.¹⁷⁾ 이 책은 일본제국의 신성불가침의 신화였던 『고사기』·『일본서기』에 대해 냉정한 분석을 가해 『고사기』·『일본서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점을 입증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1919년 출판된 그의 『古事記 및 日本書紀의 新研究』는 6장으로 구성되어, 『고사기』·『일본서기』 神話を 분석하고 있다. 1장에서 3장은 「신라 정벌 이야기」, 「구마소 정벌 이야기」, 「東國 및 蝦夷에 관한 이야기」 등 『고사기』·『일본서기』에 보이는 이민족 접촉에 관한 기록에 대한 총괄적인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이를 통해 그는 日鮮同祖論과 천황의 조선계 혈통 유입설을 부정하였다.

쓰다 자신은 고대인이 쓴 아름다운 신화를 ‘지나 합리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古事記 및 日本書紀의 新研究』의 결론에서 자신의 근본사상을 “『고사기』·『일본서기』에 담긴 上代の 이야기

16) 小雄英二, 1995, 앞의 책, 278~279쪽.

17) 오구마 에이지 지음, 조현설 옮김, 2003, 앞의 책, 359~362쪽.

18) 津田左右吉, 1966b, 『津田左右吉全集』 別卷 第1, 17·287~288쪽.

는 역사와는 무관한 한 편의 詩다. 그리고 詩는 역사보다도 오히려 국민의 내적 생활을 잘 말한다”고 요약하였다.¹⁹⁾ 그리고 쓰다는 일본 민족의 기원과 『고사기』·『일본서기』의 성립은 동시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것은 건국신화와 일본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던 당대의 상식의 맹점을 찌른 발상이었다. 이 점이 바로 시라토리를 이은 쓰다 학설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쓰다가 『일본서기』를 조작된 역사서로 간주했다는 점에서는 천황의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쓰다는 그의 저서인 『神代史의 새로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A. 황실과 여러 민족, 즉 국민은 동일부모에서 생긴 동포이며 황실은 그 동포의 종가이기 때문에 황실과 국민은 본래 일체이며 멀리 떨어진 대립관계가 아니다. 양자는 뼈와 살처럼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래 끊을 수 없는 관계,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이며 그러므로 萬世一系이다.

일본 신대사를 ‘가공의 이야기’로 해석한 목적은 후대의 연구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천황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천황의 권위를 보존하는 데 있었던 것 같으며 단일민족론 위에 천황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²⁰⁾ 쓰다의 단일민족론은 천황제 옹호론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그의 연구는 천황제와 친연성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1946년 잡지 『世界』의 4월호에 다음과 같이 천황제를 옹호하는 ‘건국의 사정과 만세일계의 사상[建國の事情と萬世一系]’이라는²¹⁾ 글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다.

B.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모든 것을 主宰하는 현대에 있어서 皇室은

19) 津田左右吉, 1966b, 위의 책, 499쪽.

20) 關根英行, 2007, 앞의 글, 94쪽.

21) 津田左右吉, 1963a, 『津田左右吉全集』第1卷, 岩波書店, 123쪽.

국민의 황실이며, 천황은 ‘우리의 천황’이다. ‘우리의 천황’은 우리
가 사랑해야 한다. 국민의 황실은 국민이 그것을 품어야 한다.

쓰다는 이 논문에서 황실은 일본 민족의 내부에서 일어나서 이 민족을 정치적으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외부에서 민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 통일의 방법은 대개 평화적이었다는 점, 천황은 예부터 그 자신이 정치의 국면을 담당할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이카 개신 후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황실의 지위는 직접 일반 민중을 대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 황실은 언제나 時勢의 변화에 순응하여 그 방법을 변화해 왔다는 점, 정치상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권위는 스스로 갖고 있었다는 점, 황실을 사랑하는 점에서 민주정치의 정신이 철저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²²⁾

일본 사상사, 중국 사상사의 석학인데다가 戰時 중 필화사건으로 국가 권력의 탄압을 받은 경력을 가진 쓰다가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쓰다의 사상이 전후에 갑자기 바뀌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의 일본 神代史 해석이나 天皇制에 대한 인식은 이미 그의 단일민족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戰後의 이러한 변신이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쓰다가 시라토리의 추종자로서, 그의 학설을 단지 계승 발전시킨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쓰다의 중국관과 일본 민족관은 시라토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라토리의 동양사관은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의 투쟁이라는 견해로 일관되어 있다. 시라토리는 통구스나 몽골인 등의 북방민족은 문화적으로는 열등하지만, 무력은 출중해서 항상 남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남방민족을 대표하는 중국인은 ‘전쟁은 하수’지만, ‘평화를 좋아하고 어디까지나 문화를 존중하는 인종’이다. 그리고 일본 민족은 이 양자의 장점을 취하여 文武에 모두 뛰어난 우수한 민족이라고 보았다.²³⁾ 시라토리는 “일본 문명 진보의 특색은 외부의 장점을 취하여 본래의 것

22) 芳賀登, 1974, 앞의 책, 164쪽.

23) 津田左右吉, 1964a, 『津田左右吉全集』 第9卷, 211~212쪽.

과 동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메이지시대까지는 동양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서양 문명을 흡수하고 동화시켜서 ‘동서 문명의 접촉지역’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가체제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성은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였다.²⁴⁾

그러나 쓰다는 『神代史의 새로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중국을 묘사하고 있다.

- C. 이것은 저 천자와 인민을 천지와 같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나의 사상과는 전혀 취지가 다르다. 제왕의 권력의 상징을 하늘이라고 하고, 제왕이 하늘의 대리자로서 지상의 인민에게 군림한다고 하는 것은 천자와 민중을 본래부터 상하의 상대적 지위,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치자와 피치자라고 하는 관계로 외부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중은 언제라도 천자와 민중을 잇고 있는 끈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혁명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지나인의 정치사상은 지극히 민주적인 것으로 보이나, 제왕의 권력은 지극히 전제적인 것이다. 하늘이라는 말이 이미 전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대사의 정치사상은 그것과 전혀 달라서……²⁵⁾

쓰다는 중국을 민중과 통치자가 분리된 전제사회의 대표적 사례로 보았다. 그에 반해서 일본은 천황과 민중이 단일민족이고 一體이기 때문에, 권력을 통해 지배할 필요가 없고 그런 관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쓰다의 동양부정론은 철저한 중국 혐오와 일본의 독자성 주장으로부터 발현된 것이었다.

또한 시라토리는 일본 민족은 문무에 뛰어나고 싸움에 능숙하고 용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쓰다는 일본 민족은 전쟁이나 대외교섭의 경험이 없는 평화

24) 津田左右吉, 1964a, 위의 책, 180~188쪽.

25) 津田左右吉, 1966b, 앞의 책, 123쪽.

로운 농업민이어서 공공활동이나 국민적 서사시 등 정치적·문화적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²⁶⁾ 그리고 천황의 통치는 권력 지배가 아니라, 국민과의 자연스러운 情의 결합이라고²⁷⁾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쓰다의 일본 신대사 해석은 실증주의적 연구 태도에서 도출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실증주의적 연구의 사학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쓰다는 실증주의적인 연구를 강조했고, 이러한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본다면, 쓰다의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그의 단일민족론은 대륙과의 배타적인 관계를 선명히 함으로써 고대 일본인의 한반도 渡來說 등을 부정하고, 일본 중심의 배타적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는 씨앗을 잉태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쓰다의 『고사기』·『일본서기』 연구는 이후 일본 고대사의 ‘당연한’ 해석으로 전면 수용되어 갔다.

IV. 混合民族說에 대한 單一民族說의 주창

한일병합 이전에 제창된 고대 일본인의 한반도 渡來說은 학술로서의 범주를 넘어서 ‘日鮮同祖論’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되면서 한반도 침략에 가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²⁸⁾ 그럼으로써 戰後에 渡來說은 침략이데올로기에 근거를 제공한 혐오스러운 학설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실증주의에 위반되는 비과학적인 학설로 배척당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배척의 근거를 제공하여 전후 일본 고대사 연구의 초석을 만든 연구자가 쓰다이고,²⁹⁾ 고대 일본인

26) 津田左右吉, 1966b, 앞의 책, 144~145쪽.

27) 津田左右吉, 1966b, 앞의 책, 124쪽.

28) 上田正昭, 1973, 「古代史學と朝鮮」, 『世界』 330.

29) 關根英行, 2007, 앞의 글, 78쪽.

의 한반도 渡來說을 비판한 근거가 바로 쓰다의 단일민족설이다.³⁰⁾

쓰다가 연구활동을 시작했을 당시의 황국사관에는 일본 민족이 순수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단일민족론을 지지하는 입장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混合民族論’을 지지하는 입장이 있었다고 분류할 수 있다. ‘日鮮同祖論’의 근거가 되었던 것은 ‘混合民族論’이다. 이것은 고대 일본열도에는 한국·중국·말레이·南洋 등의 여러 종족이 도래했고, 그들의 혼합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混合民族論’을 따르면 일본 민족은 아시아의 연합을 체현하고 있는 민족이므로, 주변 아시아 여러 지역을 일본에 병합하여 그 주민을 일본 민족으로 동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³¹⁾

혼합민족론에서 파생된 것이 日鮮同祖論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병합 후에 일본이 한국 지배의 정책으로 삼은 同化政策·內地延長政策에는 딱 맞는 사고였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의 말살, 한국인의 日本人化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알맞는 논의였다. 日鮮同祖論의 원류는 江戸時代의 國學이었다. 하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다다른다고 할 수 있다.³²⁾ 쓰다는 그의 스승인 시라토리야 함께 전형적인 단일민족론자였다.³³⁾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단일민족론자였던 것은 아닌 것 같다.

D. 일본 민족은 有史의 초기에 있어서는 현재의 일본열도의 서쪽 반을 점령하여 瀨戶荒海[세토아라카이]에서 일본해 및 규슈의 서남 해상 그리고 현재의 東海道[도카이도] 연안까지 팽창해서 살았다. 그리고 出雲[이즈모] 지방이 한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국토양도 설화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규슈는 壱岐[이키], 대마도보다 남쪽 제도와의 해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왕래가 매우 빈번했다. 육지에는 여러 곳에 인종이 다른 원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일

30) 오구마 에이지 지음, 조현설 옮김, 2003, 앞의 책.

31) “단일민족신화는 단일하고 순수한 기원을 지닌 공통의 문화와 혈통을 가진 일본 민족만으로 일본국은 구성되어 왔으며, 지금도 구성되어 있다는 관념이다”. 오구마 에이지 지음, 조현설 옮김, 2003, 앞의 책, 27쪽.

32) 旗田巍 著, 李基東 譯, 1983,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38쪽.

33) 小雄英二, 1995, 앞의 책.

본의 동쪽 일대에는 蝦夷[에조] 민족이 널리 살고 있었다.³⁴⁾

E. 사실 일본의 국민은 인종이 같고 언어가 같고 풍습과 습관이 같으며, 또한 閥歴도 같은 동일민족이기 때문이며, 황실과 일반 씨족과의 사이가 친애의 情으로 연결되고 있다.³⁵⁾

사료 D는 쓰다가 1902년 쓴 교과서의 내용으로, 여기서 그는 일본인을 여러 민족의 복합체로 인식하고 있다. 쓰다는 일본 민족의 형성을 계기로 혈연보다는 이민족을 동화하는 힘을 강조하는 혼합민족론자였음을 알 수 있다.³⁶⁾ 그러나 사료 E의 1913년 『神代史의 새로운 연구』를 보면, 일본 민족의 기원에 관한 견해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결론에서, 그는 고대에 천황가와 신민이 혈족이라는 사상이 생겨났던 이유에 대해 “사실 우리 민족은 인종도 같고 언어도 같고 풍속이나 생활습관도 같고 또 이력도 같은 것은 동일민족이기 때문이고, 황실과 일반 씨족의 관계가 親愛의 情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1902년에서 1913년 사이에 쓰다의 인식이 混合民族論에서 단일민족론으로 변한 이유는 어떤 계기 때문일까? 이 시기에 발생한 큰 사건으로는 1905년의 러일전쟁과 1910년의 한일병합을 들 수 있다. 식민지제국으로 팽창해 나가던 일본은 이민족을 포섭함으로써 식민지제국 내에서 민족 간의 갈등이 생겼고, 다른 한편에서는 체제를 둘러싼 간극이 현재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태는 국민정체성이나 천황제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쓰다의 역사관도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³⁷⁾

또한 러일전쟁 이후 일본제국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아시아주의’에서 ‘대아시아주의’로 변환하였다.³⁸⁾ ‘대아시아주의’에 보이는 배타적인 속성을 쓰다

34) 津田左右吉, 1965a, 『津田左右吉全集』 第23卷(論叢 二), 岩波書店, 557쪽.

35) 津田左右吉, 1966b, 앞의 책, 124쪽.

36) 關根英行, 2007, 앞의 글, 89쪽.

37) 米谷匡史, 2002, 「津田左右吉·和辻哲郎の天皇論」, 網野善彦 編, 『人類社會の中の天皇と王權』, 岩波書店, 32쪽.

의 단일민족론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대아시아주의’의 배타적 속성은 “근대 천황제는 집권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직접통치를 한다는 원칙”이라는 모순된 명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써 공동의 타자를 만들어 그것을 배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³⁹⁾ 쓰다가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것은 한국이나 중국 자체가 아니라, 일본의 특수성이었다는⁴⁰⁾ 점에서 쓰다의 단일민족론은 ‘대아시아주의’에 포함되는 배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¹⁾ 이와 같이 쓰다의 단일민족론의 형성 계기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쓰다는 1919년에 출판된 『古事記 및 日本書紀의 新研究』에서도 『고사기』·『일본서기』의 이민족에 관한 이야기들을 꾸며진 이야기로 해석함으로써 혼합민족론의 논거를 해체시켰다. 그는 이 책의 결론에서 “『고사기』·『일본서기』의 이야기 안에 국가 내부의 민족적 경쟁이라고 하는 사상의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은 …… 국가가 예로부터 하나의 민족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이 쓰다는 단일민족론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同化政策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F. 한 민족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 동화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문화, 또는 정치적 세력에 있어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두 민족이 잡거도 하고 잡혼도 해서 열등민족이 우등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일상생활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지극히 장구한 세월을 필요로 한다. …… 민족의 형태로 지방세력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이 점을 통해 보되

38) 小路田泰直, 1997, 『日本史の思想—アジア主義と日本主義の相克』, 柏書房, 160~172쪽.

39) 小路田泰直, 1997, 위의 책, 167쪽.

40) 旗田巍, 1969,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201쪽.

41) 關根英行, 2007, 앞의 글, 92쪽.

라도 불합리하다.⁴²⁾

사료 F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민족의 동화는 압도적인 정치력의 차이에 의한 지배하에서만 가능하므로 평온한 동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족이 있다면 대립의 역사가 남을 뿐이다. 쓰다는 이민족과의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대립과 권력에 의한 지배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쓰다가 조선인과 중국인을 경멸적인 호칭으로 일기에 적었던 것은⁴³⁾ 유명한 일인데, 조선인과 중국인은 권력으로 싸워 지배할 수밖에 없는 강적이지 동정과 동화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쓰다에게 있어서 일본이 다민족제국으로 지속되는 한 평화적·무권력적인 단일민족국가의 이상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쓰다는 조선과 일본이 깊은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찬동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단일민족론의 입장에서 日鮮同祖論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日鮮同祖論을 인정하지 않았던 쓰다도 ‘한일병합’에 대해서는 “조선의 병합은 …… 현대에 와서 비로소 필요해진 문제이다. 그러므로 옛날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⁴⁴⁾ 단언하였다.

V. 한·일 민족의 계통 부정과 한국 고대사 인식

여기서는 앞서 검토한 쓰다의 단일민족론을 근거로 한·일 민족의 계통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말은 일본에서 근대적 역사학의 초창

42) 津田左右吉, 1966b, 앞의 책, 497쪽.

43) 津田左右吉, 1965b, 『津田左右吉全集』 第26卷, 岩波書店, 480~482쪽.

44) 津田左右吉, 1965c, 『津田左右吉全集』 第27卷, 岩波書店, 195쪽.

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일본 학자들은 크게 두 방면에서 한국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일본사 연구를 위해 한국사를 탐구하려고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륙사 혹은 동양사의 일부로써 한국사를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⁴⁵⁾ 쓰다는 동양사에서 일본사를 나누고, 동양사의 일부로써 한국사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쓰다가 목표로 한 역사관을 수립하는 데 日鮮司祖論者들이 주장하는 일본 민족의 한반도 도래설은 큰 장애물이었을 것이다. 그가 제시한 일련의 일본 신대사와 고대사 해석방법은 일본 민족을 단일민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보다는 일본 민족의 한반도 도래설을 차단하기 위한 방도에서 나왔다고 본 견해는⁴⁶⁾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단일민족론자로 평가받아 온 쓰다의 역사학은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를 부정하는 데 강력하게 기능해 왔다. 쓰다는 고대 일본사 속에서 단일민족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를 부정하거나 가능한 한 과소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쓰다가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에 대해 부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G. 일본 민족은 대륙에 있는 支那民族과도 인종이 다르며, 조선·만주·몽골 방면의 여러 민족과도 다르다.⁴⁷⁾
- H. 한반도인은 이민족인 데다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일본보다 강하고 일본과 전혀 다른 역사에 의해 다른 민족성이 배양되어 왔다.⁴⁸⁾
- I. 4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기간에 한반도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대륙의 민족 割據의 형세로는 그 어느 민족도 바다를 건너서 이 나라로 진격해 온 적이 없었다.⁴⁹⁾

45) 李萬烈, 1981, 『韓國近代 歷史學의 理解』, 文學과知性社, 295쪽.

46) 關根英行, 2007, 앞의 글, 103쪽.

47) 津田左右吉, 1963b, 『津田左右吉全集』 第3卷(日本上代史の研究), 岩波書店, 441쪽.

48) 津田左右吉, 1963b, 위의 책, 416쪽.

49) 津田左右吉, 1963b, 앞의 책, 452쪽.

사료 G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쓰다는 “일본 민족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중국·만주·몽골의 여러 민족과도 다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쓰다만큼 일본에 전래된 중국 문화를 경시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다.⁵⁰⁾ 그는 일본은 중국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중국 문명의 수입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인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⁵¹⁾ 또한 사료 H·I와 같이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민족이었으며, 고대의 민족이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⁵²⁾

이와 같이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쓰다가 착안한 것은 당시 日鮮同祖論者들이 자주 이용하던 일본 신대사의 신화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 예로 천손강림 신화를 살펴보면, 이 설화는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아시하라 葦原中國[나카쓰쿠니]의 통치를 위해 高天原[다카마가하라]로 강림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쓰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J. 신대 설화를 역사적 사실이 비유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다카마가하라는 천상 세계가 아니라 지상의 어떤 땅이며…… ‘천손강림’은 황실의 조상이 해외에서 이 국토에 거주한 민족과 다른 민족이 이 국토에 와서 토착민족을 정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설화를 일일이 합리적인 사실로 해석하는 토대가 된다. 이것은 학문적인 방법이 아니다.⁵³⁾

종래 많은 학자는 천손강림 신화를 고대 일본 지배자가 일본열도의 외부에서 침입한 정복자임을 주장하는 데 근거로 삼았다.⁵⁴⁾ 그러나 쓰다는 천손강림

50) 津田左右吉, 1965b, 앞의 책, 480~482쪽.

51) 芳賀登, 1974, 앞의 책, 166쪽.

52) 關根英行, 2007, 앞의 글, 95쪽.

53) 津田左右吉, 1966c, 『津田左右吉全集』第28卷(日本·シナ思想の研究), 岩波書店, 128쪽.

54) 천손강림 신화에서 말하는 ‘천신의 자손의 인종’이란 한반도에서 유래한 인종으로서 삼한의 지배층과 같은 종족이라고 한다. 따라서 후대에 이들을 ‘귀화인’이나 ‘도

신화가 비합리적인 설화이며, 거기에서 합리적인 사실을 찾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쓰다는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일본 민족과 황실을 구별했다. 다음의 글들은 이를 잘 말해준다.

- K-1. 神代·人代에 관한 『古史記』나 『日本書記』의 기재는 황실의 기원과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며, 일본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⁵⁵⁾
2. 『日本書記』가 설명하는 것은 일본 황실 및 국가의 기원이며, 일본 민족의 유래는 아니다.⁵⁶⁾
3.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당시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원을 밝히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았다.⁵⁷⁾

쓰다가 민족의 역사와 국가의 역사를 구별하고 국민의 문화와 권력자의 문화를 구별한 것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를 ‘국민사관의 시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혼합민족론에서 일본 민족은 천황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일본 민족의 일부이면서 천황가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본 민족은 천손강림을 통해 2,600년 전에 천황가와 함께 다카마가하라에서 도래했다고 보았고, 천황가에 맞서는 異族은 모두 이민족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혼합민족론의 발상을 타파하여 일본 민족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보다 오래되었고, 『고사기』·『일본서기』에 보이는 異族은 이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쓰다의 단일민족론이라고 할 수 있다. 쓰다는 일본 神代史를 부정함으로써 국가의 역사가 2,600년밖에 되지 않게 되더라도 일본 민족은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일본열도에 살고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민족의 역

래인’이라는 용어로 불렀던 것이다. 關根英行, 2006, 「한일합방 전에 제창된 일본 인종의 한반도 도래설」, 『日本文化研究』 제19집, 174쪽.

55) 津田左右吉, 1965a, 앞의 책, 495쪽.

56) 津田左右吉, 1963a, 앞의 책, 314쪽.

57) 津田左右吉, 1963a, 앞의 책, 314쪽.

사를 태고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복 신화들을 국가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가공의 이야기’로 처리함으로써 일본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주장을 보강하여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를 부정하였던 것이다.⁵⁸⁾

일본의 한국사 연구는 메이지 2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그 개척자는 나카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였다. 그리고 조금 늦게 메이지 말년부터 연구에 참가한 학자가 쓰다 소키치·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1878~1952]·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日鮮同祖論에 비판적이었다.⁵⁹⁾

그러나 일본의 팽창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변화되고 재정립되었다. 일본이 처음 조선을 침략하려 할 때에는 ‘조선학’ 또는 ‘조선사론’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이 끝난 직후인 1905년부터는⁶⁰⁾ ‘滿韓經營’ 또는 ‘滿鮮經營’이 일제의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자 ‘滿鮮史’가 등장하게 되었다.⁶¹⁾

쓰다는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고사기』·『일본서기』에 대한 연구에 큰 주안점을 두면서, 이와 관련된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三國史記』에 대한 비판, 백제인의 집단이주, 신라·백제·고구려·韓地와의 관계·임나문제·筑紫와 한국 사이의 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쓰다의 한국 고대사 연구는 『삼국사기』에 대한 비판과 불신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쓰다는 두 번씩이나 별고로 『삼국사기』는 전설·허구·조작의 기록이라고 주장하였다.⁶²⁾

L-1. 『三國史記』의 上代에 관한 記載은 역사적 사실로써 믿을 수 없는

58) 小雄英二, 1995, 앞의 책, 289~290쪽.

59) 旗田巍 著, 李基東 譯, 1983, 앞의 책, 41쪽.

60) 박찬홍, 2005,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61) 旗田巍, 1964, 「『滿鮮史』의 虛像」, 『鈴木俊教授還曆記念 東洋史論叢』; 旗田巍 著, 李基東 譯, 1983, 앞의 책, 138~154쪽.

62) 津田左右吉, 1921,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8; 津田左右吉, 1924, 「『三國史記』の新羅本紀について」,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研究』.

- 것은 물론이며, 특히 「新羅本紀」가 비교적 後代까지 허구의 記事로 차 있는 것은 아무도 異議를 제기치 않을 것이다.⁶³⁾
2. 『三國史記』의 上代 부분은 역사로써 믿을 수 없으며, 「百濟記」에 서는 近肖古王 때부터의 記載은 거의 진실로 보인다.⁶⁴⁾
 3. 『日本書紀』에 보이는 百濟王의 이름이나 그 계보와 卽位·薨去의 紀年 등은 모두 『三國史記』보다 옳다.⁶⁵⁾

사료 L에서 보이는 것처럼, 쓰다는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을 造作·傳說로 생각하여 「백제본기」 초기기록을 진실로 보지 않았으며, 「신라본기」에 대해서는 後代까지도 허구로 여겼다. 『삼국사기』보다 백제왕계의 계보는 『일본서기』의 것이 더 옳다는 주장을 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서기』에 보이는 백제에 관한 기사는 일본 국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보았다. 쓰다는 일본 고대사를 고찰할 때마다 ‘韓國’이나 ‘三國’·‘三韓’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半島’ 또는 ‘韓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한국 고대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⁶⁶⁾

그러나 『일본서기』에 보이는 任那 기사는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쓰다는 임나일본부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任那 기사 모두가 사실 또는 그 모두가 조작이라고 하지 않고, 任那 기사 가운데서도 일부는 사실이고, 또 일부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加羅(任那) 또는 백제는 일본의 보호국이며 屬國이었다”라고 해서,⁶⁷⁾ 任那는 물론 백제도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加羅는 百濟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屬國이었고, 또한 任那日本府의 예속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任那는 300년 동안 일본인의 樂

63) 津田左右吉, 1964b, 『津田左右吉全集』 第11卷 (滿鮮地理歷史研究研究 1), 127쪽.

64) 津田左右吉, 1966a, 앞의 책, 209쪽.

65) 津田左右吉, 1963c, 『津田左右吉全集』 第2卷(日本古典の研究 下), 岩波書店, 591쪽.

66) 崔在錫, 1990, 앞의 책, 68쪽.

67) 津田左右吉, 1966a, 앞의 책, 195쪽.

浪·帶方 내왕의 停泊地로서 역할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고사기』·『일본서기』神話 연구를 통해 고대의 반도 지배는 속설보다 훨씬 소규모이고 더구나 거기에 관계된 것은 정부권력뿐이었고, 국민 차원의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았다.⁶⁸⁾

이러한 쓰다의 『삼국사기』에 대한 부정과 한·일 관계사 인식은 결국 그의 일본 神代史 해석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쓰다의 한·일 관계사 인식이 그가 일본 神代史를 해석한 것과 같이 실증주의적인 역사 연구에 따른 결과였다고 한다면, 그의 한국 고대사 연구는 식민주의 사학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쓰다의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론에 앞서서 그가 일본 민족의 단일민족론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고사기』·『일본서기』神話의 비판은 물론 한국 고대사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은 그의 연구의 당연한 手順이었다고 생각된다.

Ⅵ. 맺음말

이 글은 한일병합을 전후로 한 일본 역사가들의 인식을 살피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학계의 대표적 인물인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에 주목해 보았다. 쓰다는 일본사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도 뚜렷한 자취를 남긴 학자였기 때문이다. 한일병합을 전후로 한 쓰다 소키치의 역사 연구를 통해 그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나아가 그 당시 일본 사상계의 흐름을 엿볼 수 있었다.

쓰다의 학문적 업적은 문헌고증학적 연구, 일본 고전의 비판적 연구, 국민 사상사 연구, 중국 고대 사상사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

68) 津田左右吉, 1966a, 앞의 책, 145쪽.

는 역사학을 중심으로 그의 일본 고전의 비판적 연구와 이를 통한 한·일 민족 관계사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쓰다 역사학의 특징은 당시 새로이 유행하고 있었던 민속학과 유물사관적 역사연구 방법론을 강하게 비판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의 상대사 연구의 출발 점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대한 철저한 사료 비판이었다. 그러나 쓰다가 『고사기』·『일본서기』 神話を 분석하면서 그 결과로써 단일민족론을 강조하게 되었는지, 단일민족론을 주창하기 위해 『고사기』·『일본서기』 분석을 통해 일본 신대사에 매진했는지는 선뜻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쓰다가 구상하고 있었던 동아시아상 형성에 단일민족설이 자리잡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혼합민족론의 발상을 타파하여 일본 민족의 역사는 국가의 역사보다 오래되었고, 『고사기』·『일본서기』에 보이는 異族은 이 민족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 쓰다의 단일민족론이다. 쓰다는 평화적·무권력적인 단일민족국가를 理想으로 삼고 있었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쓰다의 사상은 1905년의 러일전쟁과 1910년의 한일병합이라는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었다. 쓰다는 『고사기』·『일본서기』 神話의 분석을 통해 日鮮同祖論과 천황의 조선계 혈통 유입설을 부정하였다. 쓰다는 일본 민족의 기원과 『고사기』·『일본서기』의 성립은 동시적이지 아니라고 보았다. 이것은 건국신화와 일본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던 당대 상식의 맹점을 찌른 발상이었고, 이 점이 시라토리(白鳥)를 이은 쓰다 학설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쓰다 史學에 보이는 국가와 민족의 준별은 일본 민족이 오래된 단일민족임을 주장하기 위한 해석으로 보인다. 『고사기』나 『일본서기』를 일본 민족의 역사로 해석할 경우 일본 민족의 단일성이 부정됨으로써 ‘도래설’이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쓰다는 국가의 역사에 한정시켜서 일본 신대사를 ‘가공의 이야기’로 규정하면서, ‘도래설’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한일병합 이전에 제창된 고대 일본인의 한반도 渡來說은 학술로서의 범주를 넘어서 ‘日鮮同祖論’이라는 정치이데올로기로 활용됨으로써 한반도 침략

에 가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으로써 戰後의 渡來說은 침략이데올로기에 근거를 제공한 혐오스러운 학설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실증주의에 위반되는 비과학적인 학설로 배척당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배척의 근거를 제공하여 전후 일본 고대사 연구의 초석을 만든 연구자가 쓰다이고, 고대 일본인의 한반도 渡來說을 비판한 근거가 바로 쓰다의 단일민족설이었던 것이다.

쓰다의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그의 단일민족론은 대륙과의 배타적인 관계를 선명히 함으로써 고대 일본인의 한반도 渡來說 등을 부정하였고, 일본 중심의 배타적인 역사관을 형성할 수 있는 씨앗을 잉태하게 하였다. 쓰다는 일본 민족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중국·만주·몽골의 여러 민족과 다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완전히 다른 민족이었으며, 고대의 민족 이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쓰다의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다면,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부정 또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일본 민족의 單一民族論을 완성하려고 했다면, 『고사기』·『일본서기』 神話의 비판은 물론 한국 고대사에 대한 부정적 해석 역시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의 의도를 떠나서,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한 부정과 한국 고대사의 전반에 대한 그의 해석은 植民史學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일병합기 일본 사학자들의 역사 연구는 그 당시의 정치논리에 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쓰다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쓰다가 이룩한 연구 성과의 실체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식민사학 비판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사료〉

- 津田左右吉, 1913, 『朝鮮歴史地理』 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津田左右吉, 1921, 「百濟に關する日本書紀の記載」,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8.
 津田左右吉, 1922, 「三國史記高句麗紀の批判」,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9.
 津田左右吉, 1924, 『神大史の研究』, 岩波書店.
 津田左右吉, 1924,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津田左右吉, 1930, 『日本上代史研究』, 岩波書店.
 津田左右吉, 1933, 『上代日本の社會及び思想』, 岩波書店.
 津田左右吉, 1937, 『東洋思想研究』, 岩波書店.
 津田左右吉, 1966, 『津田左右吉全集』(全28卷), 岩波書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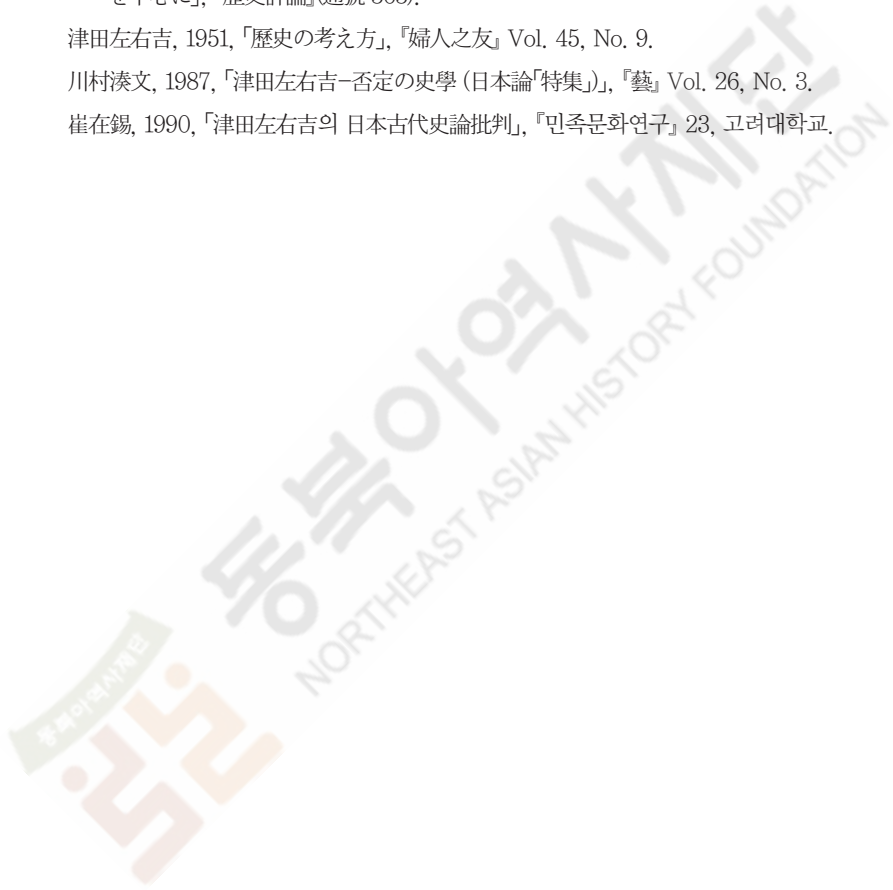
〈단행본〉

- 家永三朗, 1957, 『日本の近代史學』, 日本評論新社.
 家永三朗, 1972, 『津田左右吉の思想史的研究』, 岩波書店.
 고야스 노부쿠니 지음, 이승연 옮김, 2005,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역사비평사.
 旗田巍 著, 李基東 譯, 1983,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北山茂夫, 1963, 「日本近代史學の發展」, 『日本歴史』別卷1, 岩波講座
 上田正昭編, 1974, 『人と思想 津田左右吉』, 三一書房.
 石母田正, 1952, 『歴史と民族の發見』, 東京大學出版會.
 스테판 다나가 지음, 박영재 · 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永原慶二, 2003, 『20世紀日本の歴史學』, 吉川弘文館.
 오구마 에이지 지음, 조현철 옮김, 2003,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소명출판.
 羽仁五郎, 1967, 「昭和四年の經濟」, 『歴史教育批判』, 『羽仁五郎歴史著作集』 1, 青木書店.
 遠山茂樹, 1968, 『戦後の歴史學と歴史意識』, 岩波書店.
 伊豆公夫, 1947, 『日本史學史』, 月曜書房.
 李萬烈, 1981, 『韓國近代 歴史學의 理解』, 文學과학性社.
 李佑成 · 姜萬吉, 1976, 『韓國의 歴史認識』, 창작과비평사.
 崔在錫, 1987, 『韓國古代社會史方法論』, 一志社.

〈논문〉

- 家永三郎, 1962, 「津田左右吉の學問と思想」, 『思想』(通號 452).
- 今井修, 1993, 「津田左右吉と‘東洋史會’」, 『早稻田大學史記要』 25.
- 南根祐, 1996, 「손진태학의 기초연구」, 『韓國民俗學』 28.
- 藤間生大, 1962, 「津田さんの民族主義」, 『歷史學研究』(通號 262).
- 木村時夫, 1965, 「津田左右吉と批判史學」, 『中央公論』 Vol. 80, No. 10.
- 木村時夫, 1973, 「津田左右吉博士の歷史觀」, 『史觀』 86・87.
- 박찬홍, 2005,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 山縣三千雄, 1966, 「日本人の思想(2)-津田左右吉の精神と内容」, 『人文論集』(通號 4).
-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 2006, 「한일합방 전에 제창된 일본인종의 한반도 도래설」, 『일본문화연구』 19, 동아시아일본학회.
-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 2006, 「고대 한일관계 연구에 있어서의 일선동조론의 후유증」, 『일본근대학연구』 12, 한국일본근대학회.
-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 2007, 「‘쓰다 사학(津田史學)’의 신대사(神代史) 해석과 한·일 민족의 계통관계」, 『日本思想』 第12, 韓國日本思想史學會 등.
- 小關素明, 1986, 「津田左右吉における天皇」, 『立命館文學』(通號 496~498).
- 小倉芳彦, 1972, 「津田左右吉と中國(歴史と歴史家(特集))」, 『歷史學研究』(通號 391).
- 松島榮一, 1962, 「津田左右吉博士の業績-その生涯と學問のあらまし」, 『日本歴史』(通號 163).
- 時野谷滋, 1984, 「津田左右吉氏の古代帝系譜考察について」, 『大倉山論集』(通號 16).
- 岩崎信夫, 1996, 「津田左右吉の中國・アジア觀について-公的國民論の成立事情の視点から」, 『史潮』 新39.
- 栗田直躬, 1994, 「津田先生の學問の意味(津田左右吉博士生誕120年記念講演)」, 『東洋の思想と宗教』 11.
- 赤坂憲雄, 1989, 「津田左右吉,または1946年の天皇(昭和史をどう見るか「主題」)」, 『思想の科學』(通號 114).
- 井上清, 1948, 「津田左右吉博士のさいきんのしごとについて」, 『歷史學研究』(通號 136).
- 井上清, 1949, 「市民的學者の悲劇-津田左右吉論」, 『世界評論』 Vol. 4, No. 1.
- 早川萬年, 2005, 「津田左右吉の‘史料批判’について(特集近代の歴史思想)」, 『季刊日本思想史』.

- 佐藤堅司, 1952, 「津田史學における中道的要素-千葉中學校校友會雜誌の創刊と津田左右吉博士」, 『日本歴史』(通號 55).
- 佐藤堅司, 1955, 「津田史學の核心」, 『駒澤大學研究紀要』(通號 13).
- 直木孝次郎, 1980, 「日本古代史の研究と學問の自由-森鷗外・三宅米吉・津田左右吉を中心に」, 『歴史評論』(通號 363).
- 津田左右吉, 1951, 「歴史の考え方」, 『婦人之友』 Vol. 45, No. 9.
- 川村湊文, 1987, 「津田左右吉-否定の史學(日本論「特集」)」, 『藝』 Vol. 26, No. 3.
- 崔在錫, 1990, 「津田左右吉의 日本古代史論批判」, 『민족문화연구』 23, 고려대학교.



[ABSTRACT]

Tsuda Shoukichi's uni-race theory and his perception of
Korea-Japan relationship

Park, Hyunsook

Tsuda Shoukichi's studies on Japanese history has been called "Tsuda history," "Tsuda's history of thought," taking the leading figure in studying Japanese history. His academic work covered various fields of historical studies such as historiographical study, critical study of Japanese classics, historical study of Japanese national thought, study of the history of ancient Chinese thought, etc.. This study examines his critical studies on Japanese classics and the problems of perception in Korea-Japan relationship and of distorted view about ancient Korean history, which resulted from Tsuda's study.

The characteristic of "Tsuda history" was in his poignant criticism on the prevalent method of historical studies focusing on folklore and social development. His studies on comparative started from thorough critical investigations of *Kojiki* (古事記) and *Nihon Shoki* (日本書紀). He drew his picture of East Asia based on the uni-race theory, and it seems that he had an ideal of the peaceful uni-racial nation without power authorities.

His thought has been molded by the atmosphere of the times, i.e. the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in 1905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in 1910. Through the analysis of mythologies in *Kojiki* and *Nihon Shoki*, Tsuda refused the theories that Japan and

Korea had a common ancestor and that the Japanese emperor came from Korean blood. With these refusals, he offered the basis of studies on ancient Japanese history after the World War II, and it was his theory of the uni-race by which he refuted another theory that the ancient Japanese arrived from Korean peninsula. Tsuda's uni-racial nation theory, however, bore a seed that could grow into the exclusive historical view centering on Japan.

Thus, before mentioning Tsuda's historical positivism, it was a natural progress for completing the uni-racial nation theory that he tried to criticize the mythologies in *Kojiki* and *Nihon Shoki*, and to draw a distorted interpretation about ancient Korean history. His negation of early historical records in *Samguk Sagi* (三國史記) and his extensive distortion about ancient histories may not be free from the blame of colonialistic interpretation of history.

keywords

Tsuda Shoukichi, *Kojiki* (古事記), *Nihon Shoki* (日本書紀), *Samguk Sagi* (三國史記), uni-racial nation theory, colonialistic interpretation of history

근대 이후 일본의 '해양세력권'과 동아시아 해양 인식의 전개

김보한 |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I. 머리말

역사적으로 일본 또는 일본인에게 해양은 대륙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첫 관문이며 필수조건이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전근대 일본인에게 해양에 대해서 친숙감을 안겨 주었고, 19세기 말에 접어들어 해양지향성으로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지향성은 학술사적으로 대외확장과 외연확대를 전제로 한 일본 중심적 해양사론의 정립을 촉진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같은 시기 앨프레드 머헨이 제기한 '해양세력(Sea Power)'론¹⁾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19세기 말 일본이 대외팽창을 지향하던 시대적 욕구에 부응해서 해양

※ 투고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 1) 19세기 말 앨프레드 머헨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고 미국이 해양제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해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Alfred Mahan, 1890,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사 연구를 시도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였다. 그러나 구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의 학설이 지나치게 상식적이라든가, 학술사적으로 계승이 불가능한 이론이라는 등의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그의 평가는 1891년 「神道は祭天の古俗(신도는 제천의 옛 풍속)」²⁾이라는 논문으로 인해서 당시 天帝인 천황 숭배의 신도를 부정하는 ‘필화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를테면 구메가 「神道は祭天の古俗」에서 記紀에 대한 사료적 비판을 경시하고 안이하게 ‘천황은 인간이다’라는 입장에서 신화를 사실로 해석했다거나, 한편으로는 필화사건 이후에 그의 자유주의가 전투적 계몽성을 후퇴시켜서 세속과 동진 채 자신만의 자유를 지키려는 자세를 나타냈다³⁾고 비판하는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메에 대한 평가는 패전 이전에 존왕이라는 큰 사상적 흐름에서 ‘필화사건’을 매개로 反존왕의 중심인물로 평가하려는 경향에 기인한다.

한편 구메는 1989년에 발표한 논문 「日本幅員の沿革[일본 폭원의 연혁]」⁴⁾에서 일본 대외확장의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려고 시도한 인물이었다. 오히려 구메는 이 논문에서 조선·일본·북진[關越] 지역의 민족은 동류이며, 임나일본부와 관련해서 일본과 마주보고 있는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의 연합을 논하면서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해역을 이론적으로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그는 한일병합 직후 1911년 「海賊と關船[해적과 관선]」⁵⁾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일본 해적을 동아시아 해역의 주체자로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고대 말 이후 규슈 해적이 서해안을 점거한 호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동아시아 해양의 주인공을 일본 해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동아시아 제해권의 장악자= ‘일본 해적(왜구)’이라는 도식을 전제로 하고

2) 久米邦武, 1981, 「神道は祭天の古俗」, 『史學會雜誌』 23・24・25號.

3) 岩井忠熊, 1976, 「久米邦武」, 『日本の歴史學』, 日本評論社, 18쪽; 永原慶二, 2003, 「久米邦武(神道は祭天の古俗)」, 『20世紀日本の歴史家』, 吉川弘文館, 40쪽 참조.

4) 久米邦武, 1889, 「日本幅員の沿革」, 『史學會雜誌』 1・2・3.

5) 久米邦武, 1911, 「海賊と關船」, 日本歴史地理學會 編, 『日本海上史論』, 三省堂書店.

동아시아 해역을 일본 중심의 '해양세력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메의 해양이론은 다이쇼 초기 고토 히데호[後藤秀穗]의 연구로 이어진다. 고토는 13세기 이후 고려와 명에서 활동한 왜구를 구별하고,⁶⁾ 해외에서 웅비했던 왜구가 식민지 등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것은 도쿠가와막부의 쇄국정책이 원인이었다고 보는 견해를 제기하였다.⁷⁾ 따라서 고토의 이론은 일본 해적의 대외확장을 해양사 연구테마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메로부터 출발한 '해양세력권'의 논리는 19세기 말부터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고 나타나는 일본 해양사 이론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메의 해양세력권 이론은 전후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동아시아 무역권',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의 '동아시아 통교권', 무라이 쇼스케 [村井章介]의 '환중국해역', 최근에는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의 '문명의 해양사관' 등의 연구⁸⁾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구메의 '해양세력권' 논리는 19세기 말 일본의 대외팽창의 단초이며, 20세기 초 조선 침략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본사에서 동아시아 해역의 주체자로서 해적의 출현과 이후 왜구 연구로 계승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간접적인 대륙 침략의 정당화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6) 後藤秀穗, 1914, 「子が觀たる倭寇」, 『歴史地理』 23-5・6, 24-1・2.

7) 後藤秀穗, 1915, 「倭寇の説明するわが國民性の一角」, 『史學會雜誌』 26-1.

8)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交流圏」, 『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村井章介, 1988, 「中世日本列島の地域空間と國家」, 『アジアの中の中世日本』, 校倉書房; 川勝平太, 1997, 『文明の海洋史觀』, 中央公論新社.

II. 구메의 일본 민족론과 ‘해양세력권’ 설정

구메 구니타케는 1839년 규슈의 佐賀藩에서 아버지 구니사토[邦郷]의 3남으로 태어났다. 유년시절에 藩校 고도칸[弘道館]에 들어가 한학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던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를 알게 되어 평생 교우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서양의 算術을 배웠고, 1862년에 藩主 나베시마 나오마사[鍋島直正 = 鍋島閑叟]의 명을 받아 에도에 1년 유학을 다녀온 이후 고도칸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곧바로 번주에게 발탁되어 번정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는 1871년 한학자로서는 유일하게 이와쿠라[岩倉]사절단에 동참한 이후 太政官外史가 되었고, 1876년에는 사절단의 공식 보고서인 『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의⁹⁾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879년에는 슈시칸[修史館, 후에 內閣臨時修史局]의 편수관이 되어 『大日本編年史』의 편찬에 관여함으로써 역사학자로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888년 내각임시수사국이 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을 때, 문과대학의 교수가 되어 1890년에 신설된 국사학과에서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綱]와 호시노 히라시[星野圀] 등과 함께 강의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그의 학풍은 청의 고증학풍의 영향 위에 서양의 근대 실증주의 사학의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당시 미토[水戸]의 『大日本史』와 라이산 요[賴山陽]의 『日本外史』에서 보이는 대의명분적인 역사관을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고증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러한 구메의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神道家와 보수반동으로부터 통렬하게 비판당하게 된 배경은 1891년에 발표한 「神道は祭天の古俗(신도는 제천의 옛 풍속)」이라는 논문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이 『史學會雜誌』에 발표되자 곧바로 신도가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니었다. 구메에 대한 비판은 1892년 1월 다구치 우키치[田口卯吉]가 적극적으로 구메의 논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필자의 허락을 받고 역사잡지인 『史海』¹⁰⁾에 신도가를 자극하는 도전

9) 久米邦武 編, 1978, 『編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 博聞社.

적 언사와 함께 다시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 구메의 논문이 『史海』에 게재된 다음 달에 4명의 신도가가 구메를 찾아와서 논문의 내용을 비판하고 돌아갔고, 궁대성·내무성·문부성에서 구메 배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쿠치가 황급히 구메 변론을 『史海』에 실었지만, 배척운동의 대세는 『史學會雜誌』·『史海』의 발행 폐지와 구메와 시게노의 제국대학 교수 사직 그리고 『大日本編年史』의 편수사업 폐지 등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구메는 1892년 신도가로부터 통렬하게 비판받고 메이지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필화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러한 필화사건은 구메 비평에서 요식행위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즉, 초기의 일본 연구사에서 청의 고증학과 근대 실증사학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당시 천황지배를 정당화하는 신도를 의도적으로 비판하였다고 깎아 내렸다. 더 나아가 천황 중심의 일본사관을 위축시킨 인물로 폄하하는 데 자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메에 대한 폄하는 에도시대의 역사 연구의 마지막 세대라는 선입견과 구메의 연구 업적이 일본의 해외확장과 일본 민족 우월성의 가치부여를 등한시한데서 나온 저평가이다. 즉, 메이지시대부터 패전 이전까지 학문이 국가권력의 노예가 되고, 어용학으로 전락되었던 시대상황에서 내린 편견에 불과하다.

구메의 역사 인식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본의 국위를 실추시켰다고 매도할 수만은 없는 특이한 논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필화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 1889년 발표된 「日本幅員の沿革(일본 폭원의 연혁)」에서 일본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인식에서는 사뭇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도를 고찰해 보면 조선반도의 끝자락이 關越과 마주보고 있고, 우리나라 규슈(南島)는 福建에 잇대어 연결되어 있다. 각각 연안의 백성은 배를 타는 일에 능숙하다. 일본과 조선은 상고 시대부터 해상의 뱃길이 일찍부터 열려 있어서 서로 자유자재로 왕래했다. 생각해 보면 민월과 복건의 연안지방에도 또한 왕래가 있어 왔는데, 점차 서남으로 개척하

10) 久米邦武, 1892, 「神道は祭天の古俗」, 『史海』 第3巻.

여 식민을 삼고 광동에 이르게 된다. …… 일본과 중국인은 다른 別種인 것이 분명하지만, 關越嶺南의 인종은 본래 우리와 같은 종족인 것 같다. 이것은 인류학에서 한층 더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¹¹⁾

여기에서 구메는 일본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첫째는 조선과 일본은 왕래가 잦았고, 둘째는 일본과 북간지역이 같은 종족으로 혈통적으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주장하는 일본 민족론은 인류학적·고고학적 연구가 미진하고 과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던 메이지시대에 내려진 성급한 결론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고대부터 조선-일본-민월의 연관성을 유추하고 그 안에서 일본 중심적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 민족이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고, 그 주변으로 민족 확산이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그가 역시 메이지시대의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민족의 확산에 접근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구메는 일본 민족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양권역에서도 일본을 중심에 놓고 조선과 중국대륙을 하나의 바다로 연결하는 동질의 해양권역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매우 간단하게 결론짓고 있다.

이 노마미사키[野間岬, 현재 가고시마현]로부터 사쓰마 해안은, 직선으로 서쪽을 지나서 북쪽으로 돌아가면 히고[肥後, 현재 구마모토현] 아시키타[葦北]의 해안으로 연결된다. 아시키타의 아카마쓰령[赤松嶺]은 사쓰마에서와 같이 삼국을 조망할 수 있는 절경이다. 삼국이라 함은 오른쪽으로 조선, 앞쪽으로 중국, 왼쪽으로 류큐를 조망하는 것이다.¹²⁾

여기에서 구메는 규슈 구마모토현 아시키타[葦北]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조선과 남쪽으로 류큐를 상정하고, 그 해역의 중심 안에 북간과 광동에 이르는 바다를 하나의 해양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과 중국과 일본의 규

11) 久米邦武, 1889, 앞의 글, 앞의 책 1, 18쪽.

12) 久米邦武, 1889, 앞의 글, 앞의 책 1, 20쪽.

슈가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의 바다이며, 이 바다가 일본 민족의 이동과 활동의 중심무대인 '해양세력권'이다.

이처럼 동아시아 해양권역을 규슈 중심으로 보는 구메의 역사인식은 그가 사가현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고대에 사가현은 『삼국지』 「위지」에 등장하는 마쓰라국[末廬國]이 위치했던 곳이다. 다시 말해서 사가현은 전근대에 한반도와 대륙을 왕래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교류와 왕래의 최전선에 자리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구메의 일본 규슈 중심의 '해양세력권'과 해양을 조망하는 자유주의적인 기질은 그가 태어난 사가지방의 지정학적 특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권역의 중심을 일본 또는 규슈로 보는 구메의 해양지리적 일본 중심론은 단발적인 이론으로 끝을 고한 것이 아니었다. 20세기 전후 동아시아 해양권에 대한 일본 중심적 인식을 재해석하거나, 이것의 기본적인 구조를 차용한 새로운 이론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구메의 동아시아의 '해양세력권'이라는 해양학적 일본 중심론은 후대의 연구자들이 제기한 '무역권', '통교권', '환중국해역' 등의 동아시아 권역론으로 재탄생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전후 해양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각종의 권역론은 다분히 구메의 '해양세력권'과 일맥상통하는 동아시아 해양권역론인 것이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면 구메가 '해양세력권'의 중심을 규슈로 상정했다면, 후대 학자들은 이 이론의 중심을 일본열도로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구메의 '해양세력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육지에 대한 강역인식도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다.

고대사를 잘 생각해 보면 일본판도의 수축과 확장은 자못 크다. 이제 세 시기로 나누면, 제1기는 일본 바다의 연안지역을 연합하고, 제2기는 일본 바다가 마주보고 있는 해안지역을 연합하고, 제3기는 지금의 강역이 되었다. 그 북쪽 경계와 서쪽 경계가 결정되는 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메이지시대에 이르게 되지만, 그 각각의 연혁에 대해서 물론 세 상 사람들은 주의해야만 한다.¹³⁾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 바다의 연안지역에서 연합하는 제1기를 끝내고, 제2기에 일본 바다가 마주보고 있는 해안지역을 연합하는 시기, 즉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가 운영되는 시기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다시 말해서 구메는 『일본서기』 신공황후의 삼한 정벌기사를 사실로 인정하고 임나일본부의 설치와 운영의 시기를 제2기의 출발로 보고 있다. 이어서 백제에 구원병을 보냈으나 성이 함락되어 백제의 신민을 내지로 이주시키고, 규슈 쓰쿠시[筑紫]의 방비에 힘쓰며 당에 사신을 보내 옛 관계를 회복하여 모두 무사하게 해결되는 시기, 즉 한반도[韓土]에서 떨어져 나오는 시기를 제3기의 시작이라고 보았다.¹⁵⁾ 결국 일본의 강역을 상징함에 있어서 과거 한반도 남부가 일본의 강역에 속해 있었던 임나일본부를 정설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대와 메이지 시대 일본의 강역이 역사적 연속성에서 일맥상통한 기정사실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구메의 역사인식에서 그의 對조선 인식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메이지정부가 가지고 있던 대조선 우월의식이라는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을 통찰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구메는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고대 일본의 정치세력권을 바탕으로 고·중세 ‘해양세력권’의 논증을 시도하였다. 이를테면 동아시아 해양을 대상으로 일본 중심적 ‘해양세력권’ 인식이 1889년에 발표된 「日本幅員の沿革」에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가 이 논문에서 보여준 동아시아 인식의 세계는 신도가로부터 비난받았던 「神道は祭天の古俗」에서와는 사뭇 다른 해양 인식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신은 인간이다”라고 주장한 구메가 메이지시대의 일본 중심사상을 일방적으로 위축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런 점에 주목해 보면 19세기 말 구메의 동아시아 ‘해양세력권’에 대한 인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구메의 해적 인식을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13) 久米邦武, 1889, 앞의 글, 앞의 책 1, 15~16쪽.

14) 久米邦武, 1889, 앞의 글, 앞의 책 2, 17쪽 참조.

15) 久米邦武, 1889, 앞의 글, 앞의 책 3, 16~17쪽 참조.

III. 구메의 해적 인식과 '해양세력권'의 왜곡

구메는 일본 고·중세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1879년 이후 슈시칸[修史館]에서 편수관으로 근무하면서 『大日本編年史』 편찬에 직접 참여하여 남북조시대의 집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1892년 '필화사건'으로 『大日本編年史』의 편찬작업은 중지되고, 교수직에서도 사임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는 편수관 재직시부터 여러 가지 고문서와 기록 등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고·중세사에 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였고 마침내 1907년 『大日本時代史』를 간행하였다.¹⁶⁾

또 구메는 1910년 한일병합이 강행되었던 이듬해에 일본 해양활동의 주체자로서 해적에 관심을 갖고 『海賊と關船[해적과 관선]』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해적활동에 주목하여 해적선과 關船, 해적과 해부·海士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 글이 발표되었을 시기가 일본이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하고 조선의 지배권(1910)을 획득하여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때이기 때문에, 그 논지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은 고대 말기 전국의 재지무사를 장악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교토에서 달아나는 헤이시[平氏]를 토벌하기 위해서 막내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經]를 서국으로 진격시켜서 벌인 마지막 전투인 단노우라[壇ノ浦] 해전과 이때 사용되었던 關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메는 겐페이[源平] 양씨가 해전으로 자웅을 겨루었던 단노우라 해전은 일본 내부의 첫 번째 충돌로 보고 단노우라 해전의 비중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¹⁷⁾

16) 이 『大日本時代史』 안에 『日本古代史』, 『奈良朝史』, 『南北朝時代史』 등의 3책이 있다. 久米邦武, 1907a, 『日本古代史』, 早稻田大學出版部; 久米邦武, 1907b, 『奈良朝史』, 早稻田大學出版部; 久米邦武, 1907c, 『南北朝時代史』, 早稻田大學出版部.

17) 久米邦武, 1911, 앞의 글, 169쪽 참조.

즉, 요시쓰네가 고대의 마지막 권력인 헤이시를 완전히 괴멸시켰던 단노우라 해전에서 사용된 관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곳에 구시자키[櫛崎]라고 부르는 곳은 없는 것 같다. 이 구시자키후네[櫛崎船] 12척이 요시쓰네의 선박[御座船]이었다는 사실이 『梅松論』에 쓰여 있다. 『매송론』은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의 전기인데, 다카우지가 규슈에서 동으로 올라갈 때에는 초후[長府]에 군사를 모아 서 동생 다다요시[直義]에게는 육상으로 공격하게 하고, 다카우지는 해로를 따라 진격했다. 그 병선을 출발한 곳이 이 항구이다. 이때 나가토[長門]의 슈고[守護] 고토[厚東]는 다카우지에게 이요노카미[伊豫守] 요시쓰네의 단노우라 싸움에서 구시자키후네 12척을 御座船으로 내주었던 인연 때문에, 가마쿠라시대에 구시자키의 船頭는 일본 내의 방방곡곡에서 공역을 면제한다는 서계를 가지고 있었다.¹⁸⁾ ……

초후[長府]에서의 겐페이[源平]해전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 있는 문제는 요시쓰네가 탄 구시자키후네라는 것이 어떤 선박이나 하는 것이다.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출항한 빠른 배가 關船이기 때문에, 그 관선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오시마노쓰[大島ノ津]에서 군사를 모아 출진했던 800척의 군선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주변 오바타[大島]에는 아시카가[足利]의 중세 문명 무렵에 조선에서 쓴 『해동제국기』에 오바타에서 사절로 내세운 스오슈[周防州] 오바타노 오카미[大島大守] 해적 대장 源藝秀라는 이름이 있다. 이 무렵에는 야나이쓰[柳井津] 주변에 해적 대장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해적들의 장소로 생각되지만, 이곳은 오우치[大内]씨가 명과 교통하기 위해서 배를 띄어 보내던 항구였기 때문에 海賊衆을 두어 그곳을 경비하고 있었다.¹⁹⁾

이처럼 구메는 요시쓰네가 헤이시를 토벌하기 위해서 단노우라 해전에서 御座船으로 활용했던 12척의 구시자키후네[櫛崎船]가 관선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오시마노쓰[大島ノ津]에서 수많은 군사를 태우고 출발했던 800척

18) 久米邦武, 1911, 앞의 글, 172~173쪽.

19) 久米邦武, 1911, 앞의 글, 174~175쪽.

의 선박은 해적중의 선박이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논지는 고대 말·중세 초에 단노우라 해전에서 동원되었던 관선과 해적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관선과 해적선에 대해서 요시쓰네가 승선했던 御座船은 빠른 관선이고, 800명의 군사를 태웠던 배는 해적선인데, 모두 함께 전투에 투입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관선과 해적선에는 어떠한 구분이 있었을까. 구मे는 계속해서 관선과 해적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고대부터 그 賊徒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關을 설치했으므로, 바다에도 관이 있고, 산에도 關이 있었다. 즉 '후와[不破]의 관' 혹은 '오사카[逢坂]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전략요충지에 만들어졌다. 산의 관에서는 산적을 방어하기 때문에, 그 관에서는 토착민의 병사가 거주하며 지키고 있었다. 그 커다란 관은 「사키모리(さきもり)」라 부르는 防人에게 지키도록 하고, 산에서 쳐들어오는 산적을 방어하는 곳이다. 그 '상의 관', '중의 관', '하의 관'은 모두 해안에 존재했다. 그런데 해적을 방어하는 곳은 바다의 關이다. 해적의 방어에는 해상에서 사용하는 선박이 없으면 안 되므로 그 사용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다의 관선이다. 그 지역이 해적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關所이다.²⁰⁾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일본에는 고대부터 산과 바다의 전략요충지에 關이 있었고, 모두가 산적과 해적의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의 관은 사키모리[防人]가 방비하고 있고, 바다의 관에서는 해적의 방어를 목적으로 관선이 배치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메는 동아시아 해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해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해적들이 해적선을 타고 원양을 항해하여 여러 국을 침략하고 또는 내해의 포구로 쳐들어가서 물건을 빼앗고, 혹은 운송선을 약탈하는 등 자신들이 목적하는 물건을 약탈하는 도적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²¹⁾ 이는 현재 일본사에서 보는 해적에 대한 정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20) 久米邦武, 1911, 앞의 글, 179~180쪽.

이와 같은 예는 고대 말 해적들의 행위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今昔物語集』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사료에서는 아카시[明石] 앞바다의 해적활동과 관련하여 무기를 갖고 항해하는 선박을 탈취하고 실려 있는 供物을 약탈하며, 선원들을 살해하는 행위가 당시 해적들의 행동이라고 묘사하고 있다.²²⁾ 당시 일본 해적은 해로를 통해 운반되는 물품의 약탈을 생업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즉, 세토내해라는 지정학적 조건에서 동아시아의 여타 나라와 달리 해적의 활동이 용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해적집단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예가 나타나는데, 10세기 무렵 발생한 후지와라노 스미토모[藤原純友]의 난이 일본 해적의 특성을 설명하는 좋은 단서를 제공한다. 『금석물어집』에는 해적집단의 활동범위와 거점지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²³⁾ 이들은 스미토모를 우두머리로 삼고 시코쿠[四國]와 산요도[山陽道] 연안의 도서지방을 거점으로 해서 세토내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반란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메는 「海賊と關船」에서 이러한 고대 말기 일본 해적의 특징에 대한 언급이 없이, 12세기 중엽 겐페이[源平]의 전란을 중심으로 일본 해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 내부에서 해적 방어를 위한 자체 조직체로서 海部[하키]와 海士[아마]를 거론하고 있다. 해부는 바다의 사키모리로 편성된 해병단이고, 해사는 해적을 방어하는 병사²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구메는 일본사에서 이제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관선과 해적선의 운용과 그 목적을 구분하고, 해적·해부·해사·해적선·관선에 대한 어의적 정의를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자였다. 이는 이후의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연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첫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해적의 근거지와 해적의 주체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21) 久米邦武, 1911, 앞의 글, 180~181쪽.

22) 『今昔物語集』 卷24 第19, 「播磨國[鎭]陽師智德法師語」 참조.

23) 『今昔物語集』 卷25 第2, 「藤原純友依海賊被誅語」 참조.

24) 久米邦武, 1911, 앞의 글, 180~181쪽 참조.

규슈 방면의 해적은 상당히 폭이 넓고, 후대까지도 왜구라고 불리며 여러 나라를 휩쓸고 돌아다녔던 것은 규슈의 서해안을 예로부터 접거하고 있던 해적지역의 호족이다. 하지만 조정의 貢物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토의 역사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²⁵⁾

특수 지역으로서 규슈의 해적이 다음 시대에 왜구로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고, 규슈 왜구의 주체가 호족세력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단지 나라[奈良]시대부터 출현하는 해적이 규슈에서 왜구로 전환되는 과정까지는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지만, 동아시아의 해상에서 활동하던 왜구의 주체가 규슈 서해안의 호족이라고 분명하게 파악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후에 해외로 확대되어 고려·조선과 명의 해안에서 활동하던 왜구의 연구방향을 여타 연구자들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구메의 연구는 해양사 연구의 출발이었다.

다만 그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본 중심의 '해양세력권'을 설정해 놓고 타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던 왜구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구메가 일본 중세사의 연구자로서 고대 말 겐페이 전란에서 해적의 활동양태와 활동범위에만 집착했던 연구경향에 기인한 것 같다. 그리고 일본 해적이 동아시아 해역의 어디를 대상으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시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왜구에 대한 구메의 연구성과가 일회성으로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구메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해양세력권의 설정은 다이쇼시대로 넘어오면서 고토 히데호[後藤秀穗]로 계승되어 갔다. 고토는 왜구 연구에서 해외사료로 『고려사』와 『명사』를 중시하였고, 시기와 성격을 구분하여 최초로 『純寇[전기 왜구]』와 『簡寇[후기 왜구]』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⁶⁾ 아울러 왜구의 기원에 대해서 몽골의 침입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평가하였다.²⁷⁾ 그리고 일본 남북조내란기에 상인이 점차 노략질을 하게 되었을 때, 실의에 빠진

25) 久米邦武, 1911, 앞의 글, 197쪽.

26) 後藤秀穗, 1914, 앞의 글, 앞의 책 23-5, 515쪽 참조.

27) 後藤秀穗, 1914, 앞의 글, 앞의 책 23-6, 636쪽 참조.

무리들이 이들과 연합하여 왜구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왜구가 탄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⁸⁾ 그리고 왜구의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가장 잘 왜구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왜구라 함은 오른손에 주판을 들고 왼손에 칼을 잡은 해상의 상인이다. 오른손의 주판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왼손의 칼을 뽑는다. 왜구라 함은 사실 왼손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에 오른손을 방해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들은 왜구를 사랑한다. 이미 왜구가 된 이후에 조선과 중국(韓漢)의 왜구와 말레카에서 상인이었던 시대에 이들과 마찬가지로 당당한 무사의 태도를 갖고서 추후도 일본 남자의 체면을 훼손시키지 않았다.²⁹⁾

고토의 왜구 연구는 밖으로 팽창하는 일본 해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대외활약상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구메의 ‘해양세력권’ 이론을 계승한 일본 중심적 논리였다. 그리고 그 이론을 확대시켜서 일본 외연으로 확대된 왜구 활동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아울러 왜구는 당당하게 무사의 태도를 가지고 전혀 일본 남자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극찬하기도 하고, 왜구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장점과 아름다운 점이 있다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토에 이르러서 왜구의 연구는 당시 일본의 대외팽창과 맞물려 왜곡된 해양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왜구에 대한 연구성과가 극명하게 표출된 결정판이 1943년에 문부성에서 편찬한 『國史概說』의 「국민의 해외발전」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왜구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전 분에이[文永, 1274]·고안[弘安, 1281]의 外寇로 인해서 국민의 해외진출의 의욕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항해에 능숙한 용맹한 해변

28) 後藤秀穗, 1914, 앞의 글, 『앞의 책』 23-6, 644쪽 참조.

29) 後藤秀穗, 1915, 앞의 글, 93쪽.



〈지도 1〉 해외발전도

의 주민은 크게 대륙방면으로 응비하기에 이르렀고, 그 활약은 요시노 [吉野]·무로마치[室町]시대에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더욱 융성해졌다. 즉 규슈와 세토내해 연안의 주민 등은 선박에 하지만 대포살[八藩大菩薩]의 깃발을 내걸고, 천리의 파도를 넘어 중국·조선·남양 방면 등의 연안으로 항해해서 교역에 종사하였고, 또는 때때로 용맹하지 못한 세력으로 저항하는 자를 몰아내고, 그곳에서 위력과 명성[威名]을 떨쳤다.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왜구라 말하는데, 선박을 하지만선[八藩船]이라고 부르며 크게 두려워하고 우리(일본)에게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을 격퇴시키려고 하였지만 어느 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1367년(正平 22) 사절을 우리나라에 보내

와서 그 금압을 간청하였지만, 우리나라(일본)에서 이것에 응하지 않았다.³⁰⁾

이처럼 『국사개설』에서는 왜구의 활동을 일본 국민의 해외발전으로 보고 해외진출·용맹한 주민·옹비·명성[威名]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극찬해 가며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당시 일본 국민과 관리의 교육용 교재로 쓰던 『국사개설』의 편찬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상징적 용어들이다. 아울러 왜구 활동을 일본인이 옹비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그 해외활약에서 현저한 것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주로 일본 국민의 해외진출이 그 중심이었다고 평가하면서³¹⁾ 일본 국민의 우월인식을 거침없이 표현하였다. 이처럼 천황 중심의 국가 건설에 매진하던 시기에 『국사개설』의 어휘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후의 학술적 연구에서 아쉽게도 일본 우위의 인식으로 왜구 활동을 왜곡시켜서 표현하는 경향으로 이어 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결과 구메의 ‘해양세력권’ 이론은 일본 중심적 해적과 왜구의 해상활동 연구의 시작이었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해양세력 연구의 확장을 예고하는 하나의 중심이론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한 일병합 이후에 권력중심의 정치논리에 따라서 왜곡되었고, 고토의 찬양적인 왜구론이나 『국사개설』의 「국민의 해외발전」에서처럼 일본인의 해외진출이라는 일본 우월적 관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에는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일본 우월적 동아시아 ‘해양세력권’의 설정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중세 동아시아 ‘해양세력권’을 장악한 주체가 일본 해적이라는 구메의 도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론이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구메의 해양세력권 이론이 어떻게 확대·발전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0) 文部省 編纂, 1943, 『國史概説』 上, 426~427쪽.

31) 文部省 編纂, 1943, 위의 책, 428쪽 참조.

IV. 전후 지식인의 해양사관과 그 한계

구메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해양세력권'에 관한 이론은 고토 히데호를 거치면서, 일본 중심의 역사인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의 시대상에 순응하는 이론으로 변색되어 갔다. 따라서 전후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동아시아의 해석에서 상호 교류의 연구를 중시했던 인물인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였다. 그는 중국 중심의 문화권과 정치권이 일체된 자기 완결적 세계를 동아시아 세계라고 명명하였다. 아울러 광역사의 틀에서 동아시아 고유의 문화권에 주목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 즉 주변의 여러 나라와 그 민족과의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작위를 주고 군신관계를 맺는 이른바 '책봉체제'가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책봉체제는 동아시아 중심 논리라는 이유 때문에 발표 초기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거센 비판을 견뎌내야 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해명하는 틀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국사에서 중요한 학술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책봉체제가 동아시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론으로 적합한지의 평가가 주목적이 아니다. 니시지마가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독자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 이를테면 동아시아의 국가들 간에 경제 교역권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상호 교역의 측면을 강조한 '동아시아 무역권'의 설정에 주목하고 싶다. 그는 '동아시아 무역권' 안에서 왜구의 등장과 그 전개과정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동아시아 무역권을 질서화하기 위한 화친정책에서 시작해서 정토정책의 실패로 끝난, 원왕조의 세조 쿠빌라이의 일본에 대한 정책의 추이는 원왕조가 힘을 갖고 있어도 동아시아세계를 재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주의해야 할 것은 분에이[文永]·고안[弘安]

의 역 중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일본 상선은 중국·조선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상선은 자위를 위해서 무장한 상선단이었다. 동아시아 무역권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권의 질서를 보장해야 할 국제 정치관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무장상인단은 자위를 넘어서, 약탈행위까지 벌이는데, 이것이 왜구이다.

왜구는 이미 13세기 전반부터 한반도 연안에 출몰하고 있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쿠빌라이의 일본 遣使에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에이·고안의 역 이후에 바로 왜구의 활동이 격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갑자기 대규모화한 것은, 일본에서 가마쿠라막부가 멸망하고 남북조내란기에 들어간 이후부터의 일이다. 즉 1350년 이후이고 당시의 왜구가 침략한 지방은 주로 한반도였다. 이것은 왜구의 격화가 반드시 동아시아 무역권이 결여된 국제 정치질서 때문만이 아니고 일본 국내의 정치질서의 이완과도 관계된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일은 16세기 후기 왜구의 창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말 할 수 있다.

당시 왜구가 약탈했던 것은 주로 쌀과 남녀였다. 왜구는 이를 노비로 사역하거나, 슈고다이묘[守護大名]의 손을 경유해서 고려왕조에 되파는 것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다. 1370년대부터 1380년대에 이르면, 고려왕조의 쇠퇴와 함께 반도에서 왜구침략은 더욱 격해져갔다. 그러나 왜구의 침략은 한반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중국연안을 왜구가 침략했다는 기사가 중국 측의 기록에 종종 나타나고 있다.³²⁾

니시지마는 왜구의 주체를 일본의 무장상인단으로 파악하였다. 또 왜구가 격렬해지는 원인을 원의 일본 침공이 아니라, 가마쿠라막부의 멸망과 남북조내란기라는 일본 국내의 정치질서 이완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왜구의 인적·물적 약탈의 목적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고

32) 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ヤ世界』, 東京大學出版會(송완범 역, 2008, 『일본의 고대사 인식—동아시아 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215~216쪽 재인용).

있다. 결국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海盜라는 형태가 표면화되었고, 그 신질서화의 노력이 원인이 되어 몽골의 침입이 일어났지만, 명왕조의 성립과 함께 왜구 진압을 위해서 동아시아 세계의 재건이 필요하여 명의 책봉체제가 등장한 것³³⁾이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무역권'에서 보았을 때, 니시지마는 그동안 중국 문화 중심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일본의 교역활동과 일본 상인의 역할을 순기능과 역기능(왜구) 모두 동일한 범주 안에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술사적으로 전근대 동아시아사에서 일본 교역사를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왜구의 악습에 의한 주변국의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이러한 악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동아시아의 신질서로서 책봉체제를 상정했던 니시지마의 의도는 자못 실망스럽다. 오히려 책봉체제 속에서도 왜구는 계속되었고, 구메 이후의 일본 중심적 동아시아 '해양세력권'이 극복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구를 무역의 역할자로 파악하려는 연구의 흐름은 다나카 다케오 [田中健夫]에 의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1982년에 간행한 『倭寇』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왜구의 公罪를 논하기보다, 왜구의 활약을 되도록 높은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실상을 동아시아의 국제사회라는 배경 속에서 입체적으로 부각시켜 보려고 생각하였다. 이제까지의 역사서술은 육지중심의 역사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왜구의 문제는 그 범주에서 취급할 수 없다. 보다 광범위한 시야로부터, 국경에 사로잡히지 않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해면의 역사가 아니라, 육지의 역사를 포함하는 것이고, 일본의 역사만이 아니고, 류큐의 역사, 조선반도의 역사, 중국대륙의 역사, 세계전체의 역사를 포함하는 역사서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³⁴⁾

33) 西嶋定生, 1985, 앞의 책, 198쪽 참조.

34) 田中健夫, 1982, 『倭寇—海の歴史』, 教育社歴史新書, 5쪽.

여기에서 지나가는 보다 넓은 시야로부터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을 표방하고, 일본·류큐·조선·중국을 아우르는 역사의 주체로서 왜구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왜구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동아시아 통교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동아시아 통교권'의 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의 왜구가 반세기 이상 존속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은 왜구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동아시아의 통교권'의 존재에 있다. 여기에서는 왜구의 행동범위를 해명하기 위해서, 약탈이 두 가지 큰 목적으로 삼았던 쌀과 노예의 행방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왜구는 조선반도의 남부가 황폐하고 텅 비었다고 할 정도로 대량의 미곡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그 미곡을 왜구가 어떻게 처분했는가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사료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 왜구가 자신의 식량으로서 소비했다. (2) 일본이나 기타 배후지에 운반해서 교역 판매했다. (3) 조선반도의 내부에서 처분했다 등의 세 가지 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는 것은 (3)의 경우이다. 즉 조선반도의 농민의 손으로부터 관의 창고에 이송되었던 미곡이 왜구의 손에서 조선반도의 인민에게 환원되었던 것이다. 탈취 미곡의 최대 소비지는 다름 아닌 조선반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1)의 경우는 三島를 시작으로 하는 왜구의 근거지에서의 소비이다. 조선왕조시대가 되어 평화가 회복된 시기에도, 쓰시마섬에 대해서는 매년 다량의 쌀과 콩이 조선에서 보내왔다는 것에서 역추적해 보면, 왜구의 근거지에서 소비한 미곡은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2)의 경우는 하카타·오키나와 등의 시장을 경유해서 규슈지방·일본국내·류큐국내 등에 운반되어 소비되는 일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실증할 자료가 없다. 수량에서도 너무 적든가 혹은 전무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왜구의 행동권 내지 배후지를 명확하게 추측하게 하는 것은 왜구가 약탈한 피로인의 동향이다. 피로인은 일본국 내에서 '노비'로서 노예적으로 사역되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송환·전매 등 일종의 교역 대상이 되어 있었다(『善隣國寶記』·『世宗實錄』)³⁵⁾

35) 田中健夫, 1987, 앞의 글, 155~156쪽.

다나카는 왜구가 약탈한 미곡과 피로인의 유통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통교권'의 존재를 추적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량의 미곡의 소비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소비되었으므로, 왜구의 주력에 고려·조선의 하층 민중 및 일반 농민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피로인의 신분을 노비로 표현하고, 피로인의 송환을 환매로 묘사하여, 고려인·조선인을 물질로 표현하는 멸시적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였다. 결국 다나카가 주장하는 '동아시아 통교권'의 논리는 다분히 고려인·조선인 멸시관념의 바탕에서 세워진 일본·일본인의 우월관념이 잠재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다이쇼시대 초기 고토의 일본 민족 우월성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다나카의 조선 민족 멸시관이 확대 재탄생된 것 같은 느낌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 민족의 선민의식에 가득 찬 다나카의 견해는 한국 학자³⁶⁾와 일부 일본 학자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비판받았다.

다나카의 이론 제기를 계기로 이제는 편협한 일국사적 사고를 버리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세계를 다시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실제로 일국에 사로잡히지 않는 왜구상을 제시한 사람이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였다. 무라이는 『中世倭人傳』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倭服을 착용하고, 倭語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계적인 인간유형인데, 민족적 출신이나 국적(그 자체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과 복장·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애매 모호성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이 민속학에서 사용하는 '마지널 맨'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두 개의 중심을 어디로 두더라도 邊境인 장소, 예컨대 경계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어느 쪽에 중심을 두더라도 에트랑제(나그네)이면서, 양쪽을 매개로 하는 이른바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³⁷⁾

예를 들면 무라이는 경상도의 삼포에서부터 쓰시마[對馬]·이키[壹岐]를

36) 대표적인 연구로는 李頌, 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김보한, 2009, 「해적과 약탈경제」, 『동북아 문화연구』 20 등이 있다.

37)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傳』, 岩波新書, 39쪽.

아직 독립성이 강하고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서 '환중국해역'을 일체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대마도 소씨[宗氏]를 왜인통제체계의 주요 인물로 하는 조선의 수법이 유효했던 것은 이 때문인데, '삼포'의 변영도 그것으로 유지되고 있었다.³⁹⁾

이처럼 무라이의 동아시아 세계론은 '환중국해역[環シナ海域]'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무역의 양상을 일본 중심으로 조선, 중국, 류큐,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조밀한 그물망처럼 엮힌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논리였다. 구메가 주장하는 '해양세력권'의 영역과 기능을 한층 발전시켰고, 무역의 측면에서 약탈과 교역이라는 이중현상을 하나의 권역론 속에서 일체화시키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연구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환중국해역'이 이전의 이론들처럼 예외없이 일본 중심적 해역사로 파악하는 해양사관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전의 일본 중심의 해양사가 그가 주장한대로 동아시아 중심의 해역사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는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이론의 진보보다는 과거로의 역행, 다시 말해서 구메의 '해양세력권'을 확장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판단일 듯싶다.

또 하나의 예로서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가 쓴 『文明の海洋史觀(문명의 해양사관)』은 더욱 그러하다.⁴⁰⁾ 가와카쓰는 일본 문명권과 유럽 문명권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열거하여 일본 해양사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근대에 들어와 두 문명권의 공통점에 대해서 모두가 주변에 위치한 후진지역이었으며, 일본은 육지자급권과 유럽은 해양자급권을 형성하고, 유럽·일본 모두 탈아를 시도하여 새로운 문명을 탄생하였다고 보았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화이는 '문명과 야만'으로, 유럽에서는 '전쟁과 평화'로서 모두가 탈아를 달성했지만, 유럽은 환인도양을 넓힌 아시아이고, 일본은 환중국 아시아에서의 중국 문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특징

39) 村井章介, 1993, 앞의 책, 199쪽.

40) 川勝平太, 1997, 앞의 책.

중에는 ‘해양사관’의 범주에서 근대 유럽이 지향했던 식민지 건설과 해양진출의 당위성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근대 일본의 해양사관이 전체 아시아에 대한 우월의 역사인식에서 탄생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서 매우 편향적 이론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V. 맺음말

19세기 말 대외팽창의 시대적 욕구가 증만하던 시기에, 일본의 해양사 연구는 구메의 고·중세 ‘해양세력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일본과 복건[閩越]지역이 같은 민족이라고 보고, 이론적으로 한반도 남부의 임나일본부와 일본의 해안지역이 연결된 동아시아 ‘해양세력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양세력권의 주체를 일본 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이후 체계적인 해양사 연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구메의 ‘해양세력권’ 이론은 고토 히데호[後藤秀穗]로 계승되었다. 고토는 동아시아 해양세력권을 중심으로 팽창해 가는 일본 해적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일본인 왜구의 대외활약상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1943년에 문부성에서 편찬한 『國史概説』에서는 일본인의 왜구 활동에 대해서 해외진출·용맹한 주민·옹비 등의 단어로써 일본 민족의 우월적 표현을 거침없이 서술하였고, 대조선관에서는 조선을 폄하시켜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구메의 ‘해양세력권’에서 출발한 일본 중심적 역사인식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기 과시형의 역사인식으로 탈바꿈하여 패전 이전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다.

전후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동아시아의 교역권역에서 상호 교류의 연구를 중시했던 인물이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였다. 그는 동아시아의 국가들 간에 경제 교역권으로서 상

호 교역의 측면을 강조한 '동아시아 무역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왜구의 등장과 그 전개과정을 논하였다. 그러나 왜구에 의한 주변국의 피해를 과소평가한 측면이 강하여 구메 이후의 일본 중심적 동아시아 '해양세력권'을 극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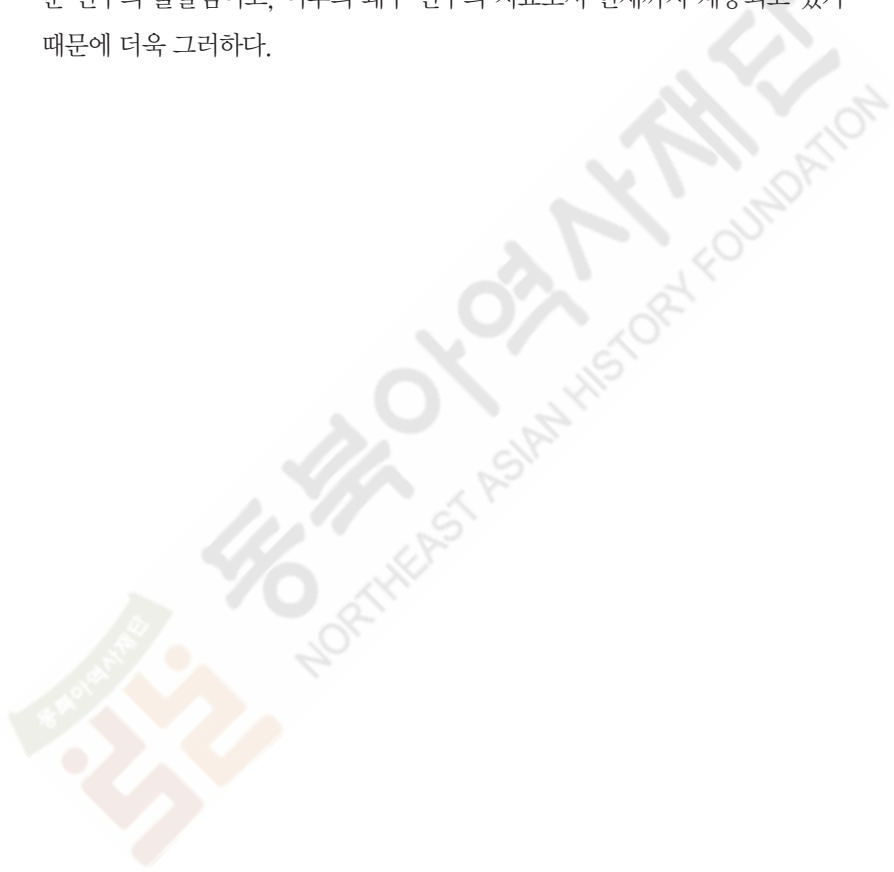
이렇게 왜구를 무역의 역할자로 파악하려는 연구의 흐름은 다나카 다케오 [田中健夫]에 의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 그는 왜구가 약탈한 미곡과 피로인의 유통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통교권'의 존재를 추적하여 피로인을 노비로 표현하고, 피로인의 송환을 환매로 묘사하여, 고려인·조선인에 대한 멸시적 용어를 여과없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동아시아 통교권'의 논리는 다분히 고려인·조선인 멸시관념의 바탕에서 세워진 일본·일본인의 우월관념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제 편협한 일본 우월적 사고를 버리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세계를 다시 그려 새로운 왜구상을 제시한 사람이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였다. 그는 삼포에서부터 하카타에 이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왜인을 '마지널 맨[境界人]'이라고 명명하고, 일본의 주변 지역을 '日本海 지역', '환중국해[環シナ海] 지역'으로서 파악하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환중국해역 이론은 약탈과 교역이라는 이중현상을 하나의 권역론 속에서 일체화시켜 이해하려는 일본 중심적 해양사관이며 구메의 '해양세력권'을 다양화시킨 것에 불과한 이론이었다.

또한 최근에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가 쓴 『文明の海洋史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가 주장하는 '해양사관'의 범주에는 근대 유럽이 지향했던 식민지 건설과 해양진출의 당위성이 극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히 근대 일본의 해양사관이 전체 아시아에 대한 우월적 역사관에서 탄생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서 더욱 편향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상과 같이 구메의 일본 민족기원론과 '해양세력권'은 한일병합 이후의 연구에 그대로 반영되어 동아시아 세계의 주인공 또는 이 지역에서 제해권의 장악자가 일본이라는 일본 중심적 역사관을 완결지었다. 이처럼 일본 중심적 동아시아 '해양세력권'론이 현재까지 학문이론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은 경

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구메의 이론에서 출발한 일본의 대륙 침략과 그 행위의 합리화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사에서 한일병합을 전후한 시기에 제기된 구메의 역사인식은 재평가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구메의 '해양세력권' 연구가 중세 해적과 왜구의 해상활동성을 다룬 연구의 출발점이고, 이후의 왜구 연구의 지표로서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사료〉

- 『大日本史料』6編, 『今昔物語集』, 『南北朝遺文』, 『海東諸國紀』,
『善隣國寶記』, 『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
久米邦武, 1907, 『日本古代史』, 早稻田大學出版部.
久米邦武, 1907, 『奈良朝史』,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久米邦武, 1907, 『南北朝時代史』,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久米邦武, 1989, 『久米邦武歷史著作集』第2卷(日本古代中世史の研究), 吉川弘文館.
久米邦武, 1991, 『久米邦武歷史著作集』第5卷(日本文化史の研究), 吉川弘文館.

〈단행본〉

- 久米邦武 編, 1978, 『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 博聞社.
文部省 編纂, 1943, 『國史概説』上.
西嶋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岩井忠熊, 1976, 『日本の歷史學』, 日本評論社.
永原慶二, 2003, 『20世紀日本の歷史家』, 吉川弘文館.
李頌, 1999,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日本歷史地理學會 編, 1911, 『日本海上史論』, 三省堂.
田中健夫, 1982, 『倭寇—海の歷史』, 教育社歷史新書.
川勝平太, 1997, 『文明の海洋史觀』, 中央公論新社.
村井章介, 1988, 『アジアの中の中世日本』, 校倉書房.
村井章介, 1993, 『中世倭人傳』, 岩波新書.

3. 논문

- 久米邦武, 1889, 「日本幅員の沿革」, 『史學雜誌』1・2・3.
久米邦武, 1891, 「神道は祭天の古俗」, 『史學會雜誌』23・24・25號.
久米邦武, 1892, 「神道は祭天の古俗」, 『史海』第8卷.
久米邦武, 1911, 「海賊と關船」, 『日本海上史論』, 三省堂.
金普漢, 2009, 「해적과 약탈경제」, 『동북아문화연구』20.

- 田中健夫, 1987, 「倭寇と東アジア交流圏」, 『日本の社會史』 1, 岩波書店.
- 後藤秀穂, 1914, 「子が觀たる倭寇」, 『歴史地理』 23-5・6, 24-1・2.
- 後藤秀穂, 1915, 「倭寇の説明するわか國民性の一角」, 『史學雜誌』 26-1.
- 後藤秀穂, 1915, 「最も深く内地に侵入したる倭寇の一例」, 『歴史地理』 25-1.
- 後藤秀穂, 1919, 「海國民としての倭寇」, 『歴史と地理』 4-1.



[ABSTRACT]

Japanese “Sea Power Sphere” and the Perception of
the Sea in East Asia after Modern Age

Kim, Bohan

In the time full of a desire of the times of the outside swelling vs. 19 end of the century, the Japanese marine history study began from 'Sea Power' of Kume Kunitake (久米邦武). He looked by a race like Korea · Japan · Fujian and set the Sea Power Sphere of the East Asia of the Japanese center. And he let the subject of the Sea Power Sphere of the East Asia realize with a Japanese pirate. And he let the subject of the Sea Power Sphere of the East Asia realize with a Japanese pirate.

Goto Hideho (後藤秀穂) inherited a Sea Power Sphere theory of Kume (久米) in the Taisho era. And he mentioned it by the foreign activity of the Wakou (倭寇) positively. Mainly on the advance of the Japanese citizen in particular, a tendency to ignore the Korean appeared. After defeat, Nishijima Sadao (西嶋定生) showed a frame of new recognition for the East Asia world. He set 'East Asia trade zone' and discussed the appearance of the Japanese Wakou and the development process in that.

By the flow of such study history, Tanaka Takeo (田中健夫) stated 'East Asia interchange zone' and used the term of the slight for the naturalized citizen from Korea Korean without filtration. A Japan and Japanese superiority idea acted on the logic that he insisted on. The

person who showed it on the Wakou which was not kept in the nation was really Murai Shosuke (村井章介). He named Wajin who was active in a border area marginal man (境界人).

This theory was a theory to speak for the Japanese central sea area history. In addition, Heita Kawakatsu is described recently so that the what one should do characteristics of the colony construction that modern Europe intended and the marine advance clarify i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of Kume is connected for an index of the Wakou study to date.

keywords

A pirate, Wakou (倭寇), The marine history, Kume Kunitake (久米邦武), Goto Hideho (後藤秀穂), Nishijima Sadao (西嶋定生), Tanaka Takeo (田中健夫), Kawakatsu Heita, marginal man (境界人), Trade zone, Sea Power, Interchange zone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박찬홍 |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滿鮮史'는 만주지역의 역사를 뜻하는 '만주사'와 '조선반도'의 역사를 가리키는 '조선사'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조선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역사를 '만선사'로 이해하는 역사학을 '만선사학'이라고 한다. '만선사'는 20세기 초 일제가 만주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동양학계에서 만들어 낸 것으로,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는 물론이고 만주 진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역사학이었다.¹⁾

'만선사학'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일본 동양학의 창시자이며 개척자로 평가되는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이다. 시라토리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가 죽은 직후 이시다 미키노스케[石田幹之助]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가

※ 투고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1) 旗田巍, 1964, 「'滿鮮史'의 虛像」, 『鈴木俊教授還曆記念 東洋史論叢』; 旗田巍 著, 李基東 譯, 1983, 「'滿鮮史'의 虛像」,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전기 형식으로 정리한 논고가 있다. 시라토리의 출생 이후 학력과 연구업적, 일본 동양사학계에 남긴 업적 등을 정리하였는데, 일본이 敗戰하기 이전의 글이기 때문에 시라토리의 연구업적과 학계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²⁾

1970년대에 일본 역사가들을 정리하는 좌담회와 저서에서 시라토리가 언급되었는데, 비판적으로 서술되기보다는 그의 학력과 업적을 위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³⁾ 1990년에 일본 동양학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서술된 시라토리에 대한 서술에서도, 시라토리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소개하면서도 대체로 경력과 업적 위주로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⁴⁾

반면, 1945년 이후 이른바 戰前의 일본 동양사학이 제국주의 침략에 부응했던 점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시라토리의 연구업적과 학계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논고도 있었다. 이른바 시라토리 史學과 東京大學 東洋史學이 沒정치적이고 人間不在의 역사학으로서, 일본이 한반도 및 만주, 몽골, 중국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진행하는 데에 기여하는 동양사 연구활동을 했다는 비판이 1960년대에 있었다.⁵⁾ 1970년대에는 일본 동양사학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라토리는 당시 (東京)帝國大學의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열렬한 天皇主義者로서, 教育勅語를 학문연구와 교육의 지침으로 삼고 학문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려 했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다.⁶⁾

근래에는 일본의 ‘동양’ 혹은 ‘동양학’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헤게모니를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2) 石田幹之助, 1942, 「白鳥庫吉先生小傳」, 『雜纂 他』(白鳥庫吉全集 第10卷), 1971; 津田左右吉, 1944, 「白鳥博士小傳」, 『東洋學報』 29-3·4.

3) 東方學會 編, 1972, 「先學を語る - 白鳥庫吉博士」, 『東方學』 44; 吉川幸次郎 編, 1976, 『東洋學の創始者たち』, 講談社; 吉川幸次郎 編, 2000, 『東方學回想』 I, 刀水書房; 永原慶二·鹿野政直 編著, 1976, 『日本の歴史家』, 日本評論社.

4) 松村潤, 1990, 「白鳥庫吉」, 『しにか』 6月號; 江上波夫 編, 1992, 『東洋學の系譜』, 大修館書店.

5) 旗田巍, 1962, 「日本における東洋史學の傳統」, 『歴史學研究』 270.

6) 五井直弘, 1976, 『近代日本と東洋史學』, 青木書店.

것이며, 그러한 '동양' 또는 '동양사학'의 주도적인 창시자로 시라토리를 지목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동양사학이 겉으로는 엄격한 사료비판 등 역사학의 객관성과 실증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본 이외의 아시아를 타자화·대상화함으로써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뒷받침한 하부 오리엔탈리즘이었다는 것이다.⁷⁾

한편, 시라토리만을 취급한 연구는 아니지만, 그가 주창했던 '만선사(학)'을 검토한 연구성과도 있다. '만선사(학)'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1960년대 하타다 다카시[旗田巍]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⁸⁾ 하타다의 글은 한국사의 입장에서 '만선사'·'만선사학'이 虛像임을 잘 밝혀내었지만, 시라토리에 대한 서술은 그리 많지 않다. 식민사학의 극복이라는 사학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던 한국 학계에서는 1960년대 들어 식민사학에 대한 연구와 비판이 시작되었지만, 만선사학에 대한 관심⁹⁾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적었고, 물론 시라토리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 이후의 연구에서도¹⁰⁾ 대체로 하타다 다카시의 연구성과를 요약 서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근래에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의 '만선사'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었고,¹¹⁾ 일제시대 '만선사(학)'·'만선사관'에서 고구려사 또는 한국 고대사가 어떻게 연구되고 인식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¹²⁾ 또 시라토리가 중심이 되어 성립시킨 일

7) 강상중 지음, 이경덕·임성모 옮김, 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이산;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8) 旗田巍 著, 李基東 譯, 1983, 앞의 글.

9) 李龍範, 1969, 「韓國史의 他律性論批判」, 『月刊 亞細亞』 3.

10) 李萬烈, 1976, 「日帝官學者들의 植民史觀」, 『韓國의 歷史認識(下)』, 創作과批評社; 李萬烈, 1979, 「日帝官學者들의 韓國史 敘述」, 『韓國史論』 6, 國史編纂委員會.

11) 寺內威太郎, 2004, 「『滿鮮史』研究と稻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歷史學』, 東京: 刀水書房; 櫻澤亞伊, 2007, 「『滿鮮史觀』の再檢討」 『現代社會文化研究』 39, 新潟大學; 사쿠라자와 아이,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12) 井上直樹, 2004, 「近代日本の高句麗史研究－滿鮮史・滿洲史와 關聯해서」, 『高句麗研究』 18; 박찬홍, 2005,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박찬홍,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본 근대의 동양사학이 인간부재의 역사학이었다는 관점을 계승하면서, 특히 시라토리가 독일 인류지리학을 수용하여 지리결정론의 관점에서 ‘조선’과 ‘만주’·‘지나’의 역사를 고찰했다는 연구도 있다.¹³⁾

‘만선사(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라토리가 창시한 ‘동양’·‘동양사학’의 전체 안에서 ‘만선사학’이 어떠한 위상과 내용을 가지는지에 대한 고찰이 별로 없었고, ‘동양사학’의 주창자로서 시라토리를 취급한 연구에서는 동양사에 대한 그의 연구업적이 각 부문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시라토리의 생애를 간단히 정리한 뒤, 그의 동양사학 연구 성과와 그 성격 및 시라토리가 주창한 ‘만선사학’의 성립과정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시라토리의 ‘만주사’ 인식과 ‘조선사’ 인식을 각각 검토하여 그의 ‘만선사’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白鳥庫吉의 생애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년]는 1865년 지금의 지바현[千葉縣]에서 태어났다. 호적에는 ‘白鳥庫吉’로 기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록한 관리의 잘못이라고 한다. 1879년 千葉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당시 교장은 뒷날 동양사학의 개창자 가운데 한사람인 나가 미치요[那珂通世]로서 당시 28세였다. 1882년 千葉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듬해 大學豫備門[뒷날의 第一高等學校]에 입학하였다. 1887년에 개설된 帝國大學 사학과에 진학하여, 랑케

13)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2009, 「일본의 동양사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역사학」, 『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의 제자 리스에게 배웠고, 사학과의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1890년 26세에 대학을 졸업한 직후 가쿠슈인[學習院] 교수가 되었고, 學習院長인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중용을 받아, '支那史'를 강의하는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瓊次郎]와 함께 중국 주변의 여러 민족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원래 서양사 전공이었던 시라토리는 이후 동양사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¹⁴⁾ 당시 시라토리의 동양사 연구목표는 일본 동양학의 수준을 서구 동양학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1894년 결혼했는데, 집안일은 모두 아내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밤낮으로 연구에만 몰두하였다고 한다. 1899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동양학회에서 「흉노 및 동호 민족의 언어에 대하여(匈奴及び東胡民族の言語について)」, 「돌궐 킵특근 비명고[突厥關特勤碑銘考]」를 제출하여 호평을 받았고, 이듬해 학위를 취득하였다.

1901년 봄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바닷길로 프랑스에 도착한 뒤, 곧바로 독일로 가서 베를린에서 대학 강의에도 참석하고, 터키어 연구도 진행하였다. 다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서 우랄알타이어계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연구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다. 1902년 함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동양학회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고, 핀란드·러시아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1903년 겨울 2년 반의 유학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때의 유럽 유학은 시라토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유럽에서는 연구기관을 정비하여 그 안에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학자를 양성하고, 또 학문 연구에 여러 학자들이 협력하고 있는 것을 관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자신의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학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나갔다.

일본에서는 1904년 문과대학의 학제 개편 때 사학과의 國史學, 支那史學, 西洋史學의 3과로 분리되었고, 1910년 支那史學科가 동양사학과로 개칭되었다. 1903년 귀국한 시라토리는 가쿠슈인 교수와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교수를 겸하면서 동양사를 강의하고, 한편으로 정력적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¹⁵⁾

14) 津田左右吉, 1944, 앞의 글.

동시에 동양사학 연구의 조직과 연구자 육성에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러일전쟁이 끝나가던 1905년에는 亞細亞學會를 설립하였고, 다시 東洋協會와 합하여 학술조사부를 만들어 『東洋協會調查部學術報告』 제1책을 출간(1909)하였다. 이 학술지는 1911년 『東洋學報』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시라토리의 '東洋'에 대한 연구목표는, 유치한 단계에 있던 중국 학계를 지도함과 동시에, 세계의 동양학 연구에 기여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¹⁵⁾

시라토리는 만철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을 설득하여 만철 도쿄[東京] 지사 안에 滿鮮歷史地理調査室을 설치하여(1908), 만주와 '조선'의 역사지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야나이 와타루[箭内互]·마쓰이 히토시[松井等]·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세노 우마쿠마[瀧野馬熊]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등이 그의 밑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내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도서 및 유물의 수집과 만주 현지답사이다. 시라토리는 한국과 중국의 도서와 유물 수집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그가 수집한 한국의 史籍 가운데에는 유일무이한 것들도 있었다. 이들 도서는 조사실에 보관하다가 도쿄제국대학으로 이양하였다. 또 1913년에는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를 설득하여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을 도쿄제국대학으로 기증하도록 하였다. 이 본은 뒷날 관동대지진 때 불타 없어지고 현재 27권만 남았는데, 최근 한국으로 반환되었다.

또한 시라토리는 일본 역사학계 최초로 만주 현지답사를 기획하여, 1907년에 한국과 만주를 답사하였고, 1909년에는 발해의 옛 도읍과 금나라 上京의 옛터를 답사하였다. 1907년 답사 때에는 광개토태왕비를 일본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으나 비용 문제로 실패하였다.¹⁶⁾ 하지만 이를 계기로 만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시라토리에 의해 그 단초가 열렸다고 평할 수 있다고 한다.

15) 小山正明, 1976, 「白鳥庫吉」, 『日本の歴史家』, 日本評論社.

16) 津田左右吉, 1944, 앞의 글.

17)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표상으로서의 광개토태왕비문」, 『만들어진 고대』, 삼인.

이 무렵 형세론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역사는 남북 두 세력의 對抗史라는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 연구의 범위와 대상도 조선·만주·몽골·중국·서역의 언어·인종·사상·역사는 물론 일본사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대해 漢學者들과 京都大學의 나이토 도라지로[内藤虎次郎]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914년 설치된 東宮御學問所의 교무주임에 임명되어, 1920년까지 7년간 훗날의 쇼와[昭和]천황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 와중에도 연구가 오라키라고 할 만큼 연구에 매진하였는데, 언어학, 고고학, 신화학, 민속학, 지리학, 지질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성과를 냈다.

1917년 三菱의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의 자금 도움을 받아 모리슨문고를 구입하였고, 이를 기초로 1924년 재단법인 東洋文庫를 설립하였다. 중국과 그 밖의 아시아 관계의 많은 사료를 수집하여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동양학 전문도서관을 만들었고, 研究部를 함께 만들어 스스로 부장이 되어 연구활동을 주재하였다.¹⁸⁾ 동양문고의 중요한 사업은 동양학에 관련된 연구논문의 출판과 동양학강좌의 개설이었다. 연구논문의 출판은 「東洋文庫論叢」, 유럽어로 쓰인 「東洋文庫研究部紀要」·「歐文東洋文庫論叢」의 3종류였는데, 동양학 연구를 도와 그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본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세계학계에 보여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동양학강좌의 개설에는 동양문고 내외의 학자를 강사로 초빙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양학 연구에 뜻을 둔 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研究生 제도를 설치하였다.

1925년 만 60세가 되어 22년간의 도쿄대학 교수직을 떠나 정년퇴임을 하였다. 이때 동료와 제자들이 그의 還曆을 기념하는 『東洋史論叢』을 편찬하였는데, 환력기념 논총은 일본 역사학계 최초라고 한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東洋文庫를 중심으로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갔고, 또 각종 학회·연구기관에 관여하였다. 당시 아시아와 관련된 학회 가운데 그가 관여하지 않은 학회는 이루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각종 대외 강연

18) 五井直弘, 1976, 앞의 책.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1942년 3월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Ⅲ. 白鳥庫吉의 동양사학 연구와 ‘만선사학’ 주창

1. 白鳥庫吉의 동양사학 연구

서양사 관련 연구업적을 제외하면, 그의 연구성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사’, 만주지역 민족사, 西域史가 그것이다.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연구는 “우선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미친다”¹⁹⁾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894년의 첫 논문인 「檀君考」를 시작으로 1897년에 이르기까지 10편의 논문이 모두 한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조선의 고대 전설고[朝鮮の古傳説考]」, 「조선 고대 제국 명칭고[朝鮮古代諸國名稱考]」, 「조선 고대 지명고[朝鮮古代地名考]」, 「조선 고대 왕호고[朝鮮古代王號考]」, 「조선 고대 관명고[朝鮮古代官名考]」, 「고구려의 명칭에 대한 고찰[高句麗の名稱に就きての考]」, 「약수고[弱水考]」, 「이두·언문[吏道·諺文]」, 「『일본서기』에 보이는 한국어의 해석[『日本書紀』に見えたる韓語の解釋]」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檀君考」에서는 단군신화가 불교사상의 영향 아래 後人이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 고대의 國名·地名·王號·官名 등의 명칭과 한국 고대의 지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 초기의 한국관계 연구에서는 『삼국사기』 등의 사료에 대한 ‘엄격한’ 사료 비판을 시도하였다.

이어 시라토리는 만주와 몽골 지역에 거주했던 여러 민족의 언어와 종족, 문화 등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였다. 중국 역사서에 보이는, 만주

19) 松村潤, 1990, 앞의 글.

지역에 나타난 여러 민족의 민족계통과 그 거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肅慎族은 길림성을 중심으로 분포한 통구스족임을 주장하였고, 읍루·말갈·물길 등도 통구스족이며, 예맥·부여·고구려는 여기에 蒙古種이 더해진 것이라고 하였다. 시라토리가 만주와 '조선'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은, 유럽의 동양에 대한 연구가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에만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⁰⁾

다음으로 시라토리는 塞外와 서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시라토리는 이른바 西域史의 개척자였다. 몽골로부터 서아시아에 관한 비판적 검토에 들어가, 흉노를 투르크 민족으로 보았던 종래의 서양학계 통설에 대하여, 몽골 민족을 근간으로 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는 등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밖에 중국과 일본의 전설, 신화, 고대사에 관한 비판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記』·『紀』에 대한 비판 아래 이루어진 일본 神代史 연구는 쓰다의 연구에 조금 앞서서 그리고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라토리의 연구에서는, 먼저 리스에게서 배운 '엄격한 사료비판'을 전제로 하여, 고대 동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 속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민속학·신화학 등과 특히 언어학적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이것은 '합리적·분석적'인 사료비판과 그에 기초한 실증적 방법이라는 서구 근대사학의 비판적 방법론을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시라토리가 '동양사학'을 개창하고 동양사 연구를 시작할 때는 러일전쟁과 '한일병합'이 이루어졌던 시점이었다. 즉,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양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시라토리의 연구성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古代史上的 중국 주변 여러 민족의 민족계통, 그 거주지 또는 분포범위, 이동경로, 시기에 따른 명칭의 변천, 지명과 도성·교통로 등의 역사지리적 고증이었다. 그리고 주변 여러 민족과는 다른 일본 민족과 일본 문화 고유의 독

20) 白鳥庫吉, 1934, 「滿鮮史研究の三十年」, 『國本』 14-9; 白鳥庫吉, 1971a, 『白鳥庫吉全集』 10(雜纂 他), 東京: 岩波書店, 403~407쪽.

자성을 학문적으로 논증하려 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한국의 역사, 특히 근대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일본 동양사학이 서양학계의 범위 안에서 시민권을 세우는 데에 노력을 집중했다. 그에게 있어 이러한 시민권 획득은 근대 일본의 국가적 발전과 동질의 평가를 받았다.²¹⁾

한편, 팽창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현실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일본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중심의 역사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몽골 등 다른 아시아는 타자화·대상화되었다.

시라토리가 중심이 된 일본의 ‘동양사학’은, 일본이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동시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객관주의적 범주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에 대해 오리엔탈리즘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에 부응하는 지식의 형태였다. 서양과의 동일성과 차이성 가운데 발견·창조된 ‘동양’과 그 속의 ‘조선’·‘만주’, 즉 ‘만선’ 및 ‘지나’의 심상지리와 역사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정되는 일본의 정체성, 근대화 과정에서 반복된 일본의 난제는 바로 이 같은 구도 속에 존재했던 것이다. 아시아 또는 ‘동양’이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 형성된 질서였다.²²⁾

시라토리는 아시아의 지리와 역사가 남북 양대 세력의 이원적 현상(dualism)을 갖고 있다는 ‘남북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아시아의 동쪽에서는, 南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나’이고, 北은 유목·수렵에 종사하는 야만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역사·지리연구의 범위를 조선으로부터 ‘만주’, 나아가 중앙아시아, 서역 그리고 동유럽까지 넓혀 광대한 ‘동양’ 속에 지나까지 짜 넣은 ‘남북 이원론’에 의해 조선이나 ‘지나’의 쇠퇴와 그 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계통적으로 일본이 ‘동양’의 이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실증하려고 했다.²³⁾ 지리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역사를 조망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21) 小山正明, 1976, 앞의 글.

22) 강상중 지음, 이경덕·임성모 옮김, 1997, 앞의 책.

지리에 대한 큰 관심은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동양사’의 창출은 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일본 특유의 시각에 권위를 부여했다. ‘동양사’는 근대 일본이 아시아의 최선진국으로서 유럽과 대등한 나라이며, 중국과 다를 뿐 아니라 문화적·지적·구조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점을 확립했다.²⁴⁾ 이렇게 ‘동양사학’은 일본의 우월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조선’·‘만주’·‘지나’ 등에 대한 타자화, 하위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 의해 성립하였는데, 그 출발점은 시라토리가 주창한 ‘만선사학’의 성립이었다.

2_ 白鳥庫吉의 ‘만선사학’ 주창

‘만선사’는 ‘만주사’와 ‘조선사’를 결합한 용어이다. ‘만선사’ 혹은 ‘滿韓史’란 용어는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부터 사용된 듯하다.²⁵⁾ 처음 한국사에 관심을 기울였던 일본 동양사학계에서는, 부여·옥저·고구려 등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있었던 ‘만주 계통 민족’의 연구도 한국 고대사를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여 한국사의 일부로 연구하였다.²⁶⁾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한국을 발판으로 중국 대륙으로 침략의 화살을 돌리자, 연구자들의 관심은 중국 본토와 만주, 몽골로 옮겨갔다. 한국과 만주를 포함한 지역의 경영이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역사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滿韓經營’을 실행한 것이 ‘만선사’였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만주 침략과 지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23) 강상준 지음, 이경덕·임성모 옮김, 1997, 앞의 책.

24)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앞의 책.

25) 박찬홍, 2005, 앞의 글. 물론 ‘만주사’라는 용어는 러일전쟁 이전인 1900년 那珂通世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臺灣朝鮮滿洲史研究の枝折」이란 글에서 ‘만주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那珂通世, 1900, 「臺灣朝鮮滿洲史研究の枝折」, 『史學雜誌』 11-1). 그는 이 글에서 ‘臺灣部’, ‘朝鮮部’, ‘滿洲部’로 나누어 관련된 漢籍史學 서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부여와 발해는 ‘만주부’에 넣어서 서술하였고, 고구려는 ‘조선부’에 서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6) 旗田巍 著·李基東 譯, 1983, 앞의 책.

수행한 기관은 南滿洲鐵道株式會社였다. 시라토리는 國策조사활동을 중시한 만철 초대총재 고토 신페이를 설득하여, 1908년 滿鮮歷史地理調査室을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만선사’ 연구를 진행하였다.²⁷⁾

시라토리는, 만주는 일본 國運의 消長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금의 형세가 유래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는 ‘滿韓經營의 실제적인 필요성’과, 滿·韓 지역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일본 학계에 풍부한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학술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서양학계에서는 만주·조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세계학술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하였다.²⁸⁾ 결국 그는 일본의 한국·만주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지지하여,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기 위해서 滿韓의 학술적 연구, 즉 ‘만선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만철과 손을 잡았다²⁹⁾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륙진출에 발맞추어 동양사학의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그 연구성과를 일본의 대륙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라토리는, ‘만주’ 지역이 남북 2대 세력의 파동을 입어 재해를 뒤집어쓰면서도 한편으로는 2대 세력이 싸우다 지치는 때를 엿보다가 이를 틈타 급세 강대한 세력을 건설하는 편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만주를 중립지대화하자는 논리를 펴다. ‘근래’에 일본, 중국, 러시아 삼국 사이에 만주가 자리하고 있는데, 땅이 넓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달리, 일본에게 만주는 생명선과도 같으니 만주를 중립지대(neutral zone)로 만들어야 일본이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시라토리는 ‘만주’ 생명선론이라는 논의와 정책을 ‘어디까지나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보강하는 학문적 태도를 가졌다.³⁰⁾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의 연구원은 시라토리가 주임을 맡았고, 야나이 와타

27) 白鳥庫吉, 1929, 「後藤伯の學問上の功績」, 『吾等の知れる後藤新平伯』; 白鳥庫吉, 1971b, 『雜纂 他』(白鳥庫吉全集 第10), 岩波書店; 五井直弘, 1976, 앞의 책.

28) 白鳥庫吉, 1934, 앞의 글; 白鳥庫吉, 1971b, 위의 책; 白鳥庫吉, 1913, 「序」, 『滿洲歷史地理』, 南滿洲鐵道株式會社.

29) 旗田巍 著·李基東 譯, 1983, 앞의 글.

30) 五井直弘, 1976, 앞의 책.

루·마쓰이 히토시·이나바 이와키치·세노 우마쿠마가 '만주'의 역사지리를 담당하였으며, 1908년 4월부터 이케우치 히로시·쓰다 소키치가 조선의 역사지리를 분담하였다. 이 조사는 1915년 켈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되었고, 대신 만철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東京帝國大學 문학부로 이관되어 연구 자체는 계속 이어졌다.³¹⁾

이것은 만철이라는 경제적·문화적인 식민정책 수행기관 차원에서 형성된 학문의 기초가 도쿄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 '관학아카데미즘'으로 계승된 것을 의미하며, 시라토리가 제시한 것과 같은 일본관, 아시아관= '만선사관'도 또한 '관학아카데미즘'이라는 권력장치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 '만선사관'이 일본 동양사학의 모습을 크게 규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³²⁾

만선역사지리조사의 연구원에 이나바 이와키치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조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는 유일하게 대학졸업 자격도 없고, 학문적 계보에서도 시라토리 구라키치와의 관계가 희박한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가 국제정치정세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滿韓經營』 등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선사'에 대해 제기한 여러提言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사는 '만한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나바 이와키치는 이 조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³³⁾

이 외에도 마쓰이 히토시는 제국대학 졸업 후 육군에 지원하여 러일전쟁을 참전한 뒤, 귀국하여 '전쟁에 참가한 것이 동기가 되어' 러일전쟁의 주된 戰場이었던 '만주'를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노 우마쿠마는 전쟁 경험은 없지만 3년간 타이완총독부문서편찬 및 '土匪討伐編修'에 종사하여, 식민지 지배의 입장에서 역사연구를 진행해 왔다. 從軍 경험과 식민지 행정과 관련된 연구에 종사했던 이나바 이와키치·마쓰이 히토시·세노 우마쿠마의 존재는 '학

31) 東京帝國大學, 1942, 『東京帝國大學學術大觀』.

32)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2009, 앞의 글, 168쪽.

33) 井上直樹, 2006, 「日露戰爭後の日本の大陸政策と『滿鮮史』-高句麗史研究のための基礎的考察」, 『洛北史學』 8.

술적 見地'와 '만한경영'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조사실의 설립목표를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 조사실의 연구원들이 시라토리의 역사관과 지리결정론을 계승하게 되었다.

만선역사지리조사실의 연구성과는 『滿洲歷史地理』 2권(1913), 『朝鮮歷史地理』 2권(1913)으로 간행되었고, 도쿄제국대학으로 이관된 뒤에는 1915~1941년까지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6권으로 간행되었다. 특히 26년에 걸쳐 16권으로 간행된 『만선지리역사연구보고』는 일본 동양학계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대 업적³⁵⁾이라고 칭송되기까지 했다.

'만선사학'에서는, 연구의 중심을 고대사에 두었고, 일본의 대륙발전과 한국 식민지화를 긍정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행하지 않았으며, 지명 고증에 치중한 지리적 관점이 크게 투영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볼 수 없는 민중不在의 역사학, 인간 부재의 역사학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³⁶⁾

시라토리가 '만주'나 '만선'이라고 할 때 그 심상지리 속에는 '도성의 위치, 전쟁 때의 행군경로, 교통로, 영역' 등의 지명 고증은 있어도 그곳에 살아온 구체적인 민족이나 주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기획은 식민지 제국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는 '현지인의 침묵'을 전제로 해서 성립할 수 있었다.

'만선사'에서 말하는 '조선사란 '조선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조선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일어난 역사이다. 이것은 바로 '반도적 성격론'에 근거한 타율성론과 직결되고, 그 결과 외적의 침입, 외국 지배하의 한국, 대외관계사에 연구의 중심이 주어져 있으며, 그 시각도 한국 측이 아니고 중국, 만주, 일본

34) 井上直樹, 2006, 위의 글. 이오누에 나오키[井上直樹]는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나바 이와키치가 일본 參謀本部和 밀접한 관련 하에 '만선사학'을 제기·주도하였다고 하여, 고타마 겐타로[兒玉源太郎, 만주군총참모장]-만주군참모-조사실-고토 신페이[後藤新平]와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다.

35) 和田清, 1932, 「滿洲蒙古史」, 「明治以後における歴史學の發達」, 『歴史教育』 7-9; 和田清, 1942, 「我が國における滿蒙史研究の發達」, 『東亞史論叢』, 生活社.

36) 旗田巍 著·李基東 譯, 1983, 앞의 글; 五井直弘, 1976, 앞의 책; 미쓰이 다카시 [三ツ井崇], 2009, 앞의 글.

등의 상대국에 있게 되었다.³⁷⁾ '조선'은 이제 '만선'이라는 지정문화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이 국민적인 형태를 결여한, 단순한 지리적인 영역으로만 존속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³⁸⁾

IV. 白鳥庫吉의 '만선사' 인식

1_ 白鳥庫吉의 '만주사' 인식

시라토리 구라키치에 따르면, 아시아의 역사는 남북 이원론적 역사로서, 南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고, 北은 유목·수렵에 종사하는 민족이라고 한다.

고대에는 대개 漢민족으로 대표되는 남의 세력과 北狄이라 통칭되는 북의 세력이라는 두 세력의 거듭되는 흥기와 쇠망, 이완과 긴장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수세력의 이합집산이 동양사의 국면 진전의 증추를 이루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남쪽 세력으로 영국인이 출현하고 북쪽 세력으로 러시아인이 활약하게 되지만 여전히 남북 대립의 형태는 존속되고 있다. 극동의 역사는 이 두 인자의 대립을 근간으로 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동서의 역사가 고래로 이 이원론(dualism)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역사상의 사실을 바라보면, 두 세력 각각의 성쇠는 물론이고,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부터 동쪽으로 만주·조선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바다를 건너 우리 일본 역사까지 매우 타당한 해석을 얻는 바가 적지 않다.³⁹⁾

37) 李基白, 1987, 「半島의 性格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1; 金容燮, 1963, 「日帝官學者들의 韓國史觀」, 『思想界』 2월호.

38) 강상중 지음, 이경덕·임성모 옮김, 1997, 앞의 책.

39) 白鳥庫吉, 1930, 「東洋史に於ける南北の對立」, 『東洋史講座』 16.

아시아 북부의 동쪽은 만주에서 서시베리아에 이르는 지대로, 여기에는 통구스인종이 거주했는데, 옛날의 肅慎, 唐代의 靺鞨과 渤海, 그 뒤의 여진, 즉 金나라 그리고 滿洲人이 바로 그들이다. 그 서쪽으로 몽골인—몽골인 이전에는 타타르인—이 있었고, 다시 그 서쪽에 터키가 있다. 아시아의 남부에는 황하·양자강 유역의 '支那' 문화,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화와 그에 인접한 페르시아 문화, 서쪽으로 티그리스·유프라테스에 발달한 아시리아·바빌론 문화, 아라비아 문화, 이집트 문명이 있다. 아시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북방의 무력을 가진 민족이 시종 남쪽의 문명국을 침략해 들어오는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동양사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남북의 대항, 文武의 쟁패가 아시아 역사의 대강이라고 보았다. '지금' 아시아가 쇠퇴한 것은, 북방의 민족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남방 민족을 정복한 뒤 그 바람에 오염되어 文弱에 흐르면서, 원래의 강한 북방의 성질을 잃어버렸으며, 남방 민족은 문화의 발달이 저해되고 도덕은 쇠퇴하여 진취의 기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⁰⁾

시라토리에 따르면, 이 남북 대항의 동쪽 끝에 위치한 것이 바로 만주·조선 및 일본의 역사이다. 흑룡강 지류인 송화강과 눈강 유역에는 통구스족이 오래전부터 살았는데, 이 통구스족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 기록에 보이는 숙신, 말갈, 여진, 만주이다. 그리고 송화강 상류부터 동몽골에 걸쳐 살고 있었던 것이 濊貊이다. 이 통구스족의 하나인 예맥족이 만주에 세운 가장 오래된 세력이 고구려라고 보았고, 고구려는 본래 부여 민족이었다고 하였다.⁴¹⁾

예맥족은 순수 통구스種인 숙신과, 통구스와 몽골種의 혼혈인 東胡 사이, 즉 북류 송화강·압록강·두만강 유역과 함경도·강원도에 거주하였는데, 漢魏시대의 부여·고구려·옥저·예맥이 바로 이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등의 언어를 근거로 예맥족은 통구스種을 골자로 하여 여기에 蒙古種이 가미된 잡종이라고 규정하였다.⁴²⁾

40) 白鳥庫吉, 1930, 위의 글.

41) 白鳥庫吉, 1909, 『滿洲民族의過去』, 『東洋時報』 132.

부여라는 국가가 고구려 앞에 있었고, 고구려가 부여에서 갈라져 내려왔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주 최초의 국가를 고구려라고 규정한 것이 주목된다. 고구려의 역사를 매우 강조한 것이다. 고구려는 압록강가에서 출발하여 중국 한나라 사군을 몰아내면서 국가가 성장하였고,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지역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제국으로서 중국의 수나라·당나라와 전쟁을 벌였기 때문일 것이다. 부여는 이에 비해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이었고, 오히려 고구려와 적대적이면서 결국 고구려에게 멸망당한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듯하다.

시라토리 구라키치에게 고구려는 '만주사' 최초의 국가로서 주목되었다. 고구려가 주목되는 것은 일본사와의 관련성 때문이기도 하다. '광개토왕비문'의 신묘년조 기사를 근거로 일본이 한반도 남부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신라를 복속시켰지만, 북쪽의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세력이 위축되었다고 이해하였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서북쪽에는 선비족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고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외적 상황은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1900년대 초와 비슷하다고 하였다.⁴³⁾

그런데 시라토리가 처음부터 고구려를 '만주사'의 일부로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 그는 고구려를 '조선사'의 일부로 이해하였다. 1894년에 쓴 「朝鮮史 一」(미발표원고)⁴⁴⁾에서, 고구려는 기원 전후에 한나라 四郡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면서, '고구려·백제·신라·駕洛의 기원', '고구려의 발전', '고구려의 남하' 등의 항목을 설정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조선사' 범주 안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시라토리도 처음에는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사를 '조선사'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1905년 무렵 '만주사', '만선사'를 주창하면서, 고구려를 만주지역의 역사, 즉 '만주사'의 역사로 재인식하고 있

42) 白鳥庫吉, 1932, 「濊貊は果して何民族と見做べきか」, 『史學雜誌』 44-7.

43) 白鳥庫吉, 1931, 「東洋史上における滿鮮の位置」, 『現代日本の研究』.

44) 白鳥庫吉, 1894a, 「朝鮮史 一」, 『白鳥庫吉全集』 3, 岩波書店.

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를 뒤이어 '만주사'의 두 번째 국가는 발해라고 하였다. 고구려는 貊族 계통으로 조선 쪽에 접근하여 거주했던 반면, 발해는 물길 혹은 말갈로서 백두산 북쪽, 송화강, 흑룡강 유역에 거주했다고 하였다. 발해의 등장으로 '滿鮮지역'에는 신라, 발해, 당나라라는 세 세력이 병립하여 서로 대치하는 형세가 되었고, 압록강 남쪽에서 대동강 이북 지역은 일종의 무소속지대로서 중립지대가 되었다고 하였다.⁴⁵⁾

이렇게 발해는 건국 초부터 남쪽 한반도에는 통일 초의 신라, 서남의 요동 방면에는 당나라, 북쪽 흑룡강 방면에는 흑수말갈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적들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세 방향의 세력에 끼어 孤立의 지위에서 있는 운명이었다고 하였다. 건국 초부터 일본에 조공을 해서 멸망할 때까지 일본과 交通을 했던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여, 은연중에 일본이 발해에 대해 우위의 입장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과시하였다. 발해는 당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모방했기 때문에 점차 文弱해져 북방의 강한 성질을 잃어버렸고, 결국 거란에게 멸망당하였다고 하여,⁴⁶⁾ 발해의 멸망원인을 자신의 남북이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만주에서 세 번째로 일어났다고 본 것이 여진이다. 금나라를 세운 여진은 거란족의 요나라가 文弱해지고 쇠퇴하여 서쪽 西夏에게 땅을 빼앗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일어나 크게 세력을 떨쳤으나, 곧 요나라와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였다. 요나라와 금나라가 만주에 번갈아 있었을 때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있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몽골에게 모두 복속되고 말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일어난 만주 민족이 청나라 황실이라고 보았다.⁴⁷⁾

물론 '현재' 이러한 만주지역 국가의 역사를 계승한 것이 바로 만주국이었

45) 白鳥庫吉, 1933, 「歷史上より觀東たる滿洲國」, 『東洋』 36-3.

46) 白鳥庫吉, 1931, 앞의 글.

47) 白鳥庫吉, 1909, 앞의 글.

다고 인식하였다.⁴⁸⁾ 滿洲國이 건립되자(1932) '현재'의 '만주국' 영토 안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역사는 '만주사'로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⁴⁹⁾ 만주국의 건국 이후 일제는 몽골·시베리아 방면과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였고, 그 결과 '滿蒙史'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화되었고, '東亞'·'東亞史'와 '大東亞'·'大東亞史'라는 지역 개념, 역사인식이 새롭게 등장하였다.⁵⁰⁾

이 시점에서 시라토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여전히 '만선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오늘날 아직도 歐美人이 색안경을 끼고 보듯이 (만주국이) 단지 일본의 괴뢰정권으로 생겼는지 어떤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는 만주의 근본적인 역사를 이해시켜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만주의 고대사를 순수하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전문 역사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⁵¹⁾

2_ 白鳥庫吉의 '조선사' 인식

일본에서의 동양사 연구는 한국사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한국 고대사, 특히 삼한·삼국의 연구에 집중·한정되었고, 문헌적 고증을 통해 전통적인 도그마에 대한 비판이 행해졌으며, 언어연구가 역사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⁵²⁾ 이러한 동양사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시라토리 구라키치였다.

시라토리는 동양사 연구에서 언어학, 특히 비교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지명·국명·관명의 고증에는 물론이고 언어의 분류와 기원에 대한 고

48) 白鳥庫吉, 1933, 앞의 글.

49) 박찬홍, 2005, 앞의 글.

50)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지음, 이승연 옮김, 2005, 『동아·대동아·동아시아』, 역사비평사; 박찬홍, 2007, 앞의 글.

51) 白鳥庫吉, 1934, 앞의 글.

52) 旗田巍 著, 李基東 譯, 1983, 앞의 글.

찰에서도 그러하였다. 처음 그는 한국어를 우랄·알타이어 계통으로 상정하고, 일본어와 관계성이 깊다고 설정하였다. 그리고 언어학 가운데 음운론 전개를 주안점으로 삼아, 한국어에서 ‘p’음과 ‘b’음이 상통한다는 점과 일본어에서 p → h음의 변환의 관계, 모음조화현상 등을 근거로 한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우랄·알타이어 계통이라는 동계통론을 주장하였고, 1904년까지의 논고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이 관통되고 있었다.⁵³⁾

그런데 「한·일·아이누 삼국어의 수사에 관하여[日漢アイヌ三國語の數詞に就いて]」(1909)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동계통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다가, 「동양사상에서 바라본 일본국[東洋史上より觀たる日本國]」(1913)에서는 동계통론을 부정하고 일본어가 일본 고유의 언어라는 일본어 특수론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고, 「조선어와 우랄-알타이어와의 비교연구[朝鮮語とUral-Altai語との比較研究]」(1914)에서는 동계통론의 입장에서 日鮮同祖論을 주장했던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언어는 일본 주위에 있는 언어와는 전혀 그 종류를 달리한다고 주장하며, 동아시아에서도 차이성을 가진 ‘일본어’를 새로이 규정하였다.⁵⁴⁾

시라토리의 이러한 변화는 당시 일본과 ‘조선’을 둘러싼 정세변화에 기인하였다. 1904~1905년에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한국을 ‘보호국화’하자, 인식에 변화가 생겼던 것이다. 즉, 시라토리의 한국어 계통론에 대한 주장이 ‘日朝同系論’으로부터 ‘日朝非同系論’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역사 연구에서 ‘日鮮同祖論’을 부정하고 ‘만선사’를 개창하는 과정과 병행관계에 있었다.⁵⁵⁾

언어학적 연구로에서 비롯된 시라토리의 한국사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조선사’의 기원을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부터 서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

53) 전성곤, 2006, 「일본 비교언어학과 인류학의 변용 양상 고찰—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17.

54) 전성곤, 2006, 위의 글.

55) 三ツ井崇, 1999, 「『滿鮮史』と朝鮮語學」, 『人民の歴史學』 138; 三ツ井崇, 2000, 「白鳥庫吉の歴史認識形成における言語論の位相」, 『史潮』 48.

지 않았다. 중국에서 이주한 기자와 위만은 한반도의 서북부를 통치하였다고 보아 '기자동래설'을 인정하였지만, 기자조선 이전의 단군조선은 인정하지 않았다. 단군신화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단군신화는 몽골의 침입을 당한 고려 후기 승려 일연이 창작한 것으로서, 불교 용어인 桓因, 즉 桓因帝釋陀羅나 도교 용어인 風伯·雨師·雲師 등이 신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불교나 도교가 수용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⁵⁶⁾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던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지배자는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식민지라고 이해하였다. 즉, 고조선은 '조선사'와 무관한 국가로, 중국인이 건너와 건국한 국가였다고 이해하였다.⁵⁷⁾

한반도의 서북부는 동양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쪽 세력인 중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반면, 한반도의 동북부는 북쪽 세력인 통구스種 맥족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즉, 한반도에서는 예맥종족과 중국인이 서로 다투고 있었고, '조선'의 북쪽에서는 동쪽은 예맥이, 서쪽은 중국인이 거주하여, 산맥을 중심으로 동서로 대립, 相爭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한 '조선인'인 韓族은 남부인 경상도·충청도·전라도 3도에만 존재했는데, 韓族의 문화수준은 중국은 물론이고 예맥족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수준이었다고 파악하였다. 이렇게 열등한 '조선 고유의 토착 인민'이 독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한반도 북쪽에 동서로 나뉘어져 대립, 相爭하고 있었던 두 세력, 즉 남쪽의 중국인과 북쪽의 예맥 때문이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아시아대륙 전체의 관점에서 본 이원적 현상 때문에, 아시아대륙 동남단에 위치한 한반도의 韓族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⁵⁸⁾ 여기에서도 고구려는 '조선인'이 아니라 북방의 통구스種의 하나인 맥족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다.

북쪽 세력인 맥족의 국가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남쪽 세력인 중국의 四郡을

56) 白鳥庫吉, 1894b, 「檀君考」, 『學習院輔仁會雜誌』 28 ; 白鳥庫吉, 1894c, 「朝鮮の古傳說考」, 『史學雜誌』 5-12.

57) 白鳥庫吉, 1907, 「韓史概說」, 『叡山講演集』.

58) 白鳥庫吉, 1931, 앞의 글.

쫓아냄으로써, 한반도 남부의 韓族은 고구려에게 병탄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때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나타나 고구려와 대립하면서 韓族을 보호해 주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메이지[明治]시대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일본은 임나에 일본부를 설치하고 백제와 신라를 복속시키면서 고구려에 대항하였는데, 신라는 오히려 고구려에 의지하면서 일본에 저항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청나라에게 의지하다가, 다시 러시아에 의지하여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일본이 근본적으로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와의 전쟁이 불가피했고, 전쟁 결과 일본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전쟁이 「광개토태왕비문」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 뒤 신라는 남쪽의 중국 당나라에 의지하여 북쪽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일본 세력마저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아냈고, 중국이 약해진 것을 이용하여 그 세력도 몰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하였다고 해석하였다.⁵⁹⁾ 이렇게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고, 신라의 '삼국통일론'을 인정하여 '한반도를 통일했다'고 인식한 것은 다른 역사학자들과 공통된 역사인식이었다.

신라의 멸망 이후 고려에 대해서는 시라토리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만선사', 혹은 '만주사'의 관점에서 고려가 큰 주목을 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는 다만 '조선반도'에 존재했던 '조선사'의 일부로서 충실한 왕조였다고 보았던 듯하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 세종 때에 이르러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되었다. 강대국의 틈에서 외세 의존적인 반도의 국가 조선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시라토리는 자신만의 견해를 내놓고 있다. 즉, 당시 중국과 일본, 北狄 모두가 약했기 때문에 조선이 그 틈을 이용하여 영토를 확대할 수 있었고, 메이지시대까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⁶⁰⁾

전체적으로 볼 때 '만선사'를 주창한 이후 시라토리는 '조선사'에 대해 별

59) 白鳥庫吉, 1931, 앞의 글.

60) 白鳥庫吉, 1931, 앞의 글.

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관심의 대상이 '만주'·'몽골'·'지나'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20년대 이후에는 고구려·부여·예맥 등에 대한 몇 개의 논문·평론·강연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1925년 조선사편수회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사' 연구의 주도권이 조선사편수회로 옮겨갔던 데에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滿鮮史學'은 만주지역의 역사인 '만주사'와 '조선반도'의 역사인 '조선사'를 합해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만주와 '조선반도'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단위로 인식하였다. 일본 근대 역사학에서 동양사학을 개척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1905년 러일전쟁 직후 '만선사'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만주 진출을 앞두고 창안된 역사인식이었다. 처음에는 시라토리를 중심으로 滿鮮歷史地理調査室의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야나이 와타루[箭内互],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등이 만선사 연구를 주도하였다. 만선사 연구는 지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사나 대외관계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중국과 대립하면서 만주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려 했고, 또 통치하고 있던 일제의 의도에 부합하는 역사연구였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일제가 만주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는 '滿蒙史'와 '東亞史'로 변화되었고, 다시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자 '大東亞史'로 확대되었다.

일제 때의 고조선은 '기자조선'과 위만조선만을 가리킨다. 단군신화는 13세기 일연이 창작하였다고 보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중심지가 평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조선사'로 보아야 했지만, 시라토리는 중국의 식민지로 이해하였다.

시라토리는 처음 고구려를 '조선사'에 포함시켰지만, 1905년 이후 '만주

사' 최초의 국가로 인식하였다. 고구려의 역사는 만주로 진출하려는 일본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역사로 인식되었다.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 만주 민족이 세운 두 번째 국가로 평가되었다.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이해되었다. 발해사는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과 만주의 우호적인 교류관계를 입증하고, 문명화된 일본이 미개한 만주를 개화시켜야 할 당위가 있다는 역사적 실체로서 주목되었다.

'만주사'에서 발해에 이어 등장한 국가·민족은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 여진족의 후금·청나라였는데, 시라토리는 이 가운데 여진족의 금나라와 청나라를 고구려·발해를 잇는 '만주사'의 국가라고 이해하였다. 이들 만주의 국가들은 남쪽에 있는 중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점차 文弱해져 쇠망해 갔다고 이해하였다.

한편, 백제사·신라사·가야사는 반도의 역사 '조선사'로 인식되었고, 그 성격은 일본의 직접·간접적 영향 아래 있었다고 여겨졌다. 타율적인 역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왜는 삼한시기였던 3세기부터 한반도 남부에 세력권을 두고 있었고, 백제와 신라가 국가로 출발한 4세기 이후 '임나일본부'를 설치하여 백제와 신라를 附庸國家로 거느렸다고 보았다. 또, 고구려·백제의 멸망은 신라의 '반도 통일'을 가져왔고, 이때의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인식하였다. '통일신라'는 이후 고려, 조선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하였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시라토리의 '만선사학'은 현실과 유리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라토리는 1942년 사망했다. 그래서 그를 '행복한 시대, 행복한 사람'⁶¹⁾이라고 평했는지도 모르겠다.

61) 津田左右吉, 1944, 앞의 글.

참고문헌

〈단행본〉

- 강상중 지음, 이경덕·임성모 옮김, 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이산.
-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지음·이승연 옮김, 2005, 『동아·대동아·동아시아』, 역사비평사.
- 旗田巍 著, 李基東 譯, 1983, 『日本人의 韓國觀』, 一潮閣.
-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 白鳥庫吉, 1969~1971, 『白鳥庫吉全集』 第1~10卷, 岩波書店.
- 江上波夫 編, 1992, 『東洋學の系譜』, 大修館書店.
- 吉川幸次郎 編, 1976, 『東洋學の創始者たち』, 講談社.
- 吉川幸次郎 編, 2000, 『東方學回想』 I, 刀水書房.
- 東京帝國大學, 1942, 『東京帝國大學學術大觀』.
- 五井直弘, 1976, 『近代日本と東洋史學』, 青木書店.

〈논문〉

- 미쓰이 다카시[三ツ井崇], 2009, 「일본의 동양사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시라토리 구라카치(白鳥庫吉)의 역사학」, 『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 박찬홍, 2005, 「滿鮮史觀에서의 고구려사 인식 연구」, 『북방사논총』 8.
- 박찬홍,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 사쿠라자와 아이,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李基白, 1987, 「半島의 性格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1.
- 李萬烈, 1976, 「日帝官學者들의 植民史觀」, 『韓國의 歷史認識(下)』, 創作과批評社.
- 李萬烈, 1979, 「日帝 官學者들의 韓國史 敘述」, 『韓國史論』 6, 國史編纂委員會.
-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표상으로서의 광개토태왕비문」, 『만들어진 고대』, 삼인.
- 李龍範, 1969, 「韓國史의 他律性論批判」, 『月刊 亞細亞』 3월호.

- 전성근, 2006, 「일본 비교언어학과 인류학의 변용 양상 고찰-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17.
- 井上直樹, 2004, 「近代日本の高句麗史研究-『滿鮮史』·『滿洲史』와 關聯해서」, 『高句麗研究』 18.
- 東方學會 編, 1972, 「先學を語る-白鳥庫吉博士」, 『東方學』 44
- 寺内威太郎, 2004, 「『滿鮮史』研究と稻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歴史學』, 東京, 刀水書房.
- 三ツ井崇, 1999, 「『滿鮮史』と朝鮮語學」, 『人民の歴史學』 138.
- 三ツ井崇, 2000, 「白鳥庫吉の歴史認識形成における言語論の位相」, 『史潮』 48.
- 石田幹之助, 1942, 「白鳥庫吉先生小傳」, 『雜纂 他』(白鳥庫吉全集 第10卷), 1971.
- 小山正明, 1976, 「白鳥庫吉」, 『日本の歴史家』, 日本評論社.
- 松村潤, 1990, 「白鳥庫吉」, 『しにか』 6月號.
- 櫻澤亞伊, 2007, 「『滿鮮史觀』の再檢討」, 『現代社會文化研究』 39, 新潟大學.
- 井上直樹, 2006, 「日露戰爭後の日本の大陸政策と『滿鮮史』-高句麗史研究のための基礎的考察」, 『洛北史學』 8.
- 津田左右吉, 1944, 「白鳥博士小傳」, 『東洋學報』 29-3・4.
- 和田清, 1932, 〈滿洲蒙古史〉, 「明治以後における歴史學の發達」, 『歴史教育』 7-9.
- 和田清, 1942, 「我が國における滿蒙史研究の發達」, 『東亞史論叢』, 東京: 生活社.

[ABSTRACT]

Shiratori Kurakichi (白鳥庫吉) and the founding of
Manseonsaghak (滿鮮史學)

Park, Chanheung

Man-Seon Sahak is one way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Joseon and Manchuria. Shiratori Kurakichi (白鳥庫吉), was the originator of Oriental history, advocated in 1905. It is devis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Manseonsa research was mainly done by politician or diplomats with geographic problems in focus. It was a research to confront China, to rule Manchu and also to correspond with Japan's intention who was presently ruling (Korea). Shirathori Khurakhichi led the Manseon historic-geographical research center (滿鮮歷史地理調査室) with Ikheuchi Hiroshi (池内宏), Yanae Wathai (箭内互), and Inaba Ewakhichi (稻葉岩吉).

Man-Seon Sa (the history of Manchu and Joseon) was mentioned first by a Japanese scholar, Shiratori Kurakichi, backing the Japanese Imperialism launching towards Manchuria. His perspective on the Asian history changed, in turns, into Man-Mong Sa (the history of Manchu and Mongol), Dong-A Sa (the history of East Asia), and then Dae Dong-A Sa (the history of the Great Asia).

The practice of the history which sees the history of Manchu and Joseon altogether starts off with understanding of the Goguryeo dynasty. This dynasty occupied the vast territory from the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to Manchuria. Moreover, what the Japanese

Imperialism made a model out of the dynasty was that it had overcome all the harsh wars against the Chinese dynasties, and that it took the victory against China.

The history of Gojoseon included Gija Joseon and Wiman Joseon by historians during the Imperial Japanese rule. The fact that the capital of Gojoseon was in current Pyeongyang made the history of Gojoseon as a part of the history of Joseon, Shiratori asserted it was Chinese Colony. The history of Balhae is placed as the second dynasty of Manchu following Goguryeo. The Imperial Japan tried to reveal friendly relations between Balhae and ancient Japan so that it was justifi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ivilize” the “barbaric” Manchu.

There are the Kitan Liao (契丹遼), the Jurchen Chin (女真金), the Monggol (蒙古), Manchu Ching (滿洲清) on the back of Balhae in Man-Chu Sa, Shiratori Kurakichi appreciated that the Jurchen Chin and Manchu Ching was in succession to Goguryeo and Balhae. He comprehended that the States on Man-Chu Sa were effeminated and declined after coming in contact with Chinese culture.

On the other hand, the histories of Baekje, Shilla, and Gaya were acknowledged as parts of the history of Joseon. It was generally accepted that Wae controlled Baekje and Shilla through the Imnail-bonbu which Wae instituted after the fourth century. Shilla was given a name of a “unified Shilla” when it took the whole Korean peninsula after Goguryeo and Baekje had collapsed.

keywords

Shiratori Kurakichi (白鳥庫吉), Manseonsaghak (滿鮮史學), Manchu-sa (滿洲史), Joseonsa (朝鮮史), the Manseon historic-geographical research center (滿鮮歷史地理調查室)



식민지 조선의 黑板勝美와 修史사업의 실상과 허상

송완범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교수

I. 머리말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¹⁾는 1874년(明治 7)에 나가사키[長崎]에서 태어나 도쿄[東京]에 있던 제국대학을 졸업한 이래, 古文書와 古典籍의 출판과 보급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구체적인 사업은 『大日本古文書』의 편찬²⁾과 『新訂増補 國史大系』의 교정 출판사업³⁾ 등인데, 이는 지금도 일본사의 필수 사료의 위

※ 투고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 1) 黑板勝美, 1939, 『虚心文集』 全8卷, 吉川弘文館. 1권 국체, 정치사상 : 천황신성/2권 신화, 성덕태자, 후제호천황, 남북조 정통론/3권 문화 : 백제, 지나/4권 각 시대사 개관, 대동강 부근 사적, 사적유물보존, 박물관, 고문서관/5권 고문서학, 고문서/6권 고문서양식론, 사경, 『일본서기』/7권 구미문명기(시인을 이해하려면 시인의 나라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된다 : 괴테)/8권 고적 : 남유럽, 이집트, 근세 남양, 지중해 등 참조.
- 2) 『대일본고문서』에는 편년문서, 소장자별 고문서[家わけ文書], 막말외국관계문서의 세 종류가 있다. 편년문서는 '정창원문서'를 중심으로 나라시대의 문서를 연차순으로 정리한 것이고, 소장자별 고문서는 사원이나 신사 그리고 諸家の 문서를 소장자별로 분류 정리한 것이다. 또 막말외국관계문서는 외무성의 막말외교문서의 편찬사

치를 잃지 않고 있다.

구로이타는 일본 근대역사학의 성립에 큰 족적을 남긴 대학자인 것이다. 이러한 구로이타 가쓰미의 '일본고문서학의 정립'이라는 성과와는 별도로, 구로이타의 40대 이후의 중진학자로서의 활동은 한반도에 경사되어 있었다. 즉, 구로이타의 후반부 활동은 1915년 조선을 처음 방문한 이래 16년간에 걸친 '조선사편수(1922~1938)'와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조선고적조사' 사업에 열중한 것이었다.

종래의 연구는 일본에서의 고문서학, 혹은 조선에서의 조선사편수 사업의 어느 한 부분에만 관심을 두어 '구로이타 사학'의 전체적인 의미와 전환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일본 측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사료학을 정립한 대학자이자 도쿄제국대학에서 30년 이상의 교편을 잡은 관계로 일본 사학계의 장로적 위치를 점한 대학자, 어느 모로 보더라도 모든 것이 善人⁴⁾의 이미지인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사 왜곡의 총사령탑 역할을 한 전형적인 식민사학의 대표자이자, 현재의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낳은 잇을 수 없는 惡人⁵⁾의 이미지일 수

업을 계승한 것으로, 페리 제독 내항 이후의 외교관계를 둘러싼 근대 일본 여명기의 사료를 모은 것이다.

- 3) 『신정증보국사대계』의 교정·출판 사업은 1929년부터 1964년의 장기간에 걸쳐 길천홍문관에서 행해졌다.
- 4) 1946년 구로이타의 사후,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古文化の保存と研究：黑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 吉川弘文館；三成重敬 他, 1959, 「黑板勝美博士を偲びながら(座談會)(上・下)」, 日本歴史學會 編, 『日本歴史』(通號 134・135), 吉川弘文館；東京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編, 1987, 『東京大學百年史 部局史四』, 東京大學, 第19編 史料編纂所；兒玉幸多, 1990, 「黑板勝美博士(日本史上の人物と史料〈特集〉)」, 『日本歴史』 500, 吉川弘文館；古代學協會 編, 1997, 「黑板勝美先生の思い出(黑板勝美博士を偲ぶ)」, 『古代文化』 49-3 등의 특집은 물론, 여러 역사가들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된 단일 저서에서도 구로이타에 대한 평가는 '선인' 일색이다.
- 5) 김용섭, 1966, 「일본,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 서술」, 『역사학보』 31；이상시, 1987, 『단군실사에 관한 문헌고증』, 가나출판사；김성민, 1989,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최재석, 1990, 「黑板勝美의 일본고대사연구 비판」, 『일본고대사연구비판』, 일지사；김성민, 1991, 「일제 식민사학의 한국사 왜곡」,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평가는 또 '악인' 일색이라고 할 수 있을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구로이타에 대한 이전의 단선적인 평가와는 달리, 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새로운 움직임⁶⁾이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부터라도 한일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양국에서의 구로이타 활동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속에서 '구로이타 사학'에 대한 시비와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한일 양국 간에 이러한 정반대의 이미지인 구로이타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관심의 영역을 옮기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 전환의 시점은 바로 1908년부터 2년간의 유럽 유학의 경험과 1910년의 '한일병합'이 하나의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구로이타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걸출한 역사가의 연구활동이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어떻게 전화하고, 또 그 전화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의 한국 사학계에 아직도 앙금처럼 남아 있는 일본 역사학의 흔적, 그중에서도 '구로이타 사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첫째, 역사적 사건들과 역사가의 생애를 면밀히 대조하여 시대적 변화상을 추적한다. 둘째, 근대 일본의 고문서학의 확립자라고 말해지는 구로이타의 활동상을 더듬는다. 셋째, 일본에서의 구로이타의 경험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조선사편찬사업과 조선사편수사업⁷⁾에서 어떻게 나타

것이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는 旗田巍 著, 이기동 역, 1983, 『日本人의 韓國觀』, 일조각도 참고가 된다.

- 6) 이성시, 1999, 「黑板勝美를 통해 본 식민지와 역사학」, 『한국문화』 23,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이성시, 2001, 「日本歴史學の成り立ちと黑板勝美: 『朝鮮史』編纂と古蹟調査事業を中心に(報告)(公開シンポジウム:平成十二年度早稻田大學史學會)」, 『史觀』 No. 144, 早稻田大學史學會; 이성시, 2004, 「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歴史學-植民地統治下の朝鮮史編纂と古蹟調査を中心に」, 『植民地主義と歴史學-そのまなざしが残したもの』, 刀水書房; 箱石大, 2007, 「近代日本史料學と朝鮮總督府の朝鮮史編纂事業」, 史學會シンポジウム叢書, 佐藤信・藤田覺 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山川出版社 등이 대표적이다.
- 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에서는,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서부터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에 의해 행해진 조선사 편찬사업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망라하여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역사왜곡이 조선

나고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료 조사사업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고적조사사업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⁹⁾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구로이타가 갖는 한일 양국에서의 ‘현재적’ 의미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한국고대사학회가 주최한 최근의 세미나¹⁰⁾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 세미나에서는 단재 신채호의 『독사신문』을 한국사 연구의 100년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독사신문』이 가지는 사학사적 의의와 그동안의 연구기간을 민족·발전·실증의 키워드들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 강연에 접하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이른바 한국사 연구 100년의 기간 중에 좋고 나쁨을 떠나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구로이타를 포함한 ‘일본 사학’이 갖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이다. 식민지기 구로이타를 포함한 ‘일본 사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국사의 근대역사학 연구의 도정에서 발견되고 잔존하는 ‘일본 사학’의 功過의 확인과 함께, ‘식민사학’¹¹⁾의 탈피

총독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8)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는 1910년 한일병탄 전후의 고적조사사업, 고적조사위원회와 고적조사사업(1916~1930), 조선고적연구회와 고적조사사업(1931~1945)의 시기적 변천에 따라 행해진 고적조사사업이 중앙과 지방의 박물관 설립으로 연계되는 것을 지적했다. 물론 여기서도 구로이타의 활약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 9) 이러한 조선에서의 고적조사사업이 이후 일본에서의 후지와라코[藤原京] 발굴조사 등의 또 다른 고적조사로 확장되어 행해진 것을 볼 때 이상의 검토는 구로이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10) 2008년 7월 24일(목)~25일(금)의 양일간에 걸쳐 한국고대사학회가 주최하는 하계 세미나가 열렸다(계룡산 동학산장). 제10회를 맞이한 동 학회의 하계세미나의 전체 주제는 「민족주의 사학과 한국고대사연구」였다. 세미나 제1부에서는 기초발표로서 「고대사연구 100년」(노태돈, 서울대학교 교수)이라는 강연이 있었는데, 고대사를 넘어 한국사 전체가 처한 연구 100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최근에 이 강연의 원고는 노태돈, 2008, 「고대사 연구 100년-민족·발전·전승」, 『한국고대사연구』 52, 5~18쪽으로 완성되어 발표되었다.
- 11) 조인성 외, 2009,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이 책에서는 제1부 만주사, 제2부 동북사와 만주사, 제3부 고고학적 조사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모두 5편의 논고가 상재되어 있다. 이 글과 관련하여 함께 읽혀지기를 바란다.

와 극복을 위한 방법론의 발견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논점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시론 차원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II. 구로이타의 생애

다음에는 구로이타의 연보를 통해 그의 생애 속에 근대 일본에서의 사료학과 조선에서의 사료편찬에 관련하는 행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술해 나가기로 한다.

【구로이타 연보】¹²⁾

1874(明治 7) 출생

1896(明治 29) 제국대학 문과대학 국사과 졸업, 대학원 입학, 제국대학 사료편찬 촉탁, 『徵古文書 甲集』 간행

1898(明治 31) 『徵古文書 乙集』 간행

1901(明治 34) 도쿄제국대학 사료편찬원

1902(明治 35)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강사 촉탁

1903(明治 36) 학위 논문 「日本古文書樣式論」 탈고

1905(明治 38)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조교수, 사료편찬관/을사보호조약, 통감부 설치

12) 구로이타의 연보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 있다(주 1과 주 4 참조). 하지만 구로이타의 생애와 조선과의 관련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연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연보들을 참조하면서 구로이타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이 1910년의 '한일병합'과 관계가 깊은 것에 착안하여 구로이타와 식민지 조선의 관련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 1908(明治 41) 유럽 여행, 『國史の研究』 초판 간행/창덕궁 동원에 박물관 설치
- 1910(明治 43) 귀국, 한일병합
- 1913(大正 2) 『國史の研究』 재판 간행, 『국사대계육국사: 일본후기, 속일본후기, 문덕실록』 간행
- 1915(大正 4) 3개월 이상 반도 여행
- 1916(大正 5) 『조선반도사』 편찬 촉탁,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 발표, '조선반도사편찬요지' 제정, 황해도/평안도 조사
- 1917(大正 6) 『조선고적조사보고』 간행
- 1919(大正 8) 도쿄제국대학 교수, 사료편찬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공포/3·1운동
- 1922(大正 11) 반도사편찬 부대사업으로서 『일한동원사』 편찬 착수,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 발표, '조선사편찬위원회' 발족
- 1923(大正 12) '제1, 2회조선사편찬위원회'
- 1924(大正 13) '제3-5회조선사편찬위원회', 조선사편수회 고문, 중추원 내 편찬사업 중지
- 1925(大正 14) '조선사편찬위원회' 폐지, '조선사편수회관제' 공포, 제1회 위원회
- 1927(昭和 2) 제2회 위원회, 유럽·미국 출장
- 1928(昭和 3) 귀국
- 1929(昭和 4) 제3회 위원회
- 1930(昭和 5) 제4회 위원회
- 1931(昭和 6) 『更訂國史の研究 上』, '조선고적연구회' 발족 → '조선고적조사보고', '조선고적도보', '조선보물고적도보', 제5회 위원회
- 1932(昭和 7) 『조선사』 간행 시작, 제6회 위원회
- 1933(昭和 8) 조선총독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위원회 위원, 제7회 위원회
- 1934(昭和 9) 제8회 위원회

- 1935(昭和 10) 도쿄제국대학 정년, 도쿄제국대학 명예교수, 제9회 위원회
- 1936(昭和 11) 『更訂國史の研究 下』, 뇌출혈로 쓰러짐
- 1938(昭和 13) 『조선사』 완성, '조선사편수사업개요' 간행
- 1941(昭和 16) 도쿄제국대학 사료편찬소 사무총탁 의원면직
- 1943(昭和 18) 조선총독부 박물관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위원회 위원과 조선사편수회고문 의원면직
- 1945(昭和 20) 일본 패망
- 1946(昭和 21) 조선총독부 폐청, '조선사편수회' 소멸, 사망

위의 연보에 따르면, 구로이타는 1874년에 태어나 1946년에 작고했으나 72세의 나이에 수명을 다한 셈이다. 하지만 그는 1936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는 집필이나 대외 활동을 거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로이타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은 약 60년이 되며,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과 함께 그의 전문인 사료편찬에 뛰어들어 시점인 1896년을 학자로서의 학문 활동의 기점으로 삼는다면, 근 40년간이 그의 학문적 활동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로이타의 40대 이후의 중진학자로서의 활동은 1915년 조선을 처음 방문한 이래 16년간에 걸친 '조선사편수(1922~1938)'와 '조선고적조사' 사업에 집중되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연보를 대략적으로 일곱 부분으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다.

① 1896~1902년 : 제국대학 국사학과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바로 사료편찬에 관계한 이후 구로이타 학문의 전형적인 모습이 형성되는 기초적 시기에 해당한다.

② 1903~1910년 : 여기서 특기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이 일본 고문서학에 관한 본격적이고도 거의 최초의 저작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가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급성장하고, 또 그 야심이 한반도를 향해 본격화되면서 결국에는 1910년의 한일병합으로 이어졌던 시기라는 점이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급속

적인 팽창과 함께 구로이타 사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유럽 유학이 결행된 점 등 이 시기는 구로이타를 생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들이 발생한 기간이었다. 그 당시 쉽지 않았던 유럽 유학을 결심한 구로이타는 궁내성으로부터 유럽 각지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의 '진열 고화기물 보호법'에 대한 조사를 명받는다. 그와 아울러 구로이타는 유럽에서 '런던 만국평화회의'와 '베를린 만국사학자대회' 그리고 '만국 에스페란토대회' 등에 출석하여 견문을 넓히게 된다.¹³⁾

③ 1913~1919년 : 구로이타의 대표적 저작인 『국사의 연구(國史の研究)』가 간행되었고, 일본에서의 고문서학의 체계화와 고전적의 출판과 보급에 힘쓴 전형적인 제국대학의 학자로서의 모습¹⁴⁾이 보인다. 또 3개월간에 이르렀던 식민지가 된 조선반도의 최초의 여행 그리고 본격적인 조선사 편찬의 기초작업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게다가 1919년은 약 10여 년에 이르렀던 일본 제국주의 지배가 식민지 조선 백성들에 의하여 부정된 사건인 '3·1운동'이 발생한 중요한 때이기도 했다.

④ 1922~1924년 : 그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자들이 애써 무시해 왔던 조선 민중들의 독립운동인 '3·1운동'의 충격은 컸다.¹⁵⁾ 1915년 상해에서 출간된 박은식의 『한국통사』의 출판과 보급에 일제는 큰 위기의식을 갖고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매달렸던 것이다. 이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7월에 국무원 내에 임시사료편찬회(총재 안창호)를 두고 편찬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한일관계사료집』¹⁶⁾을 내고 있다.¹⁷⁾ 이러한 '3·1운동'을 전후로 양양된 조선 민중들의 자주적인 조선사 이해에 쫓겨를 박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조선총독부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조선사 편찬사업에 본격적으

13)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14)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1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1975, 『박은식전서』 상 ; 김성민, 1989, 앞의 글.

16) 대한민국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임시정부편』 IV 참조.

17) 箱石大, 2007, 앞의 글 참조.

로 뛰어들게 된다. 그런데 조선사 편찬사업의 방향은 근대일본이 이미 실현해 보았던 사료편찬의 방법¹⁸⁾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시기의 조선사 편찬사업에서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료편찬의 노하우를 체득한 구로이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⑤ 1925~1931년 : 조선사 편찬의 대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였다. 조선사 편찬사업은 '조선반도사'에서 '조선사편찬위원회'로 그리고 '조선사편수위원회'로 3단계의 변화를 겪는데, 그중에서 이 시기는 조선사 편찬사업의 대미를 완성하는 기관인 '조선사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이다. 한편 조선사 편찬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선 고적'에 대한 조사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⑥ 1932~1936년 : 그동안의 조선사 편찬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간 되는 시기이다. 한편 이 시기의 구로이타는 그동안에 얻어진 고문서학과 고전적의 체계적인 보급과 유럽 유학에서의 선진적인 미술관·박물관의 진열 및 사적 보호의 노하우를 일본과 조선 양쪽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간다.²⁰⁾ 아마도 구로이타에게 이 시기는 득의양양의 시기였을 것이다. 즉, 긴 시간 동안 매달려 왔던 조선사 편찬사업의 성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30여 년간 봉직했던 도쿄제국대학에서 정년을 맞아 명예교수가 되고, 그의 대표적 저작인 『국사의 연구』 수정판이 완성되는 등 절정을 맞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절정과 함께 그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만다.

⑦ 1938~1946년 : 구로이타와 조선총독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조선사 편찬사업의 완성과 함께 건강을 잃은 구로이타는 재기의 노력도 보람 없이 그가 평생의 사업으로서 매달렸던 사료편찬소와 조선사편수회의 면직이 상징하는 것

18)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사료편찬과(현 도쿄대학 사료편찬소)와 문부성 유신사료편찬회의 사료수집과 편찬방식이 조선사 편찬에서 모범으로 작용했다. 箱石大, 2002, 「史料探訪52 大韓民國・國史編纂委員會所藏朝鮮總督府修史事業關係史料の調査」,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37, 116~117쪽 참조.

19)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 黑板勝美, 1939, 앞의 책 참조.

20)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처럼 말년에 특기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 구로이타는 일본의 완전한 패망을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1946년에 조선총독부의 폐청과 함께 조선 사편수회가 소멸하는 그 시기에 자연인으로서의 생애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보통 말해지는 구로이타에 대한 평가는 학문 활동 기간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4년간을 도쿄제국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는 점, 또 고문서학의 체계화와 고전적의 출판과 보급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문서학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正倉院文書의 조사사업의 개시와 東寺·金剛峯寺·醍醐寺 등의 고문서의 정리, 그리고 『대일본고문서』의 편찬을 주재한 일, 고전적에 관련한 사업으로는 『국사대계』·『속국사대계』·『국사대계육국사』·『국사대계유취국사』의 편찬에 이어, 1929년부터 『신정증보국사대계』의 편찬에 착수하는 등 일본사 연구의 기초사료의 정리와 보급에 힘쓴 점이 두드러진다.²¹⁾

하지만 그 외에도 구로이타는 ‘고사사 보존회’, ‘사적명승 천연기념물 조사회’, ‘국보 보존회’, ‘중요미술품 등 조사위원회’, ‘조선총독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법륜사국보보존회’ 등의 위원을 지내면서 문화재의 보존에도 전력을 기울였다.²²⁾ 또한 그는 1934년에 ‘일본고문화연구소’를 창설하여 소장이 되어, 고대 일본의 도성연구²³⁾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후지와라쿄 옛터의 발굴조사를 지도하고 드디어는 후지와라쿄의 정무 시설인 朝堂院의 규모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²⁴⁾ 1936년에는 ‘國史館’이라고 가칭된 국립역사박물관과 연구실을 겸한 시설에 대한 설립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었는데, 그가 병으로 쓰러짐에 따라 생전에 더 이상의 진전은 실현되지 못했다.²⁵⁾

21)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22)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23) 송완범, 2008, 「고대일본의 宮都에 대하여」,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동아시아도성과 신라왕경의 비교연구』 29,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경주문화원·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참조.

24)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25) 하지만 구로이타의 염원은 치바[千葉]현의 사쿠라[佐倉]시에 있는 ‘국립역사민속박

일본에는 메이지[明治]시대부터 미술계의 박물관인 '제실박물관(나중의 국립박물관)'이 도쿄, 교토[京都], 나라[奈良] 세 곳에 있었다.²⁶⁾ 이것들과는 별도의 역사계통의 국립박물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구로이타를 중심으로 戰前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국립의 역사계통 박물관 설치 구상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1945년 종전을 맞이하고 부터였다. 1966년, '메이지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박물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1971년에는 문화청 내에 박물관 설치를 위한 기본구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78년에는 문화청 내에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설립준비실'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개관을 향한 준비가 본격화했다. 준비 책임자는 동경대학 명예교수 이노우에[井上光貞]였는데, 그는 '고고·역사·민속'의 세 분야를 전시의 핵으로 할 것, 박물관은 대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구로 할 것, 조사연구 기능을 충실하게 할 것 등의 기본 콘셉트를 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구로이타의 이상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적과 박물관 등에 대한 구로이타의 시대를 앞서간 관심과 정열은 2년간의 유럽 유학과 1910년의 한일병합 이후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실제적 운용이 미친 영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구로이타의 박사학위 논문 「일본고문서양식론(日本古文書樣式論)」이 웅변하는 것처럼 일본에서의 고문서학의 정립은 구로이타의 평생 사업이 된 『대일본고문서』와 『국사대계』 편찬사업으로 이어졌다. 그 후 선진지역이었던 유럽 유학 경험은 박물관을 대표로 하는 유물의 전시와 연구 업무 그리고 고적조사에도 관심을 갖게 했다. 그리고 이후 그의 경험은 식민지 조선에서 고적 조사사업과 조선사 편찬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식민지 조선에서의 그의 총체적 경험은 다시 한국과 일본에서의 사료편찬은 물론이고 현대적인 박물관의 건립, 유적발굴, 문화재보호법의 정비로 나타났다고 정리할

물관'의 건립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것은 <http://www.rekihaku.ac.jp> 참조.

26) 2005년에는 규슈[九州]에 국립박물관이 개관하여 모두 네 곳에 국립박물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규슈국립박물관에 대해서는 <http://www.kyuhaku.jp> 참조.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구로이타의 개관을 기초로 하여 다음에는 구로이타의 대표적 업적 중의 하나인 ‘사료학’의 정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 사료학의 정립을 배경으로 조선사 편찬사업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일본 사료학의 확립자, 구로이타

근대 일본의 사료학의 발달에는 눈부신 바가 있다. 그런데 근대 일본의 사료학의 배경을 더듬자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먼저 근대 일본의 사료학은 역시 서양, 특히 독일의 랑케가 제창한 실증주의 사학의 계승자였던 리스(Ludig Riess)에게서 배운 서양열강의 사료학이 그 모태가 되었다는 사실²⁷⁾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근세시대부터 근대 일본 사료학의 바탕이 이미 생성되어 있었다는 입장²⁸⁾ 등이다. 구로이타가 도입한 사료편찬의 방법론은 두 입장이 서로 병용된 것으로, 즉 근대 유럽 역사학의 방법론인 국가사업으로서의 사료편찬과 동양적 정사편찬의 방법이 혼용된 일본 독자의 편찬방법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²⁹⁾

구로이타가 34년간 재직했던 제국대학(나중의 도쿄제국대학)이 지금은 도쿄대학이 되어 있다. 현재의 도쿄대학에서 그의 흔적은 일본사학과(구로이타

27) 메이지정부에서 주도하여 온 편년사를 중심으로 한 사료편찬에 대해, 외국인 교사 리스는 수집한 사료 자체를 편찬 간행하는 방법을 메이지정부에 제안하고 이후 사료편찬 방법에 리스의 방법론, 즉 서양열강에서 사용하던 사료편찬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28) 사료편찬소의 역사는 에도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서, 1793년 국학자들은 막부의 원조를 받아 사료편찬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29) 箱石大, 2007, 앞의 글, 251~252쪽 참조.

의 시절에는 국사학과)와 근대 이후의 일본 사료의 편찬을 주도하고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료편찬소(1929년부터, 그 전은 사료편찬과)³⁰⁾에 확연히 남아 있다. 특히 사료편찬소에서는 사료편찬계 시절인 1919~1920년에 3대 수장으로서 재직하고 있었다.

구로이타는 사료편찬소가 주관, 관할하고 있는 이하의 사료편찬사업들에 깊이 관련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료편찬소의 사료편찬사업의 대강과 그 양태를 보도록 하자.

1. 『대일본고문서』³¹⁾

- (1) 편년문서 : 本編 大寶 2年~寶龜 11年(702 ~ 780) 6책
 追加 和銅 2年~寶龜 10年(709 ~ 779) 17책
 補遺 天武天皇 14年~寶龜 7年(686 ~ 776) 2책

- (2) 소장자별(家わけ) 문서(*표시는 속간 중인 것)

第1 高野山文書 8冊 / 第2 淺野家文書 1冊 / 第3 伊達家文書 10冊 / 第4 石清水文書 6冊 / 第5 相良家文書 2冊 / 第6 觀心寺文書 1冊 / 第7 金剛寺文書 1冊 / 第8 毛利家文書 4冊 / 第9 吉川家文書 3冊 / 第10 東寺文書 14冊* / 第11 小早川家文書 2冊 / 第12 上杉家文書 3冊 / 第13 阿蘇文書 3冊 / 第14 熊谷家文書三浦家文書 / 平賀家文書 1冊 / 第15 山内首藤家文書 1冊 / 第16 島津家文書 3冊* / 第17 大德寺文書 14冊 / 別集 眞珠庵文書 6冊* / 第18 東大寺文書 19冊* / 別集 東京大學所藏文書 1冊 / 第19 醍醐寺文書 14冊* / 別集 滿濟准后

30) 사료편찬소는 메이지정부가 1869년 和學講談所 자리에 만들어진 史料編輯國史校定局을 시원으로 한다. 1870년대에는 修史局, 수사관, 임시수사국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888년에는 제국대학에 국사과가 창설되면서 수사사업은 제국대학으로 이관된다. 그 당시의 명칭은 임시편년사 편찬계였다. 이후 1895년 제국대학 문과대학에 사료편찬계가 성립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1929년에 지금의 사료편찬소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31)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홈페이지 <http://www.hi.u-tokyo.ac.jp/index-j.html> 참조.

日記紙背文書 3冊 / 第20 東福寺文書 5冊 / 第21 蜷川家文書 6冊 / 第22 益田家文書 3冊*

(3) 막말 외국관계문서 ;

嘉永 6년~文久 원년(1853 ~ 1861)기간 51책 · 부록 7책*

2. 『대일본유신사료』³²⁾

편년지부는 弘化 3년(1846) 2월의 고메이천황[孝明天皇] 때부터 메이지 4년(1871) 7월의 廢藩置縣에 이르는 25년간의 사건을 연차순으로 배열한 사료집이다. 총 책수는 500책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간행사업은 전전 단계에 이미 중단하고 있다. 현재는 일단 완성된 유신사료고본을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편찬지부는 히코네[彦根]번의 이이[井伊]가의 사료를 편찬하고 있다. 막말의 大老였던 이이노 나오스케[井伊直弼]의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막부 말의 정치 사료로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編年之部	第1編	既刊7冊	弘化 3年 2月 13日~弘化 4年 8月 29日 (1846~1847)
	第2編	既刊5冊	安政 元年 正月 元日~同年 3月 5日(1854)
	第3編	既刊7冊	安政5年 正月 元日~同年 5月 晦日(1858)
類纂之部	井伊家史料	既刊25冊	文政 3年~萬延 元年(1820~1860)

3. 『대일본사료』와 『사료총람』³³⁾

1) 『대일본사료』

『대일본사료』는 역사상의 중요사건을 「綱文」이라고 칭하는 사건의 개요를

32)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홈페이지 참조.

33)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홈페이지 참조.

나타내는 문장으로 나타내고 그 관련 사료를 열거한 것이다. 사료에는 그 사건에 관련하여 나온 문서, 사건을 아는 사람이 남긴 기록, 系圖나 가보, 후세의 저작이나 地誌 등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들을 사건의 추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둔 것이다.

연대기적으로는 『일본서기』로 시작하는 『육국사』의 뒤를 이어 仁和 3년(887)부터 慶應 3년(1867)까지의 약 980년을 16편으로 나누어 편찬한 것이다. 현재는 제12편(에도시대 초기)까지가 착수되어 있고 제13편 이후에 대해서는 막부법, 재정·농정관계, 대외관계, 조막관계 등의 기본사료의 수집과 데이터의 정리, 공개를 하고 있다. 또 본편의 간행이 끝난 부분은 근년의 사료 발굴의 성과를 도입하기 위해 보충 편찬을 행하고 있다.

- 第1編 仁和 3年~寛和 2年(887~ 986)本編24册完結·補遺既刊4册
- 第2編 寛和 2年~應徳 3年(986~1086)既刊29册(986~1030)
- 第3編 應徳 3年~文治 元年(1086~1185)既刊27册(1086~1121)
- 第4編 文治 元年~承久 3年(1185~1221) 本編16册完結·補遺既刊1册(1193~1203)
- 第5編 承久 3年~正慶 2年(1221~1333)既刊33册(1221~1250)
- 第6編 元弘 3年~明徳 3年(1333~1392)既刊46册(1333~1376)
- 第7編 明徳 3年~文正 元年(1392~1466)既刊31册(1392~1418)
- 第8編 應仁 元年~永正 5年(1392~1466)既刊40册(1467~1490)
- 第9編 永正 5年~永祿 11年(1467~1568)既刊24册(1508~1523)
- 第10編 永祿 11年~天正 10年(1508~1582)既刊25册(1568~1574)
- 第11編 天正 10年~慶長 8年(1582~1603)既刊24册(1582~1585)·別册2(1582)
- 第12編 慶長 8年~慶安 4年(1603~1651)既刊58册(1603~1622)

2) 사료총람

『대일본사료』의 전권이 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되었

기 때문에 『대일본사료』의 초안이 되는 고본(약 5,330책)과 그 후 새롭게 모은 사료 등에 의해 사건의 개요를 나타내는 강문과 전거 사료명만을 뽑아 책으로 묶었다. 현재 仁和 3年(887)부터 寬永 16年(1639)까지의 17책이 간행되었다.

4. 『신정증보국사대계』³⁴⁾

日本書紀 上·下/續日本紀/日本後紀·續日本後紀·日本文德天皇實錄/日本三代實錄

類聚國史/古事記·先代舊事本紀·神道五部書/日本書紀私記·釋日本紀·日本逸史/本朝世紀

日本紀略(前·後篇)/百鍊抄/扶桑略記·帝王編年記/續史愚抄/今昔物語集/宇治拾遺物語·古事談·十訓抄

古今著聞集·愚管抄/榮花物語/水鏡·大鏡/今鏡·增鏡/律·令義解/令集解/類聚三代格·弘仁格抄

交替式(延曆交替式·貞觀交替式·延喜交替式)·弘仁式·延喜式/新抄格勅符抄·法曹類林·類聚符宣抄·續左丞抄·別聚符宣抄/政事要略/朝野群載/本朝文粹·本朝續文粹/本朝文集/日本高僧傳要文抄·元亨釋書

吾妻鏡/後鑑/德川實紀/續德川實紀/公卿補任/尊卑分脈/別卷1. 公卿補任索引/別卷2. 尊卑分脈索引

5. 『대일본고기록』³⁵⁾

각 시대의 대표적인 일기를 음미하고 사료로서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모

34) 모두 66책으로 구로이타가 편집하고 마루야마[丸山二郎] 등이 교정을 담당했다. 도중에 구로이타가 1936년에 병으로 쓰러지고, 이후 1946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丸山二郎·黑板昌夫·坂本太郎 등이 국사대계편수회를 발족시켜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 그 후 1998년과 2002년에 두 번의 전권 복각사업이 이루어졌다. 2007년 8월부터는 전권을 온디멘드(OD)판으로 제공하고 있다.

35)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홈페이지 참조. 1952년 간행을 시작한 이래 현재도 간행 중이다.

은 것이다. 일기에는 필자가 직접 쓴 자필원고뿐만이 아니고 후세의 사본만으로 전하는 것, 다른 사료에 인용된 일문을 모은 것 등 다양하다. 이들을 전부 모아 상호 비교·검토한 것으로 본문을 확정하였다. 또 注記나 해제에 대한 색인도 붙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貞信公記

藤原忠平(880~949) 일기
全1冊完結[907~948]

九曆

藤原師禰輔(908~960) 일기
全1冊完結[930~960]

小右記

藤原實資(957~1046) 일기

全11冊完結[982~1032]

御堂關白記

藤原道長(966~1027) 일기
全3冊完結[998~1021]

後二條師通記

藤原師通(1062~1099) 일기
全3冊完結[1083~1099]

中右記

藤原宗忠(1062~1141) 일기
既刊5冊[1087~1138 미간분 포함]

殿曆

藤原忠實(1078~1162) 일기
全5冊完結[1098~1118]

猪隈關白記

建內記

萬里小路時房(1394~1457) 일기
全10冊完結[1414~1455]

薩戒記

中山定親(1401~1459) 일기
既刊3冊[1418~1447 미간분 포함]

臥雲日件錄拔尤

惟高妙安에 의한 瑞谿周鳳(1391~1473)의 일기초록

全1冊完結[1446~1473]

蔗軒日錄

季弘大叔(1421~1487) 일기
全1冊完結[1484~1486]

二水記

鷲尾隆康(1485~1533) 일기
全4冊完結[1504~1533]

後法成寺關白記

近衛尙通(1472~1544) 일기
既刊3冊[1506~1536 미간분 포함]

上井覺兼日記

上井覺兼(1545~1589) 일기
全3冊完結[1574~1586]

言經卿記

- | | |
|--|--|
| 藤原家實(1179~1242) 일기
全6册完結[1197~1235] | 山科言經(1543~1611) 일기
全14册完結[1576~1608] |
| 岡屋關白記 | 言緒卿記 |
| 藤原兼經(1210~1259) 일기
全1册完結[1222~1251] | 山科言緒(1577~1620) 일기
全2册完結[1601~1620] |
| 民經記 | 梅津政景日記 |
| 藤原經光(1212~1274) 일기
全10册完結[1226~1272] | 梅津政景(1581~1633) 일기
全9册完結[1612~1633] |
| 深心院關白記 | 新井白石日記 |
| 藤原基平(1246~1268) 일기
全1册完結[1255~1268] | 新井君美(1657~1725) 일기
全2册完結[1693~1723] |
| 實躬卿記 | 齋藤月峯日記 |
| 藤原實躬(1264~?) 일기
既刊5册[1283~1307 미간분 포함] | 齋藤幸成(1804~1878) 일기
既刊6册[1830~1875 미간분 포함] |
| 後深心院關白記 | 江木鰐水日記 |
| 近衛道嗣(1332~1387) 일기
既刊3册[1352~1383 미간분 포함] | 江木貞通(1810~1881) 일기
全2册完結[1832~1876] |
| 後愚昧記 | |
| 三條公忠(1324~1383) 일기
全4册完結[1361~1383] | |
| 付) 實冬公記 | |
| 三條實冬(1354~1411) 일기
第4卷付收完結[1375~1395] | |

※ [] 안은 예정을 포함한 수납연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근대에 들어서 행해진 방대한 사료편찬 사업에 구로이타는 직·간접적으로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료편찬의 밑바탕에 깔린 의도는 무엇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정사편찬으로서의 역사편찬, 즉 지배층의 역사, 일본으로 말하자면 천황 중심의 역사관 확립에 공헌하는 편찬사업이 되기 쉬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적 과제로서의 편찬사업이다. 이는 서양열강의 방법론에 다름 아니다. 즉, 국가적 과제로서 시도되는 사료편찬사업은 열강의 의도대로 식민지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천황 중심의 사료편찬에 더하여 서양열강을 흉내내던 신생 열강 일본의 의도가 가미된 사료편찬이라는 이중의 굴절된 편찬방침이 조선사의 편찬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조선사 편찬사업은 출발선상에서부터 근본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중의 굴절된 편찬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조선사 편찬 사업에 구로이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Ⅳ. 조선사 편찬사업과 구로이타

최근에 들어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2008)과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2007)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광범위한 조선사 편찬사업에 대한 전체상을 아는 데 필요한 자료의 입수가 손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자에는 『위원회의사록』, 『조선사편찬관계서류철』, 『조선사편수회관계관계서류』, 『조선사편수회사무보고서』, 『편수협의회사료철』, 『소화5년12월 편수협의회의사록』, 『비밀문서철』,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 등의 기초적 사료들이 언급된다. 그리고 후자에는 1910년의 한일병탄의 시기를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일제의 조선사 편찬의 또 다른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 조선고적조사사업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38년 6월 당시, 조선사 편찬사업을 주관한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사』 35권, 『조선사료총간』 20종, 『조선사료집진』 3질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이 시점을 계기로 아직 조선사편수회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선사편수회는 사업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그것이 바로 『조선사편수회사업개요』이다.³⁶⁾ 이 책은 조선사 편찬사업을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 3단계 조선사 편찬사업에서의 구로이타의 관여와 그 행적을 더듬어 보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기로 한다.

그럼 먼저, 전체적인 대강을 살펴보자면 1910년의 한일병합에 따라 새로 부임한 테라우치[寺內] 총독은 취조국을 두고 구관제도의 조사를 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시도할 조선사 편찬을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러다가 1915년 7월에는 구관제도사업이 중추원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에 중추원에 편찬과를 두어 조선반도사 사업에 착수한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22년 12월에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후 3년이 지난 1925년 6월이 되면 조선사 편찬사업의 완성을 담당할 조선사편수회가 만들어진다. 그로부터 조선사편수회는 다음 해인 1926년 5월에는 쓰시마의 宗家문서를 구입하고, 드디어 1937년에는 35책 2만 4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조선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선반도사 편찬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1915년 7월, 중추원 안에 조선사 편찬을 위한 작업이 착수되고, 다음 해 1월에는 편사 사무의 담당 부분이 배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그에 더하여 1916년 3월에는 구로이타를 위시한 3인을 촉탁으로 하여 그 진용을 갖춘다. 같은 해 7월에는 조선반도사 편찬을 위한 편찬요지³⁷⁾가 발표된다.

그 내용을 보자면, 조선반도사를 편찬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재외 조선인

36)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참조.

37)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위의 책;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編, 1964, 『黑板勝美先生遺文』;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참조.

이 쓴 『한국통사』는 요망된 설[妄說]이라고 하는 등 자신들이 추진하는 조선반도사가 얼마나 정당한 작업인가를 강조하고 있다.³⁸⁾ 그러다가 1918년 1월에는 편찬과가 설치되고, 조선의 역사를 상고삼한, 삼국, 통일 후 신라, 고려, 조선, 조선최근세사의 6편으로 나누게 된다. 그 이후 작업은 상고삼한, 삼국, 통일 후 신라, 조선의 부분은 일단 탈고 단계에까지 이르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다음으로는,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살펴보자. 1922년 12월에 만들어진 조선사편찬위원회는 지난번의 조선반도사 편찬의 범위보다 훨씬 방대한 10개년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장기계획의 입안에 구로이타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³⁹⁾ 구로이타가 조선반도사 사업에 관여하면서 조선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장기계획을 세운 것이다.

우선 1923년 1월 8~10일에 제1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열리는데, 당시 사이토[齊藤] 총독과 아리키치[有吉] 정무총감이자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도쿄대학의 구로이타와 교토대학의 나이토[內藤]가 세운 10개년안을 수용하고, 회의 중에 편찬강령결정에 관한 건의안에 관한 논의를 벌인다. 그 건의안의 내용은 형식, 구분(삼국이전, 삼국, 신라, 고려, 조선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의 7단계), 체제, 문체, 수집범위, 출판에 관한 것이었다. 구로이타는 아리키치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등장하여 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고 있다.

또 구로이타는 자신이 일본에서 이미 『대일본사료』, 『대일본고문서』 편찬에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작업은 학술적이고 권위 있는 역사편찬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로이타는 삼국이전의 문제에 대해 이는 대단히 난해한 일이라 하면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문제는 조선사 편찬의 방침이 편년사에 있는 것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라고 하고, 이를 넣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구로이타를 포함한 당시 일

38)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앞의 책;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編, 1964, 위의 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참조.

39)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앞의 책;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編, 1964, 앞의 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본 측 위원들의 언급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비판이 따르고 있다.⁴¹⁾

요컨대 구로이타의 이와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사료편찬에 오랫동안 관련 해 온 사료학의 권위자인 구로이타가 의식적으로 조선 민족의 시조 신화인 단군조선의 이야기를 삭제하려고 하였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삭제 이유로 든 것은 공명정대한 역사인식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의 신화에 대한 구로이타의 판단은 그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일본 신화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 편이한 것으로 조선사료 편찬에 어떤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로이타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일선동조’, ‘타율성’, ‘사대주의’, ‘대가족주의’가 만연한 조선은 이상의 것들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일본에 의한 병탄은 최선의 행위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 위에 선다.⁴²⁾ 결국, 단군조선의 문제는 여러 논의는 있었지만 구로이타의 의도대로 관철되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전국 도지사회의가 열려 도지사들은 조선사 편찬사업에 필요한 조선 사료의 보존에 힘쓰는 것은 물론 조선사 편찬에 최대한 협력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6월에는 제2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열리고 이때부터 조선의 민간에 수장하고 있던 사료 수집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⁴³⁾

1924년 4월에는 제3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는 사료탐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일단 수집된 사료를 진열한다. 그리고 조선사 편찬의 완성 연한을 2년 연장하여 32년까지로 한다. 같은 해 8월에는 제4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열리는데, 당시의 사이토 총독이 참석하고 역시 사료전람을 실시한다. 같은 해인 12월에는 제5회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열리고 역시 사이토 총독이 참석하는 가운데 그동안 모아진 사료가 전시되었다.⁴⁴⁾

40)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앞의 책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참조.

41) 이상시, 1987, 앞의 책 ; 김성민, 1989, 앞의 글 ; 최재석, 1990, 앞의 글 ; 김성민, 1991, 앞의 글 참조.

42) 黑板勝美, 1921, 『朝鮮の歴史的觀察』, 『朝鮮』 78 참조.

43)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編, 1964, 앞의 책 ; 이순자, 2007, 앞의 글 참조.

44)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編, 1964, 앞의 책 ; 이순자, 2007, 앞의 글 참조.

그 다음으로는 조선사편수회 사업에 대해서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사편찬 위원회의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조선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사료들의 발굴 속에 조사 사업은 일정한 한계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구로이타는 좀 더 학술적이고 권위 있는 조직으로서의 독립 관청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 결과 권위 있고 공평무사한 편년사를 편찬 방침으로 한다는 조선사편수회가 1925년 6월에 발족하게 된다. 같은 해 9월에는 제1회위원회가 열리는데 구로이타는 나이토와 같이 고문으로 추가된다. 이를 보면 역시 조선사편찬위원회로부터 조선사편수회로 담당기관이 바뀌게 된 데는 구로이타의 수완이 있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구로이타는 사료탐방과 사료정리 그리고 편찬준비를 역설한다.

단, 조선사편찬위원회로부터 조선사편수회로 바뀌는 사정에 주목한 최근의 연구⁴⁵⁾를 보면 아직도 기초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구로이타가 어떠한 입장을 유지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기다려진다.

그 후 1927년 7월에 갑작스럽게 제2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 사정에는 구로이타가 해외 출장 가는 시기에 맞추어 열린다는 것이었다.⁴⁶⁾ 여기서도 구로이타의 조선사 편찬사업에 관련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해외 출장이란 1927년 7월 말부터 실시된 동남아시아 지역의 답사였음을 알 수 있다.⁴⁷⁾ 다음 해인 1928년 7월에는 고문과 위원들의 간담회가 열리는데, 구로이타가 참석하여 시간이 없으니 이미 완성된 원고들을 심의하는 것으로 편찬의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⁴⁸⁾ 이로부터는 구로이타의 조선사 편찬사업에 관련하여 질적이든 양적이든 모든 입장에서 구로이타가 속

45) 箱石大, 2007, 앞의 글, 251~252쪽 참조.

46)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앞의 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참조.

47) 黑板勝美, 1939, 앞의 책, 「고적조사편」;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編, 1964, 앞의 책, 「남양의 일본 관계사료 조사보고」 참조.

48)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앞의 책;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編, 1964, 앞의 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참조.

도를 조절하고 그 사업의 모든 것을 책임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12월에 제3회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회의도 구로이타가 조선에 온 틈을 이용하여 열리는 회의라 한다. 구로이타는 이 회의에서 조선후기편을 순조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편찬 후의 성과물들에 대한 편수와 인쇄를 계량하여 전체적인 조정작업을 시도한다. 다음 해인 1930년 8월에는 제4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구로이타는 제1편의 내용은 기록으로서 사적원문을 수록하기로 하고, 제2편 이하는 본문을 인쇄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다. 한국인 위원 중에 최남선이 문기를 조선 민족과 여러 특징이 다르지만 조선 민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른 민족, 특히 숙신과 발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자, 이마니시[今西]가 대답하기를 숙신은 인류학이나 민족학적 문제이지 사학적 문제가 아니다. 또 발해는 조선사와 무관하다고 발언하고 있다.⁴⁹⁾ 이렇게 명쾌하게 단정을 하는 의견 개진의 배경에는 구로이타가 있었음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1931년 8월에는 제5회위원회가 열리고, 우가키[宇垣] 총독과 구로이타가 참석한 가운데 제1편과 제2편을 인쇄하는데, 여러 이유로 인쇄하는 장소는 서울로하기로 결정한다. 게다가 구로이타는 사업을 연신 재촉하고 있다.⁵⁰⁾ 다음 해 7월에는 제6회위원회가 열리는데, 구로이타는 작년에 3책을 인쇄했다고 보고하고, 그 위에 『조선사료충간』과 『조선사료사진집』을 보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33년 8월에는 제7회위원회를 열고 구로이타는 1935년까지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 다음 해 7월에는 제8회위원회를 열고 구로이타는 35책으로 전체 권수를 변경하고 이 사업의 기한을 1936년까지 1년 연기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구로이타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은 신화·사상이고 신앙적으로 발전한 것이지 편년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⁵¹⁾ 여기

49)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앞의 책;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編, 1964, 앞의 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참조.

50)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앞의 책;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編, 1964, 앞의 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앞의 책 참조.

51) 조선총독부조선사편수회 편, 1938년 6월, 앞의 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서 보이는 구로이타의 단군신화 부정의 논리는 객관적 사료에 바탕을 둔 철저한 실증주의자로서의 구로이타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 다시 말해서, 사료의 취사선택에 관여하는 구로이타에게서는 조선 민족의 탄생 신화를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를 바탕으로 둔 일개 사료 수집자로서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

1935년 7월에는 제9회위원회를 열고 구로이타는 조선사의 마지막을 감오 경장으로 하기보다는 ‘한일병합’까지 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수정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도 구로이타의 ‘한일병합’을 ‘구 조선사’의 끝으로 그리고 ‘한일병합’을 ‘신 조선사’ 편찬의 시작으로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를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열리지 않게 되고 1936년 9월에는 고문과 위원들의 간담회가 열리지만 이도 구로이타의 희망대로 폐회되게 된다. 이러한 기나긴 사업의 결과물로서 『조선사』가 완간 편찬되고 편수요령과 범례가 갖추어진다.

그 위에 시대구분은 결과적으로 신라통일 이전, 신라통일시대, 고려, 조선 전기, 조선중기, 조선후기의 6단계로 정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시대구분은 조선사의 시작은 부정하고 끝은 일본의 역사로 편입시키자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선사 편찬과 조선사 편찬의 보조작업으로서의 고적조사사업이 갖는 의미와 실상⁵²⁾에 대하여 살펴본다. 의견상 보기에 『조선사』 편수작업과 고적조사사업 간에는 접점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양자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다. 우선, 구로이타는 앞선 제국주의 국가였던 유럽에서의 유학 경험을 갖고 있다. 구로이타는 1908년부터 2년간의 유럽 유학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그가 돌아다니며 본 것은 발전된 식민지열강들의 대규모의 근대화 된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과 발굴조사의 현장 경험이었다.⁵³⁾ 그는 식민지 조선

회, 2008, 앞의 책 참조.

52) 전성근, 2008,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씨, 1쪽 참조 ; 이순자, 2007, 앞의 글 참조.

53) 黑板勝美, 1939, 앞의 책, 「고적조사 편」 참조. 궁내성으로부터 유럽 각지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의 ‘진열고화기물보호법’에 대한 조사를 명받는다. 이순자, 2007, 앞의 글 참조.

사를 편찬하는 가운데 일선동조론에 경도된 마인드의 소유자로서 조선사 편수 작업을 지휘하는데, 그의 사료편찬의 의도는 식민지 통치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위에 일본에서의 고적조사와 유럽 유학 경험에서 얻어진 고적조사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식민지 조선에서의 고적조사로 이어졌던 것이다.⁵⁴⁾

조선에서의 구로이타의 최초의 고적조사는 1915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약 3개월간에 걸쳐 행해졌다. 그 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⁵⁾

4월-도쿄, 경성, 충북 청주

5월-충북 충주, 단양

경북 봉기, 순흥, 송천, 부석사, 태백산 사고, 봉화, 안동, 안평, 군위, 대구, 경주

경남 울산, 언양, 양산 통도사, 양산, 물금, 부산, 경북 대구

6월-달성, 성주, 왜관, 김천, 금오산, 상주, 선산, 왜관, 대구, 고령

경남 합천의 해인사, 초량, 창녕, 영산, 창녕, 마산, 진해, 마산, 진주, 함안, 마산, 삼량 진, 구포, 김해, 웅천, 고성, 통영, 거제도, 한산도, 삼천포,

전남 순천 신성의 왜성, 여수의 고진, 장성리

7월-섬진강, 하동, 화개, 구례, 남원, 임실, 전북 전주

충남 논산, 공주, 부여, 금강, 강경, 군산, 공주, 대전, 경성

평남 평양, 강서, 평양, 개성, 경성

이상의 1915년의 고적조사는 한반도 남부의 대부분을 넘어 한반도 북부까지 미치고 있다. 1915년 이후 구로이타는 매년 한반도의 고적조사를 하고 있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고적조사는 이후 1916년에 행해진 조사와 아울러 중국

54) 이성시, 1999, 앞의 글 참조 ; 이성시, 2004, 앞의 글 참조.

55)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編, 1964, 앞의 책, 「조선사적유물조사복명서」; 이순자, 2007, 앞의 글 참조.

문명의 영향력이 가장 빨리 그리고 중심적으로 미친 곳이 평양이라는 가설로 이어졌던 것이다.⁵⁶⁾ 이도 또한 조선 독자의 문화가 갖는 자생력을 부정하고 중국 문화와의 영향력 아래서만 조선의 역사와 문화는 가능했다는 '타율성론'의 근거로서 작용했다.

1915년의 구로이타의 고적조사 여행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해안지역을 답사할 때 '임나일본부'에 대한 추호의 의심 없이 『일본서기』에 써진 그대로 당시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⁵⁷⁾

이와 같은 1915~1916년 이래의 거의 매년 행해진 조선 고적조사는 이후 조선사 편수의 보조작업으로서 식민지 통치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로이타의 조선에서의 고적조사사업은 경성 이의 지방에서의 고적조사사업으로 이어졌다. 특히 1910년대 이래 지방고적보존회⁵⁸⁾의 활동과 연계하여 지방에서의 고적조사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일제의 지배가 식민지 조선 전체에서 기능하기 시작했고, 구로이타의 고적조사 활동과 영향력이 지방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⁹⁾ 한편, 이러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경험이 다시 일본에서의 고적조사로 이어져 후지와라경의 발굴사업,⁶⁰⁾ 문화재 보호⁶¹⁾ 그리고 박물관 본래의 전시기능과 연구기능을 종합한 새로운 박물관의 건립 구상⁶²⁾ 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요컨대 구로이타의 조선사 편찬사업은 일본에서의 일본 사료편찬사업에서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고

56) 黑板勝美, 1921, 앞의 글, 48~68쪽 참조.

57)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編, 1964, 앞의 책, 「조선사적유물조사복명서」; 黑板勝美, 1921, 앞의 글, 58~60쪽; 이순자, 2007, 앞의 글 참조.

58)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編, 1964, 앞의 책; 이순자, 2008, 「1930년대 부산고교회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고찰」, 『역사학연구』 33, 153~154쪽 참조.

59) 이순자, 2008, 위의 글, 155~193쪽 참조.

60)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61)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62)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앞의 책 참조. 구로이타가 구상한 '국사관'의 현재적 모습은 사쿠라시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찾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rekihaku.ac.jp> 참조.

적조사사업과의 연계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이러한 구로이타의 경험은 이후 일본 내의 고적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로이타 사학의 식민지적 경험의 확산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 구로이타의 현재적 의미

이상으로 구로이타의 학문적 활동기간을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야기를 전개해 볼 수 있다. 첫째, 1896~1907년은 일본에서의 고문서학의 체계화와 고전적의 출판과 보급에 힘쓴 전형적인 제국대학의 학자로서의 모습이다. 둘째, 1908~1910년의 기간 중에 그 당시 쉽지 않았던 유럽에 유학을 한 구로이타는 유럽 각지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조사할 수 있었다. 셋째, 1911~1936년은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얻어진 일본에서의 고문서학과 고전적의 체계적인 보급과, 두 번째의 유럽에서의 선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의 진열 및 사적 보호의 노하우를 일본과 조선에서, 특히 조선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갔던 시기라 보았다. 특히 구로이타의 40대 이후 중진학자로서의 활동이 1915년 조선을 처음 방문한 이래 16년간에 걸친 ‘조선사편수(1922~1938년)’와 ‘조선고적조사’ 사업에 집중되어 나타났던 것에 주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구로이타의 사망 후 60여 년, 건강상의 이유로 학문적 사망으로 따지자면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구로이타가 생전에 미친 영향력은 아직도 한일 양국의 사학계에 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료학과 고적조사, 박물관, 문화재보호법⁶³⁾에 이르기까지 사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는 측면에서 전방

63) 오세탁, 2005, 『文化財保護法原論』, 주류성, 제4장 참조 ; 이순자, 2007, 앞의 글 참조.

위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배경을 보면, 근대 일본 사료학의 정립이라는 실적에다가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유럽 유학의 경험에 때마침 '한일병합'이라는 제국주의 경험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는 등 구로이타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실천적 조건들이 펼쳐진 것이다. 특히 당시의 학문적·사회적 분위기가 조선에 대한 '일선동조론'의 입장⁶⁴이 팽배해 있었다는 점도 그의 활동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요컨대 조선에서의 그의 활동은 철저하게 식민지 조선의 완성에 이르는 기초적 작업에 몰두한 것이었다. 그의 사료학의 배경이 국학의 전통을 가진 일본 사료학에 후발 제국주의 국가 일본으로서의 서양 사료학의 도입이 있었던 것은 이상에서 확인한 대로이다.

하지만 그의 사료편찬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조선사 편찬에서 보여준 그의 확고한 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조선사에 실릴 수 없는 비과학적인 요소로 치부되기에 이른다. 구로이타에게 있어 조선사는 공명정대하고 권위에 넘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서이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구로이타를 중심으로 한 조선사의 편찬 방침에 따르는 한, 식민지 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는 그 존재할 곳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조선사 편찬은 철저하게 조선의 일본화를 달성하기 위한 원대한 기간시설의 레일을 부설하는 사업이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조선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국사인 일본사 편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던 것이다. 즉, 천황 중심의 사료편찬에 편찬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⁶⁵ 그렇다면 적어도 한일 양국 사학계에서의 구로이타의 영향력은 과거의 어느 한 시기에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미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의 식민사학자들 중에서도 구로이타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한일 양국의 사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존재가 아

64) 旗田巍 著, 이기동 역, 1983, 앞의 책 참조.

65) 黑板勝美, 1939, 앞의 책의 제1권과 제2권 참조.

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로이타의 흔적은 어디까지나 ‘일본 중심주의’⁶⁶⁾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구로이타의 사료에 입각한 고문서학의 확립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그의 경험의 확산은 조선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인 사료를 취사선택했고 재배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료의 편향적이고 의도된 재단은 조선사 연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로이타의 작업은 식민지 조선의 본질적인 지배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구로이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66) ‘일본 중심주의’의 실태와 이념을 통시대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논저로서는, 김현구 외, 2009,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 ‘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동북아역사재단이 있다. 이 책은 「‘일본을령국가’와 ‘일본중심주의’-『일본서기』를 중심소재로 하여, 「중세 일본의 신국사상과 그 역사적 변천, 「전국시대 일본적 세계관과 신국사상, 「신유학의 수용과 고학의 일본정신, 「‘국체’ 관념의 시각화-동경부 양정관의 ‘국사회화’를 중심으로」 등의 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사료와 사전〉

- 『國史大辭典』, 第4卷, 1984, 吉川弘文館.
- 『歴史學事典』, 第5卷-歴史家とその作品, 1997, 弘文堂.
- 黑板勝美 編, 國史大系編修會 編, 1964, 『政事要略』(國史大系 第28卷), 東京: 吉川弘文館.
- 黑板勝美 編, 1918, 『國史の研究』(總說の部, 各說の部), 東京: 文會堂書店.
- 黑板勝美 編, 1919, 和田維四郎 編纂, 『岩崎文庫所藏日本書紀舊鈔本に就きて』, 岩崎文庫.
- 黑板勝美 編, 1925, 『國體新論』, 東京: 博文堂.
- 黑板勝美 編, 1929-1935, 『徳川實紀』(第1篇~第10篇), 東京: 吉川弘文館.
- 黑板勝美 編, 1933, 『皇家中興の大業』(岩波講座日本歴史/國史研究會 編), 東京: 岩波書店.
- 黑板勝美 編, 1934, 『國史大系』(第1卷~14卷), 大阪: 大八州出版.
- 黑板勝美 編, 1934, 『國史の編著』(岩波講座日本歴史/國史研究會 編), 東京: 岩波書店.
- 黑板勝美 編, 1935, 『國史の大觀』(岩波講座日本歴史/國史研究會 編), 東京: 岩波書店.
- 黑板勝美 編, 1953-1955, 『令集解』(前篇, 中篇, 後篇), 東京: 吉川弘文館.
- 黑板勝美 編, 1979, 國史大系編修會 編, 『類聚國史』(國史大系), 東京: 吉川弘文館.

〈단행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8,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 旗田巍 著, 이기동 역, 1985 중판(1983 초판), 『일본인의 한국관』, 일조각.
- 芳賀登, 1974, 『批判近代日本史學思想史』, 柏書房.
- 永原慶二·鹿野正直, 1976, 『日本の歴史家』, 日本評論社.
- 오세탁, 2005, 『文化財保護法原論』, 주류성.
- 전성근, 2008,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제이앤씨.
-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朝鮮史首卷目錄事業概要』.
-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38, 『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 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
- 조인성 외, 2009,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坂本太郎, 1989, 『歴史と人物』, 東京: 吉川弘文館.

黑板博士記念會 編修, 1953, 『古文化の保存と研究: 黑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 吉川弘文館.

黑板勝美, 1939, 『虚心文集』全8券, 吉川弘文館.

黑板勝美先生誕生百年記念會 編, 1964, 『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논문〉

高橋正彦, 1977, 「古文書誕生のころ-明治二十一年より四十五年にかけて」, 『歴史公論』 3-9: 日本古文書學會 編, 1986, 『日本古文書學論集1 總論 I 日本古文書學の展開』, 吉川弘文館.

古代學協會 編, 1997, 「黑板勝美先生の思い出(黑板勝美博士を偲ぶ)」, 『古代文化』 49-3.

旗田巍 編, 1969, 『シンポジウム・日本と朝鮮』, 勁草書房.

大久保利謙, 1997, 「黑板勝美先生の風格と學問(黑板勝美博士を偲ぶ)」, 『古代文化』 Vol. 49, No. 3, 古代學協會.

稻葉岩吉, 1935, 「朝鮮史研究の過程」, 『世界歴史大系11 朝鮮滿州史』, 平凡社.

東京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編, 1987, 『東京大學百年史 部局史四』 第19編, 史料編纂所.

藤田亮策, 1953, 「朝鮮古蹟調査」, 黑板勝美博士記念會 編, 『古文化の保存と研究-黑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 吉川弘文館.

箱石大, 2003~2006, 「史料採訪-韓國所在日本關係史料調査」,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38~41號.

三成重敬 他, 1959, 「黑板勝美博士を偲びながら(座談會)-上」, 日本歴史學會 編, 『日本歴史』(通號 134), 吉川弘文館.

三成重敬 他, 1959, 「黑板勝美博士を偲びながら(座談會)-下」, 日本歴史學會 編, 『日本歴史』(通號 135), 吉川弘文館.

箱石大, 2007, 「韓國國史編纂委員會所藏の朝鮮總督府修史事業關係史料について」, 『前近代東ア ジアにおける日本關係史料の研究 2003-200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研究成果報告書』.

箱石大, 2007, 「近代日本史料學と朝鮮總督府の朝鮮史編纂事業」, 史學會シンポジウム叢書, 佐藤信・藤田覺 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山川出版社.

石井進, 1976, 「史料論まえがき」, 『岩波講座日本通史25 別卷2』, 岩波書店.

兒玉幸多, 1990, 「黑板勝美博士(日本史上の人物と史料(特集))」, 『日本歴史』 500, 吉

川弘文館.

兒玉幸多, 1997, 「黑板先生の思い出(黑板勝美博士を偲ぶ)」, 『古代文化』 Vol. 49, No. 3, 古代學協會.

永島弘紀, 2004, 「日本統治期における‘史學’と‘史料’の位相」, 『歴史學研究』 795.

齋藤忠, 1997, 「黑板勝美先生の思い出(黑板勝美博士を偲ぶ)」, 『古代文化』 Vol. 49, No. 3, 古代學協會.

井上直樹, 2006, 「日露戰爭後の大陸政策と滿鮮史」, 『洛北史學』 8.

中村榮孝, 1953, 「朝鮮史の編修と蒐集-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の事業」, 黑板勝美博士記念會 編, 『古文化の保存と研究-黑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 吉川弘文館.

黑板伸夫, 1997, 「追想 黑板勝美(黑板勝美博士を偲ぶ)」, 『古代文化』 Vol. 49, No. 3, 古代學協會.

坂本太郎 他, 1961, 「黑板勝美博士-近代史學を作った人々」, 『歴史教育研究』 18.

丸山二郎, 1953, 「黑板勝美博士の年譜と業績」, 黑板勝美博士記念會 編, 『古文化の保存と研究-黑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 吉川弘文館.

김성민, 1989, 「조선사편수회의 조직과 운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

김성민, 1991, 「일제 식민사학의 한국사 왜곡」, 국사편찬위원회 편, 『국사편찬위원회사』.

김영하, 2008, 「일제시기의 진흥왕순수비론- 滿鮮의 경역인식과 관련하여」, 『한국고대사 연구』 53.

김용섭, 1966, 「일본,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31.

金義煥, 1978, 「『近代日鮮關係の研究』(田保橋潔)の著述刊行の動機とその内容について」, 『朝鮮學報』 88.

박찬홍, 2007, 「만선서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고려사학회 편, 『한국사학보』 29.

이상시, 1987, 『단군실사에 관한 문헌고증』, 가나출판사.

李成市, 2001, 「日本歴史學の成り立ちと黑板勝美: 『朝鮮史』編纂と古蹟調査事業を中心に(報告) (公開シンポジウム: 平成十二年度早稻田大學史學會)」, 『史觀』 144, 早稻田大學史學會.

李成市 외, 2004, 「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歴史學-植民地統治下の朝鮮史編纂と古蹟調査を中心に」, 『植民地主義と歴史學-そのまなざしが残したもの』, 刀水書房.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재석, 1990, 「黑板勝美의 일본고대사연구 비판」, 『일본고대사연구비판』, 일지사.



[ABSTRACT]

Kuroita Katsumi of colonial Joseon and historiography

Song, Whanbhum

Kuroita is a person who established studies of ancient manuscripts of modern Japan. He developed studies of old manuscripts (古文書學) through his thorough analysis of old documents, and devoted his lifetime to the editing of “ancient manuscripts of Great Japan (大日本古文書)” and “an outline of national history (國史大系).”

His studying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has made him to pay attention to exhibition of historical materials in the modern museum and research of historical sites. All these experiences were connected to the editing of history of Joseon (朝鮮史) and investigating ancient historical sites in colonial Joseon.

As a result, his general experiences are still effectual nowadays not only editing historical materials of Korea and Japan, but establishing of modern museums, digging up historical sites, maintaining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and so on.

However, we need to be more cautious that these works of Kuroita are based on Japancentrism (日本中心主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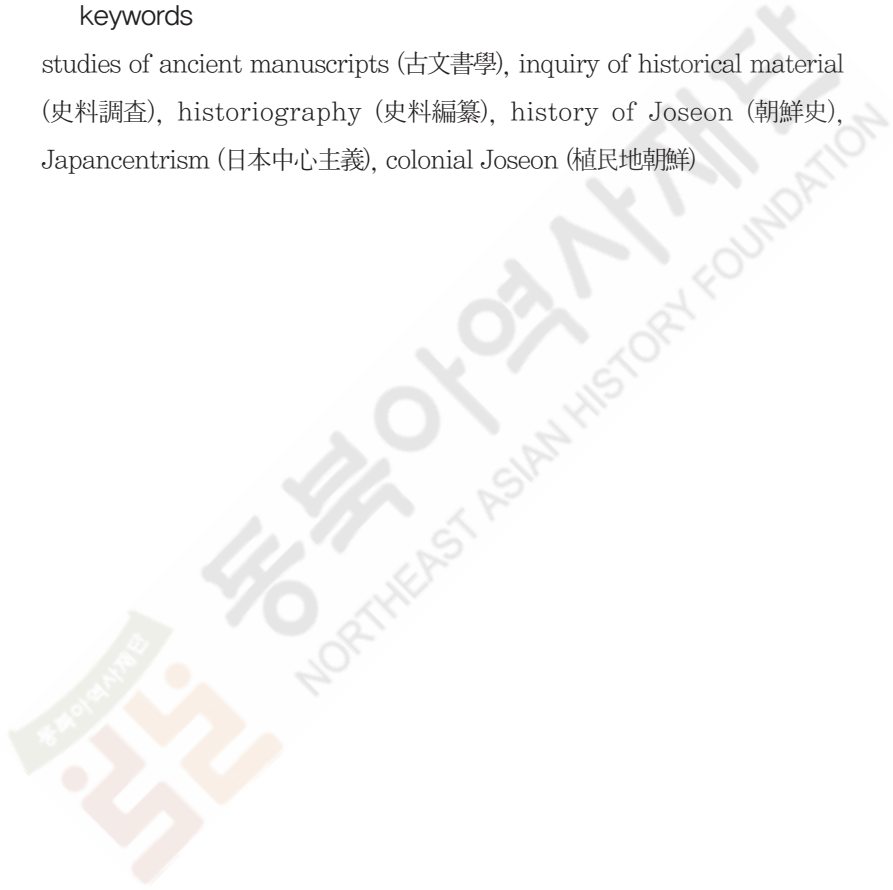
We should notice that his establishment of studies of ancient manuscripts and spread of his experience in colonial Joseon had selected and rearranged fundamental historical documents in studying history of Joseon.

Selecting and rearranging historical materials could restrict the

research of history of Joseon from its root. It means that Kuroita's works were related to the governing of colonial Joseon (植民地朝鮮).

keywords

studies of ancient manuscripts (古文書學), inquiry of historical material (史料調査), historiography (史料編纂), history of Joseon (朝鮮史), Japoncentrism (日本中心主義), colonial Joseon (植民地朝鮮)



논문

고구려 벽화고분의 類型

정호섭 | 고려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고구려 벽화고분의 형식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혹은 미술사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된 편이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형식에 대한 검토가 벽화고분에 대한 미술사적인 검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고, 벽화고분의 형식도 벽화내용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고학적·미술사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 온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기존 연구성과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현 수준에서 고구려 벽화고분을 형식분류해 보고자 한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고고학적으로는 묘실구조를 통한 고분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미술사적으로는 벽화내용을 통해 벽화고분의 형식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 투고일 : 2009년 8월 27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에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확보가 가능한 각 벽화고분의 도면을 중심으로 하여 묘실구조를 통해 벽화고분 형식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고, 아울러 현재까지 벽면과 천장부 등의 벽화내용이 전반적으로 확인된 벽화고분을 검토하여 고구려 벽화고분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형식분류를 종합하여 고구려 벽화고분의 전반적인 유형을 최종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

고구려 벽화고분의 형식분류에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은 김용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술사학자였던 김용준은 벽화고분을 중심으로 하여 매장부를 기준으로 무덤칸 수가 여러 칸에서 단칸으로, 천장가구가 궁륭천장에서 삼각고임천장으로, 벽화내용이 생활풍속도에서 사신도로 변화되는 것에 주목하였다.¹⁾ 이에 따라 기본형과 특수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은 연도와 현실, 혹은 연도와 전실과 현실을 가진 것으로 보되, 삼실총과 같은 경우 세 개의 묘실이 있는 것일 지라도 그것이 연도에서 통로를 거쳐 단순하게 꺾여지는 것은 기본형으로 보았다. 또한 연도를 지나서 전실 천장이 장방형이거나 혹은 삼구로 나뉘고 감실이 있고 복도가 있으며 돌기둥이 서고 여러 개의 묘실이 좌우 전후로 퍼지는 구조를 가진 고분들을 특수형으로 보았다.

楊泓은 벽화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여섯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²⁾ 즉, 현실 네 벽면에 생활제제를 반영하여 그린 벽화, 조정에 하늘을 표시한 벽화로써 생활제제를 위주로 하지만 사신도상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벽화, 사신과 생

1) 김용준, 1958,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2) 楊泓, 1958, 「高句麗壁畫石墓」, 『文物參考資料』 1958-4.

활제재를 함께 표현한 벽화, 구름무늬에 사신도상을 위주로 한 벽화, 연꽃형 그물무늬에 사신형상을 위주로 한 벽화, 오직 사신도상 위주로만 된 벽화로 나누었다.

김원룡은 벽화의 내용을 중국의 문물과 비교하여 대략적으로 고구려 벽화고분을 낙랑전축분 계통, 낙랑전축분 계통에다 말각조정을 가한 것, 중국본토의 석실묘를 모방한 것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³⁾ 그리고 이후 벽화내용상으로는 묘주생활도, 사신도, 장식문도로 구분하였다.⁴⁾

주영현은 벽화분의 구조, 벽화내용, 선행묘제와의 관계에 따라 그 변천과정을 토대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묘주의 실내생활도가 좌벽에 있는 인물풍속도와 장식문이 그려진 단실분과 감측실묘, 둘째 묘주의 실내생활도가 후벽에 있는 인물풍속도를 그린 단실묘와 감측실묘 그리고 이실분, 셋째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그려진 단실묘와 이실묘, 넷째 후기 벽화고분의 형태로 사신도가 그려진 단실묘로 구분하였다.⁵⁾

李殿福은 천장구조와 벽화내용을 기준으로 돛식 천장을 하고 생활풍속도를 그린 것, 삼각고임천장에 생활풍속도와 사신도를 묘사한 것, 삼각고임천장을 하고 사신도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⁶⁾

김기웅은 벽화내용을 중심으로 인물풍속도, 인물풍속·사신도, 장식문양, 사신도로 나누어 이해하였다.⁷⁾ 인물풍속도에는 다시 중기의 단실묘, 감이나 측실이 있는 벽화묘, 쌍실묘 등으로 세분화했고, 인물풍속·사신도는 중기·후기의 단실묘, 감이나 측실이 있는 벽화묘, 쌍실묘, 장식문양과 사신도는 후기의 단실묘로 이해하였다.

박진욱은 무덤의 구조형식과 벽화내용에 기초하여 두 가지의 기준을 나누어 정리한 후 이를 종합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였다.⁸⁾ 구조형식에서 무덤칸의

3) 김원룡, 1960, 「고구려고분벽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21.

4) 김원룡, 1980, 『한국벽화고분』, 일지사.

5) 주영현, 1961, 『고구려 벽화무덤의 편년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6)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2.

7) 김기웅, 1980, 『朝鮮半島の壁畫古墳』.

방향(서남향과 남향), 무덤칸이 차지하는 위치(지상, 지하, 반지하), 무덤칸의 수(다실, 이실, 단실·감 또는 측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천장의 구조(절천장, 궁륭천장, 평행고임, 삼각고임, 팔각고임, 궁륭평행고임, 평행삼각고임), 연도의 위치(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것, 약간 치우쳐 있는 것, 한가운데 있는 것)를 통하여 벽화고분의 변화과정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벽화내용을 통해 인물풍속도무덤(주인공 그림이 서쪽벽에 있는 것/다실분, 감이 있는 이실분, 북쪽 벽에 있는 것/감이없는 이실분, 단실분), 인물풍속 및 사신도무덤(인물풍속도가 주된 요소이고 사신도는 천장에 부차적인 요소인 것/인물풍속도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사신도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단실분, 감이 있는 이실분, 감이 없는 이실분), 장식무늬 무덤(연꽃을 가로세로 규칙적으로 그린 것, 6각형의 구획안에 연꽃을 그린 것, 구름무늬와 왕자 모양으로 된 도안을 줄을 치고 내리그린 것, 둥근고리를 벽면에 규칙적으로 그린 것/감이 있는 단실분, 감이 없는 이실분), 사신도무덤(무덤칸 벽면을 장식무늬로 가득 채우고 사신을 그린 것, 벽면에 사신도만 그리고 장식무늬를 그리지 않은 것/단실분)으로 구분하였다.

東潮는 고구려 벽화고분의 석실의 평면형태와 연도형태, 천장가구를 중심으로 석실고분을 형식분류하였는데, 그는 특히 전실의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변천과정에 주목하였다. 그는 전실의 발달에 따라 고구려 벽화고분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는데, 즉 감실과 측실이 딸린 고분에서 전실이 점차 현실에 필적할 만큼 발달하는 과정과 이후 전실과 현실이 분리되어 단독의 현실을 가지는 과정에 주목한 것이었다.⁹⁾ I 유형은 널길에 규모가 작은 감실이 달려 있는 것, 궁륭형 천장, 평행고임천장, 평천장식인 것, II 유형은 감실이 발달하여 측실로 변용된 것, 측실 정상부가 널길 천장보다도 높은 것, 측실이 독립하여 천장구조를 가진 단계, 궁륭형 천장식, III 유형은 널길 양벽의 감실

8) 박진옥, 1997, 「고구려벽화무덤의 유형변천과 편년에 관한 연구」, 『高句麗研究』 4(高句麗古墳壁畫).

9) 東潮, 1997a, 「高句麗壁畫古墳の石室構造に関する研究」, 『高句麗研究』 4, 고구려연구회; 東潮, 1997b, 『高句麗考古學研究』.

측실이 전실로써 하나의 방을 형성하는 단계, 삼각·평행고임천장, IV유형은 천장구조 평면형이 후실에 필적할 만큼 발달하는 단계, 평행, 삼각·평행고임천장, V유형은 전실·후실이 분리되어 각각 단독의 석실을 형성하는 단계, 천장구조로 여러 층의 고임천장이 발달하고 평행 혹은 삼각·평행고임천장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劉萱堂은 집안지역의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하여 크게는 적석석실벽화묘와 봉토석실벽화묘로 구분하고 무덤구조와 벽화내용을 토대로 크게 여덟 가지 유형으로 형식분류하였다.¹⁰⁾ 이에 따르면 적석석실벽화묘는 연도부 묘실로 구성된 하나의 형식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봉토석실벽화묘는 크게 I형 단칸묘실에 이실이 달린 것, II형 반전실을 갖춘 것, III형 다실분, IV형 단실분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차이에 따라 각각 I식과 II식으로 형식분류하였다.

강현숙은 주로 묘실평면의 형태에 따라 고구려 횡형석실벽화를 형식분류하였다.¹¹⁾ 이에 따르면 고구려 석실분은 크게는 여섯 가지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무덤간 수와 현실과 전실의 형태, 연도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방형현실, 중앙연도를 가진 것을 I식으로 그 가운데 단칸인 것을 A식, 두칸인 것을 B로 분류하면서 두칸 가운데 전실의 형태에 따라 다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II식은 방형현실, 편재연도인 것으로 III식은 장방형 현실, 중앙연도를 가진 것으로 이 가운데 단칸인 것을 A식, 두칸이면서 전실이 횡장방형인 것을 구분하였다. IV식은 장방형 현실, 편재연도인 것, V식은 횡장방형 현실, 중앙연도인 것, VI식은 횡장방형 현실, 편재연도를 가진 것으로 구분하였다.

전호태는 고분의 구조는 크게 여러방무덤(감·결방이 있는 무덤, 두방무덤)과 외방무덤으로 나누고, 벽화내용은 생활풍속계, 생활풍속·장식무늬계,

10) 劉萱堂, 1997, 「中國集安高句麗壁畫墓與遼東遼西漢魏晉壁畫墓比較研究」, 『高句麗研究』 4, 고구려연구회.

11) 강현숙, 1999, 「고구려 고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생활풍속·사신계, 장식무늬계, 사신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¹²⁾ 전호태의 이러한 구분은 김기웅, 박진욱, 주영현 등의 분류를 종합화하여 각각의 특점을 단순화시켜 이해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손수호는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유형을 외칸무덤, 감(결칸)이 있는 외칸무덤, 쌍칸 및 여러 쌍칸무덤, 두칸무덤, 감(결칸) 있는 두칸 무덤, 여러칸무덤으로 1차 분류하고 여기에 세부분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벽화고분은 벽화내용에 주목하여 크게는 인물풍속도 무덤, 인물풍속 및 사신도 무덤, 장식무늬무덤, 사신도 무덤의 네 가지로 분류하면서 여기에 세부분류를 다시 하고 있다. 즉, 인물풍속도 무덤은 주인공 그림이 서쪽벽에 있는 것과 북쪽벽에 있는 것으로 나누고, 인물풍속 및 사신도무덤은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인물풍속도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사신도는 천장에 그려져 있는 무덤과 사신도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무덤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장식무늬 무덤은 장식무늬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였는데, 연꽃을 가로세로 규칙적으로 그린 것, 육각형의 구획 안에 연꽃을 그린 것, 구름무늬와 卍자 무늬를 그린 것, 둥근 고리를 규칙적으로 그린 것으로 나누었고, 사신도무덤은 사신을 그린 배경에 장식무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었다.¹³⁾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별 벽화고분의 형식분류와 유형

연구자	형식분류
김용준	기본형 : 연도와 현실, 혹은 연도와 전실과 현실을 가진 것 특수형 : 연도를 지나서 전실 천장이 장방형이거나 혹은 삼구로 나뉘고 감실이 있고 복도가 있으며 돌기둥이 서고 여러 개의 묘실이 좌우 전후로 퍼지는 구조를 가진 것
楊泓	현실 네 벽면에 생활제제를 반영하여 그린 벽화 조정에 하늘을 표시한 벽화로써 생활제제를 위주로 하지만 사신도상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벽화

12)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13) 손수호, 2001, 『고구려고분연구』, 83~89쪽.

연구자	형식분류
	<p>사신과 생활계재를 함께 표현한 벽화 구름무늬에 사신도상을 위주로 한 벽화 연꽃형 그물무늬에 사신형상을 위주로 한 벽화 오직 사신도상을 위주로 한 벽화</p>
김원룡	<p>낙랑전축분 계통 낙랑전축분 계통에다 말각조정을 가한 것 중국본토의 석실묘를 모방한 것 〈벽화내용〉 묘주생활도, 사신도, 장식문도</p>
주영현	<p>묘주의 실내생활도가 좌벽에 있는 인물풍속도와 장식문이 그려진 단실분과 감축실묘 묘주의 실내생활도가 후벽에 있는 인물풍속도를 그린 단실묘, 감축실묘, 이 실분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그려진 단실묘와 이실묘 후기 벽화고분의 형태로 사신도가 그려진 단실묘</p>
李殿福	<p>덤식 천장을 하고 생활풍속도 삼각고임천장에 생활풍속도와 사신도 삼각고임천장을 하고 사신도</p>
김기웅	<p>인물풍속도 : 중기의 단실묘, 감이나 축실이 있는 벽화묘, 쌍실묘 인물풍속 · 사신도 : 중기, 후기의 단실묘, 감이나 축실이 있는 벽화묘, 쌍실묘 장식문양 : 후기의 단실묘 사신도 : 후기의 단실묘</p>
박진욱	<p>〈구조형식〉 무덤간 방향 : 서남향, 남향 무덤간 위치 : 지상, 지하, 반지하 무덤간 수 : 다실, 이실, 단실 / 감 또는 축실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천장구조 : 절천장, 궁륭, 평행고임, 삼각고임, 팔각고임, 궁륭평행고임, 평행 삼각고임 연도 위치 :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것, 약간 치우친 것, 한가운데 있는 것 〈벽화내용〉 인물풍속도무덤 : 주인공 그림이 서쪽벽에 있는 것 / 다실분, 감이 있는 이실 분, 북쪽벽에 있는 것 / 감이 없는 이실분, 단실분 인물풍속 및 사신도무덤 : 인물풍속도가 주된 요소이고 사신도는 천장에 부차 적인 요소인 것, 인물풍속도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사신도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 단실분, 감이 있는 이실분, 감이 없는 이실분</p>

연구자	형식분류
박진욱	장식무늬 무덤 : 연꽃을 가로세로 규칙적으로 그린 것, 육각형의 구획 안에 연꽃을 그린 것, 구름무늬와 왕자 모양으로 된 도안을 줄을 치고 내리그린 것, 둥근고리를 벽면에 규칙적으로 그린 것 / 감이 있는 단실분, 감이 없는 이실분 사신도무덤 : 무덤간 벽면을 장식무늬로 가득 채우고 사신을 그린 것, 벽면에 사신도만 그리고 장식무늬를 그리지 않은 것 / 단실분
東潮	I 유형 : 널길에 규모가 작은 감실이 달려 있는 것, 궁륭형 천장, 평행고임천장, 평천장식인 것 II 유형 : 감실이 발달하여 측실로 변용된 것, 측실 정상부가 널길 천장보다도 높은 것, 측실이 독립하여 천장구조를 가진 단계, 궁륭형 천장식 III 유형 : 널길 양벽의 감실 측실이 전실로써 하나의 방을 형성하는 단계, 삼각·평행고임천장 IV 유형 : 천장구조 평면형이 후실에 필적할 만큼 발달하는 단계, 평행, 삼각·평행고임천장 V 유형 : 전실 후실이 분리되어 각각 단독의 석실을 형성하는 단계, 천장구조로 여러 층의 고임천장이 발달하고 평행 혹은 삼각·평행고임천장
劉萱堂	적석석실벽화묘 : 연도부 묘실로 구성된 형식 봉토석실벽화묘 : I 형 단칸묘실에 이실이 달려진 것 / I 식, II 식 II 형 반전실을 갖춘 것 / I 식, II 식 III 형 다실분 / I 식, II 식 IV 형 단실분 / I 식, II 식
강현숙	I : 방형현실, 중앙연도 IA : 단칸 IBa : 두칸이면서 장방형 IBb : 두칸이면서 방형 IBc : 두칸이면서 횡장방형 IBd : 두칸이면서 횡장방형 II : 방형현실, 편재연도 III : 장방형 현실, 중앙연도 III A : 단칸 III Bd : 두칸이면서 횡장방형 IV : 장방형 현실, 편재연도 V : 횡장방형 현실, 중앙연도 VI : 횡장방형 현실, 편재연도
전호태	묘실구조 : 여러방무덤(감·결방이 있는 무덤, 두방무덤)과 외방무덤 벽화내용 : 생활풍속계, 생활풍속·장식무늬계, 생활풍속·사신계, 장식무늬계, 사신계

연구자	형식분류
손수호	석실봉토분 묘실구조 : 여러칸무덤, 감(결칸)이 있는 외칸무덤, 쌍칸 및 여러 쌍칸무덤, 두칸무덤, 감(결칸) 있는 두칸무덤, 여러칸무덤 벽화내용 인물풍속도 무덤 a. 주인공 그림이 서쪽벽에 있는 것 b. 북쪽벽에 있는 것 인물풍속 및 사신도 무덤 a. 인물풍속도가 주된 것 b. 사신도가 주된 것 장식무늬무덤 a. 연꽃을 가로세로 규칙적으로 그린 것 b. 6각형의 구획 안에 연꽃을 그린 것 c. 구름무늬와 좌자 무늬를 그린 것 d. 둥근 고리를 규칙적으로 그린 것 사신도무덤 a. 사신을 그린 배경에 장식무늬가 있는 것 b. 사신을 그린 배경에 장식무늬 없는 것

지금까지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고분벽화라는 독특한 구조상 고고학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할 수도 없고, 미술사적 입장에서만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종합한 시도들이 1차적으로 좀 더 유효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고고학적인 면에서 보면 묘실구조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감실이나 이실, 혹은 측실에 대한 이해에 따라 묘실구조에 대해서는 다소 혼선이 있다. 즉, 이러한 묘실의 대한 이해에 따라 다실분, 이실분, 단실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실분에 감실이 달린 경우 이를 다실분으로 이해해야 할지, 이실분으로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감실 혹은 측실에 대한 이해가 벽화고분의 형식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미술사적인 면에서 검토대상이 되는 벽화내용으로 볼 때 지금까지 연구에서의 대체적인 경향은 다분히 내부 벽면만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데 있다. 고구려에서 석실봉토분은 고유의 적석총이라는 묘제를 대체해간 무덤양식으로 볼 수 있다. 적석총이 고구려 고유의 묘제라고 한다는 중국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은 석실봉토분은 동양의 보편적 사상인 天圓地方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묘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실봉토분의 기본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기본원리에 입각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 석실봉토분의 천장가구가 대체로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이고 현실이 방형인 점은 이 점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다. 고구려 석실봉토분에 나타난 벽화는 天圓地方의 원리에 가장 충실하게 그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벽화내용을 통한 형식분류는 이 점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고임이나 천장부에 묘사된 장식무늬까지 모두 확인하여 분류할 경우 벽화고분은 벽화내용상 거의 모든 고분에서 복합적인 요소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특히 벽화내용상 중심제제가 무엇인지에 착안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타 고구려 벽화고분과 관련하여 형식분류에서 주목할 사항은 입지조건, 무덤의 방향, 묘실의 위치, 분구형태, 연도, 묘실배치, 현실 평면형태, 천장가구, 묘실의 내부시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형식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이들 사항이 고구려 벽화고분의 변천을 이해하는 단서로는 활용될 수도 있지만, 고구려 벽화고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시 묘실구조나 벽화내용이 중심이다. 현재로서는 고구려 벽화고분을 형식분류하는 데 1차적인 기준은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묘실의 구조와 미술사적으로는 벽화내용상 주로 묘실 벽면의 벽화내용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는 측면에서 고구려 벽화고분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묘실구조를 통한 형식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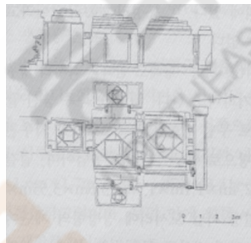
고구려 벽화고분은 현 중국경내에 38기, 북한경내에 80기 총 118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 대부분이 석실봉토분이고 집안지역의 6기가 매장부가 석

실 혹은 전실인 적석총이다. 따라서 주로 석실봉토분을 중심으로 한 묘실구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도면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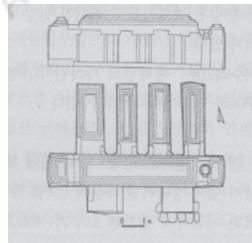
고구려의 벽화고분의 묘실구조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는 다실분, 이실분, 단실분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와는 별도로 통구 12호분이나 장천 4호분, 화성동 벽화고분 등과 같이 한 분구 내에 별도의 개별적 묘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수한 사례도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 가운데 다실분으로는 독립된 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크게는 두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거의 비슷한 크기의 각 실들이 3개 이상 존재하는 것(A식)과 전실과 함께 측실이나 독립된 감실을 갖추고 있는 것(B식)이다.

A식으로는 안악 3호분, 요동성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고분은 모두 통일성 있는 유형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비슷한 크기의 실을 여러 개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안악 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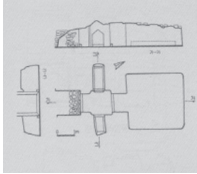
요동성총

다실분 가운데 B식은 마선구 1호분, 고산동 7호분, 고산동 10호분, 고산동 15호분, 연화총, 고산동 9호분, 가장리 벽화분, 대안리 1호분, 용강대묘, 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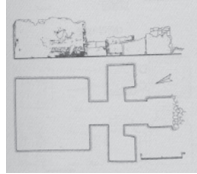
14) 정호섭, 2008,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황과 피장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49; 정호섭, 2009,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벽화고분의 도면은 전호태가 1차적으로 정리한 바 있기 때문에(전호태, 2000, 앞의 책), 여기서는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그 외에 기타 북한 보고서나 중국 보고서 등에서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평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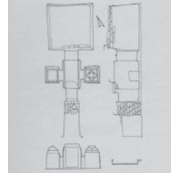
지신총, 태성리 1호분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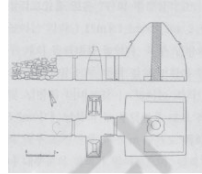
고산동 10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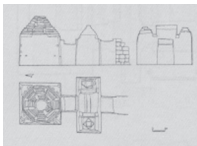
고산동 9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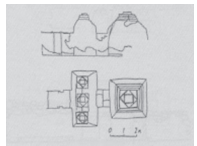
고산동 7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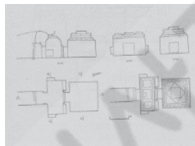
마선구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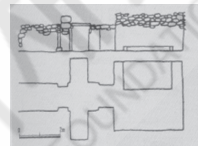
대안리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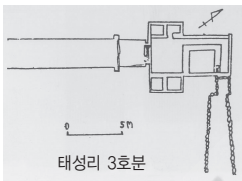
가장리 벽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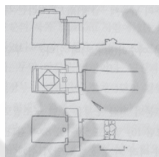
연호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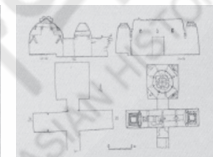
고산동 15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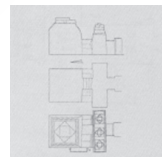
태성리 3호분



태성리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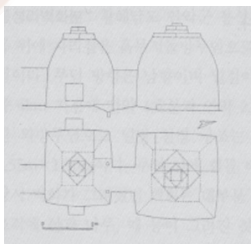
천왕지신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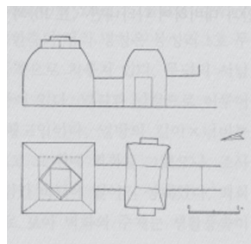
용강대묘

이러한 형식의 무덤들은 축실 혹은 감실이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이들 실에도 천장가구가 대부분이 갖추어진 것이 많으며, 기존의 다실분에서 개별 실들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실분이다. 이실분은 전실과 현실로 구성된 고분이라고



약수리 벽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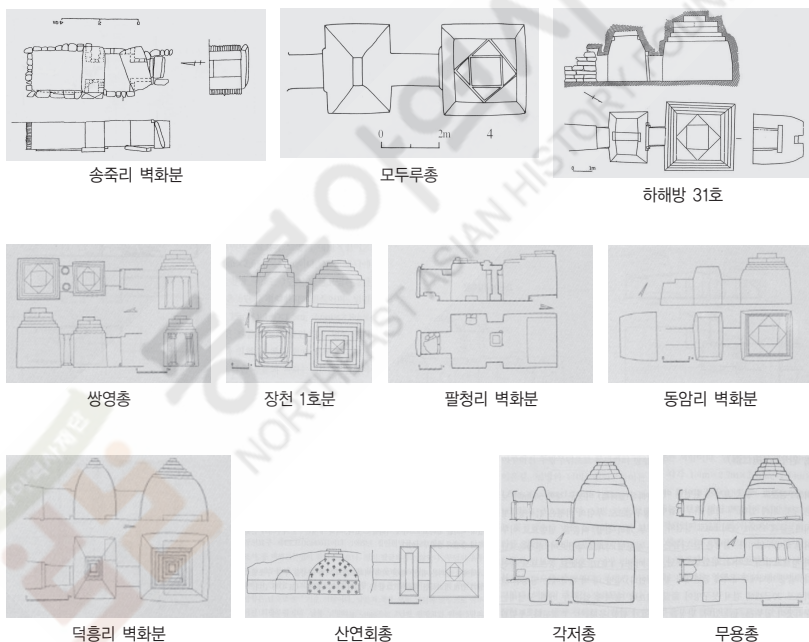
감신총

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전실에 비교적 소규모 감이 달린 형태(A식)와 완전하게 전실과 현실로 구성된 형태(B식)로 나눌 수 있다.

A식은 감신총과 약수리 벽화고분을 들 수 있다.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는 전실과 현실로 구성되지만, 전실에 거의 퇴화되는 감이 아주 소규모로 달린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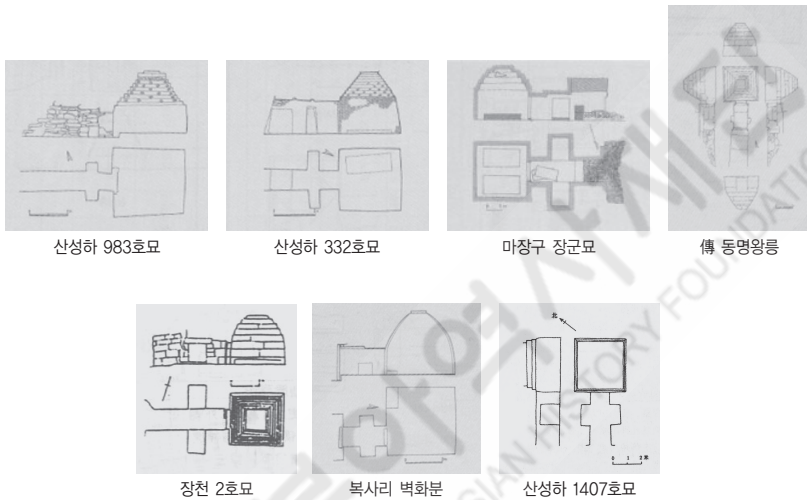
B식은 송죽리 벽화분, 모두루총, 하해방 31호분, 장천 1호분, 덕흥리 벽화분, 동암리 벽화분, 팔청리 벽화분, 쌍영총, 산연화총, 각저총, 무용총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들 고분의 전실은 독립된 하나의 방으로 된 것으로 천장부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확실하게 두 방이 나뉜 형태이고, 전실의 크기도 현실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감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전형적인 이실분의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단실분 가운데에는 연도부에 감실이 있는 것(A식)과 완전하게 현

실만 존재하는 것(B식) 그리고 현실 내에 감이 달리는 유형(C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A식의 고분으로는 미창구 장군묘, 산성하 332호묘, 산성하 983호묘, 산성하 1407호묘, 장천 2호묘, 복사리 벽화분, 傳동명왕릉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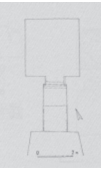


이 형식은 연도부에 독립된 전실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연도부에 감실이 달린 형태로 큰 범주에서는 단일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이것은 감실 자체가 퇴화형 감실로 고분에서 감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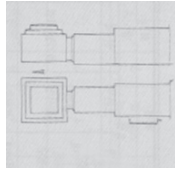
B식은 독립된 현실만 존재하는 것으로 주로 연도와 현실로 구성된다. 이러한 유형에는 만보정 1368호묘, 우산하 1041호분, 환문총, 통구사신총, 오회분 4호묘, 오회분 5호묘, 동대파 365호묘, 안악 1호분, 안악 2호분, 평정리 1호분, 노산동 1호분, 안학동 7호분, 장산동 1호분, 성총, 우산리 3호분, 운룡리 벽화분, 수렴총, 수산리 벽화분, 고산리 1호분, 덕화리 1호분, 덕화리 2호분, 우산리 2호분, 우산리 1호분, 호남리 사신총, 개마총, 진파리 4호분, 진파리 7호분, 진파리 1호분, 내리 1호분, 강서중묘, 강서대묘, 금옥리 1호분 등 다수의 벽화고분이 이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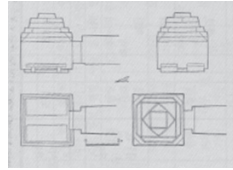
내리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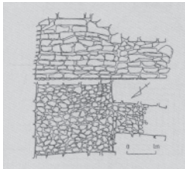
고산리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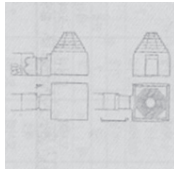
강서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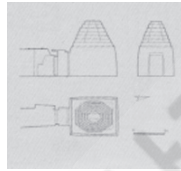
강서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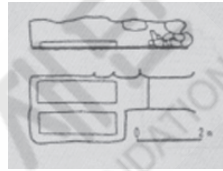
동대표 365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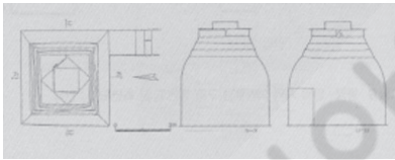
덕화리 2호분



덕화리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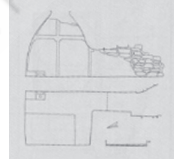
노산동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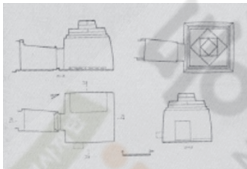
수렴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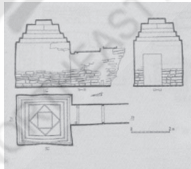
성총



만보정 1368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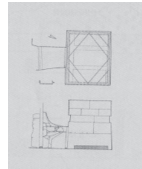
안악 2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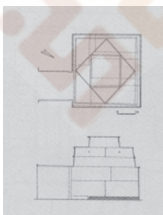
안악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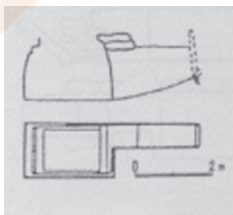
수산리 벽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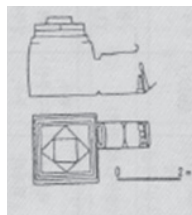
오회분 5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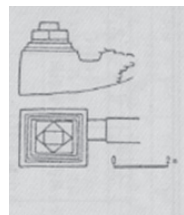
오회분 4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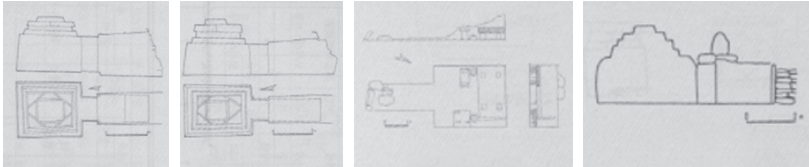
우산리 3호분



우산리 2호분



우산리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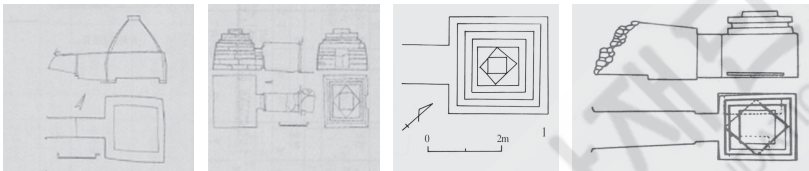


진파리 4호분

진파리 1호분

장산동 1호분

운룡리 벽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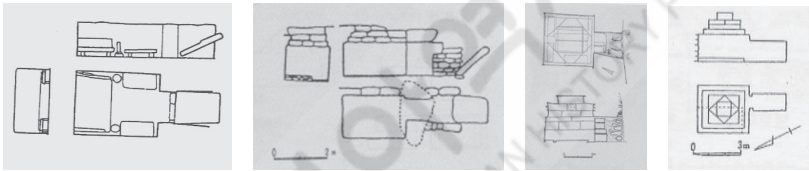


현문총

호남리 사신총

귀갑총

진파리 7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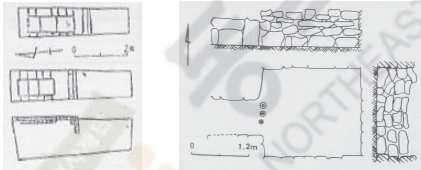


장산동 2호분

팔청리 벽화분

통구 사신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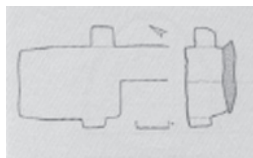
용흥리 1호분



금옥리 1호분

안학동 7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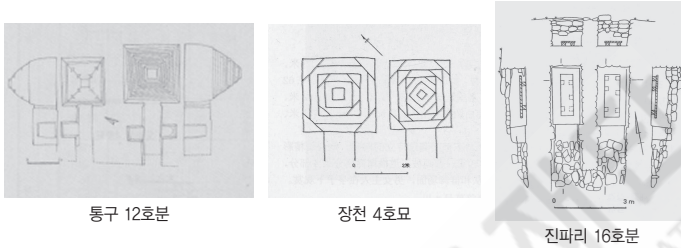
이런 형식은 전형적인 연도와 하나의 현실이 결합된 것으로 7기의 적석총 가운데 대부분의 벽화고분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물론 단실분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등장하지만, 점차 후기 벽화고분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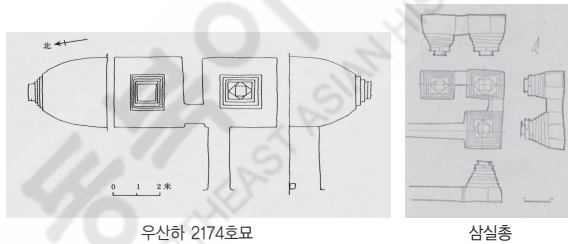
태성리 2호분

C식의 벽화고분으로는 태성리 2호분을 들 수 있다. 이 형식은 현실 내에 감실이 달리는 형태로 전 실이나 연도부에 존재하던 감실이 현실 내로 들어 온 경우이다. 이는 감실이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고 그 유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특수한 형식으로 통구 12호묘(이혈석실), 장천 4호묘(이혈석실), 진파리 16호분(쌍실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실분의 변형된 형태로 다소 특수한 경우이다. 즉, 독립된 두 개의 현실이 존재하거나 세 개의 현실이 존재하는 우산하 2174호묘¹⁶⁾와 삼실총¹⁷⁾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횡혈식 고분인 석실봉토벽화분이 부부합장을 의도로 축조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고분들은 가족 혹은 친족의 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고고학적으로 석실봉토벽화분의 묘실구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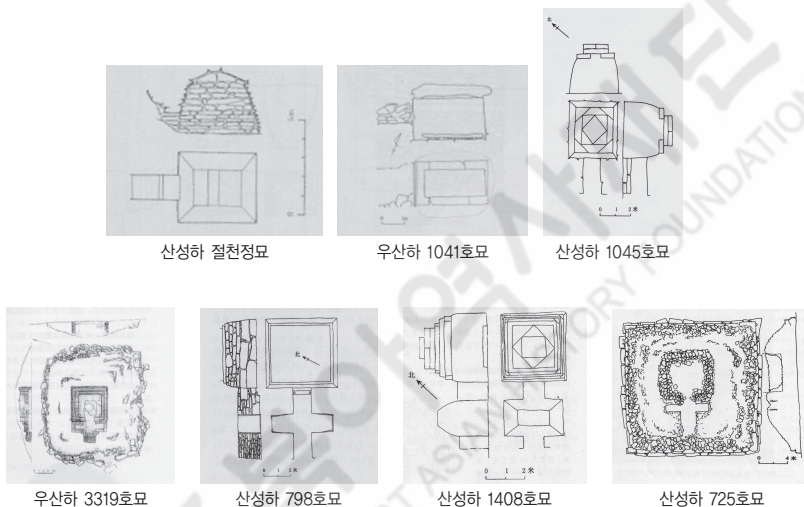
16) 우산하 2174호묘는 단실분의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즉, 원래 단실분을 축조하였다가 용도를 새로 내어 또 다른 현실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17) 전호태는 단실분의 변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전호태, 2000, 앞의 책), 김기웅은 이실분의 변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김기웅, 1980, 앞의 책, 11쪽). 삼실총 역시 단실분 축조 후 용도를 새로 내어 현실을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단실분의 변형된 형태로 생각된다.

〈표 2〉 묘실구조를 통해 본 벽화고분의 형식

구분	형식	주요 고분
다실분 (I형)	묘실이 3개 이상인 것(A식)	안악 3호분, 요동성총
	전실과 함께 측실이나 독립된 감실을 갖추고 있는 것(B식)	마선구 1호분, 고산동 7호분, 고산동 10호분, 고산동 15호분, 연화총, 고산동 9호분, 가장리 벽화분, 대안리 1호분, 용강대묘, 천왕지신총, 태성리 1호분, 태성리 3호분
이실분 (II형)	전실에 퇴화형 감실을 있는 것(A식)	약수리 벽화분, 감신총
	완전하게 전실과 현실만으로 구성된 것(B식)	장천 1호분, 덕흥리 벽화분, 동암리 벽화분, 팔청리 벽화분, 쌍영총, 산연화총, 각저총, 무용총, 모두루총, 송죽리 벽화분
단실분 (III형)	연도부에 퇴화형 감실이 있는 것(A식)	미창구 장근묘, 산성하 332호묘, 산성하 983호묘, 복사리 벽화분, 傳동명왕릉, 장천 2호분, 산성하 1407호묘
	완전히 현실만 존재하는 것(B식)	만보정 1368호묘, 환문총, 통구 사신총, 오회분 4호묘, 오회분 5호묘, 동대파 365호묘, 안악 1호분, 안악 2호분, 평정리 1호분, 노산동 1호분, 안학동 7호분, 장산동 1호분, 성총, 우산리 3호분, 윤룡리 벽화분, 수렴총, 수산리 벽화분, 고산리 1호분, 덕화리 1호분, 덕화리 2호분, 우산리 2호분, 우산리 1호분, 호남리 사신총, 개마총, 진파리 4호분, 진파리 7호분, 진파리 1호분, 내리 1호분, 강서중묘, 강서대묘, 용흥리 1호분, 장산동 2호분, 귀갑총, 금옥리 1호분
	현실 내에 감실이 달리는 것(C식)	태성리 2호분
특수분 (IV형)	한 분구 내에 독립된 매장부가 2개가 존재하는 것(이혈석실)	통구 12호묘, 장천 4호묘, 화성동 벽화분, 진파리 16호분(쌍실분)
	단실분의 변형으로 2개 혹은 3개의 독립된 현실이 존재하는 것	삼실총, 우산하 2174호묘

이 밖에 고구려 적석총 가운데 벽화고분은 산성하 절천정묘, 우산하 1041호묘, 우산하 3319호묘, 산성하 1405호묘, 산성하 1408호묘, 산성하 725호묘, 산성하 798호묘 등 7기가 확인되고 있다.¹⁸⁾ 이 고분들은 석실봉토분이 아니지만, 매장부는 석실봉토분과 같이 횡혈식의 묘실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적석총들을 석실봉토벽화고분의 묘실구조의 형식분류와 같이 묘실구조를 통해 보면 Ⅲ-A식과 Ⅲ-B식, Ⅱ-B식 세 가지 형식이 나타난다. 즉 Ⅲ-A식은 산성하 725호묘, 산성하 798호묘,¹⁹⁾ 우산하 3319호묘, 산성하 절천정묘, Ⅲ-B식은 우산하 1041호묘, 산성하 1405호묘, Ⅱ-B식은 산성하 1408호묘로 볼 수 있다.

18) 정호섭, 2008, 앞의 글.

19) 묘장 보고서에 제시된 도면 가운데 圖 30은 산성하 725호묘, 도면 圖 31은 실제로 산성하 725묘의 도면이 아니라 산성하 798호 도면일 것으로 생각된다.

IV. 벽화내용을 통한 형식분류

고구려 석실봉토벽화분은 일반적으로 天圓地方의 원리에 가장 충실하게 축조되었다. 천원지방의 동양적인 우주관을 무덤내부에 그대로 옮겨 무덤은 하나의 우주의 축소판이고, 그 속에 하늘세계와 지상세계, 이상세계와 현실세계, 生과 死 등의 두 대비되는 세계를 동시에 표현하였다고 한다.²⁰⁾

일반적으로 고구려 벽화고분은 큰 범주에서는 생활풍속도 중심의 벽화, 장식무늬 중심의 벽화, 사신도 중심의 벽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를 더 세분해서 생활풍속·사신도, 생활풍속·장식무늬, 장식무늬·사신도로 더 세분하고 있기도 하다.²¹⁾ 여기서는 미술사적으로 이 구분을 참고하여 형식분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인물·생활풍속도 중심의 벽화는 생활풍속을 벽화의 일부 혹은 전체의 주제로 삼고서 무덤 주인이 생전에 생활했던 모습을 묘사하거나 사후의 바람을 추가하여 묘사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초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내용을 인물풍속으로 이해하기도 하고,²²⁾ 생활풍속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²³⁾ 인물풍속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 묘주 초상, 부부병좌상, 실내생활과 같은 제재들에 큰 비중을 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생활풍속이라고 하면 벽화의 다양한 행렬도, 수렵도, 무용도, 접객도 등 생활적 제재들에 대한 인식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물풍속과 생활풍속이라는 두 관점이 모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물·생활풍속도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20) 김일권은 영혼도 두 세계를 동시에 넘다들었다고 이해하고 있다(김일권, 2008,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그러나 死者의 영혼이 천상계와 지상계를 동시에 넘나드는 것은 다소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21) 전호태, 2000, 앞의 책.

22) 대체로 주영현 이후 대부분의 북측 연구자들이 인물풍속도로 규정하고 있다.

23) 李殿福은 생활풍속도라고 규정하였는데(李殿福, 1980, 앞의 글), 이후 전호태도 생활풍속계로 규정한 바 있다(전호태, 2000, 앞의 책).

선행연구를 따라서²⁴⁾ 고구려 벽화고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인물·생활풍속도 벽화고분은 각저총, 무용총, 산성하 절천정묘, 만보정 1368호분, 우산하 1041호분, 삼실총, 안악 3호분, 태성리 1호분, 감신총, 연화총, 동암리벽화분, 덕흥리 벽화분, 가장리 벽화분, 용강대총, 봉성리 1호분, 안악 1호분, 복사리 벽화분, 안악 2호분, 태성리 2호분, 수산리 벽화분 등이 해당된다. 집안권과 평양권에 고루 분포한다.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가 같이 중심주제가 되는 고분으로는 마선구 1호분, 장천 1호분,²⁵⁾ 통구 12호분, 장천 4호분, 천왕지신총,²⁶⁾ 산연화총,²⁷⁾ 산성하 332호묘 등으로 주로 집안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분포현상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장식무늬의 채용이 집안권에서 이루어져서 이후 평양권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물·생활풍속과 사신도가 같이 중심주제가 되는 고분으로는 요동성총, 약수리 벽화분, 팔청리 벽화분, 대안리 1호분, 쌍영총, 장산동 1호분, 장산동 2호분, 우산리 3호분, 수렵총, 보산리 벽화분, 덕화리 1호분, 덕화리 2호분, 우

24) 벽화고분의 내용상 중심주제에 대한 구분은 전호태의 견해를 대체로 따라 구분하였다(전호태, 2000, 앞의 책).

25) 장천 1호분의 경우는 전실 벽면은 인물·생활풍속도, 현실 벽면은 장식무늬도가 그려졌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장천 1호분과 같이 전실과 현실의 벽화가 완전히 다른 유형의 고분이 인물·생활풍속·장식무늬 벽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26) 전호태는 천왕지신총의 경우 생활풍속도 벽화고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전호태, 2000, 앞의 책), 천왕지신총은 현실 북벽에 주인 부부상과 가내생활도가 일부 잔존하고 전체 벽면에는 龜甲文과 蓮花文이 연속무늬로 채워져 있다. 이 무늬는 인물·생활풍속도가 점차 사라져 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장식무늬의 채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 계열의 벽화고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27) 전호태는 산연화총을 장식무늬계 벽화고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전호태, 2000, 앞의 책), 산연화총의 경우도 연도부나 전실의 벽화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실에는 장천 1호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인물·생활풍속도의 흔적이 보이므로 전실에는 인물·생활풍속도가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실분이면서 장식무늬가 그려진 고분이 흔하지 않은데, 장천 1호분과 마찬가지로 인물·생활풍속도가 점차 장식무늬로 대체되는 이행기의 고분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전실이 퇴화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현실 내부는 장식도안으로만 가득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산리 1호분, 우산리 2호분 등이다. 분포현상만 놓고 보면 이 고분들은 평양권에서만 존재하고 있어서 사신도의 채용이 평양권에서 먼저 이루어져 집안권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묘실벽면은 사신도를 그리고, 천장부나 벽면에 일부 인물·생활풍속도로 그린 고분들이다. 이는 기존의 인물·생활풍속도 벽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벽화 위치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거나 인물·생활풍속도 벽화에서 보이는 소재가 사신도와 같이 등장하는 경우이다. 특히 인물·생활풍속도 일부가 천장부를 차지하고 있는 개마총, 사신도가 묘실 벽면의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대안리 1호분·팔청리 벽화분·수령총, 현실 벽면의 일부만이 인물행렬로 그려진 덕화리 1호분·덕화리 2호분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고분은 기본적으로 사신도가 묘실 벽면에 주요 중심 제재로 등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벽화로 볼 때 사신도와 인물·생활풍속도의 상하 위치가 전도되고 인물·생활풍속도가 사신도의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인물·생활풍속도 중심의 벽화에서 사신도 중심의 벽화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고분으로 보인다.

장식무늬 중심의 벽화는 동심원무늬, 卍자무늬, 연꽃무늬, 불꽃무늬, 화초무늬, 구름무늬 등으로 무덤 내부를 장식하는 것으로, 이들은 다분하게 상징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늬 중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이 연꽃무늬이다. 연꽃무늬는 시대별로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연꽃무늬에 대해서는 대개 불교적인 것으로 보아 왔지만, 고구려의 불교 전래 이전부터 연꽃무늬가 사용되어 왔고, 신선이 연꽃잎 위에 서 있는 모습도 있으므로, 연꽃이 상징하는 의미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이해된다.²⁸⁾ 이러한 장식무늬가 중심주제인 벽화고분으로는 하해방 31호분,²⁹⁾

28) 연꽃이 태양이나 天帝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전호태, 1990,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하늘 연꽃」, 『미술자료』 46).

29) 하해방 31호분은 이실분이면서 장식무늬계 벽화고분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벽화고분의 유형상 혼하지 않은 고분이다. 향후 이 고분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고분이 전실은 인물·생활풍속계 고분이면서 현실이 장식무늬계 고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단 장식무늬계 벽화고분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미창구장군묘, 산성하 983호묘, 장천 2호분, 산성하 귀갑총, 傳동명왕릉 등이 있다. 분포현황을 보았을 때 장식무늬의 채용이 집안권에서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傳동명왕릉의 경우 집안권의 장식무늬 벽화고분이 직접적으로 평양권에서 채택된 사례로 보인다. 아울러 傳동명왕릉은 집안 적석총의 영향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점에서 보면 집안권과 평양권 문화의 복합현상이 두드러진 고분으로 볼 수 있다. 평양권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집안권의 색깔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식무늬와 사신도가 중심주제인 벽화고분으로는 환문총이 유일하다.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인데, 주요 중심주제는 장식무늬이면서도 사신도를 채택한 것이다.

사신도 중심의 벽화는 주로 후기에 그려진 것이다. 사신은 하늘의 28개 별자리 가운데 동서남북 각 방위의 7개 별자리씩 나타내는 존재이다. 무덤간 안에서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모두 그려진다. 사신도는 초기 고구려 인물·생활풍속도 중심의 고분벽화에서는 천장 부분에 작은 형태로 그려져 있었지만, 후기에 내려오면서 사신도가 고분 전체의 주제가 되면서 고분의 4방위에 각기 한 면을 차지하는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사신도가 벽화고분의 주요 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신도 중심의 벽화고분에 해당된다. 고분벽화에 나온 사신도는 뛰어난 생동감과 함께 화려한 색채를 자랑하여 예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고구려만의 독특한 문화전통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 사신도가 중심주제인 벽화고분으로는 통구사신총, 오희분 4호묘, 오희분 5호묘, 고산리 9호묘, 노산동 1호분, 안학동 9호분, 성총, 고산리 1호분, 호남리 사신총, 개마총, 진파리 4호분, 진파리 1호분, 내리 1호분, 강서대묘, 강서중묘 등이 있다.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사신도의 등장은 평양권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집안권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가운데 황룡이 그려진 강서대묘, 오희분 4호묘, 통구사신총 등의 고분은 五神圖 고분으로 명명되기도 한다.³⁰⁾

30) 김일권, 2008, 앞의 책.

한편 평정리 1호분의 경우는 산악도만으로 벽면 전체를 채우고 있다. 현재 로선 명확하게 어떤 유형의 고분인지 파악하기 힘들다.³¹⁾ 덕흥리 고분이나 무용총, 약수리 벽화분 단계의 산악도는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아주 축약되고 배경의 일부로 그려지는 데 반해, 평정리 1호분은 현실벽면을 사실적인 표현에 가까운 산악도로 채우고 있다. 이 산악도의 해석에 따라 편년에 대한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³²⁾ 기본적으로 내리 1호분의 산악도나 강서대묘의 산악도, 강서중묘의 산악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산악의 표현 자체를 놓고 보면 강서대묘의 주작 아래의 산악도나 강서중묘의 현무도 아래에 묘사된 산악도와 관련성이 더 깊어 보인다. 따라서 내리 1호분보다는 비교적 늦은 시기 사신도 아래에 산악이 표현된 강서대묘나 강서중묘보다는 빠른 시기의 산악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아울러 후기의 벽화고분이고 ‘土王’ 등의 명문을 볼 때 도교적 색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신도 계열의 고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고구려 벽화고분의 중심주제를 통해서는 표 3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벽화내용을 통한 형식분류

형식	주요 벽화고분
인물·생활풍속도(I형)	각저총, 무용총, 만보정 1368호분, 우산하 1041호분, 삼실총, 안악 3호분, 태성리 1호분, 감신총, 연화총, 동암리 벽화분, 덕흥리 벽화분, 가장리 벽화분, 용강대총, 봉성리 1호분, 안악 1호분, 복사리 벽화분, 안악 2호분, 태성리 2호분, 수산리 벽화분, 산성하 절천정묘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II형)	마선구 1호분, 장천 1호분, 통구 12호분, 장천 4호분, 천왕지신총, 산연화총, 산성하 332호묘

31) 전호태는 생활풍속계 벽화고분으로 이해하고 있다(전호태, 2000, 앞의 책).

32) 4세기(조선유적유물도감간행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5세기 전반~6세기 초반(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三星文化財團), 6세기 전반(東潮, 1997b, 앞의 책; 전호태, 2000, 앞의 책), 7세기(고광의, 1999, 「4-7세기 고구려 벽화고분 목서의 서예사적 의의」, 『고구려연구』 7).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 (III형)	요동성총, 약수리 벽화분, 팔청리 벽화분, 대안리 1호분, 쌍영총, 장산동 1호분, 장산동 2호분, 우산리 3호분, 수렵총, 보산리 벽화분, 덕화리 1호분, 덕화리 2호분, 우산리 1호분, 우산리 2호분
장식무늬도(IV형)	하해방 31호분, 미창구장군묘, 산성하 983호묘, 장천 2호분, 산성하 귀갑총, 전동명왕릉
장식무늬도와 사신도(V형)	환문총
사신도(VI형)	통구 사신총, 오회분 4호묘, 오회분 5호묘, 고산리 9호묘, 노산동 1호분, 안학동 9호분, 성총, 고산리 1호분, 호남리 사신총, 개마총, 진파리 4호분, 진파리 1호분, 내리 1호분, 강서대묘, 강서중묘

이상에서 고구려 석실봉토 벽화고분 가운데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묘실구조에 따라 형식분류를 시도하였고, 미술사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선행연구를 따라 벽화의 중심주제를 통해 형식분류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형식분류를 위해서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 묘실구조나 벽화내용을 통해 파악한 두 가지의 형식분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I), 다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I-II), 다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I-III), 다실분이면서 사신도(I-VI), 이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I-I), 이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II-II), 이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II-III), 단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II-I), 단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III-III), 단실분이면서 장식무늬도(III-IV), 단실분이면서 장식무늬도와 사신도(III-V), 단실분이면서 사신도(III-VI), 특수형의 동혈다실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V-I), 이혈석실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IV-II)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석총 가운데에 벽화가 있는 7기의 고분에서도 석실봉토분의 묘실구조를 통해 볼 때 세 가지 형식(III-A식, III-B식, II-B식)이 나타난다. III-A

〈표 4〉 형식분류를 통해 본 벽화고분의 유형

묘실	벽화	주요 벽화고분	비고
I-A	I	안악 3호분	3실 이상 다실분 / 인물·생활풍속도
	III	요동성총	3실 이상 다실분 /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
I-B	I	태성리 1호분, 연화총, 가장리 벽화분, 용강대총	다실분 / 인물·생활풍속도
	II	마선구 1호분, 천왕지신총	다실분 /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
	III	대안리 1호분	다실분 /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
	VI	고산동 9호분	다실분 / 사신도
II-A	I	감신총	감실 퇴화형 이실분 / 인물·생활풍속도
	III	약수리 벽화분	감실 퇴화형 이실분 /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
II-B	I	덕흥리 벽화분, 동암리 벽화분, 각저총, 무용총	이실분 / 인물·생활풍속도
	II	장천 1호분, 산연화총	이실분 /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
	III	팔청리 벽화분, 쌍영총	이실분 /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
III-A	I	복사리 벽화분	감실 퇴화형 단실분 / 인물·생활풍속도
	IV	미창구장군묘, 산성하 332호묘, 산성하 983호묘, 전동명왕릉, 장천 2호묘	감실 퇴화형 단실분 / 장식무늬도
III-B	I	만보정 1368호묘, 안악 1호분, 안악 2호분, 수산리 벽화분	단실분 / 인물·생활풍속도
	III	장산동 1호분, 우산리 3호분, 수렴총, 덕화리 1호분, 덕화리 2호분, 우산리 1호분, 우산리 2호분, 장산동 2호분	단실분 /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
	IV	귀갑총	단실분 / 장식무늬도

	V	환문총	단실분 / 장식무늬도와 사신도
	VI	통구사신총, 오회분 4호묘, 오회분 5호묘, 노산동 1호분, 안학동 7호분, 성총, 고산동 1호분, 호남리 사신총, 개마총, 진파리 4호분, 진파리 1호분, 내리 1호분, 강서중묘, 강서대묘	단실분 / 사신도
III-C	I	태성리 2호분	현실내 감실 단실분 / 인물·생활풍속도
IV-A	II	통구 12호묘, 장천 4호묘	이혈석실 / 인물·생활풍속도 및 장식무늬도
IV-B	I	삼실총	동혈다실 / 인물·생활풍속도

식은 산성하 725호묘·산성하 798호분·우산하 3319호묘·산성하 절천정묘, III-B식은 우산하 1041호묘·산성하 1405호묘, II-B식은 산성하 1408호묘이다. 이들 적석총의 벽화는 산성하 절천정묘, 우산하 1041호묘, 우산하 3319호묘는 벽화가 인물·생활풍속도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4기의 고분 역시 인물·생활풍속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적석총은 전체적으로 이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인 유형과 단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를 그린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고구려 석실봉토벽화분 가운데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묘실구조에 따라 형식분류를 시도하였고, 미술사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벽화내용을 통해 분류하였다. 고구려 벽화고분의 형식분류를 위해서는 주요 포인트가 되는 묘실구조나 벽화내용을 통해 파악한 두 가지의 형식분류를 종합하여 다

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구려 벽화 고분은 크게는 다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I), 다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I-II), 다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I-III), 다실분이면서 사신도(I-VI), 이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I-I), 이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II-II), 이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II-III), 단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II-I), 단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사신도(III-III), 단실분이면서 장식무늬도(III-IV), 단실분이면서 장식무늬도와 사신도(III-V), 단실분이면서 사신도(III-VI), 특수형의 동혈다실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V-I), 이혈석실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IV-II)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석층 가운데에 벽화가 있는 7기의 고분에서도 석실봉토분의 묘실 구조를 통해 볼 때 이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인 유형(II-I)과 단실분이면서 인물·생활풍속도(III-III)인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현숙, 1999, 「高句麗 古墳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광의, 1999, 「4-7세기 고구려 벽화고분 목서의 서예사적 의의」, 『고구려연구』 7.
- 김기웅, 1980, 『朝鮮半島の壁畫古墳』.
- 김용준, 1958,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 김원룡, 1960, 「고구려고분벽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 『진단학보』 21.
- 김원룡, 1980, 『한국벽화고분』, 일지사.
- 김일권, 2008,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 박진옥, 1997, 「고구려벽화무덤의 유형변천과 편년에 관한 연구」, 『高句麗研究』 4(高句麗古墳壁畫).
- 손수호, 2001, 『고구려고분연구』.
- 전호태, 1990,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하늘 연꽃」, 『미술자료』 46.
-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 정호섭, 2008, 「고구려 벽화고분의 현황과 피장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49.
- 정호섭, 2009, 「高句麗 古墳의 造營과 祭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선유적유물도감간행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 주영현, 1961, 『고구려 벽화무덤의 편년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 東潮, 1997, 「高句麗壁畫古墳の石室構造に關する研究」, 『高句麗研究』 4, 고구려연구회.
- 東潮, 1997, 『高句麗考古學研究』.
- 楊泓, 1958, 「高句麗壁畫石墓」, 『文物參考資料』 1958-4.
-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 삼성문화財團.
- 劉萱堂, 1997, 「中國集安高句麗壁畫墓與遼東遼西漢魏晉壁畫墓比較研究」, 『高句麗研究』 4, 고구려연구회.
-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2.

[ABSTRACT]

Study on types of Goguryeo mural tombs

Jung, Hosub

This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types of Goguryeo mural tombs, which have been excavated up to date, by form of their structures and contents.

The form of Goguryeo mural tombs can be categorized into “Da-sil-boon (a burial site which is consisted of more than three rooms : I),” “Yi-sil-boon (a burial site which is consisted of two rooms : II),” “Dan-sil-boon (a burial site consisted of one room : III)” and “Teuk-soo-boon (a burial site which has a particular structure or shape, thus cannot be defined as being consisted of rooms : IV)” in terms of structure.

And the form of Goguryeo mural tombs can be categorized into the “characters and customs (I),” “characters and customs and decorative patterns (II),” “characters and customs and Sa-shin-do (III),” “decorative patterns(IV),” “decorative patterns and Sa-shin-do (V),” “Sa-shin-do (a painting depicting four gods who control four directions VI)” in terms of the contents of mural painting.

By these terms, the structure and contents, we can also categorize them into several types : the type I - I which is a combined form of Da-sil-boon (I) and characters and customs (I), the type I - II which is a combined form of Da-sil-boon (I) and characters and customs and decorative patterns (II), the type I - III a combined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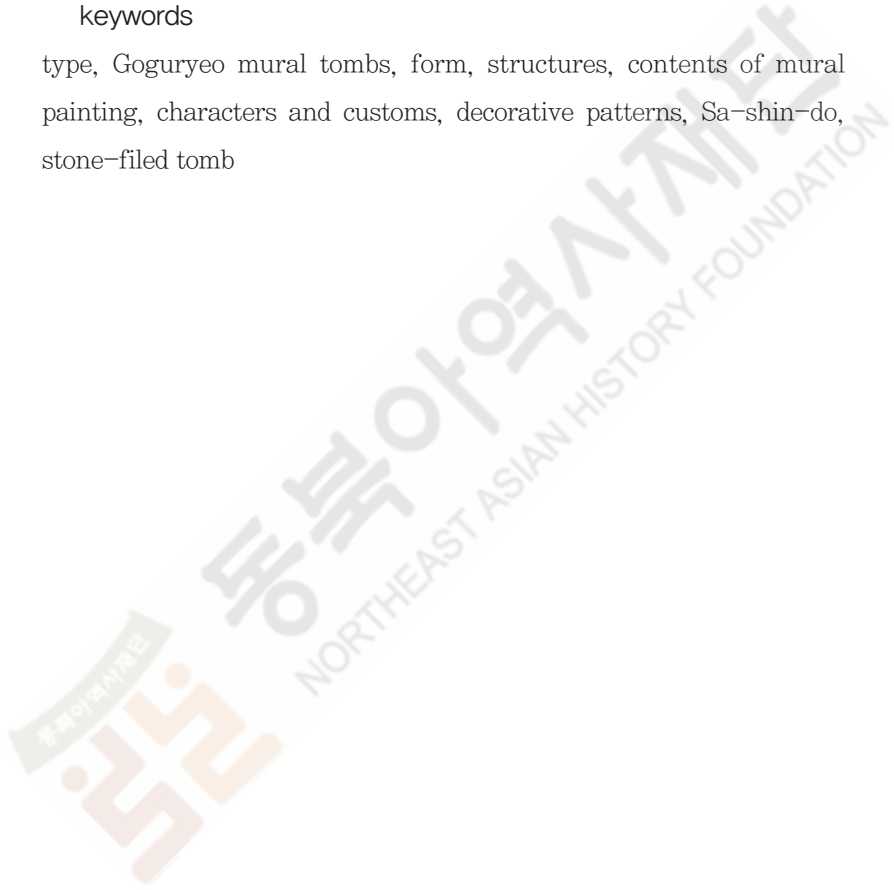
of Da-sil-boon (I) and characters and customs and Sa-shin-do (III), the type II-I which is a combined form of Yi-sil-boon (II) and characters and customs (I), the type II-II which is a combined form of Yi-sil-boon (II) and characters and customs and decorative patterns (II), the type II-III which is a combined form of Yi-sil-boon (II) and characters and customs and Sa-shin-do (III), the type III-I which is a combined form of Dan-sil-boon (III) and characters and customs (I), the type III-III which is a combined form of Dan-sil-boon (III) and characters and customs and Sa-shin-do (III), the type III-IV which is a combined form of Dan-sil-boon (III) and decorative patterns (IV), the type III-V which is a combined form of Dan-sil-boon (III) and decorative patterns and Sa-shin-do (V), the type III-VI which is a combined form of Dan-sil-boon (III) and Sa-shin-do (V). And a particular type which is a combined form of Teuk-soo-boon and characters and customs (IV-I), Teuk-soo-boon and characters and customs and decorative patterns (IV-II).

Meanwhile, seeing the structure of the burial chamber of Seoksil bongtoe-bun (A kind of a tomb that is portioned with stone and the rest part is piled-up by soil) we can find that seven Jeok-seok-chong (stone-filed tomb) are the type III-A, III-B, and II-B. The San-seong-ha No.725, San-seong-ha No.798, Woo-san-ha No.3319, San-seong-ha Jeol-cheon-jeong-myo are the III-A types. The Woo-san-ha No.1041, San-seong-ha No.1405 are the III-B types. The San-seong-ha No.1408 is the II-B type. Among these, the San-seong-ha Jeol-cheon-jeong-myo, Woo-san-ha No.1041 and Woo-san-ha No.3319 are identified having the characters and customs (I) as their mural painting. This fact led us to suppose that other three tombs may have the characters and customs (I) as their mural paint-

ing. As a result, we can conclude that these stone-filed tombs can exist in both the type II-I and the type III-III.

keywords

type, Goguryeo mural tombs, form, structures, contents of mural painting, characters and customs, decorative patterns, Sa-shin-do, stone-filed tomb



瀋淵의 盟의 성립과 宋人의 認識

이석현 |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1004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 출현했으니, 거란-宋 사이에 체결된 ‘瀋淵의 盟’이 그것이다.¹⁾ 전연의 맹은 중원을 통일한 중국왕조가 북방 이민족 왕조와 공식적으로 체결한 사실상 최초의 외교조약이며, 형식적으로 쌍방 간에 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다.²⁾ 맹약 체결 이후 요와 송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중간에 몇 차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양국 간에는 약 120년간의 평화상태가 유지되었

※ 투고일 : 2009년 8월 27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 1) ‘전연의 맹’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는 宋遼의 외교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술한 陶晉生의 『宋遼關係史研究』가 대표적이다. 陶晉生, 1983, 『宋遼關係史研究』,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Jing Sheng, Tao, 1988, *Two suns of Heaven: Studies in Sung-Liao Relation*,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2) 漢왕조와 흉노, 당과 돌궐 등의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의 일단을 찾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등하게 장기적으로 양국과의 관계가 정립된 것은 송요 간에 체결된 ‘瀋淵의 盟’이 처음이다.

고, 형제관계라 일컬어지는 수평적 국제질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³⁾ 게다가 양국과 함께 서하⁴⁾와 고려⁵⁾의 존재는 동아시아에서 전형적 다원적 국제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⁶⁾

이렇듯 당시 국제적으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전연의 맹은 송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송대 이후에도 전통적으로 굴욕적인 ‘城下之盟’⁷⁾이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송조의 일방적 굴욕적 조약이 아니며,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조약으로 보는 견해도 보인다.⁸⁾ 즉, ‘遼宋結盟’은 춘추시기의 제국의 회맹과 유사하며, 쌍방의 결맹은 실력을 전제로 한 것이며, 쌍방이 공동의 사상문화, 즉 중화민족의 전통사상과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요송결맹은 이후 중국의 새로운 통일에 창조적 조건을 실현했다고 간주 한다.

한편 최근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근거하여, 전연의 맹이 요와 송이

3) 전연의 맹을 중화제국의 전통적 조공제도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이 군사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제패할 수 없었던 정치적 현실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Herbert Frank and Denis Twitchett, 194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4) 송과契丹은 서로西夏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했다. 이후西夏와 전쟁을 치르게 된宋은 역시西夏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諸藩과의 관계에도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以夷制夷’의 외교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1010년 거란의 고려 침공시 고려는 몇 차례 송에 대해 군사원조를 청하였지만澶淵의 맹을 통해 거란과의 평화관계를 확보한 송은 고려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결국 고려는 1022년 거란의 압박을 받아 요의 연호를 채용하고, 조공관계를 체결하였다. 이 이후麗宋의 관계는 1031년부터 1071년까지(송 희종~희령 4년) 40년간 외교사절의 왕래가 단절되었다. 이석현, 2005, 『宋, 高麗의 外交交渉과 認識, 對應』, 『中國史研究』 39.

6) 이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에는 다원적 국제정치체계가 존재했고, 중국의 왕조는 이웃 국가와 동등하거나 열등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였다.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7) 漆俠, 1992, 「遼國的戰略進攻與澶淵之盟的訂立」,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

8) 李錫厚, 2007, 「論“澶淵之盟”非“城下之盟”」,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라는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라 중국 민족 내부의 전쟁과 관계의 표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송조와 요조는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았으며, 요왕조는 스스로를 송과 남북으로 대치하는 중국왕조로 간주했다”⁹⁾고 한다. 또한 거란과 중원의 각 민족은 형제관계이고, 거란족을 위주로 하여 세워진 요와 중원의 송은 병존했던 형제왕조이며, 중국 민족 대가정의 두 구성원이라 한다. 한 가정에서 형제 간에는 투쟁을 면할 수 없는데, 송요 두 형제 왕조 사이는 중원의 각 왕조들처럼 전쟁을 피할 수 없었으며, 전연의 전쟁은 바로 송요쌍방전쟁이 극에 달한 것이었다고 한다.¹⁰⁾ 그리고 전연의 망이 체결된 사건은 이후 중국 내부의 민족 교류와 민족 융합에 적극적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 즉, 전연의 망을 중국 국내 민족문제의 하나로 보면서 현재와 같은 다민족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보는 견해이다.¹¹⁾

전연의 망에 대해 구미학계에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그중 비트포겔(Wittfogel)은 송요관계가 ‘勢均力敵’으로 서로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송이 준 세폐를 ‘貢品’이라 서술하면서 요가 송보다 우위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다.¹²⁾ 로사비(Rosabbi)는 송조 외교정책의 실무적 입장과 외교수단의 융통성을 강조하였다.¹³⁾ 이는 중화제국에서의 조공체제가 강력하게 지속되었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은 것이었다. 중국 왕조의 역량이 강할 때는 조공체제를 견지할 수 있지만 힘이 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접국과 평등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전연지맹은 바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사건으로 보았다.

9) 芮忠漢, 2002, 「談“澶淵之盟”」,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5.

10) 芮忠漢, 1994, 「“澶淵之盟”的歷史意義」, 『殷都學刊』 3.

11) 北宋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포기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澶淵의 盟이 형성된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 李大龍, 1991, 「也談澶淵之盟形成的原因」, 『中央民族學院學報』 3.

12) Karl August Wittfogel and Feng Chia-Sheng, 1949, *History of Chinese Society : Liao(907~1125)*,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3) Morris Rosab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urs, 10-14th Centurie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국 학계에서는 ‘瀟淵의 盟’을 중심으로 한 송요관계사와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중국 학계의 동향과 관련하여 요송관계와 전연의 맹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검토가 요청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전연의 맹 성립 당시의 정치적·외교적 상황과 역사적 평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연의 맹에 앞서 오대시기부터 북송대까지의 외교와 갈등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전연의 맹이 이미 오대시기부터 거란과 중원제국의 관계를 계승 정립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연의 맹 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측의 논문을 포함하여 전연의 맹의 조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 논고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한국 학계에서의 연구는 전무하다. 마지막으로 전연의 맹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 송대인들의 인식을 고찰할 것이다. 그것은 전연의 맹이 이루어졌던 시기의 송대인들의 직접적 인식과 평가를 검토하는 것은 조약의 성격과 인식에 다가가는 첫걸음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II. 五代, 宋初의 契丹關係

1_ 五代王朝과 거란

‘瀟淵의 盟’은 북송 진종대 발생했던 일대 외교적 사건이지만, 오대시기부터 북송 진종대까지의 거란과 중원왕조 사이의 외교와 갈등, 전쟁의 상황을 마감하였다고 평가된다. 이에 전연의 맹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그 이전시기에 전개되었던 오대왕조와 거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이후 전연의 맹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오대시기 중원왕조와 거란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시기에는 중원왕조가 거란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後梁의 경우, 거란은 일시적으로 후량에 대해 칭신 납공하기도 하였고 책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량은 거란보다 높은 지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란의 태조는 後唐에 대해 “좋은 말을 조공했다”¹⁵⁾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후량과 후당시기 거란과의 관계는 대등하든지, 아니면 중원왕조의 심리적 우월성이 존재한 대등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거란¹⁶⁾의 태종이 즉위하면서 거란과 오대왕조의 관계는 일변하였다. 태종은 재위기간(927~947) 동안 대외원정을 통해 광활한 영토를 확보한 군주이다.¹⁷⁾ 그는 영토 확장과 함께 중국 내지에 대한 개입과 공략도 본격화하였다. 그리하여 936년(太宗 天顯 11) 후당의 하동절도사인 석경당이 ‘稱子’하면서, 연은 16주를 할양해 주는 조건으로 태종에게 후당 공격을 위한 군사 원조를 요청했던 것은 중원왕조와 거란의 관계를 일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태종은 직접 5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涿陽에서 후당군을 격파하고, 석경당을 후진의 황제로 책립하였다. 이후 태종은 석경당을 도와 후당을 멸망시켰고, 석경당은 태종에게 스스로 ‘兒皇帝’라 칭할 정도였다.¹⁸⁾ 또한 후진은 매년 비단 30만 필¹⁹⁾

14) 契丹이 처음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北魏 太祖 등국 3년(388)이다. 당시 거란은 慕容氏에게 격파된 후 草地를 따라 거주하면서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살다가 이후 隋에 귀의했다. 이후 隋唐을 거치면서 중원왕조의 기미체제에 편입되었다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마침내 당말 무렵 부족연합국가로서의 세력을 구축하였다. 이후 916년 야율아보기가 거란왕조를 창건하여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925년(遼天贊 4) 동방의 渤海를 멸망시켜, 東丹國으로 개명하고 황태자 耶律倍를 東丹國王으로 삼았다. 丹國으로 개명하여 거란국에 편입시키면서 요동 요서에서 내몽골에 걸친 대국으로 등장하였다.

15) 『舊五代史』 卷34, 唐書10, 「莊宗本紀8同光4年」.

16) 契丹은 국초에 국호를 契丹이라 칭했다가, 947년 遼國으로 改稱했고, 982년 다시 契丹으로 칭했다가 1066년 다시 遼로 改稱했다.

17) 『遼史』 卷37, 地理志1, 「序言」, “東至于海, 西至金山, 暨于流沙, 北至臚胸河, 南至白溝, 幅員萬里.”

18) 『資治通鑑』 卷281, 後晉紀2, 「高祖天福2年6月辛酉條」, “帝上表稱臣, 但令爲書稱兒皇.”

19) 비단 30만 필은 당시 몇개 縣의 1년 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몇개 현의 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시 後晉과, 이후 宋朝의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는

을 거란에 進貢하였는데, 태종이 후진정권을 원조한 대가였다.

후진과 거란 사이에 벌어졌던 연운 16주의 할양과 비단 30만 필의 ‘歲贈’은 중원왕조와 이민족의 관계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비록 ‘歲輸帛三十萬匹’²⁰⁾이라 하여 ‘歲輸’라 표현하였지만, ‘歲輸’는 사실상 ‘朝貢’의 의미였다. 후진 고조의 즉위 건국 사실에 대해 사서에서는 “거란의 皇帝(主)가 冊書를 작성하고 (후진의) 석경당을 황제로 책명하였다”²¹⁾고 하였다. 冊과 命은 종주국이 속국의 군주를 책봉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거란을 종주국, 후진을 속국으로 하는 외교적 주종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며, 후진이 거란에게 준 30만 ‘歲輸’는 실질적으로 ‘朝貢’이었던 셈이다. 또한 구오대사에서는 ‘割地歲輸帛’을 기록한 내용 중에서 양국의 관계에서 거란을 父, 후진을 子로 하는 부자관계로 명시한 점도 종주국과 속국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거란과 후진의 관계는 후진의 出帝가 즉위하면서 요동치기 시작했다. 944년(會同 4), 석중귀가 즉위하면서 거란에 대해 ‘손자로 칭하였지만 신하로 칭하지 않자’ 거란 태종은 그 죄를 묻는다며 세 번에 걸쳐 후진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947년(會同 7)정월 10일 수도인 개봉을 점령하여 마침내 후진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중원지역 백성들의 반항이 이어지자 이듬해 4월 철수하였는데,²²⁾ 이 과정에서 태종은 하북의 藥城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태종이 사망하고 거란군이 철수하는 기회를 틈타 947년 6월 후진의 하동절도사 유지원은 개봉으로 진군하여 후한을 건립하였다. 이에 거란은 남당과 함께 후한을 공략하

가는 학자들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資治通鑑』卷281, 後晉紀2, 「高祖天福2年6月辛酉條」, “所輸金帛, 不過數縣租賦.”

20) 『遼史拾遺』卷2, 「太宗上」, “大晉皇帝, 自解衣冠授之, 築壇於柳林, 是日即皇帝位, 割幽薊瀛莫涿檀順新媯儒武雲應寰朔蔚十六州, 以與契丹, 仍許歲輸帛三十萬匹, 己亥制改, 長興七年爲天福元年”; 『資治通鑑』卷280, 後晉紀1, 「高祖天福元年11月癸巳條」.

21) 『資治通鑑』卷280, 後晉紀1, 「高祖天福元年11月癸巳條」, “契丹主作冊書, 命敬瑭爲大晉皇帝.”

22) 이때 거란은 中原 지배의 생각에서 국호를 遼로 고쳤다. 하지만 기후와 여러 요소로 물러났지만 이때 중원의 문물과 인사들을 대거 데리고 가면서 이후 遼의 典禮儀制의 方面에서 漢制를 채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陶晉生, 1983, 앞의 책, 47쪽.

였다. 이후 951년(遼天祿 5) 후한의 추밀사인 郭威가 유지원의 아들인 隱帝 劉承祐를 시해하고 자립하여 후주를 건립하였다.

후주는 건국 초에 거란에 세폐를 보내어 평등한 외교관계를 건립하려 했다. 그리하여 姚漢英과 華昭胤을 거란에 보냈지만 거란은 “書辭가 禮에 어긋나다”는 이유로 사절을 억류하였다.²³⁾ 이와 동시에 유지원의 동생인 유승이 태원에서 자립하여, 북한을 건립하였으니 바로 북한의 세종이다. 북한의 세종은 후주의 공격을 받자, 거란에 사신을 보내 조카로 칭하면서 契丹主를 숙부로 섬기겠다고 청하면서 책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거란은 유승을 大漢神武皇帝로 책봉하였다.²⁴⁾ 이후 거란 세종은 직접 후주를 공격하려 했지만, 察割에게 피살되어 穆宗이 즉위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²⁵⁾

거란 목종의 즉위 이후에도 북한을 중간에 놓고 후주와 갈등하는 형세는 지속되었다. 목종 즉위 이듬해인 952년 북한이 후주의 공격을 받아 거란에 구원을 요청하자 출병하여 북한을 구원하였다.²⁶⁾ 하지만 목종과 이를 이은 경종 시기의 거란은 내부의 분열로 인해 중원왕조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주 세종이 적극적으로 거란을 공격하여 益津關·瓦橋關·淤口關을 공략하였고, 瀛州·莫州를 함락하였다. 하지만 목종은 후주의 이러한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는 함락소식이 들려오에도 불구하고 “三關은 본래 漢地이며 지금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단 말인가!”²⁷⁾라고 하며 수수방관의 태도를 취할 뿐이었다.

오대시기 중원왕조와 거란 사이에 전개되었던 외교관계는 중국의 역대 국

23) 『遼史』卷5, 「世宗天祿5年2月, “周遣姚漢英, 華昭胤來, 以書辭抗禮, 留漢英等.”

24) 『遼史』卷5, 「世宗天祿5年6月, “六月辛卯朔, 劉崇爲周所攻, 遣使稱姪, 乞援, 且求封册. 卽遣燕王牒呼, 樞密使高勳册爲大漢神武皇帝.”

25) 『遼史』卷5, 「世宗天祿5年9月, “九月庚申朔, 自將南伐. 壬戌, 次歸化州祥古山. 癸亥, 祭讓國皇帝于行宮. 群臣皆醉, 察割反, 帝遇弒, 年三十四”; 『遼史』卷6, 穆宗上, 「應曆元年, “天祿五年秋九月癸亥, 世宗遇害. 逆臣察割等伏誅. 丁卯, 卽皇帝位, 羣臣上尊號曰天順皇帝, 改元應曆.”

26) 『遼史』卷6, 穆宗上, 「應曆2年6月壬寅條」.

27) 『契丹國志』卷5, 「穆宗孝安敬正皇帝, “山瀛莫之失, 幽州急遞以聞, 帝曰三關本漢地, 今以還漢, 何失之!”

제관계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민족 왕조에게 영토를 할양 납공하였고, 중국인 황제가 외국의 군주에 대해 ‘稱臣’, ‘稱子’한 사례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관계를 맺거나 ‘聘使’를 파견하고, 거란에 ‘歲輸’를 바치는 등의 모습은 이후 북송과 거란, 남송과 금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선례가 되었다.²⁸⁾

2. 北宋初 ‘保寧和議’의 성립

960년(遼 應曆 10) 정월 초하루 거란과 북한군이 함께 후주를 공격하였다. 후주의 殿前都點檢이던 趙匡胤은 침공소식을 듣고 방어하러 가다가 陳橋驛에서 부하 장령들에게 웅립되어 宋을 건국하였다. 기록에는 당시 장령들이 황제의 나이가 어려 정치를 직접 담당할 만하지 못하여 태조를 추대한다고 되어 있는데,²⁹⁾ 거란의 침공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송을 창건한 태조 조광윤은 거란과의 전시상황에서 건국하였지만, 이후 거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後周가 건국 이후 거란에 대해 왕조교체를 통보했던 것과 대비된다. 그것은 태조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先南後北’³⁰⁾으로, 먼저 강남의 諸國을 평정하고, 나중에

28) 한편 당시 後晉과 거란의 관계는 당시의 국제정세의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즉, 남방의 吳越과 북방의 五代왕조는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것은 중간의 南唐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월은 또한 일본과 고려, 거란과 연계하면서 남당과 경쟁하였다. 또한 당시 남당은 거란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목적은 오월과 북방의 五代왕조의 연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당시의 외교적 관계의 주요 목적은 모두 상대방 내지는 적국과의 세력관계의 균형을 위한 것이었으며, 전형적인 국제적 외교관계의 형세를 보여준다. 邢義田, 1996, 『契丹與五代政權更迭之關係』, 『食貨月刊』 第1-6.

29) 『續資治通鑑長編』(이하 『長編』으로 略함) 卷1, 「太祖建隆元年春正月癸卯條, “太祖親宋城楚昭輔曰, 此天命也. 是夕次陳橋驛, 將士相與聚謀曰, 主上幼弱, 未能親政, 今我輩出死力爲國家破賊, 誰則知之! 不如先立點檢爲天子, 然後北征未晚也.”

30) 사실 이 ‘先南後北’ 정책은 後周 世宗에게 王杓이 바친 獻策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世宗도 이 헌책에 따라 征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송태조도 기본적으로 이 獻策에서 정책의 방향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舊五代史』 卷128, 「王杓傳」,

北漢을 취하며, 추후에 연운 16주를 되찾는다는 정책이다.

북송 초기의 양국관계는 주로 거란과, 거란의 원조를 받는 북한이 침공해 오면 송 측에서 대응한다는 식의 양상이었다. 송은 강남 제국을 평정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거란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으로 상대한다는 원칙으로 응대했던 셈이다. 예컨대 태조 건륭원년 거란이 棣州를 침공하자 刺史 何繼均이 이를 격파했던 사례³¹⁾와 963년(太祖 建德 元年) 9월에 북한이 거란의 지원을 받아 平晉軍을 공격하자 송의 방어사 郭進·張彥進 등이 군사를 동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³²⁾ 물론 개보원년(968)³³⁾ 3월 태조가 직접 태원에 이르러 북한을 정벌하려 나섰지만, 하계균과 한중빈이 거란군에 패하였고, 또한 여름 장마로 많은 병사가 질병에 걸리자 회군하였다. 태조의 거란에 대한 이 같은 대응은 거란을 패배시키기 힘들다는 현실적 형세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³⁴⁾

건국 이후 한동안 간헐적인 전쟁과 외교적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던 양국은 974년(宋太祖 開寶 7, 契丹 保寧 6)에 이르러 외교 교섭을 시작했다. 송 측의 기록에 따르면 거란 琢州刺史 耶律琮이 權知雄州內園使인 孫全興에게 편지를 보내 외교관계의 수립을 요청하여 수교가 성립되었다고 한다.³⁵⁾ 하지만 거란

“朴獻平邊策云, 唐失道而失吳蜀, 晉失道而失幽, 并觀所以失之, 由知所以平之術. 當失之時, 莫不君暗政亂兵驕民困, 近者姦于內, 遠者叛于外, 小不制而至于大 …… 則江北諸州, 乃國家之所有也. 既得江北, 則用彼之民, 揚我之兵, 江之南亦不難而平之也. 如此則用力少而收功多, 得吳則桂廣, 皆爲內臣, 岷蜀可飛書而召之, 如不至則四面竝進席卷, 而蜀平矣吳, 蜀平幽可望!”

- 31) 『長編』卷1, 「太祖建隆元年4月丁丑條」, “契丹入侵, 棣州刺史河南何繼筠追破其衆, 於固安獲馬四百匹.”
- 32) 『長編』卷4, 「太祖乾德元年9月條」, “是月北漢主誘契丹兵, 攻平晉軍, 命洺州防禦使郭進, 濮州防禦使張彥進, 客省使曹彬, 趙州刺史陳萬, 通領步騎萬餘, 往救之, 未至一舍, 北漢引兵去, 彥進未見.”
- 33) 開寶년간 송의 총 군사 수는 30만 8000명에 달하였고, 그중 禁軍 馬步軍이 19만 8000명이었다. 또한 태조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의 개혁을 단행하여 내부를 정돈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란 정벌에 의욕을 보이게 되었다. 李曉·王朴, 1992, 「周世宗, 宋太祖統一戰略比較」, 『煙台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
- 34) 『長編』卷10, 「太祖開寶2年閏5月乙巳條」.
- 35) 『長編』卷15, 「太祖開寶7年11月甲午條」, “契丹雄州刺史耶律琮, 致書於權知雄州內

측의 기제는 이와 달리 송 측에서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 화의를 청하여 탁주자사 耶律昌弼이 송과 화의를 논하였다³⁶⁾고 되어 있다. 즉, 송에서 먼저 화의를 요청하였고, 거란이 이에 응해 다음 해 정월 송의 사신이 거란의 정묘에 오면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고 한다. 두 상반된 기록에 대해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거란에서 먼저 수교를 요청했다고 보는 편이 우세하지만³⁷⁾ 당시 세력균형의 정황상 거란의 기록에 신빙성이 있는 듯하다.

이리하여 태조 개보 7년(보령 6) 말 宋에서 거란에 정묘을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였고, 3월에는 거란에서도 송에 사신을 보내어 ‘奉書來聘’³⁸⁾하였다. 이에 송 태조는

五代 이래, 북쪽의 敵이 강성하였던 것은 대개 中原이 쇠약했기 때문이며, 晋의 황제가 蒙塵하기에 이르렀던 것은 비정상의 극치였다. 지금 (거란이) 우르러 보면서 이러르니, 이는 時運이 그렇게 만든 것이며 薄德이 아니었기에 능히 이를 수 있는 것이다.³⁹⁾

園使孫全興, 其畧云兩朝初無繾綣, 若交馳一介之使, 顯布二君之心, 用息疲民, 長爲鄰國, 不亦休哉! 辛丑全興以琮書來上, 上命全興答書, 并修好焉.” 한편 수교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해 의견은 논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즉, 『遼史』의 기록에는 이 사건이 3월로 되어 있는데, 攝崇岐는 11월에 거란에서 편지를 보내왔고, 이듬해인 8년 7월에 정식으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고 한다. 陶玉坤의 경우는 8년 3월로 보는데, 3월에 거란 사신이 奉書來聘하여 遼宋 사절의 정식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가옥영의 경우는 974년 3월에 외교협상이 시작되었고, 11월에 외교제도가 확립되었고, 이듬해 정월 정식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즉, 정월에 宋의 사절이 요를 방문했으며, 遼의 사절이 3월 거란을 방문하였으므로, 외교관계의 정식 수립을 宋의 사절이 요를 방문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賈玉英, 2005, 『宋遼交聘制度論略』, 『中州學刊』 6.

- 36) 『遼史』 卷8, 景宗上, 「保寧6年3月」, “宋遣使請和, 以涿州刺史耶律昌弼, 加侍中與宋議和.”
- 37) 蘇頌, 『蘇魏公文集』(四庫全書本) 卷66, 「撰序·華戎魯衛信錄總序」, “通好肇於北人我從.”
- 38) 『長編』 卷16, 「太祖開寶8年3月乙亥條」, “契丹遣使克卜茂固舒蘇奉書來聘, 詔閣門副使郝崇信至境上迓之, 及至館于都亭驛, 崇信未見.”
- 39) 『長編』 卷16, 「太祖開寶8年3月乙亥條」, “五代以來, 北敵疆盛, 盖由中原衰弱, 遂至晋帝蒙塵, 亦否之極也. 今景慕而至, 乃時運使然, 非涼德能致.”

라고 하면서 거란과의 국교수립에 대한 깊은 소회를 드러냈다. 그리하여 같은 해 7월 송에서 거란에 사신을 다시 보내면서 서로 正旦과 皇帝의 生辰에는 축하 사절을, 황제의 서거와 즉위시에 告哀使와 告登寶位使를, 상대방도 弔慰使와 賀登位使를 파견하는 예절이 성립되었다.⁴⁰⁾ 이후 양국은 대체로 1년에 두세 차례의 사절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른바 ‘保寧和議(974~979)’라 일컫는 상호 우의의 기간으로 접어들었다.⁴¹⁾ 그리하여 태조가 사망했을 때 송이 거란에 사신을 보내 통고하고 거란도 또한 사신을 보내 弔慰하였으며, 거란이 또 태종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신과 正旦을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였다.

요컨대 북송 초 몇 번인가의 국지적 전투와 갈등상태에 놓였던 양국관계는 거란 보령 6년경에 이루어졌던 외교적 접촉을 계기로 화의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양국은 대등한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였다. 보령화회의 오대시기 거란과 중원의 제 왕조 간에 수립되었던 상호 대등한 관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셈이다.

3_ 太宗대 거란전쟁

‘保寧和議’로 인해 성립되었던 약 5년간의 평화는 송 태종의 북한 원정으로 종식되었다. 979년(송 태평흥국 4, 요 건형 원년) 2월 태종이 친정하여 북한을 멸망시키자, 거란은 사신을 파견하여 유계원을 정벌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양국의 평화관계는 중단되었다. 이후 거란이 북한에 구원병을 파견하였고, 마침내 송 태종의 친정군과 요의 구원군이 高粱河에서 맞붙었는데, 유명한 ‘高粱河의 戰役’이다. 이 고량하의 전역에서 송군은 대패하였고, 태종은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수모를 당하였다.⁴²⁾ 980년 다음 해 송군은 권토중래를 도모하면서

40) 陶玉坤, 1999, 「遼宋對峙中的使節往來」,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1-2, 3.

41) 傅樂煥, 1984, 「宋遼聘使表考」, 『遼史叢考』, 中華書局.

42) 『遼史』卷9, 「景宗9年秋7月癸未條」, “沙等及宋兵戰于高粱河, 少却, 休格, 色珍橫擊大敗之, 宋主僅以身免至涿州, 竊乘驢車遁去. 甲申擊宋餘軍所殺甚衆, 獲兵仗器甲符

진격하였지만, 漠州에서 크게 패하였다. 이후 태종은 幽州, 薊州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다시 군사행동을 단행하였다. 986년 태종은 20만의 군을 동원하여 3路에 걸쳐 북벌을 진행하였으니, 이른바 ‘雍熙北伐’이다.⁴³⁾ 하지만 이때의 전역에서도 송군 장수의 무능함으로 인해 요군에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⁴⁴⁾

태종대 세 차례에 걸친 공격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송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으며, 이후 송이 거란에 대해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거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를 남으로 진격시켰으며, 岐溝關과 飛孤口 등의 전투에서 송은 모두 패하였다. 이러한 패배는 송이 河北 중부를 흐르는 河道들을 준설하여 保州에서 동으로 바다에 이르게 하고, 또한 900리를 굽어 도는 지역의 塘·泊에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는⁴⁵⁾ 방어선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⁴⁶⁾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북송 조정에서 연운 지역은 더 이상 수복하기 어려우니 타협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 주었다. 당시 재상인 李昉과 趙普 등이 “군사행동을 그만두고 백성에게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화친하고 사이 좋게 지낼 것”을 주장하였고, 太僕少卿이었던 張洎 역시 “천하의 형세가 우환이 끊이지 않으니, 오직 그들과 통호해야만 어지러운 국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⁴⁷⁾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거란과의 수교와 통호를 지지하는 주장이 비등해졌지만, 태종은

황제가 이로 인해 近臣에게 말하기를, 국가에 外憂가 없으면 반드시 內患이 있다. 외우는 변방의 일에 불과하며, 모두 예방할 수 있다. 생각건

印糧饋貨幣，不可勝計。”

43) 王才忠, 1994, 「略論澶淵之盟」, 『阜陽師院學報』(社科版) 1.

44) 『宋史紀事本末』卷3, 「契丹和戰」, “契丹乘勝, 長驅而南, 遂陷深邢德三州, 殺官吏俘士民, 輦金帛而去魏博之北, 民尤苦焉.”

45) 『長編』卷34, 「太宗淳化4年3月壬子條」, “諸州鎮兵萬八千人給其役, 凡雄莫霸州平戎破虜, 順安軍興堰六百, 置斗門引淀水灌溉.”

46) 王才忠, 1994, 앞의 글.

47) 『長編』卷31, 「太宗淳化元年6月丙午條」, “天下之形勢, 憂患未已, 唯與之通好, 或可解紛.”

대, 姦邪한 조짐이 없으면서 만약 內患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⁴⁸⁾

라 하여 먼저 국내 정치에 전념한 다음 거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태종은 “治國은 德을 쌓는 데 있을 뿐이니, 四夷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⁴⁹⁾고 하여 거란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후 거란의 공세는 988년(太宗 端拱 元年)과 989년(端拱 2), 995년(太宗 至道 2)에도 이어져 재물과 인구가 약탈당하면서 송의 피해가 계속되었다.⁵⁰⁾ 또한 고려의 사신이 내방하여 함께 거란을 공격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지만 태종은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인식의 기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⁵¹⁾

이렇듯 태종대의 약 25년 동안 송과 거란은 사실상 외교적 단절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거란에 몇 차례 사절 파견을 청한 기록도 보인다. 『遼史』 성종기에

辛酉日에 南京留守 荊王道가 은밀하게 상주하기를 宋에서 사신을 보내어 犀帶를 바치며 화의를 청하였다고 하자, 백지의 詔를 내려 물리쳤다.⁵²⁾

라 하여 송이 화의를 요청하였지만, 성종은 백지의 詔를 내려 거절하였다고 한다. 성종이 즉위하자 새롭게 관계개선을 도모하려 했던 시도로 보인다. 또 994년(遼 統和 12) 8월에도 “宋이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요구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⁵³⁾고 되어 있고, 9월에도 “宋이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요구하였

48) 『長編』 卷32, 「太宗淳化2年8月丁亥條」, “上因謂近臣曰, 國家若無外憂, 必有內患, 外憂不過邊事, 皆可預防, 惟姦邪無狀, 若爲內患, 深可懼也.”

49) 『長編』 卷34, 「太宗淳化4年11月甲寅朔條」, “且治國在乎修德耳, 四夷當置之度外.”

50) 『長編』 卷34, 「太宗淳化4年11月甲寅朔條」.

51) 『長編』 卷36, 「太宗淳化5年6月庚戌條」, “高麗國王治遣使元郁來, 乞師言, 契丹侵掠其境故也. 上以蠻戎相攻, 蓋常事. 而北邊甫寧, 不可輕動干戈.”

52) 『遼史』 卷10, 「聖宗乾亨4年12月戊午朔條」, “辛酉南京留守荊王道隱奏, 宋遣使獻犀帶請和, 詔以無書却.”

53) 『遼史』 卷13, 「聖宗統和12年8月庚辰朔條」, “宋遣使求和, 不許.”

지만 허락하지 않았다”⁵⁴⁾고 되어 있어, 송이 거란에 몇 번인가의 수교 의사를 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거란이 화의를 청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태종) 淳化 2년, 거란이 화의 청하니, 조정에서 그것이 진짜인지를 의심하여 韓國華를 파견하여 河朔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가서 보니 모두 거짓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⁵⁵⁾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기록에서 보이듯 송은 거란으로부터의 수교 의사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당시 공세적 입장이었던 거란과 달리 수세적 입장이었던 송의 태도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송은 수세적 측면을 외교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세 차례 사신 파견을 요청하였지만 거란이 거절하였던 것은 당시의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Ⅲ. 澶淵의 盟의 체결과 그 내용

1. 澶淵의 盟의 체결과정

송은 진종(997~1022)⁵⁶⁾의 즉위 이후 처음에는 거란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거란의 공세가 더해지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거란은 999년(宋 眞宗 咸平 2) 10월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였다. 당시 송의 장군

54) 『遼史』 卷13, 「聖宗統和12年9月辛酉條」, “乙酉, 宋遣使求和, 不許.”

55) 『宋史』 卷277, 「韓國華傳」, “淳化二年, 契丹請和, 朝議疑其非實, 遣國華使河朔以察之. 既至, 盡得其詐以聞.” 이 기사와 앞서 통화 12년의 거란 측 기사의 연대가 같다. 아마도 동일한 사건을 각각 다르게 기록한 듯하다.

56) 태종의 대거란 강경책과 달리 진종은 즉위 초부터 거란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長編』 卷44, 「眞宗咸平2年5月乙巳條」, “陛下初登極時, 承矩嘗發書道, 意臣料北鄙, 終復成和好. 上曰此事, 朕當屈節爲天下蒼生, 然須執綱紀, 存大體, 卽久遠之利也.”

인 傳潛이 군사 수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⁵⁷⁾ 그러자 이해 12월 진중은 직접 출병하여 거란의 예봉을 막으려 하였다.⁵⁸⁾ 거란 성종은 진중의 친정소식을 듣고는 이듬해 군사를 철수하였다. 이후에도 거란군은 매년 계속해서 송에 대한 공세를 취하였다. 거란은 함평 4년(1001) 10월과 함평 6년(1003) 4월에도 송을 공격하였는데, 거란군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형세를 보였다. 물론 1004년(遼 統和 22) 3월 송의 威虜軍 主將인 魏能이 장성 입구에서 요군을 격퇴한 후 陰山까지 추격하여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⁵⁹⁾

하지만 1004년(宋 景德元年) 윤9월 거란 성종과 그 모친인 蕭太后가 재차 瓦橋關(현재 河北雄縣 舊南關)을 수복한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이끌고 송의 국경을 침공하였다. 당시 거란군은 遂城을 격파하고 定州를 공략하였고, 송의 雲州觀察使이던 王繼忠을 사로잡았다. 이윽고 거란군은 황하 연변의 전주에 이르면서 그곳과 가까운 수도 변경을 위협하자 당시 송의 조야가 진동하였다. 송의 군대는 통일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하였기에 거란의 군대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격하여 澶淵에 도달하였다.⁶⁰⁾

당시 송군의 수비는 고립적 방어의 형세였으며, 거란군은 여러 도시를 회피하며 진격하여 두 진영 간에 장기 대치국면이 이루어졌다. 이때 宋의 降將인 王繼忠이 거란에서 양국 간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10월 거란군의 선봉이 定州를 포위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진중이 남쪽으로 내려가려 했다. 당시 재상 寇準이 극력 남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진중이 澶州로 친정할 것을 격려하여 남쪽으로 가려는 것을 중지하였다. 이와 동시에 송은 曹利用을 거란에 파견하여 화의를 논의하도록 했다.’⁶¹⁾

57) 『長編』 卷45, 「眞宗咸平2年11月丙子條」, “傳潛領數萬雄師, 閉門不出, 坐看敵人, 俘掠生民.”

58) 『宋史紀事本末』 卷13, 「契丹盟好」, “十二月帝親禦契丹, 以李沆爲東京留守, 甲寅駕發京師, 次陳橋. 戊午駐驛澶州 …… 三年春正月己卯朔, 駐驛大名府, 契丹知帝親征, 乃縱掠而去.”

59) 『長編』 卷56, 「眞宗景德元年3月乙酉朔條」, “知威虜軍魏能言, 破契丹於長城口, 追北過陽山, 斬級獲戎器甚衆, 詔獎之.”

60) 王才忠, 1994, 앞의 글, 52쪽.

몇 번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진중이 직접 북으로 친정하러 나섰다. 물론 진중의 친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진중으로서는 거란과의 친정이 자신이 없었던지 출발한 3일째에 韋城縣에 주둔하면서 북상할 것인가, 남하할 것인가를 토론하였다. 당시 참지정사 王欽若·陳堯叟 등은 강남의 금릉이나 사천의 성도로 천도하자는 주장을 비밀리에 황제에게 상주하였다.⁶²⁾ 구준은 마음속으로 왕흠약이 강남 사람이기 때문에 남행을 주장하며, 陳堯叟는 사천 사람이기 때문에 서행을 청한다고 생각했다.⁶³⁾ 당시 진중이 남행의 여부에 대해 구준에게 문의하자, 구준은 짐짓 이 사실을 시침을 떼면서 왕흠약이 옆에 있음에도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황제가 “누가 계획을 세웠는지는 묻지 말고, 卿은 계획의可否에 대해서만 의견은 내어달라”고 하자 寇準은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의 피를 북쪽 땅에 묻히고서야 북벌을 할 수 있다고 강경하게 진언하였다.⁶⁴⁾ 즉,

구준이 入對하자 황제가 南巡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구준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겁이 많고 나약하고, 무지함은 시골에 있는 아녀자의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오랑개가 이미 사방에서 압박해 오면서 폐하의 마음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오직 한 尺만큼이라도 나아가야지 한 寸이라도 물러섬은 불가합니다. 河北의 諸軍들은 밤낮으로 천자의 수레가 도달하기를 기대하며, 그러면 사기가 일당백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수레를 조금이라도 돌린다면 萬衆이 와해되며 적은 그 기세를 틈

61) 『宋史』卷290, 「曹利用傳」, “景德元年, 契丹寇河北, 眞宗幸澶州, 射殺契丹大將撻覽, 契丹欲收兵去, 使王繼忠議和, 擇可使契丹者. 利用適奏事行在, 樞密院以利用應選, 帝曰, ‘此重事也, 毋輕用人.’ 明日, 樞密使王繼英又薦利用, 遂授閣門祇候, 崇儀副使, 奉書詣契丹軍. 帝語利用曰, ‘契丹南來, 不求地則邀路爾. 關南地歸中國已久, 不可許, 漢以玉帛賜單于, 有故事.’ 利用憤契丹, 色不平, 對曰, ‘彼若妄有所求, 臣不敢生還.’ 帝壯其言.”

62) 『宋史紀事本末』卷3, 「契丹盟好」, “九月, 契丹大舉入侵時, 以敵軍深入, 中外震駭, 召羣臣問方略, 王欽若臨江人, 請幸金陵, 陳堯叟閬州人, 請幸成都.”

63) 『長編』卷57, 「眞宗景德元年8月辛未條」, “旁準心知欽若江南人故請南幸堯叟蜀人故請西幸.”

64) 『宋史紀事本末』卷3, 「契丹盟好」, “準曰不知誰爲陛下畫此二策, 帝曰卿姑斷, 其可否勿問間人也, 準曰臣欲得獻策之人, 斬以繫鼓然後北伐耳.”

타 (진격하면) 金陵도 또한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⁶⁵⁾

라고 하면서 재차 출발을 재촉하였다. 당시 요 성종은 이미 瀟州의 北城에 도달하여 삼면으로 포위하였다. 하지만 요의 總指揮 蕭撻覽이 지형을 정찰하다가 宋의 장군인 이계항이 쏜 화살에 맞아 죽으면서⁶⁶⁾ 요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송군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⁶⁷⁾

게다가 진종이 출발한 지 7일째에 瀟州의 南城에 도착하여 송군의 사기가 크게 고무되었다. 이때 거란군의 사기가 꺾이면서 송이 虜利用을 파견하였고,⁶⁸⁾ 거란도 화의에 적극 응하여 韓杞를 파견하였다.⁶⁹⁾ 당시 양측 간에 현안으로 되었던 것은 후주 세종이 북정하여 획득했던 關南지역이었다. 즉, 거란은

虜利用이 말하기를 “契丹이 關南의 땅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방금 땅을 돌려 달라고 한 말은 극히 명분이 없는 것인데, 만약 반드시 요구한다면 짐은 응당 決戰할 것이요, 만약 재물을 요구한다면 漢에서 玉帛을 (흉노)單于에게 賜한 고사가 있으니 마땅히 허락할 것이다.”⁷⁰⁾

65) 『長編』 卷58, 「眞宗景德元年冬10月壬申條」, “準入對, 上曰南群何如, 準曰羣臣怯懦, 無知不異於鄉者. 婦人之言. 今寇已迫近四方. 危心陛下, 惟可進尺不可退寸. 河北諸軍, 日夜望鑿與至士氣當百倍, 若回輦數步, 則萬衆瓦解, 敵乘其勢, 金陵亦不可得而至矣.”

66) 『宋史』 卷7, 眞宗2, 「景德元年11月甲戌條」.

67) 당시 거란의 남경통군사인 소달름이 수십 기의 경기병을 이끌고 전주성 아래를 순시하다가 매복한 송군이 쏜 노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이 전쟁을 실제 이끌었던 소태후가 매우 통곡하고 슬퍼하였지만, 소태후는 이를 화의하라는 하늘의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다. 『遼史』 卷85, 列傳第15, 「論曰」, 1319쪽, “將與宋戰, 撻懶中弩, 我兵失倚, 和議始定. 或者天厭其亂, 使南北之民休息者耶!”

68) 『宋史紀事本末』 卷3, 「契丹盟好」, “冬十月, 遣曹利用詣契丹軍, 時契丹數戰不利, 復令王繼忠附奏議和, 帝遣利用, 利用至軍蕭太后, 欲求關南地, 利用力拒之.”

69) 『宋史紀事本末』 卷3, 「契丹盟好」, “十二月庚辰, 契丹使韓杞持書, 與曹利用, 俱來請盟.”

70) 『宋史紀事本末』 卷3, 「契丹盟好」, “利用言, 契丹欲得關南地, 帝曰, 所言歸地事, 極無名, 若必邀求, 朕當決戰, 若欲貨財, 漢以玉帛賜單于, 有故事宜許之.”

라고 하여 관남지역을 요구하는 거란의 의사를 거부하였다. 다만 진중은 漢의 故事를 인용하여 재물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즉, 관남지역을 요구하는 거란의 요구를 재물로서 무마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寇準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락하였고, 다시 曹利用을 파견하여 契丹軍에 가서 歲幣를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부득이 하다면 100萬이라도 可하다”고 하였다.⁷¹⁾

라고 하여 진중 황제는 100만의 세폐가 들더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황제가 100만이라도 화의를 체결하라고 하였지만, 구준은 조리용을 불러 황제가 100만이라 말했지만 30만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도록 명하였다. 조리용이 거란에 가자 蕭太后는 후진이 거란에게 넘겨주었지만 후주 세종이 탈환 해간 關南지역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조리용은 후진과 후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며, 金帛의 경우 황제의 뜻을 물을 수 있지만 관남지역의 반환은 보고할 수도 없다고 응대하였다.⁷²⁾ 그리하여 마침내 조리용이 거란과는 10만 냥, 건 20만 필로 약속을 정하고 돌아왔다.⁷³⁾ 이후 거란이 사신 姚東之를 파견하였으며, 宋도 곧 李繼昌을 使臣으로 보내어 화의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양측 간에 협상이 진전되었고, 송에서 물자로서 보상한다는 전제하에 마침내 쌍방간에 화평 협정이 체결되었다.⁷⁴⁾ 이것이 중국 역사에 유명한 澶淵의 盟

71) 『宋史紀事本末』 卷3, 「契丹盟好」, “準不得已乃許其成, 復遣曹利用, 如契丹軍, 議歲幣, 帝曰必不得已, 雖百萬亦可.”

72) 『宋史紀事本末』 卷3, 「契丹盟好」, “準召利用至幄謂曰, 雖有敕旨, 汝所許過三十萬, 吾輒汝矣. 利用至契丹軍, 蕭太后謂利用曰, 晉畀我關南周世宗取之, 今宜見還也. 利用曰, 晉周事, 我朝不知, 若歲求金帛, 以佐軍尙, 不知帝意可否, 割地之請, 我不敢以聞.”

73) 『宋史紀事本末』 卷3, 「契丹盟好」, “利用竟以銀十萬兩, 絹二十萬匹, 成約而還.”

74) 전연의 맹약을 체결할 당시의 宋과 遼 쌍방의 군사력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즉, 高美玲은 송의 경제적·군사적 역량이 요를 압도했으므로 송은 요를 패퇴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田相林은 “요의 역량은 송을 뒤흔들고도 남았지만, 송을 멸망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송의 역량은 요를 섬기기에는 충분했지만, 요를 공격하기에는 모자랐다”라고 하여 송이 열세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의 체결과정이다.⁷⁵⁾

2_ 澶淵의 盟의 조약 내용

澶淵의 盟에서 체결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함께 誠信을 다해 받들고, 歡盟을 굳게 지킨다. 風土의 마땅함으로 軍旅費를 도와주는데, 매년 絹 20萬匹, 銀 10萬兩⁷⁶⁾으로 하며, 使臣을 전담하여 北朝⁷⁷⁾로 파견하지 않고, 다만 三司의 差人으로 하여금 雄州에 운반하여 이르게 하여 교부한다.⁷⁸⁾

王曉波 또한 眞宗 시대에 요나라와 치러졌던 전연의 전역을 포함한 네 차례의 전쟁을 분석한 끝에 “송은 이미 漢·唐의 옛 땅인 연운십육주를 회복할 힘이 없었고, 요의 보복성 침입은 설사 패배보다 승리가 많았지만 송의 영토를 잠식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여 요나라는 절대적 우세를 차지할 수 없었고, 송나라는 비교열세의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高美玲, 1988, 「關於澶淵之盟의幾個問題」, 『華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65쪽; 田相林, 2001, 11, 「宋遼澶淵之盟—古代少數民族與漢族長期和好的範例」, 『平原大學學報』 제18권 제4기, 46쪽; 王曉波, 2003, 「對澶淵之盟의重新認識和評價」,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115쪽.

- 75) 『遼史』卷14, 聖宗5, 「22年春正月丁丑條」, “戊子宋遣李繼昌請和, 以太后爲叔母, 願歲輸銀十萬兩絹二十萬匹, 許之, 卽遣閣門使丁振持書報聘.”
- 76) 송이 요에 제공한 세폐의 액수는 전연의 맹약 때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로 정해졌지만, 송 仁宗 慶曆 2년(1042)의 협약에 따라 다시 은 10만 냥과 비단 10만 필이 증액되었다. 이 세폐의 총액이 송나라 재정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끼쳤는가에 대해 요나라와 교전하는 군사비 지출과 비교했을 때 세폐는 교전 예상비용의 100분의 1, 2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도 榷場의 무역을 통하여 상당한 액수를 회수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榷場의 이익이 세폐의 10분의 6의 액수에 해당하며, 河北의 지출과 비교할 때 재정상의 무거운 부담은 아니었다고 주장에서 보듯 세폐는 송 재정에 그리 무거운 부담은 아니었다. 王曉波, 2003, 앞의 글, 117~118쪽; 田相林, 2001, 11, 앞의 글, 46쪽.
- 77) 송은 거란에 대해 北朝라 하고 스스로는 南朝라 칭하였다. 거란도 송에 대해 南朝, 漢土, 漢國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칭호는 명백히 지리적 방위를 통해 외국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宋史紀事本末』卷3, “二月癸卯, 遣太子中允孫僅, 如契丹賀其太后生辰, 致書自稱南朝, 以契丹爲北朝, 直史館王曾上言, 春秋時小國爵不過子, 今從其國號足矣, 何用對稱兩朝! 不聽.” 하지만 예충한은 “송조와 요조는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았으며, 요왕조는 스스로를 송과 남북으로 대치하는 중국왕조로 간주했다”고 주장한다. 芮忠漢, 2002, 「談“澶淵之盟”」,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 5.

- ② 沿邊의 州軍은 각각 경계를 준수하고⁷⁹⁾ 두 지역의 人戶는 상호 침범하지 않는다.⁸⁰⁾
- ③ 만약 盜賊이 상대방 지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으면 머무르거나 은닉하지 않게 한다.⁸¹⁾
- ④ 전담에 심은 곡식에 대해 南北은 소란스럽게 하거나 어지럽히지 않는다.⁸²⁾
- ⑤ 모든 양 지역의 城과 池는 모두 옛것에 의거하여 지킨다. 해자도 준설하여 완전하게 수리하며, 모든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한다. 즉, 새로 城과 해자를 쌓거나 河道를 파지 못한다.⁸³⁾
- ⑥ 誓書 외에는 각각 요구하는 바가 없으며, 반드시 협동에 힘써 유구하게 보존될 것을 기대한다. 이로부터 현명한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면서 삼가 국경을 지킨다. 天地神祇에 맹세하며, 宗廟社稷에 고한다. 자손들도 함께 지키며, 무궁하게 전하라. 이 맹서를 어기면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니, 하늘에서 밝게 비추어보면서 징벌할 것이다. 멀리서 그 사정을 피력하여 개진하면 오직 보복을 기다리며, 선포하지 아니한다.⁸⁴⁾

78) 『契丹國志』卷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共遵誠信, 虔守歡盟. 以風土之宜, 助軍旅之費, 每歲以絹二十萬匹, 銀一十萬兩, 更不差使臣專往北朝. 只令三司差人搬送至雄州交割.”

79) 澶淵의 盟 당시 양국의 국경은 燕雲 16州 중에 後周 世宗이 획득한 瀛州, 莫州와 互橋關, 益津關, 淤口關을 제외한 것이다. 당시 거란은 이 관남지역을 다시 회수하려 했으나, 서로 당시의 경계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았던 것이다. 한편 이후 인종 때 송과 서하가 전쟁을 하자 거란이 이 틈을 타서 다시 이 관남지역을 위협하자 송은 어쩔 수 없이 세폐를 30만 필에서 20만 필을 증액하여 총 50만 필이 되었다.

80) 『契丹國志』卷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沿邊州軍, 各守疆界, 兩地人戶, 不得交侵.”

81) 『契丹國志』卷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或有盜賊, 連逃彼此, 無令停匿.”

82) 『契丹國志』卷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至於壘故稼穡, 南北勿縱翻擾.”

83) 『契丹國志』卷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所有兩地城池, 竝可依舊存守. 濶濠完葺, 一切如常. 卽不得創築城隍, 開掘河道.”

84) 『契丹國志』卷20, 「澶淵誓書·宋眞宗誓書」, “誓書之外, 各無所求, 必務協司, 庶存悠久. 自此保安黎獻, 謹守封疆, 質於天地神祇, 告於宗廟社稷. 子孫共守, 傳之無窮. 有渝此盟, 不克享國. 昭昭天鑒, 當其殛之. 遠具披陳, 專俟報復, 不宣.” 이상의 내용은 송 측의 기록인 『長編』卷58, 「景德元年12月辛丑條」의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이 전연의 誓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 양국이 ‘兄弟之邦’을 맺은 부분이다. 먼저 송 측의 기록에 “契丹이 다시 王繼忠을 파견하여 조리용을 만나 말하기를 남북의 通和는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거란의)國主가 年少하니 원컨대 형으로서 南朝를 모시겠습니다”⁸⁵⁾라 하여 거란의 군주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송의 황제를 형으로 할 것을 청했다고 한다. 또한 거란의 기재에서도 “宋이 李繼昌을 파견하여 화친을 청하면서 太后를 叔母로 하겠다고 하며, 歲輸로 銀 10萬兩, 絹 20萬匹을 하겠다고 원하니, 太后를 叔母로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⁸⁶⁾라 하여 송 진종이 소태후에 대해 숙모로 칭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후에도 거란 측의 기록에 “弟大契丹皇帝,⁸⁷⁾ 謹致書於兄大宋皇帝闕下”⁸⁸⁾라 하여 동생인 거란 황제가 형인 대송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표현되어 있고, 송 인종에게 보낸 국서에서도 “致書曰, 弟大契丹皇帝, 謹致書兄大宋皇帝”⁸⁹⁾라 하여 형제관계의 표현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연의 맹으로 인해 양국 간에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벗어나 형제관계로 규정하였던 셈이다.

이상 瀋淵의 盟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宋이 遼에게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세폐로 보내며, 雄州까지 宋이 수송을 담당하여 遼에게 교부한다. 둘째, 송의 진종 황제는 요의 承天太后를 叔母로 받들고 이후 양국은 형제의 盟約을 하며, 성종은 진종을 형으로 받들고 서로 남(송), 북(요)이라고 지칭한다는 내용이다.⁹⁰⁾

85) 『長編』卷58, 「眞宗景德元年冬10月癸未條」, “契丹復遣王繼忠, 見利用且言, 南北通和, 實爲美事. 國主年少, 願兄事南朝.”

86) 『遼史』卷14, 聖宗5, 「22年12月戊子條」, “宋遣李繼昌請和, 以太后爲叔母, 願歲輸銀十萬兩絹二十萬匹, 許之太后爲叔母.”

87) 이 시기 거란의 정식 국호는 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요 황제라 되어 있지 않고 契丹皇帝라 기재되어 있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아마도 거란은 일시적으로 요로 국호를 바꾸었지만, 이후에도 거란과 요의 국호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88) 『契丹國志』卷20, 「關南誓書·興宗致宋書」.

89) 『長編』卷135, 「仁宗慶曆2年3月己巳條」.

90) 田村實造, 1936, 「瀋淵の盟約とその史的意義」, 『史林』20-1, 2.

한편, 위의 조약 내용에서 銀과 絹은 사실상 군사보상비로, 거란이 요구했던 關南지역의 반환을 무마한 것이며, 바로 歲幣인 셈이다. 이 세폐는 명칭상 朝貢, 또는 進貢으로 되어 있지 않다. 물건을 주는 형식도 거란의 수도에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경지역에 가서 교부하는 것이었다. 이 세폐를 제외하면 澶淵의 盟에서 규정된 내용은 비교적 평등하게 되어 있다. 평등한 규정이란 첫째,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군주를 ‘皇帝’로 호칭하였다. 둘째, 조약에서 규정한 무역과 외교관계도 평등한 원칙하에 처리되었다. 셋째, 의제적 親緣관계를 설정하였다. 즉, 上下尊卑의 개념이 아닌 長幼의 구분으로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처럼 전연의 맹에서 “송은 형제관계를 통해 외교적 평등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평가되지만, 세폐의 규정에서 보건대, 사실상 조약은 불평등한 성격을 지닌다. 1008년 거행된 진종의 泰山 封禪大典은 이러한 외교적 좌절과 澶淵의 盟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이었다.⁹¹⁾ 전연의 맹은 불평등한 실제 내용을 외교적 평등함을 통해 감추었던 것이다.

요컨대, 澶淵의 盟을 통해 송 측에서는 關南지역을 요구하는 거란의 요구를 물리친 반면에, 연운 지역을 회복하는 희망은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관남지역을 지키고 거란의 군대를 돌려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송은 거란에 매해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歲幣로 바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송은 영토수호의 실리를, 거란은 매년 세폐의 획득이라는 실리를 얻었다. 이와 함께 양국의 황제가 교환한 國書에 양국의 황제들이 서로 형제로 규정했으며, 양국 간 대등한 외교관계가 공식으로 성립하였다. 이런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양국은 이후 약 125년간 상호 평화를 유지하였다.

91) Jing Sheng, Tao, 1988, 앞의 책, p. 29.

IV. 澶淵의 盟에 대한 宋人들의 인식

1. 평화와 긍정론적 인식

전연의 맹은 체결 당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식과 평가의 변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것은 전연의 맹이 이민족과 맺은 최초의 대등한 외교조약임과 동시에 송조를 비롯한 후대 역사에 끼친 영향이 심원했기 때문이다. 사실 맹약 체결 당시부터 평가는 극단적인 부정과 긍정에 걸쳐 있었다. 대표적으로 왕흡약은 구준을 비난하면서 전연의 맹약을 굴욕의 ‘城下之盟’이었다고 비판하였고,⁹²⁾ 부필은 ‘실책은 아니다’고 하면서 다소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⁹³⁾

여기에서 먼저 긍정론에 대해 검토해 보면, 조약 체결 당시 조정의 논의는 대부분 ‘세폐로 해마다 거란에 銀絹 30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송 진종은 화평론자였던 구준에 대해 사직에 공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극진하게 그를 배려하였다.⁹⁴⁾ 심지어 진종은 “하루는 朝會에서 모였는데, 구준이 먼저 물러나자 황제가 눈으로 그를 전송하였다”⁹⁵⁾라 하여 극진히 배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진종의 입장에서 전연의 맹은 송을 위기에서 구하였고, 또한 당시의 집권자인 자신을 위기에서 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에게 해마다 세폐를 바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듯하다.

하지만 체결 당시 송 조정에서는 전연의 맹으로 인한 세폐에 대해 “朝廷의

92) 『宋史』卷281, 「寇準傳」, “一日會朝, 準先退, 帝目送之, 欽若因進曰, ‘陛下敬寇準, 爲其有社稷功那?’ 帝曰: ‘然!’ 欽若曰: ‘澶淵之役, 陛下不以爲恥, 而謂準有社稷功, 何也?’ 帝愕然曰, ‘何故?’ 欽若曰: ‘城下之盟, 『春秋』恥之. 澶淵之舉, 是城下之盟也. 以萬乘之貴而爲城下之盟, 其何恥如之!’”

93) 『長編』卷15, 「仁宗慶曆4年6月丙午條」, “於是講金帛昭之之術, 以結歡好. 自此河澶百姓, 幾四十年不識干戈, 歲遺差擾, 然不足以當用兵之費百一二焉, 則知澶淵之盟, 未爲失策.”

94) 『宋史』卷281, 「寇準傳」, “(寇)準頗自矜澶淵之功, 雖帝亦以此, 待準甚厚.”

95) 『宋史』卷281, 「寇準傳」, “一日會朝, 準先退, 帝目送之.”

논의는 대부분 모두 잘못되었다고 여겼다”라고 하여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이에 畢士安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란이 돌아볼 바(세폐를 가리킴)가 무겁지 않으니 평화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오직 거란에 재물을 제공하여 평화를 구하는 것이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 “두 나라가 이미 안정되었고, 중국과 외국이 대략 평안해졌다”⁹⁶⁾고 평가하였다.

물론 전연의 맹으로 성립된 평화가 북송의 사회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은 蘇頌이 거란에 사신으로 가면서 지은 시의 곳곳에 보인다. 우선 거란에 비단과 은을 보내고 평화를 구하였다는 것에 대해 소송은 “보내는 銀과 비단을 무기의 값에 비한다면, 아직 九牛一毛의 손실에도 미치지 않는다”⁹⁷⁾고 하며 세폐로 인한 재정의 부담은 매우 적다고 하면서 맹약 체결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소송은 전연의 맹의 체결 결과 매우 평화로운 환경이 국내외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시로 예찬하였다. 그의 시 중에는 “몇 개의 군에서 둔전을 하니 농부들이 돌아와 농사를 짓고, 온 고을 백성들 물가에서 이익을 얻는다”,⁹⁸⁾ “천리나 먼 변경 薊縣과 오랑캐들 사는 곳, 사람들 사는 곳마다 농사짓고 가축 키우니, 모든 집의 큰 수레가 다시 돌아왔다”,⁹⁹⁾ “농부는 편안하고 땅은 개간 되었다”¹⁰⁰⁾고 하면서 접경지역 송나라 백성들의 평화로운 농경의 모습을 예찬하였다. 또한 팽여려는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 좋은 노래 부르니, 南朝와 北朝의 구분이 없도다. 단지 천년 만년 즐거움이 오래오래 지금과 같기를 원할 뿐

96) 『宋史』卷281, 「畢士安傳」, “又與其使者姚東之俱來, 講和之議遂定. 歲遺契丹銀絹三十萬, 朝論皆以爲過. 士安曰, ‘不如此, 契丹所顧不重, 和事恐不能久.’ 及罷兵, 從還, 乃按邊要選良守將易置之, 雄州以李允則, 定州馬知節, 鎮州孫全照, 保州楊延昭, 它所擇用各得其任. 令塞上得境外牛馬類者悉還之, 通互市, 除鐵禁, 招流亡, 廣儲蓄. 未幾, 夏州趙德明亦款塞內附. 二方既定, 中外略安.”

97) 蘇頌, 『蘇魏公文集』(四庫全書本) 卷13, 「前使遼詩·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 “金縷比干櫓, 未損一牛毛.”

98) 蘇頌, 『蘇魏公文集』 卷8, 「律詩·行次塘堤」, “數郡營屯歸耒耨, 萬家生聚利菰蒲.”

99) 蘇頌, 『蘇魏公文集』 卷13, 「前使遼詩·和仲巽奚山部落」, “千里封疆薊靄間, 時平忘戰馬牛閒, 居人處處營耕牧, 盡室穹車往復還.”

100) 蘇頌, 『蘇魏公文集』 卷8, 「律詩·和李少卿寄吳仲庶」, “耕夫安佚土開阡.”

이라네”¹⁰¹⁾라고 하여 양국의 평화를 찬양하고 이런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인식은 인종대의 대신인 富弼의 언급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河湟의 百姓들이 몇십 년 동안 전쟁을 알지 못했으며, 해마다 歲差를 보내나 전쟁을 치르는 비용의 100에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즉 瀟淵의 盟이 失策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⁰²⁾

라고 하여 瀟淵의 盟으로 인한 평화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거론하면서, 매년 거란에 보내는 세폐의 비용이 전쟁비용에 비해 100분의 1, 2도 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렇듯 당시 북송의 정치가들은 북변의 관계가 안정되자 변방에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것을 극력 꺼려하였다. 예컨대 인종대 재상인 張方은 새롭게 변방을 개척하자는 것에 반대하면서

진종 초에 (서하의 왕이었던) 趙德明이 귀순하였고, 瀟淵의 (위기를) 극복하여 마침내 契丹과 盟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사람이 전쟁을 알지 못하니 가히 盛德大業이라 할 만하다!¹⁰³⁾

라고 하여 전연의 맹으로 평화가 도래하였다고 하며, 성덕 대업이라 칭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극찬하였다. 이처럼 전연의 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평화의 결실을 직접 향유하던 진종대와 인종대에 주로 개진되었다.

요컨대 전연의 맹약은 송과 거란 두 나라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켜 평화를

101) 彭汝礪, 『鄱陽集』 卷12, 「絕句·記使人語呈子開侍郎深之學士二兄」, “往來道路好歌謠, 不問南朝與北朝, 但願千年更萬歲, 歡娛長祇似今朝。”

102) 『宋名臣奏議』 卷135, 邊防門 遼夏7, 富弼, 「上仁宗河北守禦十三策」, “自此河湟百姓, 幾四十年不識干戈, 歲遺差擾, 然不足以當用兵之費百一二焉, 則知瀟淵之盟, 未爲失策.”

103) 『長編』 卷259, 「神宗熙寧8年春正月乙卯條」, “真宗之初, 趙德明納款, 及瀟淵之克, 遂與契丹盟, 至今人不識兵革, 可謂盛德大業!”

가져왔고, 그 결과 송의 백성들은 생업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던 점을 평가한다. 그들에게 매년 바치는 세폐는 송의 재정에서 볼 때 적은 비중에 불과했고, 그 결과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전연의 맹약을 긍정하는 중요한 이유였던 셈이다.

2. 굴욕과 부정론적 인식

1) 사대부의 인식

긍정론적 인식과 달리 송대 지식인들의 다수는 瀆淵의 盟을 민족의 수치로 간주하며, 굴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전연의 맹을 체결할 당시부터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王欽若이다. 그는 우선 寇準에 대한 진중의 대우에 대해 불만을 갖고서 다음과 같이 진언하였다.

(王)欽若은 진언하여 말하기를 “陛下는 寇準을 높게 여기는데, 그가 社稷에 功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였다. 欽若이 말하기를 “瀆淵의 役을陛下는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으며, 구준을 이르러 社稷에 功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황제가 놀라면서 말하기를 “무슨 까닭이라니?”라고 하자 왕흥약이 말하기를 “城下の 盟은 春秋에서 부끄럽게 여깁니다. 瀆淵의 일은 바로 城下の 盟입니다. 萬乘의 고귀함으로 城下の 盟을 맺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황제가 정색을 하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 欽若이 말하기를 “陛下는 도박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도박하는 자는 돈이 떨어지면 남아 있는 것을 다 거는데, 이를 일컬어 孤注라 합니다.陛下는 寇準의 孤注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¹⁰⁴⁾

104) 『宋史』卷281, 「寇準傳」, “欽若因進曰, ‘陛下敬寇準, 爲其有社稷功邪?’ 帝曰, ‘然.’ 欽若曰, ‘瀆淵之役, 陛下不以爲恥, 而謂準有社稷功, 何也?’ 帝愕然曰, ‘何故?’ 欽若曰, ‘城下之盟, 春秋恥之; 瀆淵之舉, 是城下之盟也. 以萬乘之貴而爲城下之盟, 其何恥如之!’ 帝愀然爲之不悅. 欽若曰, ‘陛下聞博乎? 博者輸錢欲盡, 乃罄所有出之, 謂之孤注. 陛下, 寇準之孤注也, 斯亦危矣.’”

왕흥약은 전연의 맹을 체결하여 공을 세웠다고 하는 기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瀟淵의 盟을 춘추시대의 ‘城下の 盟’¹⁰⁵⁾에 비유하면서 굴욕적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진종 황제가 기준의 도박에 놀아났다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송이 천자의 나라로서 북방 오랑캐 국가와 굴욕적인 ‘성하의 맹’을 맺은 것을 비판하였고, 이것은 오로지 기준의 정치 외교적 도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때문에 이런 도박에 기대 전연의 맹의 결과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였다. 왕흥약의 전연의 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전통시대 중국의 사상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른바 ‘屈辱說’의 원조로 되었다.¹⁰⁶⁾

물론 전연의 맹이 송조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맹약의 조건이 나타내는 구차한 안정, 평화를 돈으로 주고 샀다는 마음 상태는 세월이 흐르면서 북송의 조야에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다. 예컨대 북송의 사대부들은 평가가 지속되면서 군사력의 중요성을 홀시하면서 평화에만 젖어 있는 당시의 세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가슴이 아픈 것은 나라를 책임진 대신들이 화의를 논한 후, 군사적 대비가 모두 중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변방의 신하들이 마음을 들여 일하는 것을 일컬어 괜히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관료 사대부들이 근심하는 것을 일컬어 세상물정에 어둡다고들 합니다. 대개 다른 사람이 전쟁을 말하는 것을 꺼리고 별 일이 없음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감히 맹약을 어기지 못할 것이라 하고, 변방은 반드시 미리 방어할 필요도 없다고 하며, 시대가 항상 평안하다고 하면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평안하게 스스로 자처하며 모두들 근심하지 않습니다.¹⁰⁷⁾

105) ‘城下の 盟’이란 춘추시대 楚가 絞를 패배시키고, 城下에서 盟約을 맺고 돌아온 것을 일컫는 것으로, 제후의 치욕을 의미한다. 『左傳』, 「桓公12年」, “楚伐絞……大敗之, 爲城下之盟而還. 杜預注, 城下盟, 諸侯之恥辱.”

106)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이 의견과 정반대되는 의논이 나왔다. 즉, 瀟淵의 盟은 송의 입장에서 굴욕적인 조약이 아니라 평등한 평화협정이며, 양국의 협정은 공통된 중화민족의 문화적 배경이 전제된 것이라 한다. 李錫厚, 2007, 앞의 글.

107) 『長編』 卷150, 「仁宗慶曆4年6月戊午條」, “而所可痛者, 當國大臣論和之後, 武備皆

라 하여 군사적 대비가 사라졌음을 지적한다. 특히 변방의 백성들도 전쟁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어떠한 전쟁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范仲淹도 “천하가 무사하며, 사람들 모두 편안함을 즐기며, 다시는 전쟁의 논의가 있지 않았습시다”¹⁰⁸⁾라고 하여 역시 비슷한 언급을 하고 있다. 소식은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대신들의 의논에서 장구한 계책을 삼지 않고 최하의 대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돈과 비단 수십만을 내어서 바로 옆의 적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질러진 재앙이며, 돌이킬 수 없는 이 유감입니다.¹⁰⁹⁾

라 하여 이 전연의 맹이 장구한 대책이 아니라 ‘最下之策’임을 분명히 하였고, “두 오랑캐의 큰 근심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니, 천하의 다스림이 끝내 이루어질 수 없다”¹¹⁰⁾라 하여 거란이 여전히 송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천하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張方平은 인종 경력 원년에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국가가 경덕년간 이래, 이미 거란과 맹을 맺었는데, 천하가 대비함을 잊어버렸고, 장수는 병사를 알지 못하며, 병사는 전쟁을 알지 못하며, 백성은 힘써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지 30년이나 되었습시다”¹¹¹⁾라고 하였다. 전연의 맹 이래 평화로운 기운이 조성되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군사적 대비를 상실케 하여 오히려 국가가 위기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구양수도 인종 경력 2년에

廢. 以邊臣用心者, 謂之引惹生事. 以搢紳慮患者, 謂之迂濶背時. 大率隸人談兵, 幸時無事, 謂敵不敢背約, 謂邊不必預防, 謂世常安, 謂兵永息. 恬然自處, 都不爲憂.”

108) 『長編』卷149, 「仁宗慶曆4年5月壬戌朔條」, “天下無事, 人人懷安, 不復有征戰之議.”

109) 『東坡全集』卷46, 「策略五首·策略1」, “昔者大臣之議, 不爲長久之計, 而用最下之策. 是以歲出金繒數十百萬, 以資鄰敵, 此其既往之咎, 不可追之悔也.”

110) 『歷代名臣奏議』(四庫全書本) 卷37, 「治道」, “二虜之大憂未去, 則天下之治, 終不可爲也.”

111) 『長編』卷131, 「仁宗慶曆元年3月丁卯條」, “張方平上言, 國家自景德以來, 既與契丹盟, 天下忘備, 將不知兵, 士不知戰, 民不知勞, 殆三十年矣.”

집현교리 구양수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사가 없는 것이며, 장수가 없는 것이며, 財用이 없는 것이며, 적을 막을 대책이 없는 것이며, 말길 만한 신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폐하께서 그 있지 않음을 걱정하나 신하들은 지금 모두 있다고 합니다.¹¹²⁾

라 하여 당시 국가 국방력을 비롯한 거란에 대한 방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富弼의 경우도 앞서 일단의 전연의 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표명한 바 있지만, 거란에 대한 적개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¹¹³⁾ 부필은 거란이 관남 지역을 빼앗으려고 위협을 가했을 때, 사자로 파견되어 20만 필을 증액한 대가로 관남 지역에 대한 거란의 요구를 무마한 공을 세웠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부필이 큰 공을 세웠다고 하였으나 부필은 賞을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세폐의 증액이 자신의 본뜻과는 다르다는 인식 때문이었다.¹¹⁴⁾

부정적 인식은 자연히 거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范仲淹의 경우에는

적의 정황이 바뀌는 것은 자고로 비밀비재했던 까닭에 40년의 恩信으로 그들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재물로서 끝이 없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걱정합니다. 이에 널리 대비를 해야 하며,

112) 『長編』 卷136, 「仁宗慶曆2年5月甲寅條」, 「集賢校理歐陽修上疏曰 …… 當今所最闕者, 不過日, 無兵也, 無將也, 無財用也, 無禦戎之策也, 無可任之臣也. 此五者, 陛下憂其未有, 而臣謂今皆有之.”

113) 富弼은 慶曆 4년(1044)에 仁宗에게 河北의 방어책을 상주하는 글에서 요나라는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모두 갖추고 있고 점유한 영토가 광대하여 과거의 역사시대에 중국을 괴롭혔던 어떠한 이민족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인정했고, 왕안석은 희령 5년(1072)에 神宗에게 과거의 어떤 夷狄보다도 요나라의 형세가 더 강하므로 요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확충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건의했으며, 神宗 또한 元豐 5년(1082)에 신하들에게 요나라는 漢唐의 이민족보다 더욱 강성하다고 인정했다. 曹顯征, 2006, 「遼宋交聘制度研究」, 23쪽,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114) 『三朝北盟會編』 卷203, 「紹興10年閏6月18日條」, 「寶元康定間, 契丹以重兵壓境, 遣蕭英劉六符來聘, 意在劫取關南十縣, 朝廷命右正言富弼, 爲報聘之行, 仁祖重念兩國生靈, 之故許其屈己增幣, 而契丹平逮, 卒事弼不肯受賞, 曰此非臣之本志也.”

맹서는 믿기에 부족합니다.¹¹⁵⁾

삼가 보건대 외국은 탐욕스러워 강한 자를 만나면 엎드리고 약한 자를 만나면 업신여기며, 내가 대책이 없음을 보면 걸핏하면 굴복시키려 합니다. 곧 내가 약하면 쉽게 업신여길 수 있음을 알고 있으니, 까닭에 금이나 비단을 더해도 그 뜻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¹¹⁶⁾

라고 하여 거란과의 동맹관계를 믿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종대에 韓琦도

거란에서 國家에 深長한 謀가 있다고 들으면 반드시 두려워하며 맹약을 지키며 다시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연후에 중국에 태평한 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臣等이 말하는 까닭은 저들 賊의 예에 어긋나는 요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대개 이런 의논에서입니다.¹¹⁷⁾

라고 하여 거란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신종의 인식

이상과 같이 북송대 사대부들은 전연의 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자주 피력하였지만, 사실 관료 사대부의 경우 신하의 입장에서 직접적 비판을 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때문에 구준을 비판하거나, 적을 대비하는 기풍이 사라졌다고

115) 『長編』卷136, 「仁宗慶曆2年5月戊午條」, “仲淹復上疏曰, 敵情反覆, 自古非一, 以四十年恩信, 尚不能結之, 恐非有限之貨, 能足無厭之心, 此可大爲之防, 盟誓不足恃也.”

116) 『長編』卷141, 「仁宗慶曆3年5月乙未條」, “竊以外國貪婪, 遇強則伏, 見弱便欺, 見我無謀, 動皆屈. 就謂我爲弱, 知我易欺, 故添以金繒, 未滿其志.”

117) 『長編』卷139, 「仁宗慶曆3年2月乙卯條」, “契丹聞國家深長之謀, 必懼而保盟, 不復輕動, 然後中國有太平之期矣. 臣等所以言, 彼賊非禮之求, 不必從者, 蓋有此議也.”

하면서 간접적으로 전연의 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고는 했다.

하지만 일반적 신료와는 조금 다른 입장인 신종 황제의 경우 매우 직설적으로 전연의 맹을 비판한 것이 눈길을 끈다. 신종은

신종은 즉위 초에 비분강개하여 태행산 북쪽을 수복하려는 의지를 지냈다. …… 하루는 북변의 일에 대해 언급하기를, 태종께서는 燕京城 밑에서 패배하여 적의 추격을 받아 간신히 빠져나갔으며, 모든 行在의 의복과 그릇이 모두 약탈당했으며, 시종하는 宮嬪도 모두 사로잡혔고, 황제의 허벅지에도 화살 두 발이 맞아 해마다 상처가 도졌는데, 천하를 포기했으니, (그 별로) 마침내 화살의 상처가 도지는구나 라고 했으니, 이는 바로 불구대천의 원수인데, 오히려 돈과 비단 수십만을 주고, 그를 섬기면서 숙부라 하니 사람의 자손으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게! 조금 있다가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으니, 대개 스스로 거란을 취하려는 큰 뜻이 있었던 것이다.¹¹⁸⁾

라고 하여 신종은 태종이 거란군의 추격을 받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허벅지에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불구대천의 원수라 하였다. 또한 거란에게 연운지역을 되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십만의 세폐를 바치게 된 상황과 거란 황제와 친숙관계를 맺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비분강개하는 등 맹약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적 입장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신종은 연운지역을 회복하는 자에게 王爵을 내리라는 유훈을 남겼을 정도였다.¹¹⁹⁾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신종과 함께 개혁을 단행했던 왕안석의 인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왕안석의 경우에도 遼의 사신을 전송하러 이르렀던 瀋淵에서 詩를 써서 전연의 맹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였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瀋淵이 “춘추시대 제후들이 회맹하던 곳, 전연이 바로 그 땅이다”고 하여 전연이

118) 王銍, 『默記』 卷中, “神宗初即位, 慨然有取山後之志, …… 一日語及北邊事曰, 太宗自燕京城下軍潰, 敵人追之, 僅得脫, 凡行在服御寶器盡爲所奪, 從人宮嬪盡陷沒, 上股中兩箭, 歲歲必發, 其棄天下, 竟以箭瘡發云, 此乃不共戴天之仇, 反損金縉數十萬, 以事之爲叔父, 爲人子孫, 當如是乎! 已而泣下久之, 蓋已有取契丹大志.”

119) 『宋史』 卷468, 「童貫傳附方臘傳」, “神宗遺訓能復全燕之境者, 昨奉邦疏王爵.”

춘추시대로부터 역사적 회맹이 있었던 유구한 장소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맹약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혹독한데, “커다란 희생 치르고 겨우 조그만 공 거두고서, 오히려 만족하며 아주 잘한 일이었노라 자랑했었소”¹²⁰⁾라고 하여 전연의 맹을 통해 오히려 연운 16주를 되찾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세폐를 바치게 된 것을 비판하며, 또한 그 대가로 평화를 얻게 된 것을 ‘맨 꼬트머리의 작은 업적[末功]’이라 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보여준다. 왕안석은 “기쁨의 회맹 이로부터 잦아져서, 날마다 달마다 使者가 오고 갔소”라고 하여 전연의 맹을 ‘歡盟’, 즉 기쁨의 회맹이라 비꼬았으며, 이로부터 사자들이 오고 갔음을 전한다. 그리하여 이후에는 “말 달리며 영접하느라 역마는 남아나지 않고, 물자 실어나르느라 우마차 다 닳아졌소. 재화 징수하여 섬기고 바치니, 오랑캐의 마부와 조리사에게도 진귀한 보물 많았소”라고 하여 수많은 역마가 은과 비단을 실어나르며 많은 재화를 바쳤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마지막에는 “무기는 오래전에 벌써 녹여 버렸지만, 전주 사람들 더욱 초취해졌소”¹²¹⁾라고 하여 이미 송인들이 요에 대해 대항심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생활만 더욱 피폐해졌다고 하면서 전연의 맹을 수치로 인식하였다.

120) 이 구절은 寇準을 빗대어 언급한 것이다. 『宋史』卷281, 「寇準傳」, “(景德)二年, 加中書侍郎兼工部尚書. 準頗自矜澶淵之功, 雖帝亦以此待準甚厚.” 참조.

121) 王安石, 『王荊公詩李壁注』卷20, 「澶州」, “春秋諸侯會, 澶淵乃其地, 書留後世法, 豈獨譏當世, 野老豈知此. 爲予談近事, 邊關一失守, 北望皆胡騎, 黃屋親乘城, 穹廬矢如蝟, 紛紛擅將相, 誰爲開長利, 焦頭收末功, 尙足誇一是. 歡盟自此數, 日月行人至, 馳迎傳馬單, 走送牛車弊, 征求事供給, 廝養猶珍麗, 戈甲久已銷, 澶人益憔悴, 能將大事小, 自合文王意, 語翁無歎嗟, 小雅今不廢!”

V. 맺음말

瀟淵의 盟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원왕조인 북송과 이민족 왕조인 거란이 대등한 외교적 관계와 세폐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일종의 평화조약이다. 전연의 맹 성립의 역사적 배경으로 오대시기 중원왕조들과 거란의 관계를 통해 사절의 交聘, 親屬관계의 수립, 歲幣의 增送이 이루어졌다.

북송 초 태조는 거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후 '保寧和議'라 불리는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수립하였다. 보령화회의는 오대시기 확립되었던 중원왕조와 거란의 관계를 계승하면서 이후 전연의 맹에 연결되는 역사적 맥락에 위치해 있다. 송 태종이 즉위한 후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몇 차례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이루어졌다. 특히 태종대에 대규모 전투에서의 패배는 송의 군사력이 거란에 비해 열세라는 점을 보였으며, 이런 점이 국제정세에 대한 현실적 역량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송 진종의 즉위 이후 거란의 공세가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004년 거란의 성종과 그 모친 소태후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여 수도 개봉 근처인 전연까지 진군하였던 사건은 송의 조야를 전율케 하였다. 이에 한 때 수도를 버리고 남행하지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결국 진종이 직접 친정하면서 양국의 군사가 대치하게 되었다. 당시 일전일퇴를 벌이던 양국은 서로 상대방을 최종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마침내 화의 교섭을 진행하여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연의 맹이 체결되었다.

전연의 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송이 거란에 대해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세폐로 보낸다. 둘째, 양국은 현행 국경선을 그대로 유지 인정한다. 셋째, 송의 진종 황제와 거란의 성종은 나이순으로 형제관계를 맺으며, 송 진종은 거란의 태후를 숙모로 받든다. 전연의 맹은 외교적으로는 평등한 형식이었지만, 송은 그 대가로 현행 국경선을 인정받고, 매년 막대한 세폐를 요에게 지급하는 불평등한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전연의 맹은 평등한 형식관계와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국을 포

합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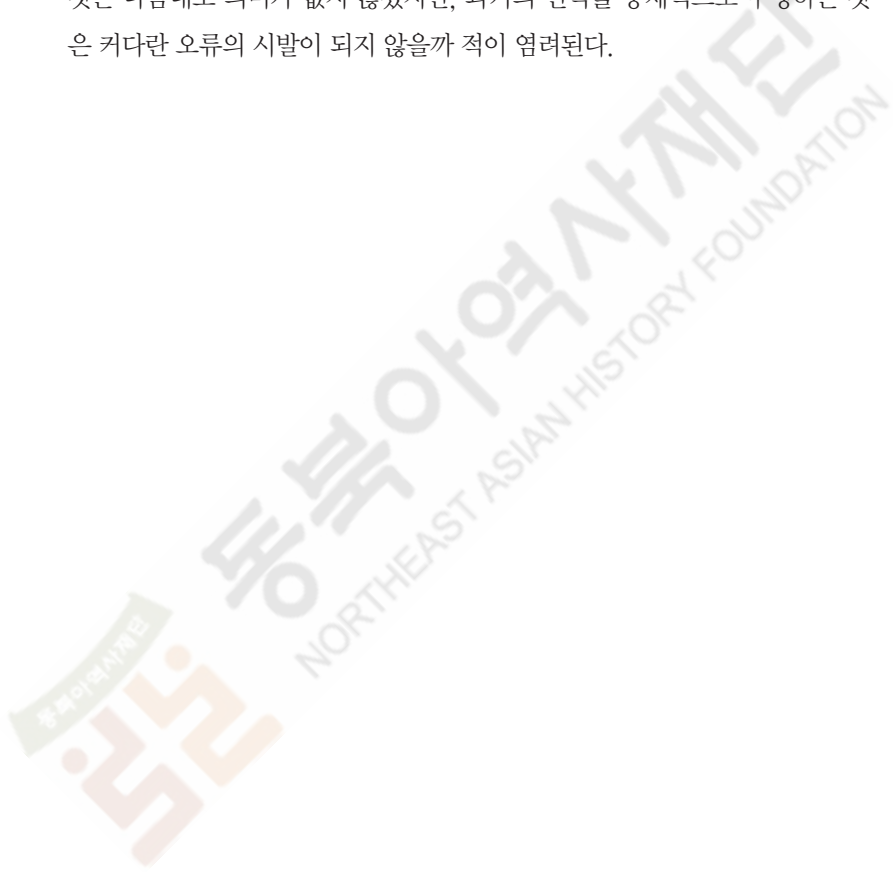
중국 측 입장에서 전연의 맹은 중원을 통일한 왕조가 주변의 이민족 왕조와 대등한 관계를 인정한 사실상의 첫 사례이다. 게다가 송은 매년 거란에게 10만 냥, 비단 30만 필의 경제적 보상을 해 주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족과 대등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과 함께 굴욕과 수치의 사건으로 인식되게 되는 계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족적 굴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전연의 맹약은 세폐를 바친다는 조항으로 인해 맹약이 가져온 평화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에 걸쳐 있다. 긍정적인 인식은 주로 맹약을 체결할 당시의 대신이나 평화 상태가 지속되던 인종조의 사대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은 맹약의 체결로 막대한 군사비가 절감되었고, 세폐가 군사비의 100분의 1, 2에 불과하며, 전쟁이 사라진 평화로운 광경에 주목한 것이다.

부정적 인식은 연운 16주의 수복을 포기한 것과 거란에 대해 세폐를 바친다는 조항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조약이 '城下의盟'과 같은 굴욕으로 인식했다. 연운 16주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는 거란에 세폐를 바쳐야 하는 현실을 통탄하였다. 또한 맹약으로 일시적인 평화에 안주하여 유사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특히 신종의 경우에는 거란이 태종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던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면서 거란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였다. 이민족에 대해 문화적·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던 중원의 인사들에게 전연의 맹은 민족적인 굴욕이었으며, 심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과거에는 주로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에 걸쳐 있던 전연의 맹에 대한 평가문제는 최근 중국의 중화민족 역사공동체이론과 결부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연의 맹이 중국 민족과 소수민족의 융합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런 주장은 과거 중국인들이 느꼈던 민족적 수치감이라는 인식이나 감정과는 엄청난 간극을 보인다. 전연의 맹을 국제관계의 새로운 전개로 이해해야 하는지, 중화 민족 통합으로 나아가는 내부의

계기로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송대인이 전연의 맹을 민족적 굴욕으로 인식했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도 단지 평화로운 상황에 주목했을 뿐이며, 민족의 융합과 통합 등과 같은 현재의 관점과는 천양지차를 보인다. 역사인식을 오늘날의 잣대에 비추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과거의 인식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의 시발이 되지 않을까 적이 염려된다.



참고문헌

- 『遼史』.
 『資治通鑑』.
 『遼史拾遺』.
 『契丹國志』.
 『宋史』.
 『續資治通鑑長編』.
 『宋史紀事本末』.
 『三朝北盟會編』.
 『蘇魏公文集』.

Frank, Herbert and Twitchett, Denis 194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Rosabbi, Morris, ed., 1983, *China among Equals :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urs, 10-14th Centurie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ao, Jing Sheng, 1988, *Two suns of Heaven : Studies in Sung-Liao Relation*, Tucson : University of Arizona Press.

陶玉坤, 1999, 「遼宋對峙中的使節往來」,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31-2, 1999-3.

陶晉生, 1983, 『宋遼關係史研究』, 聯經出版事業公司.

傅樂煥, 1940. 1, 「記宋遼的國書」, 『北京大學四十年紀念論文集』.

傅樂煥, 1984, 「宋遼聘使表考」, 『遼史叢考』, 中華書局.

聶崇岐, 1940. 6, 「宋遼交聘考」, 『燕京學報』第27期.

王才忠, 1994, 「略論“澶淵之盟”」, 『阜陽師院學報』(社科版) 1994-1.

王曉波, 2003, 「對澶淵之盟的重新認識和評價」,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3-4.

李大龍, 1991, 「也談澶淵之盟形成的原因」, 『中央民族學院學報』1991-3.

李錫厚, 2007, 「論“澶淵之盟”非“城下之盟”」,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 張希清 等 主編, 2007. 3, 『澶淵之盟新論』, 上海人民出版社.
- 田相林, 2001, 「宋遼澶淵之盟－古代少數民族與漢族長期和好的範例」, 『平原大學學報』 18-4, 2001-11.
- 田村實造, 1936, 「澶淵の盟約とその史的意義」, 『史林』 20-1, 2.
- 漆俠, 1992, 「遼國的戰略進攻與澶淵之盟的訂立」,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2-3.
- 邢義田, 1966, 「契丹與五代政權更迭之關係」, 『食貨月刊』 第1-6.
-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45-3.

[ABSTRACT]

The conclusion of Treaty of Chanyuan and Cognition in
Sung dynasty

Lee, Sukhyun

The Treaty of Chanyuan (澶淵) is reckoned as a historical event which is both delicate and meaningful in the Chinese history. It is because what the treaty implicates is not simple. First of all, the treaty is the first case that the dynasty that dominated the central areas of China recognized officially that of surrounding different nations as an equal and friendly reality. Moreover, Song dynasty had to pay an indemnity of 100,000 ounces of silver and 300,000 bolts of silk annually. That is to say, an equal diplomatic relationships and substantial unequal ones are involved complexly in this treaty.

This compound contents of the treaty served as a momentum of being recognized as a humiliating and disgraceful event ever since then in spite of its diplomatic and rhetorical equal relationships. As for the Chinese, it was, therefore, regarded as the typical case of a national disgrace.

Recently as Khitan Empire is recognized as a minority dynasty of China, the new researchs on this subject is being conducted. Accordingly the cognition to the Treaty of of Chanyuan takes on complicated aspects : it served as a critical momentum of a complex of the Chinese and minorities. This argument is different from that of a national disgrace, the cognition and emotion that the Chinese had before.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Treaty of Chanyuan unitary diplomatic relationships around the dynasties of the central areas changed to new plural and equal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round Kitan Empire and Song dynasty in East Asia, including Goryeo (高麗) dynasty and Xisha (西夏). The plural relationships like this are of great significance in East Asian history, and offer a good example against a historical view focusing on the central areas of China.

keywords

Treaty of Chanyuan (瀧淵), Sung dynasty, Qidan, Liao dynasty, recognition, war, negotiations for peace, diplomacy, humiliation

17~19세기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 연구

원재연 | 수원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I. 머리말

17세기 이후 조선왕조의 對淸 使節團을 지칭하는 燕行使와 관련된 최근 학계의 연구가 자못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문학계의 연구성도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간 몇몇 실학자 등의 연행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역사학계의 이 분야 연구에 관심을 촉구하면서 자료연구의 수준도 한 단계 제고되었다. 2001년 동국대학교 임기중 교수가 무려 400여 종에 달하는 燕行錄을 모두 100권의 영인본으로 간행한 데 이어, 2002년 연행록과 관련된 書誌的 기초자료들과 制度的 측면에 대한 자료정리를 비롯하여 연행록의 和答詩, 演戲記, 服飾, 對淸·對朝鮮 認識 등과 관련된 분야별 논문을 『연행록 연구』라는 단행본으로 묶어 내었다.¹⁾

※ 투고일 : 2009년 8월 27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1) 임기중 편, 2001, 『燕行錄全集』 제1~100권, 동국대학교출판부; 임기중 외, 2002, 『燕行錄研究』, 일지사. 한편 이영춘, 2006, 「麟坪大君의 燕行錄: 『燕途紀行』」, 『史學

이러한 작업에 이어 서울에서 의주를 거쳐 중국의 燕京(北京)까지 이르는 연행의 路程과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들이 단행본으로 묶여져 나왔고,²⁾ 연행 사들의 국토에 대한 인식, 실학자들과 중국 인사들의 교류관계, 사행길의 樂舞 公演, 연행을 통한 西學收容, 여행과 문학의 관점에서 연행을 파악한 연구, 연행을 통한 중국 서책의 求貿活動 등 연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서가 나오기에 이르렀다.³⁾

그러나 아직까지 연행사의 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검토작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북경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사신 일행이 활동하던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에 대한 연구는 연행사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연구분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쏟아진 연행 관련 논문들에서도, 사신의 留宿所(館舍)나 琉璃廠 등 사행의 활동공간을 직접 다룬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여⁴⁾ 활동공간 전반에

研究』 제82집, 한국사학회, 46쪽에 따르면 2004년 8월에 임기중 교수가 중국 滄州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그때까지 파악된 연행록을 모두 567종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한편 ‘연행록’이란 명칭과 관련하여 ‘朝天錄’과 비교할 때 부정적인 反淸認識이 반영된 용어이며, 사행의 목적지가 燕京(北京) 아닌 瀋陽 등의 경우에도 함께 사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중국 사행기록’이 보다 정확한 용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임기중, 2001, 「연행록과 한국학 연구」, 『한국문화연구』 24집, 11~12쪽 및 이를 인용한 김경록, 2006a, 「朝鮮時代 使行과 使行記錄」, 『韓國文化』 3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195쪽, 각주 12번 참고. 그러나 필자가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는 淸代에 한정되고 또 당대의 기록에 ‘燕行’이란 용어가 대다수의 대중국 기행록의 책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단 ‘對淸 使行이 남긴 私的 紀行文’을 가리키는 용어로 ‘연행록’을 사용하기로 한다.

- 2) 소재영 외, 2004, 『연행노정—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 3) 김태준 외, 2005,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필자도 이 책에 「조선후기 연행과 서학수용」이라는 제목으로 연행을 통한 ‘서학수용’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 글에서 서학 및 서양문물 수용과 관련된 공간을 설명하는 것은 필자의 이 기존 논문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보완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 4) 朝鮮使臣館과 관련하여, 祁慶富, 2004, 「明清時期北京的朝鮮使館」, 『亞細亞文化研究』 제8집, 경원대학교 아세아문화연구소·中國 中央民族大 韓國文化研究所; 김효민, 2004, 「연행의 길잡이」, 김태준 외, 『연행노정—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등이 있고, 유리장과 관련해서는 박현규, 2006a, 「조선 사신들이 견문한 北京 琉璃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각 공간의 시대적인 변화의 추이를 고찰하는 데는 더욱 미치지 못하고 있다.⁵⁾ 그런데 연행사의 활동공간

廠, 『연행록연구총서』 제10권, 학교방이 있다. 이외에도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으나 이 공간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연구로, 북경에서의 서적 구입과 관련된 김영진, 2005, 「조선후기 중국사행과 서책문화」,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북경의 거리 등지에서 벌어진 연극·연희 등과 관련된 임기중 외, 2002, 앞의 책; 북경 부성문 밖 선교사 묘지에 대한 조창록, 2006, 「鶴山 徐浩修의 『熱河紀遊』-18세기 西學史의 수준과 지향」, 『동방학지』 제13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박현규, 2006b, 「북경에서 조선인과 대면한 서방 선교사의 묘역(1)(2)」, 『교회와 역사』 제377~378호, 한국교회사연구소; 북경 내 연행사의 정보수집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영춘, 2006, 앞의 글; 김경록, 2006a, 앞의 글; 伍躍, 2007, 「朝貢關係と情報收集-朝鮮王朝對中國外交を考ふるに際して」, 夫馬進著編,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學 學術出版會; 북경 내 사대문서의 전달공간과 관련된 김경록, 2006b, 「조선시대 事大文書の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제134집, 한국사연구회; 김경록, 2005, 「朝鮮後期 事大文書の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조선사신관의 開市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이원순, 1992, 「赴京使行의 經濟史的一考-私貿易活動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論集-안(한국)과 밖(세계)의 만남의 역사』, 느티나무; 柳承宙, 1997, 「청과의 무역」, 『한국사』 33집, 국사편찬위원회; 金鍾眞, 1977, 「朝鮮後期 對淸貿易에 대한 一考察-潛商의 貿易活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43집, 진단학회; 황궁의 황제 측근 인물 및 북경 내 종교 공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소자, 1997, 「청국과의 관계」, 『한국사』 32집, 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및 金東錫, 2006, 「俞彦鎬의 『燕行錄』과 趙煥의 『燕行日記』에 대한 고찰-대청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제56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소 등의 논문이 있다. 한편 단행본으로,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 중 문명화된 공간으로서의 市肆와 都市에 대한 구조적 묘사와 함께 그 공간들의 18세기에 있어서 변화과정을 파악한 김현미, 2007,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도서출판 혜안은 필자의 분석 방법론과는 다르지만 연행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업적이 포함된 주목할 만한 책이다. 최소자·정혜중·송미령 역음, 2007,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북경을 포함한 18세기 청국 내 연행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가재연행록』, 『담헌연기』, 『을병연행록』, 『열하일기』 등의 기록을 세부 주제별로 모아서 편집 해설한 일종의 '대중적 자료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정은주, 2007, 「朝鮮時代 淸淸使行 關聯 繪畫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은 한중 회화교류를 주된 테마로 삼았지만 조선관의 이동과 치폐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한 논저로 조선 측의 연행록뿐 아니라 청조의 각종 관찬기록을 함께 활용한 고증이 치밀한 역작으로 평가된다. 필자는 조선관과 관련된 전거를 밝히고 고증작업을 하는 데에 정은주의 이 논저를 제한적으로 참고했다. 이상이 북경 내 연행사의 활동공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논저로 지적할 수 있고, 그 외에 明代의 對中國 사행기록과 淸代의 연행사 또는 연행활동 일반과 관련된 논문들은 본문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언급하였다.

은 조선 백성의 日用厚生을 위한 선진문물 수용이나 西勢東漸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서양문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활동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연행사의 對外觀 내지 海外文物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글은 이 같은 제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570종 이상의 방대한 연행록 중에서 약 400종 내외의 기록만을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의 진척 정도에 따라 상당부분 보완되고 때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다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⁶⁾ 연행록 외에 필자는 명·청대 이후 북경의 지리를 알 수 있는 고지도와 지리지, 조선 측의 관찬기록 및 연대기 등을 참고하여 활용하였다.⁷⁾

필자는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을 공적·사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기준은 대청관계에서 조선 사신의 모든 일정과 활동을 전반적으로 결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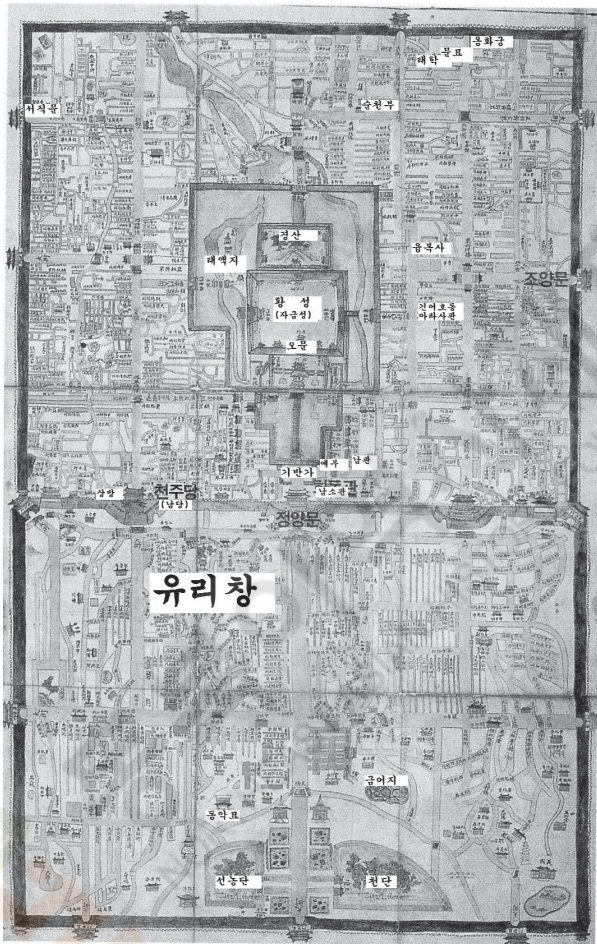
5) 이 글의 주제인 연행공간과 관련하여 비교적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했던 기존의 글들이 두 편 있다. 김성남, 2004, 『이야기로 읽는 한중 문화 교류사』, 프로젝트409는 비록 학술적 논문 수준의 註와 보다 자세한 典據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북경시대 전반에 대한 문화사적·통시대적 고찰을 하고 있는 대중용 교양서로 유익한 점이 많다. 정혜중, 2005, 『조선 선비의 청국 수도 北京 見聞 - 김창업의 稼齋燕行錄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제23집은 비록 시대가 18세기 전반 김창업의 연행시점을 초점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국내외 학자들의 동양사 관련 논문과 北京과 관련된 읍지 등 기본사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행사의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의 논지 전개에는 이 두 편의 글이 매우 유용하게 참고되었다.

6) 이 글은 앞의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소재의 연행록들을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삼았다. 여기에는 17세기 중반~19세기 중반까지 각 시기별로 그 서술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평대군 李潛(1622~1658)의 『燕途紀行』(1656년 연행), 金昌業(1658~1722)의 『燕行日記』(1712~1713년 연행), 이압(李押, 1737~1795)의 『燕行記事』(1777~1778년 연행), 金景善(1788~1853)의 『燕轅直指』, 徐慶淳의 『夢經堂日史』(1855~1856년 연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연원직지』는 편년체로 된 김창업의 『연행일기』, 記事體로 된 홍대용의 『燕記』, 立傳體로 된 박지원의 『熱河日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로 하여 저술된 것으로 모든 연행록의 집대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이화, 1976, 「해제」, 『연원직지』, 국역 연행록선집 X, 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7) 李誠 主編, 2005, 『北京歷史輿圖集』, 外文出版社; 吳長元 輯, 『宸垣識略』; 翁立, 2003, 『北京的胡同』, 북경도서관출판사; 김경선, 『通文館志』;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同文彙攷』.

고 통제, 감시한 淸朝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⁸⁾ 그중 공적 활동공간은 집무와 숙식활동의 공간인 朝鮮使臣館과 淸朝의 皇宮, 官府 및 황제 거동과 관련된 북경 일대의 儀禮場所 등을 양대 축으로 하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공문전달, 의례참석, 물품 전달·접수 등의 다양한 事大儀禮 행위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사적 활동공간은 위의 공간 이외의 북경 일대의 다른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람과 交遊活動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되, 이를 고유한 종교나 풍습, 제도와 같은 전통문화 공간과 西勢東漸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서양문화 공간 및 초청 양국 지식인과 물자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등으로 세분해 보았다.⁹⁾

- 8) 물론 조선의 입장에서만 연행사 활동을 살펴볼 때, 당시 북경 유람 중에 청조의 궁실이나 민간의 동정을 파악한다든가, 조선 국왕의 명을 받아 서적을 대량으로 구득하는 일 등은 분명 연행사의 공적 활동영역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청에 대한 사대조공이라는 기본틀 속에서 볼 때, 청조가 공식적으로 허락했던 일이라기 보다는 청조가 금지했지만 연행사가 비밀리에 수행했거나, 또는 청조가 원치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묵인해 준 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모든 활동의 감독·통제·허락의 주체가 되는 청조의 입장에서 초청 간의 공식적 대외관계에 속하는 공문과 공물의 전달 및 접수, 조회를 비롯한 각종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공적 활동으로 보고, 그 나머지 모든 활동은 사적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결국 조선과 청은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지만, 적어도 외형상 연행사의 활동은 청조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활동의 범주를 나누는 것도 결국 크게 달라질 수 없다. 한편 정해중, 2005, 앞의 글, 37쪽은 연행공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연행사의 활동을 공식 일정에 따른 활동, 개인적인 여정, 생활무대인 옥하관에서의 활동 등으로 3분하여 고찰하고 있어, 사행활동과 연행공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 9) 사실 이러한 구분은 다소간의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이 원칙적으로 조·청 양국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청조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였던 점에 기인한 구분법으로, 청조의 입장이 관철된 公·私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연행사 일행은 淸禮部에 속한 회동관 提督과 그의 지휘를 받는 大使·序班·通官·甲軍 등에 의해서 옥하관을 포함한 북경 전 지역 내의 출입통제, 물품매매와 인적 교류상의 감시와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록은 조선시대 외교활동이 사행들의 문서전달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서전달 이외의 구체적인 활동은 중국의 법제에 따라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김경록, 2006a, 앞의 글, 211쪽. 필자는 사행이 북경에 머무는 기간 중에 청조와의 외교관례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상호 인사, 공문과 물품수수, 조회나 공적 면담 등의 공간을 공적 활동공간으로 보았고, 이와 반대로 청조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면서도 점차 조선 사신들의 자율적 활동에 맡겨둔 공간에서 이루어진 각종 遊覽, 購貿, 交遊活動의 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규정해 보았다. 한편 이를 조선 사신



〈그림 1〉 북경 내 연행사의 주요 활동공간

그림 1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6층)에 소장된 『各國圖』(古2802-1) 중 제2도인 「燕京城市圖」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이하 본문에서 설명할 연행사의 주요 활동무대로 생각한 곳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일행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연행시 개개인의 직책에 따라 그의 활동영역을 공·사로 구분해 볼 수도 있겠으나, 당시 연행시 일행은 모두 일정한 職役을 갖고 연행하였으므로 그들의 북경 내 활동은 광의의 범주에서 볼 때 모두 公의 活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活動空間의 公私區分이 무의미해지게 된다.

동 도서관의 지도 해제에 따르면, 제작시기는 알 수 없고 다만 李命圭·姜彝中 등 2인이 북경의 「首善全圖」를 보고 모사한 것으로, 모사본의 크기는 가로 63.6cm, 세로 107.0cm에 이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필자가 원본 지도의 제작시기를 추정해 보면, 조선 사신의 숙소로 南小館만이 '회동관'으로 표기되어 있고(*필자가 남관으로 표기한 것은 원본에 없는 것임), 南堂을 제외한 동·서·북의 3천주당(가톨릭교당)이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아마도 19세기 전반기 이후의 지도로 추정된다. 한편 지도에서 건어호동 아라사관으로 표기된 곳에도 '천주당'이라는 표기가 있으나 그곳은 가톨릭교당이 아닌 러시아 정교회당을 淸인들이 이렇게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II. 공적 활동공간

1_ 집무와 숙식활동의 공간 - 조선관

앞에서 제시한 공적·사적 활동공간을 구분할 때, 공적 활동공간에 속하면 서도 북경 내 연행사 활동의 중심무대로서 사실상 공·사의 모든 활동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使臣들의 숙소이자 집무 관사였던 朝鮮館은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무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선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약 400종의 연행록을 분석하여 표 1로 만들어 보았다.¹⁰⁾

10) 표 1은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100권, 258~278쪽 「연행 연대순 목록」에 입학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연행록은 물론이고 『동문회고』 등 관찰기록에 나오는 모든 연행사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모든 연행사에 대해서는 정은주, 2007, 앞의 글, 488~510쪽의 「조선사신 대청 출래표」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 1〉 17~19세기 연행사의 북경 내 유관 일람표 - 행차선후와 동일저자 순서로 배열

출발 연월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 / 出禁	권-쪽수
1645. 3	進賀兼謝恩使	書狀官	成以性	燕行日記	明朝巨卿家(正使大君) 玉河館(副使以下) 9일 유관	소현세자 表報로 급히 귀국. 유람 못함	18-131
1646. 2	謝恩兼陳奏使	正使	李景爽	燕行錄	玉河館(舊名 烏蠻館)	관련 기록 없음	18-117
1649. 3	進賀兼謝恩使	正使	鄭太和	陽坡朝天日錄	玉河館(玉河橋邊空家) 留館 16일		19-131
1649.11	謝恩陳奏兼三節年貢使	正使	仁興君李瑛	燕山錄	會同館(渡玉河橋入接) 에 49일 유숙 蒙古館舍(正使大君)	使臣館 出入時 馬牌 使用	19-479
1652. 8	謝恩使	副使	申濡	燕臺錄	玉河館에 16일 유숙	魯連이 燕市 유람	21-43
1653. 1	謝恩兼陳奏使	正使	麟坪大君 李滄	미상(?)	미상(?)	留館 중 天壇에 유람	22-11
1653.11	三節年貢使	正使	沈之源	癸巳燕行日乘	玉河館에 36일 유숙	元旦에 皇宮 朝參	18-79
1656. 8	謝恩使	正使	麟坪大君 李滄	燕途紀行	留館 38일 別館(籍沒王公家) 玉河館(副使以下)	天壇과 太液池의 遊觀을 허락받고 감기로 못감	22-11
1660. 1	謝恩使	同一 무명씨 (역관?)	燕中聞見	미상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1차	96-358	
1663. 5	陳恩兼進香使			미상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2차	96-377	
1676.10	三節年貢使			玉河館에 유숙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3차	96-338	
1679. 7	進賀兼謝恩使			玉河館에 유숙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4차	96-295	
1682. 2	問安使			미상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5차	96-330	
1682. 7	進賀兼謝恩陳奏使			玉河館에 유숙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6차	96-280	
1683.11	三節年貢使			옥하관(?)에 유숙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7차	96-352	
1684.10	謝恩兼三節年貢使			옥하관(?)에 유숙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8차	96-346	
1686.11	謝恩兼三節年貢使			옥하관(?)에 유숙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9차	96-312	
1688.11	三節年貢使			미상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10차	96-328	
1689.10	陳恩兼進香使			미상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11차	96-319	
1691. 7	謝恩兼陳奏使			미상	동일인의 총 12차 중 제12차	96-365	
1660.10	三節年貢使	正使	趙珩	翠屏公燕行日記	玉河館에 29일 유숙	館門團東 甚嚴, 順治帝 崇서, 康熙帝 등극	20-201

출발 연월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出禁	권-쪽수
1662. 7	進賀兼陳奏使	正使	鄭太和	壬寅飲水錄	玉河館에 28일 유숙	館內에서 원승이 재주 관람, 商賈 入館(開市), 午門前 馴象儀仗관람	19-353
1663. 5	陳慰兼進香使	正使	朗善君李侯	朗善君癸卯燕京錄	玉河館에 25일 유숙	館內에 幻術人 招入 관람	24-397
1664. 2	謝恩兼陳奏使	正使	洪命夏	燕行錄	玉河館에 27일 유숙		20-245
1666. 9	謝恩兼陳奏使	副使	南龍翼	燕行錄	玉河館에 유숙		23-147
1668.10	三節年貢使	書狀官	朴世堂	西溪燕錄	玉河館(渡玉河橋至會同館)에 34일 유숙		23-337
1674.11	進賀兼三節年貢使		미상(?)	燕中聞見	玉河館에 유숙		95-11
1677.11	謝恩兼三節年貢使	書狀官	孫萬雄	燕行日錄	玉河館에 35일 유숙		28-305
1678.10	謝恩進賀陳奏兼三節使	書狀官	金海一	燕行日記	玉河館에 52일 유숙	文書와 貢物에 문제 발생, 사건 해결에 지체됨	28-193
1682. 7	進賀謝恩兼陳奏使	書狀官	韓泰東	兩世燕行錄	玉河館에 42일 유숙		29-203
1686. 6	謝恩兼陳奏使	書狀官	吳道一	丙寅燕行日乘	玉河館	大鼻獐子에 대한 관심	29-143
1689.10	陳慰兼進香使	副使	金海一	燕行日記續	玉河館에 19일 유숙		28-227
1690.11	謝恩兼三節年貢使	副使	徐文重	燕行日錄	玉河館에 39일 유숙	文物制度에 관심	24-165
1693. 5	謝恩使	副使	申厚命	燕行日記	玉河館에 36일 유숙		28-101
1695.11	三節年貢使	副使	洪受疇	燕行日錄	留館 49일 (玉河)北館 - 三節使 (玉河)南館 - 謝恩使	天主堂, 園子監, 雍和宮, 文丞相墓 등을 차례로 유람	39-11
1699.11	謝恩兼三節年貢使	副使	姜銑	燕行錄	留館 48일 督捕司, 후에 玉河館으로 移接	大鼻獐子가 옥하관을 선점하여 독포사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禮部의 배려로 다시 옥하관으로 옮김	28-501
1701. 9	告訃使	書狀官	孟萬澤	閒閒堂燕行錄	유관 32일 胥班들의 廚房을 빌려 임시거처. 3일 후 수리한 玉河館으로 入居	開市; 回還이 가까움을 의미 (*이전 고부사 20일 유관)	39-187~274

출발 연월일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 / 出禁	권-쪽수
1701.10	告訃使	正使	姜親	看羊錄	詩, 일정 기록 없음		30-11~54
1704.10	三節年貢使	正使	李頤命	燕行詩	隆福寺에 寓居	서양인 蘇霖 戴進賢 來見于館中, 天主教 曆象에 관한 문답	34-79
1704.10	三節年貢使	正使	李頤命	燕行雜識	도착시기 기록 없음 이전에 法華寺에 머문 적이 있다고 말함	서양인 蘇霖 戴進賢 來見于館中, 天主教 曆象에 관한 문답	34-107
1704.10	三節年貢使	正使	李頤命	燕行雜識	필체는 다르나 위와 같은 기록임	위와 같음	34-107
1706.10	三節年貢使	正使	俞得一	燕行日記鈔	표제: 燕行日記鈔 내제: 熱河日記鈔	해당사항 없음	30-503
1708.11	三節年貢使	書狀官 (?)	金始煥 (?)	燕行日記	도착시기 기록 없음 玉河館에서 유숙	옥하관 부지가 낮고 오목한데(玉河館 坐地 卑凹) 사방의 담이 높아 헤 뜨는 것만 바라본다고 함(四垣丈高 只望日出)	39-341
1712. 2	謝恩使	副使	閔鎮遠	燕行日記	東城內 智化寺에 46일 유숙, 玉河館에는 大鼻 獐子가 留住	行路 주변 山河 상세히 묘사한 지도에 명칭 기록함. 提督, 開市官 등이 賂銀 적다고 사행 귀국 지연시킴.	34-293
1712. 2	謝恩使	閔鎮遠	燕行錄	글 자체는 다르나 위의 내용과 동일함		禮部에서 下馬宴 거행하고 같은 날 館所(智化寺)에서 上馬宴을 거행함.	36-139
1712.11	謝恩兼三節年貢使		金昌業	燕行填鏡錄	도착시기 기록 없음 玉河館에 유숙	필자는 정사 金昌集의 동생 문제는 詩	34-11
1712.11	謝恩兼三節年貢使		金昌業	연형일기 稼齋燕錄	?	한글 고문	31-83
1712.11	謝恩兼三節年貢使	打角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表題: 稼齋燕行錄	玉河館에 47일 留接 (12/27~2/15)	過玉河橋數百步許 至館 館在路旁北邊 / 옥하관 3개의 문; 大門內 淸通官 / 中門內 조선 譯官居處 / 小門內 三使居處	32-287
1712.11	謝恩兼三節年貢使		金昌業	燕行日記	玉河館에 47일 留接 (12/27~2/15)		31-271 32-11

출발 연월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出禁	권-쪽수
1712(?)			洪致中	燕行錄	구체적 출발 도착 일정 기록 없음		34-455 35-11
1712.11	謝恩兼三節年貢使		崔德中	燕行錄	유관 기록 불명		39-395
1713.10	三節年貢使	正使	趙泰采	癸巳燕行錄	구체적 일정 기록 없음		34-165
1713.10	三節年貢使	書狀官	韓祉	兩歲燕行錄	?		34-262
1719.10	三節年貢使	副使	趙榮福	燕行日錄	옥하관에 49일 留宿	西洋人 3인이 來館 西域과 西洋의 차이 問答	36-11
1719.10	三節年貢使	副使	趙榮福	燕行別章	餞別詩. 일정 기록 없음		36-443
1720.11	三節年貢使	正使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南城 隅僻地에 위치한 北極寺에 留接 일정 기록 없음	大鼻獐子가 玉河館에 先入	35-345
1720.11	三節年貢使	正使	李宜顯	庚子燕行詩	詩 일정 기록 없음		35-155
1721. 3	謝恩使	副使	李正臣	燕行錄	玉河館에 1일 留宿後 歸還		34-189
1721.10	陳奏奏請兼三節年貢使	書狀官	俞拓基	燕行錄(辛丑)	구체적 일정 기록 없음	天主堂, 觀象臺 관련 기록	38-71
1723. 8	陳慰兼進香使	書狀官	黃晷	癸卯燕行錄	玉河館에 22일 머무	光祿寺에 進香祭物 呈納 戶部에 方物 등 呈納	37-261
1723.	聖節兼問女使		李宜萬	農隱入瀋記	해당사항 없음		30-55
1724. 3	進賀兼謝恩使	副使	權以鎭	燕行日記	玉河館에 40일 유숙		35-105
1725. 4	謝恩兼陳奏奏請使		趙文命	燕行錄	玉河館에 50일 남짓 유숙		37-11
1725. 4	謝恩兼陳奏奏請使		趙文命	燕行錄	필체는 다르나 내용은 동일함		37-71
1725.11	三節年貢使	正使	金興慶	燕行詩贈季君	詩. 일정 기록 없음		65-377
1729. 8	謝恩使		金舜協	燕行錄	북경 출입 기록 없음		38-165
1729. 8	謝恩使		金舜協	燕行日錄	난필 판독 곤란		38-481
1731.11	謝恩兼三節年貢使	副使	趙尙綱	燕槎錄	詩. 일정 기록 없음		37-131

출발 연월일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 / 出禁	권-쪽수
1732. 7	進賀兼謝恩使	正使	李宜顯	壬子燕行 詩	詩. 일정 기록 없음	천주당 관람	35-243
1732. 7	進賀兼謝恩使	正使	李宜顯	壬子燕行 雜識	북경 출입날짜 없음	천주당 관람	35-481
1732. 7	進賀兼謝恩使	副使	趙最壽	壬子燕行 日記	낙질. 해당사항 없음		50-347
1732. 7	進賀兼謝恩使	書狀官	韓德厚	燕行日錄 (承旨公燕 行日錄)	乾魚齋新創之館(別 館)에 25일 유숙	천주당 관람, 上馬宴과 下馬 宴 賞物授與, 동일거행	50-151
1732. 7	進賀兼謝恩使	書狀官	韓德厚	承旨公燕 行日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50-11
1732. 7	進賀兼謝恩使	書狀官	韓德厚	燕行日錄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9-323
1737. 7	進奏兼奏請使	書狀官	李喆輔	燕槎錄	詩. 일정 기록 없음		37-303
1737. 7	進奏兼奏請使	書狀官	李喆輔	丁巳燕行 日記	宮城 東南一隅의 智化 寺에 37일 留宿	천주당 관람 (天柱寺, 天柱堂 등으로 표기)	37-415
1738.			金相國	燕行離行 帖	詩. 해당 사항 없음		69-287
1740.11	謝恩兼三節年 貢使	書狀官	洪昌漢	燕行日記	留館기간 낙질 미상 관소는 未詳(우하관?)	三使가 大鼻(獐子) 館所 방문 관소를 떠나는 날 禮部에서 하마면, 館所에서 상마연을 거행	39-85
1743. 7	問安使	正使	趙顯命	燕行錄	詩. 해당 기록 없음		38-11
1745.11	三節年貢使	正使	趙觀彬	燕行詩	南館에 50일 머무 詩의 題目과 內容에 나옴		37-547
1749.11	三節年貢使兼 謝恩使	書狀官	俞彥述	燕京雜識	해당 사항 없음		39-275
1754. 7	問安使	正使	俞拓基	瀋行錄(瀋 使還渡江 啓別單)	해당 사항 없음		38-138
1755.11	三節年貢使兼 謝恩使	副使	鄭光忠	燕行日錄	北館에 48일 유숙. 南館의 進賀兼謝恩使 일행을 종종 尋訪	西天主堂(=南堂) 방문, 欽天 監正 劉松崙과 筆談	61-11

출발 연월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出禁	권·쪽수
1760. 7	進賀兼謝恩使	副使	徐命臣	庚辰燕行錄	北門 10여 리의 館所 (북관?)에 50일 유숙		62-11
1764. 3	參覈使	正使	金種正	瀋陽日錄	해당 사항 없음		41-177
1765.11	三節年貢使兼謝恩使		洪大容	湛軒燕記	庶吉士館 옆의 玉河館 (南館)에 약 60일 유숙	琉璃廠 味經齋書坊을 尋訪 西洋人 劉松齡 鮑友官을 尋訪	49-11 42-11
1765.11	三節年貢使兼謝恩使		洪大容	을병연형 록 (乙丙燕行錄)	한글고문. 낙질 해당 기록 없음		43-245
1768.10	三節年貢使兼謝恩使		李器之	燕行詩	詩. 해당 사항 없음		37-291
1773.11	謝恩兼三節年貢使	副使	嚴 璫	燕行錄	南館(옥하관)에 42일 유숙		40-139
1776(?).			미상(윤 소제?)	연형록(仁 義禮智信, 한글본)	저자는 副使의 仲黨	연기, 일정 파악이 난이함	67-201
1777.10	進賀謝恩陳奏兼冬至使	副使	李 岬 (押)	燕行記事	南小館에 留宿 43일		52-273
1778. 3	謝恩兼陳奏使	正使	蔡濟恭	함忍錄 (上·下)	詩. 使館(=南小館)에 30일 유숙		40-309
1778. 3	謝恩兼進奏使		李德懋	入燕記 (上·下)	朝陽門 18里 南館에 30일 유숙	天主館, 象園 방문. 琉璃廠 의 五柳居 都氏 尋訪. 隆福 寺 開市 구경	57-187
1780.10	進賀兼謝恩使		朴趾源	熱河日記	宣武門 부근의 西館에 약 31일 留宿(*열하여 행기간 15일 제외)	琉璃廠의 五柳居 冊肆의 주 인 唐樂을 찾아감 「皇都紀略」에 虎園, 天主堂, 象房, 孔雀園, 琉璃廠 기술 「講聖退述」에 太學, 石鼓, 觀象臺, 朝鮮館 기술	53-249 54-11
1780.	?		盧以漸	隨槎錄	西館에 46일 유숙	琉璃廠 방문. 西天主堂(=南 堂) 앞을 지남	41-11
1782.10	三節年貢使兼謝恩使	副使	洪良浩	燕雲紀行	詩. 일정 기록 없음 南館 약 40일(?) 유숙		41-225
1783. 6	聖節兼問安使		李晚秀	輜車集	부친인 正使 陪從 詩. 南館에 유숙	琉璃廠, 圓明園 등 遊觀	60-329

출발 연월일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 / 出禁	권-쪽수
1784.			미상(?)	燕行錄	南館에 유숙 일정 미상	琉璃廠, 天主堂 遊觀	70-11
1786. 5	告訃齋咨官		沈樂洙	燕行日乘	南館에 27일 유숙		57-11
1786.	告訃齋咨官		沈樂洙	燕行日乘	필체는 다르나 내용은 위와 같음		57-99
1787.10	三節年貢兼謝 恩使	正使	俞彥鎬	燕行錄	南小館에 40일 유숙		41-359
1789.10	進賀謝恩兼三 節年貢使		金祖淳	燕行錄	正使의 伴黨인듯. 해당사항 없음		65-339
1790. 5	進賀兼謝恩使	副使	徐浩修	熱河紀遊 (元, 亨, 利, 貞)	南館에 유숙	圓明園, 利瑪竇墓에 대해 기록	51-325
1790. 5	進賀兼謝恩使	副使	徐浩修	燕行記	南館에 38일 유숙		50-403 51-11
1791.10	冬至兼謝恩使		金士龍	燕行日記	필자는 正使의 伴黨 조양문 10리 南館 유 숙. 낙질로 일정미상	圓明園, 琉璃廠, 象坊 등은 방문했으나 天主堂은 無言 及	74-11
1791.10	冬至兼謝恩使		金士龍	燕行日記	南館에 36일 留宿 내용은 위와 같음		74-57
1791.10	冬至兼謝恩使		金士龍	燕行日記	南館에 36일 留宿 내용은 위와 같음		74-355
1791.10	冬至兼謝恩使		金正中	燕行錄	필자는 正使의 伴黨 南館에 36일 留宿		75-11
1793.10	三節年貢兼謝 恩使	副使	李在學	癸丑燕行 詩	詩. 일정 기록 미상 南館에 유숙		57-459
1793.10	三節年貢兼謝 恩使	副使	李在學	燕行日記 (上, 中, 下)	南小館에 39일 유숙	圓明園에 遊覽	58-11
1794.10	三節年貢兼謝 恩使	正使	洪良浩	燕雲紀行	詩. 일정 기록 미상 南館에 유숙		41-225
1794.10	三節年貢兼謝 恩使	正使	洪良浩	燕雲續詠	詩. 일정 기록 미상		41-299
1796(?)			李邦翼	漂海歌	국한문 혼용체. 江南에 표류, 귀환 북경 朝鮮館에 머뭄		61-85
1798.10	三節年貢兼謝 恩使		미상(?)	燕行錄	玉河館(남소관) 유숙 일정 기록 미상	隆福寺 自鳴鐘에 대해 기록 致亨과 子頌이 天主堂을 관 람한 사실을 기록함	62-349

출발 연월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 / 出禁	권-쪽수
1798.10	三節年貢兼謝 恩使	書狀官	徐有聞	戊午燕行 錄	玉河館(남소관) 49일 유숙	隆福寺 自鳴鐘에 대해서 致 후의 진술 기록	62-257
1798.10	三節年貢兼謝 恩使	書狀官	徐有聞	戊午燕錄	玉河館(남소관) 유숙 일정 기록 미상		62-159
1798.10	三節年貢兼謝 恩使	書狀官	徐有聞	무오연행 록	한글고문		62-449
1801. 2	謝恩使		柳得恭	遼野車中 雜詠	詩. 일정 미상 북경 숙소 기록 없음		60-35
1801. 2	謝恩使		柳得恭	竝世集	詩. 일정 미상 북경 숙소 기록 없음	圓明園에 대한 기록	60-49
1801. 2	謝恩使		柳得恭	熱河紀行 詩	詩. 일정 미상 북경 숙소 기록 없음	圓明園에 대한 기록	60-11
1801. 2	謝恩使		柳得恭	燕臺錄	朱子書 善本 購買次 일정 미상	琉璃廠 서점 방문	60-191
1801. 2	謝恩使		柳得恭	燕臺再遊 錄			60-259
1801.10	冬至兼陳奏使	書狀官	李基憲	燕行日記 啓本	南小館에 41일 유숙	圓明園에 대한 기록	65-283
1801.10	冬至兼陳奏使	書狀官	李基憲	燕行詩軸	詩. 일정 미상	圓明園 및 象坊에 대한 기록	64-363
1801.10	冬至兼陳奏使	書狀官	李基憲	燕行日記 (上,下)	南小館에 41일 유숙	圓明園에 대한 기록	65-11
1803.10	三節年貢使	書狀官	徐長輔	薊山紀程	南館(옥하관)에 37일 유숙	南館, 北館에 대한 설명 琉璃廠, 圓明園, 天主堂 기록 邪學禁書으로 天主堂과 不 得相通한다고 기록	66-11
1805. 2	告言使	書狀官	姜浚欽	燕行錄(輶 軒錄)	詩. 일정 기록 없음	琉璃廠, 圓明園에 대한 기록	67-11
1805.10	進賀兼謝恩使	副使	李始源	赴燕詩	朝鮮館(南館)에 유숙 詩. 일정 기록 없음	禮部의 主客司에서 조선사 신 專管한다는 註記	68-379
1805.			李鳳秀	赴燕詩	詩. 일정 기록 없음		67-107
1808.	進賀謝恩兼冬 至使		미상(?)	西行錄	詩. 해당 사항 없음		77-377
1812. 7	陳奏兼奏請使	書狀官	申緯	奏請行卷	詩. 일정 기록 없음		67-65
1812. 7	陳奏兼奏請使	正使	李時秀	續北征詩	날짜 구별 없음		57-345
1816.10	冬至兼謝恩使	正使	李肇源	黃梁吟	詩. 일정 기록 미상 南館에 유숙	유리창에 대한 기록	61-111

출발 연월일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 / 出禁	권-쪽수
1818. 4			崔斗燦	乘槎錄(江海乘槎錄)	제주도 표류, 북경 거쳐 귀국	관련 기록 미상	68-431
1818.			成祐曾	茗山燕詩錄(地)	일정 기록 미상 해당 내용 없음		69-141
1822.10	冬至兼謝恩使	書狀官	徐有素	燕行錄	일정 기록 미상		79-11
1828.			미상(?)	赴燕日記	南館에 유숙	圓明園에 대한 기록	85-11
1828. 4	進賀兼謝恩使		金芝叟	서행록(西行錄)	한글고문, 가사체		70-127
1828.10	謝恩兼冬至使		朴思浩	心田稿(燕薊紀程)	南小館에 39일 유숙	圓明園에 다녀옴	85-203
1828.10	謝恩兼冬至使		미상(?)	燕紀程(天地人) 內題: 燕薊紀程	正使 洪起燮의 伴行 南小館에 39일 유숙	圓明園에 대한 기록	98-209
1829. 7	問安使	書狀官	朴來謙	潘槎日記	심양에 머물러 해당 내용 없음		69-11
1829.11	進賀兼謝恩使	書狀官	姜時永	輻軒續錄	南小館에 38일 유숙	下馬宴·上馬宴을 동일에 치름	73-11
1831.10	冬至兼謝恩使		미상(?)	燕行日錄	正使의 伴行 南館에 50일 유숙	隆福寺 開市 觀覽	86-77
1831.10	冬至兼謝恩使	正使	鄭元容	燕行日錄	南館에 50일 유숙	琉璃廠에 買冊, 往還	69-341
1831.10	冬至兼謝恩使	正使	鄭元容	燕行日錄			69-363
1832.10	冬至兼謝恩使	書狀官	金景善	燕轅直指	玉河館(남관)에 48일 유숙	英國 漂船 기록 玉河館記, 東·西天主堂記, 琉璃廠記, 圓明園記, 利瑪竇墓記, 觀象臺記	70-245 (낙질) 민추 연 행록선집 (권10)으로 보충
1848.			李遇駿	夢遊燕行錄(上,下)	玉河館(남관)에 유숙 하권 낙질, 일정 미상		76-353
1849.			미상(?)	燕行日錄(元,亨,利,貞)	皇室喪事に 모든 기사 도배. 사신 일정 미상	조선 憲宗, 清 道光帝의 崩御와 咸豐帝의 登極	90-11
1850.10	進賀兼謝恩歲幣使		權時亨	石湍日記(天地人)	正使 權大肯의 伴行 낙질, 通州까지 기사만 나옴		90-327

출발 연월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出禁	권-쪽수
1851. 1	陳奏兼謝恩使	正使	金景善	出疆錄	玉河館에 30일 유숙		72-395
1853. 4	進賀兼謝恩使	正使	姜時永	輶軒三錄	南小館에 70일 유숙		73-341
1855.10	陳慰進香兼謝恩使	書狀官	申佐模	燕槎紀行	詩. 일정 기록 없음		75-455
1855.10	陳慰進香兼謝恩使	書狀官	申佐模	燕行雜記	일정 기록 미상	匪徒에 관한 聞見事件	75-483
1855.10	陳慰進香兼謝恩使		徐慶淳	夢經堂日史	正使 徐嘉淳의 伴行 南小館에 26일 유숙	圓明園 유람 琉璃廠 서점가에서 匪徒 所 聞 들음	94-153
1855.10	冬至兼謝恩使	書狀官	姜長煥	北轅錄	앞부분 낙질로 일정과 관소 미상		77-261
1856. 2	進賀兼謝恩使		朴顯陽	朴顯陽燕 行日記(燕 行日記全)	正使 朴齊憲의 伴行 南小館(四譯會同館)에 27일 유숙	우리창 서점에 들름	91-387
1859.10	冬至兼謝恩使	書狀官	高時鴻	燕行錄	玉河館(=남관)에 39일 유숙		92-11
1860. 윤3월	聖節進賀兼謝恩使	副使	朴齊仁	燕行日記 燕槎錄	西館(玉河館)에 38일 유숙		76-11
1860.10	冬至兼謝恩使	正使	申錫愚	入燕記	南小館(四譯會同館)에 유숙. 일정 미상		77-153
1860.			미상(?)	燕行日記 (燕行錄)	玉河館(=남관)에 38일 유숙		92-129
1862.			崔秉翰	燕槎從遊 錄	일정 기록 없음		78-233
1862.			李匡愷	燕行日記	玉河館(남관)에 41일 유숙	琉璃廠에 遊觀 鄂羅斯館에 往還	93-11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正使	柳厚祚	燕行日記	南館(四譯館)에 유숙 뒷부분 일정 미상	南館(四譯館)의 북쪽 대로변 에 西洋館 있음. 기해년 이 후 출입금지 기록	75-311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燕行歌(北 轅錄)			87-11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연행곡[內 題: 燕行 歌]	한글고문 가사제 3-4-3(4)-4조	고종의 嘉禮와 閔妃의 王后 冊封을 奏請하는 사신	87-59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燕行錄			87-185

출발 연월일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 / 出禁	권-쪽수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연행가 (燕行歌)	여러 풍물, 사정을 상세히 서술	여러 文士들과 상호방문, 筆談 交流 유리창 서점가 등 장안 市肆 상행위, 음식, 걸인 묘사	87-265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연행가 (燕行歌)			87-373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燕行錄			88-11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연행가 (燕行歌)			'옥하관', '해동관' 표기한 南館에 40일 체류	88-385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연행록 (燕行錄)				89-11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書狀官	洪淳學	燕行錄 (연행기)				89-169
1866. 4	進賀謝恩兼奏 請使		柳寅睦	북행가 (北行歌)			일정 기록 미상	86-287
1866. 4			미상(?)	燕行路程 記	玉河館에 유숙 간단한 노정만 열거	86-371		
1869.10	冬至兼謝恩使	正使	李承輔	燕行詩	목록만 제시	78-11		
1869.10	冬至兼謝恩使		成仁浩	遊燕錄	玉河館에 49일간 유숙	유리창 서점 寶文齋 방문 78-29		
1873.10	謝恩兼冬至使	正使	鄭建朝	北植談草	玉河館(?)에 약 50일 유숙	淸 禮部尙書와 筆談	78-317	
1876. 5	進賀兼謝恩使	副使	林漢洙	燕行錄	玉河館(會同四譯館)에 26일 유숙	彭老爺家 방문 洪瀾嵐 書信 전달	78-109	
1876.10	謝恩兼歲幣使	副使	李容學	燕薊紀略	玉河館에 46일 유숙	98-11		
1881. 9	領選使	正使	金允植	天津談草	해당 사항 未記	天津 保定府에서 北洋大臣 李鴻章 등 여러 政客들과 軍 事, 海關, 外交 등에 관해 대답	93-205	
1882. 7			魚允中	西征記	해당 사항 미상	김윤식과 領選使事 등 논의	89-357	
1882. 7			權復仁	天游稿燕 行詩	玉河館에 유숙	유리창 서점 등 유관	94-11	
1887.	進賀兼謝恩使	正使	李承玉	燕槎日記	會同四譯館(옥하교 西, 東城根) 70일 유숙	유리창, 隆福寺市 등 관람	86-99	
1890. 5	告訃使	正使	洪鐘永	燕行錄	玉河館에 42일 留宿	86-403		
?			윤소계 (?미상)	연행록(仁 義禮智信)		계축년(?) 8월	96-379	

출발 연월	사행명칭	직책	이름	저서명	유숙소	북경 내 遊覽/出禁	권·쪽수
?			鶴山? 金司樞 公	燕行讖章	餞別詩. 해당 사항 없음	무오년(?) 동지사(?)	98-135
?			미상(?)	燕轅日錄 (권1-6)	玉河館에 유숙 약 110일 유숙	무자년 연행. 용복사 관람, 유리창 서적 구입	95-217 96-11
?			미상(?)	燕行錄	玉河館(會同館)에 유숙	을묘~병진년 사행기록	99-201
?			미상(?)	燕行錄	玉河館에 유숙		99-281
?			미상(?)	燕行日記	낙질, 기록 미상	北京 巨商 鄭世泰의 아들이 사신들에게 화분을 보내줌.	99-383
?			安孝鎮	華行日記	미상		99-483

* 권·쪽수는 임기중 편, 2001, 『燕行錄全集』 제1~100권, 동국대학교출판부의 해당부분 시작 페이지임.
* 위 책을 참고로 하되 누락된 곳은 최대한 보완하고 다소의 오류는 수정하여 표를 작성한 것임.
* 제100권에 나오는 연행과 관련된 여러 지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표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 하였음.

조선 후기의 연행사가 북경에 머물 때 유숙하던 館所인 조선관은 매년 정기적 사행이던 冬至使(節使)의 경우, 대략 음력 12월 20일 전후부터 이듬해 1월 말 내지 2월 초까지 대략 40~50일 정도 머물렀음을 표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¹⁾ 이 조선관은 각종 공적 儀禮와 일부 사적 활동까지 수행하던 북경 내 연행사 활동의 중심공간이었다.

청대의 지방지에는 조선관이 會同館으로 기록되며,¹²⁾ 실제로 관사의 대문

11) 『通文館志』 卷3, 事大(上), 赴京使行 留館日子, “舊例使行留館 定以四十日[出大明會典] 崇德以後 無定限 至康熙癸未 謝恩行稽帶 至於六十日之久.”(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년 영인·번역본, 165쪽) 한편 明代의 경우 다소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공간적으로는 會同館, 시간적으로는 1~2개월 정도로 북경 留館이 제한되어 있었고 외교활동의 대상도 회동관에 파견된 禮部의 관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경록, 2000, 『朝鮮初期 對明外交와 外交節次』, 『韓國史論』 제44집,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2) 정혜중, 2005, 앞의 글, 59쪽. 이에 따르면 회동관은 永樂 초년에 처음 설치되어 곧 남북 2관을 정식으로 두게 되었다고 한다. 이 중 남관은 조선을 비롯하여 오리랏트·일본·안남 등의 사신을 수용하고, 북관은 만주·몽골·서역 각지의 사신 및

에는 ‘四譯會同館’이라는 현관을 달고 있었다.¹³⁾ 조선의 사신들은 이미 明代부터 북경에 올 때 사실상 이 회동관에 머물며 업무를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淸代의 경우 서로 명목이 다른 우리나라 사신단이 잇따라 와서 북경에서 함께 활동하게 될 때면 두 개 이상의 관사를 사용했지만,¹⁴⁾ 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연행사들은 남관에 자주 머물렀고, 이 남관이 북경을 가로질러 흐르는 玉河가에 있었기에 玉河館으로 더 많이 불렸다.¹⁵⁾ 18세기 초반 숙종대에 저술, 初刊(1720)된 金慶門의 『通文館志』에 따르면, 조선 사신의 관소는 順治(1644~1661) 초에 玉河의 西岸에 설치하여 사행을 대접하였는데, 속명으로 이를 옥하관이라고 불렀다.¹⁶⁾ 그러나 조선 사신들이 거의 專用했던 이 남관도 청조의 북방 흑룡강 일대로 진출하여 청군과 자웅을 겨루던 러시아 사신들이 1689년 네르친스크(Nerchinsk)조약을 체결하고, 마침내 1690년대에 북경에 나타나게 되면서 일시적이거나 그들에게 부득이 양보하게 된다.¹⁷⁾ 그러나 그 이후에도 조선 사신들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하관으로 표기된 남관에

윤남·귀주·사천 등지의 토관 사자들과 각 왕이 파견하는 사람들을 수용하였다고 한다. 于敏中等編, 2000, 『日下舊聞考』(二) 卷63, 「官署」, 『北中京古籍叢書』, 北京古籍出版社.

- 13) 『燕轅直指』 卷2 出疆錄 玉河館記, “順治初年設此館 以處我使 以其在於玉河之傍 故名玉河館 或稱南館 乾隆壬辰年 賜名會同館 館門扁以會同四譯館.” ; 『燕行日記』(朴顯陽, 1856년 연행), “由朝陽門十里 至四譯會同館 僻在一隅也.”
- 14) 표 1에서 볼 때, 1695년 11월 동지사(삼절연공사)를 따라 연행한 洪受疇의 경우 조선에서 앞서 온 謝恩使 일행이 아직 북경에 머물고 있던 중에 방문함에 따라 사은사 일행이 머물던 남관이 아닌 북관으로 가서 유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55년 11월에 파견된 동지겸사은사 일행도 남관에 이미 머물고 있던 진하겸사은사 일행 때문에 북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 15) 후술하는 『通文館志』(卷3)와 정혜중, 2005, 앞의 글 ; 이영춘, 2006, 앞의 글 등 참조.
- 16) 『通文館志』 卷3, 事大(上), 赴京使行 入京, 會同館(順治初 設置於玉河西岸 以待之 俗名玉河館).
- 17) 표 1의 1699년 11월 연행한 사은겸동지사 부사 姜銑의 기록. 한편 이에 앞서 이미 1693년 11월부터 1694년 3월 사이에 청과 러시아의 국경조약인 네르친스크조약 이후 첫 러시아의 통상사절로 북경에 온 네덜란드인 이데스(I. Ides) 때문에 당시 조선의 동지사 柳命天 일행은 智化寺에 유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박태근, 1984,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이전의 한러교섭」, 한국사연구협회의회 편, 『한로관계100년사』, 20~21쪽.

대부분 머물렀으며, 종종 러시아 사신이 북경에 올 경우에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소를 양보하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임시거처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표 1에서 보듯이 1699년 11월에 연행한 謝恩兼冬至使 일행이 督捕司에, 1704년 연행한 동지사 일행이 隆福寺에, 1712년 2월에 연행한 사은사 일행과 1737년 7월 연행한 進奏兼奏請使 일행이 智化寺에, 1720년 11월에 연행한 동지사 일행이 北極寺에 각각 유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1704년 10월에 연행한 동지사 정사 李頤命은 그 자신이 이전에 法華寺에 머문 적이 있다고도 하였다. 아무튼 18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대청 사절은 비정기적인 사절로서 공식 업무기간 중에 일시 체류한 뒤 곧 북경을 떠나는 상황이었기에, 러시아 사절이 북경을 방문하지 않은 때에는 남관(남옥하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북경을 왕래하던 조선 사신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728년 청과 러시아는 카흐타(Kiakhta)조약을 맺고 그 조약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동관에는 러시아 정부가 파견하는 정교회 修道團(정교회 신부와 유학생 등 대략 10명 내외로 구성됨)이 상주하면서, 남관은 한동안 오로지 러시아인의 전용관사, 즉 俄羅斯館으로만 사용된다.¹⁸⁾ 이 무렵 조선의 연행사는 남관 대신에 건어호동의 적물가에 임시로 유숙하는데,¹⁹⁾ 이 관사가 러시아인들에게 다시 일방적으로 점거되자, 청조가 조선 사신들을 위해서 다시 옥하의 서쪽, 기존 옥하관에서 약 100여 보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庶常館과 담장을 맞댄 곳에 관소를 새로 지어 여기에 조선 사신들이 유숙하게 되는데, 이곳이 기존의 옥하관(남관)보다 좁은 관계로 南小館이라고 불렀으나,²⁰⁾ 후대에 가서는

18) 박태근, 1984, 위의 글, 22~24쪽. 한편 정은주에 따르면, 1715년 러시아가 북경에 전도사단을 파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청 예부가 동강미항(중옥하교 부근)의 회동관(남관)을 러시아인들을 위한 '아라사 남관'으로 개설하기 시작하여 1727년 이후 러시아인 전용관사로 삼았다고 한다. 정은주, 2007, 앞의 글, 116~118쪽.

19) 정은주, 2007, 앞의 글, 118쪽에 따르면, 1724년경 건어호동 관방이 개설되었는데, 주로 조선 사신들을 위해서 사용되다가 조선 사신을 위해 다시 안정문 대로상에 있는 內務府의 관방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한다.

20) 『燕行記事』(李垰, 1777년 12월 27일), “玉河館 …… 近來 大鼻孺子 連爲有接於此 不肯往他所 清人亦不敢拂其意 遂移我使館所 於橋南行一里許 遵城底 而西行小許 曰南小館.”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52권, 406쪽).

이곳을 다시 南館이라고도 불러 기존의 옥하남관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²¹⁾

한편 연행사 일행이 머문 곳은 이외에도 궁성 서남쪽의 西單牌樓 부근에 위치한 西館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780년 10월에 진하겸사은사 일행의 자체군관으로 연행한 朴趾源과 그와 함께 간 盧以漸 등은 宣武門 부근의 西館에 유숙했다고 하는데,²²⁾ 이때 박지원은 북경에 도착하자 곧바로 약 보름간 열하로 갔다가 북경으로 돌아왔고, 그의 연행록 이름을 『열하일기』로 지었다. 이 서관도 이전에는 청 관리가 사용하다가 죄를 지어 국가에 적몰된 곳으로 보통 여객집에 비해 관사가 매우 넓고 건물이 훌륭한 것이었는데, 박지원 일행이 이 관사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전의 사행이 남소관에서 失火를 하는 바람에 아직 건물 보수가 완료되지 않아서 남소관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임시로 서관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²³⁾ 그러므로 서관은 남소관의 일시 대용인 셈이다. 표 1을 통해서 보면 서관은 박지원 일행의 사행 외에는 사용한 예가 찾아지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로서 헤아려 볼 때, 연행사의 북경 내 활동공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使館이었던 조선관은 기본적으로 회동관 또는 회동사역관으로 불렸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른 이동이 많았지만 대체로 옥하의 서쪽 언덕에 있던 남관과 이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리 이상 떨어져 있었던 남소관이 가장 오랫동안 조

21) 『燕行日錄』(1831년 10월 冬至兼謝恩使 正使의 伴行), “(十二月) 十八日晴乍風 …… 三十里抵南館”; 이 연행록 저자의 이름은 알 수 없는데, 같이 연행한 서장관 김경선은 자신이 유숙한 곳이 좁아서 이전에 이미 관사 동쪽 담 밖에 집 하나를 사서 터가지고 용접하는 곳을 만들었다고 하여 이곳이 곧 南小館임을 알 수 있다. 『燕轅直指』 卷2 出疆錄 玉河館記, “聞舊患館窄不容 自我私買東牆外一屋 通爲容接之所.” 아래 각주에서 언급하는 노이점의 『隨槎錄』(1780년 8월 1일)에도 남소관을 南館이라고 지칭했다.

22) 『熱河日記』(1780년 8월 3일), “日出後 始開關門 遂與時大張福出館 步至瞻雲牌樓下 雇一兩太平車 …… 至宣武門”; 『隨槎錄』(1780년 8월 1일), “入禮部 直向西館 蓋我國使行 曾入於玉河館 中間 因大鼻獐子之來據 移入於南館 南館 在正陽門內 翰林院之傍 前年冬至使行時 轉入失火 尚未改造 故今行入於西館 西館即提督某人家 而罪籍入者 …… 館制甚高六 內舍廣四間 長六架 高幾四丈.”

23) 위와 같음.

회동관 남관)을 선점한 이후 수시로 이 관소를 자기들이 차지하여 조선이나 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를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청조가 이 관소를 대비달자에게 넘겨주었다. 그후 새롭게 ‘건어호동’의 적몰 가옥에 조선 사신을 위한 별관을 마련하여 주었으나,²⁴⁾ 이곳이 넓고 좋으므로 러시아 사신들이 욕심을 부려 또 이곳에 와서 차지하였고, 조선 사람들도 ‘乾魚’라는 말이 朝鮮이란 국명의 鮮과 연관하여 어감이 좋지 못한데다가 그 집이 雍正帝에 반역하여 사형을 당한 都統 滿丕의 집으로 그 가족이 만비와 함께 죽은 후 늘 귀신의 곡성이 들리는 등의 이유로 꺼림칙하게 생각했다.²⁵⁾ 결국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²⁶⁾ 1730년대에 조선관은 다시 서상관 옆의 남소관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²⁷⁾

24) ‘衢衢(胡同)’이란 북경 시내의 작은 골목을 일컫는 말로 큰 거리인 大街과 구분되는 말이다. 앞서 살펴본 『宸垣識略』에 따르면, ‘건어호동’은 청조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 북경 내성의 동남부분에 해당하는 鑲白旗에 속해 있었다. 翁立, 2003, 앞의 책, 5~9·260쪽 참조.

25) 『燕行記事』(李埤, 『聞見雜記』下), “如都統滿丕之類 亦於即位二年 以諸王之黨 律以笞箠 今乾魚衢衢館 卽其家也 中門之前 有一小井 當時閹家皆自裁 而婦女多投死於此井 故館中常有鬼哭聲 而此井尤甚云.”

26) 『燕行日記』(또는 『燕槎錄』, 1860년 윤3월 聖節進賀兼謝恩使 副使 朴齊仁, 1860년 5월 23일), “抵五十里玉河橋 到館 館在正陽門內棋盤街東 玉河橋西 館門揭日會同四譯館 蓋聞朝鮮館舊在玉河西畔 稱玉河館 後爲顯羅斯所占 清人之所不能制 遂設會同館于乾魚衢衢 因朝鮮之鮮字 用魚傍 故嫌乾魚之語 請移處於此云.”

27) 이와는 달리 정은주, 2007, 앞의 글, 116~118쪽에 따르면, 남소관은 1724년에 이미 개설되었고, 건어호동의 별관은 1737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연행록의 기록과 대조해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이압의 연행록(1777)이나 김경선의 연행록(1832)에 따르면 남소관을 개설한 것은 건어호동의 별관이 러시아인들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또 1737년 폐지된 것이 아니라 1832년 김경선의 시대까지 러시아인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정은주의 경우에는 러시아인들이 남관을 1720년대 이후 20세기 초까지도 계속 차지한 것으로 서술하면서 그 이유로 그들이 러시아관에 천주당을 설치했기 때문에 타국의 관원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정은주, 2007, 앞의 글, 116쪽). 그러나 필자가 제시한 ‘그림 1. 연경성지도’를 보면 19세기 초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도의 남관 자리에는 아무런 관사 이름이 붙어 있지 않다. 만약 러시아인들이 이 남관을 계속 사용했다면 이 누락은 지도 제작자의 단순한 착오로 해석되지만 그 사실 여부를 좀 더 추구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아무튼 필자는 연행록의 기록을 청조의 공식 기록에 비해 다소 객관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청조가 그들의 제

한편, 앞서 살펴본 바 연행사의 숙소로 정해진 곳이 어떤 사정에 따라서 임시거처로 밀려난 경우와는 달리,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연행사들 중에서도 大君 등 宗親이 정사로 올 때는 그를 특별 대우하여 부사 이하와는 달리 별도의 숙소인 別館에 대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636년 병자호란으로 청의 심양에 인질로 끌려간 인조의 장남 昭顯世子는 동화문 안쪽의 宮城(紫金城)에 위치한 文淵閣에 머물렀으며,²⁸⁾ 소현세자의 동생인 麟平大君 李滄(1645년 3월 연행한 進賀兼謝恩使 정사), 仁興君 李瑛(1649년 11월 연행한 謝恩陳奏兼冬至使 정사) 등도 각각 회동관보다 훨씬 좋은 明朝의 巨卿家와 蒙古館舍 등에 머물렀다. 인평대군의 경우 1656년 8월 사은사 정사로 연행한 때에는 적몰한 王公家에 머물렀다.

요즘 북경의 학자들이 흔히 조선관으로 지목하는 관소의 현재 위치는 天安門 동남쪽에 동서로 난 東交民港 거리와 남북으로 난 正義路가 교차하는 사거리에서 서북쪽에 위치한 최고인민법원[最高法院] 자리로 알려진다.²⁹⁾ 이곳은 일명 會同館(南館)인데 이 관소는 17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 사신들의 숙소로 바

면이나 기타 이유로 기록에 남기기를 꺼리는 것까지도 모두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좀 더 솔직한 기록으로 본다. 『燕轅直指』 卷2 出疆錄(12月 19日) 「玉河館記」는 필자의 이러한 설명을 잘 대변해 준다. 1832년 동지사 書狀官으로 연행한 金景善이 기존 연행록의 저술을 나름대로 종합하고 자신의 의견까지 붙여 체계화한 『燕轅直指』에 따르면, 淸 순치 초부터 조선 사신들이 입거했던 남관 또는 옥하관은 건륭 임진년(1772)에 會同館으로 그 명칭을 하사받아 관문에 ‘會同四譯館’으로 편액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 사신들이 남관을 鄂羅斯[아라사]로 불리던 러시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난 후, 건어호동(乾魚湖, 현 甘雨호동)에 위치한 옛날 都丕의 저택으로 옮겨 갔으나 이곳의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던 때문에 다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점령당하였다. 그러자 조선 사신들은 옥하관(남소관)으로 옮겼는데, 정기사행이 북경에 머무르는 기간 중에 혹 조선으로부터 別使 일행이 오게 되면 할 수 없이 서관(* 이때 그가 지칭한 서관은 건어호동 별관임)을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기도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를 매우 싫어하고 꺼려했으므로 1830년경 김정선의 연행 무렵에 와서는 아무리 조선 사절단의 수가 많아도 옥하관(남소관)에서 거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8) 『燕行日記』(김창업, 1712년 사행) 卷6, 계사년 2월 9일, “曾聞昭顯世子 隨九王入北京 處于文淵閣 在皇極殿東.”

29) 김효민, 2004, 앞의 글, 223쪽; 祁慶富, 2004, 앞의 글, 63쪽.

꾸면서 조선 사신들은 몇 차례 임시거처로 이전하는 과도기를 거쳐 기존의 관소에서 400m쯤 남서쪽으로 이동한 南小館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위에서 말한 최고인민법원의 남쪽 길 건너 맞은편 北京市安全局(公安局) 부근 서상국 옆 자리로 추정되며 2004년 현재 ‘高麗館’이라는 표지를 하고 있는 곳에 해당된다고 한다.³⁰⁾ 이 일대는 1940년대에는 미 대사관과 네덜란드 대사관이 나란히 이웃하여 있던 곳이기도 하다.³¹⁾

회동사이관(남관)의 별관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남소관의 경우 대개 4중으로 구분되어 館門(대문)을 들어선 후 첫째 집은 歲幣·方物을 보관하는 장소 겸 三使臣의 회합장소(廳事)로 사용하였고, 둘째 집은 正使, 셋째 집은 副使, 넷째 집은 서장관의 거처로 사용하였으며, 각 집마다 다 건넌방과 좌우의 翼廊이 있어서 伴僮와 裨譯들에게 나누어 거처하게 했다. 또 동쪽 담 밖의 개인 집을 구입하여 담장을 허물고 그쪽에 북항[北炕]을 만들어 주방이나 譯官들의 거처로 삼았다. 館門은 삼사신이나 예부의 관원이 출입하는 때에만 열어두고 연행사 일행 중의 다른 사람들은 동쪽으로 난 夾門으로 출입했다.³²⁾

연행사가 머물던 이 관소는 평상시 연행사 일원이 먹고 잠자던 곳일 뿐만 아니라, 예부의 관원이 참석한 가운데 上馬宴을 벌이던 곳이기도 하고, 가끔 비공식적으로 琉球國의 사신이나 청의 文士들이 찾아와서 우리 일행과 筆談을

30) 김효민, 2004, 앞의 글, 225쪽; 祁慶富, 2004, 앞의 글, 64쪽. 한편 박태근, 2003, 「중국에서 만난 조선문명과 제삼문명(러시아문명)」, 『국제한국학연구』 창간호, 31~32쪽에 따르면, 동교민항 25번지에 위치한 국가안전부 후면과 동 27번지에 위치한 최고인민법원 자리에는 아라사관(남관)이 위치하며, 남소관이 들어섰던 자리는 북경시 우체국 속달센터가 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31) 李誠 主編, 2005, 앞의 책.

32) 『燕轅直指』 권2, 出疆錄 「玉河館記」, “館凡四重 第一卽廳事也 三使與衙門諸官 公禮相見 則會於此 而今不行 只以歲幣方物 貯其中 第二正使所住 第三副使所住 第四書狀所住 每屋皆有對炕及左右翼廊 分爲伴僮裨譯之居 …… 私買東牆外一屋 通爲容接之所 所謂北炕也 上副廚房及任譯所住 …… 館門非三使出入 則常閉之 東有一夾門 一行諸人 皆由此而行.” 이러한 구조는 이미 1765년에 연행했던 담원 홍대용의 기술과 거의 유사하다. 『湛軒燕記』(湛軒書 外集 燕記 卷9;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49권, 229쪽), “至崇文門內 西渡玉河橋 至朝鮮館 前對南城 號曰南館 屋凡四重 正堂安咨文及方物 上房在其後 副房次之 三房在副房之後 …… 一行裨譯 皆居炕屋.”

나누기도 했던 장소였다.³³⁾

이곳 사신관은 우리 연행사가 西勢東漸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변화가 잦던 청의 政局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수집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조는 이미 入關 전부터 조선 사신 일행의 自國 인사 접근을 경계하고 國情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왔다.³⁴⁾ 그리하여 연행 三使는 공식적인 행사 [公事]를 제외하고는 회동관(옥하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고, 辦事官이 微服차림으로 회동관은 물론이고 조선 사신이 출입하는 도로에서 그 動靜을 정찰할 정도였다고 한다.³⁵⁾ 이처럼 제한적인 활동공간 속에서도 조선 등 외국의 사신이 그들의 공적인 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신접대를 포함한 청나라의 국정운영이 모두 文書를 통한 운영이었기에 가능했으며, 따라서 청대 朝貢 사행의 의미는 현대적 의미의 외교실무자 간 談判이나 교섭과는 달리 외교문서의 전달에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었다³⁶⁾고 할 정도였다.

한편 조선관에서 청조의 漢人 관리나 문사들을 만나는 것이 감시를 당하거나 청 통관들이 한인들의 출입을 저지하자 조선관 밖 인근의 人蔘局을 만남의 장소로 대신 활용하기도 했다.³⁷⁾

조선의 사행이 청조의 기밀을 탐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신관에는 가끔 고급정보를 전달해 주는 淸人들이 있었다. 1656년 인평대군 이요는 그의 제11차 연행을 했을 때 당시 “청조에서는 타이완에 웅거하고 있던 鄭進功(鄭成功)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에 1만 명의 水軍을 징발하려는 논의를 하였다가 조선에 우호적인 閣老

33) 김성남, 2004, 앞의 책, 102~103쪽. 이에 따르면 庶常館에서 공부하던 청대 유명한 학자 阮元과 劉鏞가 조선관을 방문하여 유득공의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34) 최소자, 1997, 앞의 글, 395쪽.

35) 김경록, 2006b, 앞의 글, 203쪽.

36) 김경록, 2006b, 앞의 글, 204쪽. 이에 따르면 “전근대 동아시아 사대조공 체제에서 사신이 부여받은 사행목적, 즉 문서전달 이외의 별도 교섭을 벌이는 것은 참람한 행위로 여겨졌다”고 한다. 『禮記』 郊特性 篇,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

37) 『夢經堂日史』 제3편, 「日下勝墨」, “十年前 我使之入都 都中人士 多有逢迎會集 自南匪以後 外藩人交通邦禁至嚴 非但到處 阻闔 竝與赫蹄 而不相來往 曾有雅契者 約會於蔘局 暫時立談.”

巴迄의 반대로 정지되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 들었는데, 이 정보를 조선 사신에게 전해 준 것은 병자호란 때 청의 포로가 된 조선인의 후예 金汝輝였다.³⁸⁾ 그는 이따끔 당시 인평대군이 유숙하던 조선 사신관(별관)을 찾아와서 이 같은 정보를 전했다는데, 당시 청나라 임금의 親兵哨官으로 있었기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여휘는 병자호란 이후 反淸活動으로 청조로부터 査問을 요구당했던 조선의 李時白 등 16명의 조선 조정 관리들에 대한 황제의 赦勅이 조선으로 갈 것임을 미리 알려 주었고, 청 황실의 궁중기밀에 속하던 동서 兩宮 후궁의 간택, 황제의 수렵, 청조와 몽골의 알력, 청군의 배치상황, 북경 도성의 규모와 문루의 배치 등에 대한 정보까지도 조선 사신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러한 정보전달의 장소가 바로 조선사신관이었다.

조선사신관을 방문하여 청조의 동태를 알려 준 사람은 조선인의 후예 외에 漢人도 있었다. 1673년 11월 謝恩兼三節年貢使의 서장관으로 연행한 李宇鼎은 숙소로 그를 찾아온 한인 生員 李之淮로부터 藩王 吳三桂 관련자가 체포되어 심양에 구금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³⁹⁾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오삼계 난’의 귀추를 주시하고 있었고, 일부 신료들은 만약 이 난이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면 이를 계기로 청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雪恥報復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⁴⁰⁾ 조선 조정에 매우 필요한 정보였다.⁴¹⁾

한편 병자호란을 전후하여 청에 인질로 끌려간 조선인의 후예로서 청 禮部의 流外屬官인 序班이 된 자들 중에는 자주 조선사신관을 드나들며 조선 사신들의 선물을 바라며 정보를 들려주었는데,⁴²⁾ 때로 거짓 정보나 과장된 낭설을

38) 이하 김여휘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이영춘, 2006, 앞의 글, 60~63쪽 참조.

39) 伍躍, 2007, 앞의 글, 194~195쪽.

40) 伍躍, 2007, 앞의 글, 197쪽.

41) 이외에도 조선 사신관을 찾아와서 담소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漢人들의 예는 더러 찾아볼 수 있다. 『燕轅直指』 卷4 留館錄 中 「先農壇記」(민족문화추진회, 1976, 『국역 연행록선집』 제10권, 354쪽), 義泰舖 商人 韓國寶의 來訪; 『燕轅直指』 卷5 留館錄 下 1833년 1월 29일(음력)(민족문화추진회, 1976, 위의 책 제11권, 68쪽), 舉人 李宗潢 형제의 내방 등.

들려주는 경우도 있었다.⁴³⁾

조선 사신들의 정보 탐문 활동은 사신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북경 시내를 유람하는 중에 서점이나 가게에 들렀다가 필담하거나 또는 역관을 통해 塘報⁴⁴⁾를 입수하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⁴⁵⁾

조선사신관은 北京에서 譯官을 비롯한 馬頭輩, 私商 등의 開市 활동 장소의 기능도 하였다.⁴⁶⁾ 이는 매우 제한된 날자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무역행위였지만, 사행으로 따라간 역관과 下隸들의 대부분은, 사행의 回還이 임박하여 황제가 연행사 일행에게 賞物을 분급한 후 청 禮部에서 정한 날 조선사신관에서 淸商들과 공개적으로 물화를 매매·교환하였다.⁴⁷⁾ 조선 측에서 내놓는 물화는 대개 황제나 예부로부터 받은 賞物 또는 조선에서 가져온 인삼을 비롯한 八包⁴⁸⁾의 物種 등인데, 예부에서 告示를 내어걸고 監市官을 파견하여 매매를 감독하고 공정하게 교역하도록 감시하였다.⁴⁹⁾ 兵器나 焰硝, 牛角 등 금지물종

42) 伍躍, 2007, 앞의 글, 210쪽.

43) 『熱河日記』, 『山莊雜記』; 최소자·정혜중·송미령 엮음, 2007, 앞의 책, 161~162쪽에서 재인용.

44) 조선의 朝報와 같은 것으로 요즈음의 “官廳新聞”에 해당된다. 매일 간행하여 월말까지 되면 한 달 치를 합쳐서 한 책으로 간행한다. 『燕轅直指』 卷4 留館錄 중 1833년 1월 2일.

45) 조선 사신은 이 당로를 통해 鴉片烟이 금지된 것을 알기도 했다. 『燕轅直指』 卷5 留館錄 下 1833년 1월 26일 『盧溝橋記』. 청조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19세기 중반 태평천국의 난에 대한 조선 정부의 관심 및 이와 관련된 연행사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河政植, 1995, 『燕行情報와 朝鮮王朝의 太平天國 認識의 政治的背景』, 『역사학보』 제145집, 역사학회를 참조.

46) 연행사의 활동을 淸貿易와 관련하여 파악한 연구로는 李元淳, 1963, 『赴燕使行의 經濟的一考—私貿易活動을 中心으로』, 『歷史教育』 제7집; 全海宗, 1977, 『清代韓中朝貢關係考』, 『韓中關係史研究』, 일조각; 金鍾圓, 1977, 앞의 글; 柳承宙, 1997, 앞의 글 등이 있다.

47) 이같은 북경 使臣館에서의 開市는 이미 17세기 중반부터 찾아볼 수 있다. 鄭太和, 『壬寅飲水錄』, 『陽坡遺稿』 卷14, 日記, “飲水錄 壬寅 九月 二十六日 …… 自是日許令商賈入館.”

48) 조선시대 중국에 파견된 사신이 여비나 무역자금으로 쓰기 위해 인삼을 담은 8개의 꾸러미를 가지고 가는 것에서 유래함. 그러나 인삼이 부족할 때면 銀과 麻布 등을 대용할 수 있게 하되 전체 비용은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고자 노력했다. 시대적 변화와상에 대해서는 『萬機要覽』 財用篇5, 燕行八包 참조.

을 매매하거나, 정해진 날 이외에 사사롭게 교역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問罪하였다.⁵⁰⁾

북경에서의 무역을 주도한 것은 역관들이었다. 이중 上通事는 首堂上譯官을 보좌하여 行中事에도 관여하였지만, 청의 각 關門에 납부하는 禮單을 관장하고 尙衣院의 御供物品을 담당하였다. 次上通事는 內醫院의 무역을 담당하였고, 역관이 임명되는 押物官은 歲幣, 방물, 歲米 등 각종 조공품의 관리와 운송을 담당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들 역관들에게 三使臣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직품에 따라 마부, 驅人, 騎驛馬, 卜刷馬 등을 배정해 주었고 그들이 私費로 노자, 마두, 私持馬 등을 영술하는 것도 허용했다.⁵¹⁾ 이러한 역관들은 때로 그들의 거래처인 청국 상인들과 유리한 흥정을 하기 위해 사신 일행의 귀국을 연기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⁵²⁾ 북경의 巨商 鄭世泰는 역관들이 흥정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선과 비단을 거래하여 부자가 된 사람으로 때로 조선 사신들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와서 환심을 사고자 하였다.⁵³⁾

중국 상인들의 商術은 유명한데, 특히 온갖 험잡과 사기로 물건 값을 조선 사람들에게서 터무니없이 많이 받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상인들의 商道가 패역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박지원은 오히려 순박하

49) 북경(조선사신관) 開市의 구체적인 交易量의 규모나 그 시대적 推移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귀환 길에 오를 때 堂上譯官이 무역품의 包數를 기록하여 淸衙門에 제출하면 아문에서 이를 일일이 대조한 뒤 禮部에 보고하고 예부에서는 山海關과 鳳凰城 등지에 通報하여 沿途貿易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행이 북경을 떠나 회환할 때의 沿路에서 물품을 교역하는 양이 상당히 많고 다양했다고 하며 특히 대대적인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북경 조선사신관 내에서의 開市가 아니라 柵門後市였다고 한다. 柳承宙, 1997, 앞의 글, 440~441쪽; 金鍾圓, 1977, 앞의 글, 56쪽.

50) 앞의 『通文館志』 卷3, 事大(上), 赴京使行 告示(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년 영인·번역본, 163~164쪽). 이 외에도 청조는 조선 사신의 중국 역사서나 지리서 구입을 嚴禁하였다.

51) 柳承宙, 1997, 앞의 글, 441쪽.

52) 정해중, 2005, 앞의 글, 47쪽.

53) 『燕行日記』(저자·연대 미상,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99권, 385쪽), “鄭世泰之子 入送碧桃兩盆 文丹花一盆 分納於三使.”

던 중국인의 마음을 조선의 간사한 역관배들이 그들에게 사기를 침으로써 야박하고 거칠게 만든 잘못이 있다⁵⁴⁾고 지적하기도 했다.

1832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연행한 김경선의 진술에 따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연행사 일행을 따라온 조선의 下隸들은 대개가 적수공권으로 걸어서 연경에 들어와서 연경에 머물 때에도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때로 동행한 사람들끼리 서로 꾸고 빚을 저서 제때에 갚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고 쟁송이 발생하여 館中(조선 사신관)이 시끄러울 때가 잦았다고 한다. 이에 法司와 訟官의 임무를 겸했던 서장관이 나서서 설득하기도 하고 곤장을 치기도 하여 심신이 피곤하였다.⁵⁵⁾ 한편 조선사신관 근처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은 연행사의 하예들을 모두 도둑으로 여겨 밤이면 문을 달아걸고 마음 편하게 자지도 못한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는 하예들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부싯돌 한 조각이라도 반드시 자루에 집어넣고 귀국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김경선은 말했다. 또 하예들은 서로를 불신하여 혹시 어렵게 구득한 물건들을 분실할까봐 귀국 일자가 고시되면 허둥지둥 자신이 얻은 물건을 紙布로 싸서 皮箱·木櫃에 나누어 넣고 못을 박는데, 그 소리가 관중(관소)을 진동했다.⁵⁶⁾ 1855년에 연행한 서경순 등의 기록에 따르면⁵⁷⁾ 대부분 驅人(마부)의 명목으로 따라온 조선의 하예들 다수는 放料軍官의 인솔하에 관소 밖의 성(內城) 밑 마구간 자리에 적당한 삿자리를 깔고 임시로 우거하였다고 한다.⁵⁸⁾ 이와 같은 상황은 사행을 따라온 마두·노비 등 하예들의 목적이

54) 『熱河日記』 卷10, 「玉甲夜語」, “燕京舊時 風俗淳厚 譯輩雖萬金 能相假貸 今則彼以詐欺爲能事 而其曲未嘗不先自我人始也.”

55)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二月初三日, “蓋下輩 皆以赤手空拳 足入燕 留館月餘 亦不無浮費需用 或相推貸於同行 又多債負於他人 率以遷延挨過爲上策 …… 有放聲以哭 爭訟者 至入庭而下 …… 或善辭而開諭 或荅打而戰 …… 彼諺曰 東使留館之時 本國人 應夜不掩戶放心穩眠 …… 不得如恐遺失 多少物件 皆以紙布結裏 裏畢分貯皮箱木櫃 椎釘以固之 聲震館中 亦可笑也.”

56)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二月初三日.

57) 『夢經堂日史』 編2, 五花沿筆 十一月 二十七日, “又有馬房 在館外城根 放料軍官 率驛馬與驅人 同住處也.”

58) 이 같은 일은 18세기 후반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燕行記事』 上(李珥, 1777), (丁

작은 몫이나마 무역을 하여 그 이익을 얻는 데 있었음을 알려 준다. 북경의 조선관은 조·청 문화교류 및 경제교류의 최일선이었고, 치열한 정보수집과 정세파악의 현장이었다.⁵⁹⁾

2. 외교의례의 공간 - 조회·알현, 공문·예물전달; 황궁과 관부, 황제의 행차소

조선의 연행사가 북경에 도착하여 40일 전후를 머물면서 수행했던 공식적 의례활동은 첫째, 入館하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예부에 소속된 提督과 序班, 館夫, 阜隸들과의 館所에서의 만남의식(인사), 입관 다음 날 예부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奏文과 咨文의 전달식, 예부나 조선사신관에서 행해지는 下馬宴과 조선사신관에서 이루어진 上馬宴 등이 있었으니 이는 곧 청 예부 관원들과 연행사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 행사이다.

그림 2를 참조하면서 북경에서 연행사의 외교문서 呈納 과정을 살펴보면, 대개 사신이 북경의 숙소(사신관)에 도착한 다음 날 正使 이하 三使가 公服을 갖추고 表·咨⁶⁰⁾ 등 문서를 받들고 禮部에 나아가 尙書를 비롯한 관원과 見官禮를 행한 뒤에 문서를 전달하였다. 청초에는 禮部尙書가, 18세기 이후에는 대개 禮部侍郎과 郎中이 대청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면, 大通官이 삼사를 인도하

西) 十二月二十七日, “驅人輩以筆爲假家而入接.”

59) 김성남, 2004, 앞의 책, 106쪽.

60)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통칭하여 表(또는 表文)라고 했으며, 그 규칙이 『大明會典』에서 정해져서 청대에도 지속되었다. 특별히 誕辰, 元旦, 冬至 등의 節日에 황제와 황태후에게 올리는 賀禮의 글을 箋(또는 箋文)이라 하였다. 청대의 고급아문들 사이에는 平行文인 咨(또는 咨文)가 사용되었는데, 조선 국왕이 청의 예부에 보낸 외교문서도 이에 준하여 자문이라 했다. 한편 조선 사신이 북경에서 예부 등 청의 아문에 올리는 글은 博文이라 하여 자문과 비슷한 평행문이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경록, 2005, 앞의 글, 189~191쪽. 한편 조선에서 청에 올리는 奏文은 關內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公務에 해당되지 않고 조선 국왕이 私用으로 올리는 문서로 규정되었기에 奏本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748년(건륭 13) 이후에는 청의 관아에서 황제에게 올리는 문서와 마찬가지로 題本으로 바뀌어 올려졌다. 김경록, 2005, 앞의 글, 207쪽.

여 표문과 자문을 받들고 꿇어앉아 낭중에게 바치고 낭중은 이것을 받아 탁자 위에 안치하면 통관이 사신을 인도하여 물러나오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역원의 通事를 差定하여 咨文을 갖고 예부로 가서 奏達하고 황제의 聖旨를 청하기도 했다.⁶¹⁾

둘째,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황궁 내 太和殿 뜰에서 이루어진 元旦朝會를 비롯하여 가끔 天壇이나 圓明園 등 황제가 행차하던 곳에 陪從하는 일, 때로 배종하지는 않고 그 행렬을 祇送하고 祇迎하는 일 그리고 원단조회를 위해 황궁(자금성) 앞 午門 근처에 나와서 鴻臚寺 관원의 지시에 따라 三跪九叩頭禮(三拜九叩頭禮) 등 각종 예절을 연습하고 이를 실행하던 일, 때로 황제가 하사하는 賞物을 받고 차를 마시던 의식 등이 있었다. 이는 황제와 사신 일행이 제한된 조건하에서나마 직접적 만남(대면)이 이루어지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예부가 아닌 다른 부서와의 만남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세폐나 방물을 헌정하던 행사를 주관하는 工部 관원과의 만남, 연행사 일행에게 각종 양식과 饌物·柴炭 등을 제공하던 光祿寺 관원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조선 사신관이나 황궁 안팎의 각종 物貨倉庫에서 사행 일원 중 역관이나 押物官 등이 저들과 대면하여 이루어졌던 공식 행사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때로 적지 않은 폐단이 있었음이 청초부터 감지된다. 병자호란 이후 청에 인질로 끌려가서 심양·북경 등지에서 억류생활을 하다가 귀국 후 1650년대부터는 조선의 사신으로 청나라 조정에 여러 차례 다녀왔던 효종의 아우 麟坪大君(李潛)은, 청조에서 연행사 일행을 接伴하는 제독 이하 서반의 무리들이 사육을 채우기 위해 연행사 일행에게서 誅求와 行惡을 일삼아 비용이 자꾸만 늘어나서 路需마저 고갈될 지경이라고 한탄하여 연행시 청의 사신접대 관리들의 횡포를 규탄하였다.⁶²⁾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18세기 초반 숙종 말년에 가면 상당히 변

61) 김경록, 2005, 앞의 글, 213~214쪽.

62) 『燕途紀行』(下) 丙申年 十月 二十九日, “奉使燕山 不知其次 而中行輩 作惡誅求 去而益甚 壑欲何可盡 副以是 盤纏罄竭 侵暴非止一二.”

하게 된다. 이전에는 조선의 역관 등이 皇城 내 창고로 직접 폐물을 운반하여 갔으나 이때에는 성 밖 관리의 사택에 그냥 두고 가라는 정도로 바뀌었다.⁶³⁾

한편 1656년 인평대군의 연행(謝恩行) 때 “청의 황제가 병자호란시에 청에 저항하던 영의정 이시백 등 조선의 주요 신하에 대해 용서한다”는 문서를 내려 준 것을 전후하여 청조에서 연행사에 대한 하마연·상마연을 비롯하여 각종 명목의 연회(別宴)를 황제 측근의 대신들이 주관하여 이전에 비해 매우 풍성하게 베풀어 준 것도 기록상 발견되는데,⁶⁴⁾ 이는 청의 대조선 慰撫政策의 표현이었다. 조선 사신에 대한 청조의 융성한 대접은 18세기 후반 청조대의 사신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⁶⁵⁾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⁶⁶⁾ 특히 1830년대에 이르면 下馬宴의 주관자도 대신(예부상서)이 아닌 侍郎이 되고 이미 명말~청초부터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무뢰배의 연회장 난입, 곧 사신들에게 차와 술이 두어 차례 돈 후에 곧바로 무례한 하숙들이 난입하여 음식을 마구 움켜쥐고 먹어치우는 것이 이미 고질화되어버린 것 같다. 김경선은 이를 매우 통탄하였다.⁶⁷⁾

1840년대 초, 아편전쟁 이후 청조의 재정은 극히 곤핍해져서 상물의 수여

63) 『노가재연행록』 1713년 2월 9일.

64) 鄭太和, 『壬寅飲水錄』, 『陽坡遺稿』 卷14, 日記, 飲水錄 壬寅 十月初六日, “行下馬宴於禮部 饌品豐盛 有倍於己丑年之所見”; 『燕途紀行』(下) 丙申年 十月 十二日, “今日始行下馬宴 …… 往禮部 …… 內大臣孫異立 傳清主命 一行跪聞 蓋領議政李時白以下諸宰特許赦宥文書 順付事也.”

65) 1793년(정조 17) 10월에 謝恩行 副使로 연행한 李在學도 하마연에서 베풀어 준 음식의 양과 질이 모두 황제가 직접 베푼 御宴과 동일하며, 감과와 석류 및 광동성에서 나는 玫元 등 귀기한 과일까지 하사해 주었다고 한다. 李在學, 『芝圃遺稿』 권11, 雜錄, 燕行日記, 癸丑 十二月 二十九日, “又送下馬宴床 櫟數饌品一如御宴 又有皇旨頒柑橘石榴廣東玫元 而玫元則槲果.”

66) 2007년 11월 3일 조선시대 사학회에서 필자의 토론자였던 국사편찬위원회의 이영춘 박사는 이미 17세기부터 이러한 악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明末인 1636년 김육 일행의 마지막 對明使行 때 있었던 일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이영춘, 2006, 앞의 글, 111~119쪽. 그러나 필자가 살펴본 淸의 中原入關 이후 17세기의 연행록들에서는 이러한 악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연행사 일행이 관가에서 음식 대접을 받을 때 그 음식들을 하예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록은 발견된다.

67)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계사) 二月一日 下馬宴記.

나 각종 연회 등에서 많은 부분 虛式化되거나 때로 불상사가 발생하고는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855년 동지사 절행 때 正使의 수행군관으로 북경에 갔던 徐慶淳은 황제가 특별히 하사하는 克食마저 “공경히 은반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陳奏文만을 꾸미게 하고 하사한 모든 물종은 예부의 관원·통사들이 중간에서 착복하여 사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⁶⁸⁾고 한탄하였다. 당시 서경순은 황제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군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리창의 店人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꾸어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⁶⁹⁾ 이러한 사실들은 청말의 국가 財用이 매우 困乏해지고 있음을 알려 준다.

Ⅲ. 사적 활동공간

1_ 전통문화 유람공간 - 교육, 고유종교, 민속, 승경지

연행사신의 북경 체류 중에 앞서 언급한 공식적 활동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관소에 그냥 머물기보다는 부지런히 성 내외를 두루 관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遊觀活動은 이미 조선 초 明代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것이나, 청 초기에 와서는 조선에 대한 경계의식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⁷⁰⁾ 遊觀(遊覽)을 허용하지 않았다.⁷¹⁾ 그러다가 18세기 초 康熙帝(재위

68) 『夢經堂日史』編4, 紫禁瑣述 十二月 十九日(丁未), “克食[以食物賜三使] 皇上之殊禮也 而祇受恩頒 假飾陳奏 所賜諸種 仍歸烏有 苟非禮部之所竊 必致通事之見偷.”

69) 『夢經堂日史』編4, 紫禁瑣述 十二月 十六日(甲辰), “本銀興販不贍 故問其由 蓋皇上以標紙親署花押 貸銀於本鋪者已數次 由此見絀矣.”

70) 『燕途紀行』(下) 丙申年 十月 二十七日(辛丑), “今歲入燕 適因寒疾 轉劇天壇太液 雖許遊觀 竟未重臨可歎.” 이에 따르면 인평대군은 1656년 연행하여 황제의 특별 허락으로 천단·태액지 등을 유람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감기로 인해 관소에 머무는 바람에 아까운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61~1722) 만년에 이르러서는 이미 천하가 태평해졌고 동방(조선)은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해서 禁防을 조금 풀었는데, 이 당시는 감히 공공연히 출입하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편법적으로 유람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경에 오면 禁制가 더욱 해이해져서 삼사신의 자제군관들이 유람에 탐닉하여 금지구역도 가리지 않고 마구 다니다가 해당지역 문지기나 관리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그럴 때면 조선의 역관들이 적당한 뇌물로 청조의 관리들을 무마함으로써 유람이 자유롭게 되었다.⁷²⁾ 그러나 조선사신관에서 내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양문 등 내성의 이른바 9개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통행금지 시각은 정월 대보름을 제외하면⁷³⁾ 연중 항상 지켜졌기 때문에 일몰을 전후한 시각까지는 반드시 유람활동을 마치고 관소로 돌아와야만 했다.

연행을 한 조선 선비들이 꼭 가보고 싶어했던 곳 중의 하나는 儒學의 본부 내지 산실로 여겨진 國子監·太學·文廟 등이었다(그림 1 참조). 북경의 국자감은 조선의 성균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수도에 위치한 중앙교육기관이었는데, 명초부터 각 주현의 제생 중에서 준수한 자를 뽑아 입학시켰던 곳이다. 이곳은 북경 내성의 북동쪽 문인 安定門 부근의 길가에 있으며 雍和宮 서북쪽 1리

71) 앞의 표 1 참조. 이에 따르면 17세기의 경우 안평대군 이요가 황제로부터 특별히 태액지와 천단을 유람하도록 허락받은 것 외에는 조선 사신들이 유람한 기록이 1695년 이전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옥하관 내에 요술쟁이나 원숭이 재주 부리는 사람 등을 불러들여서 그 재주를 관람하는 일은 더러 보인다. 또 개인적으로 몰래 저지를 구경한 경우도 보인다. 그러다가 1695년 홍수주 일행이 천주당을 비롯하여 국자감·옹화궁·문승상묘 등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유람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해 준다.

72) 『燕轅直指』 卷2 出疆錄(十二月) 十九日, “館所衙門記……自明時已有門禁不得擅出遊觀 使臣呈文以請 則或許之 然終不能無間 清初禁之益嚴 康熙末 天下已安 謂東方無足憂 禁防少解 然遊觀猶托汲水 無敢公然出入 挽近以來 昇平已久 禁制漸疎 非但我人之出入無礙……使臣子弟從者 耽於游觀 不擇禁地 衙門諸官 慮其生事 據法而操縱之 則爲子弟者 倚父兄之勢 惟譖譯是呵叱之……外憚衙門之威 不得已以公用銀貨行賂 而求其方便.”

73)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正月 十四日 元宵燈火記, “中國之金吾 弛禁鼓樂達朝 已自十四夜伊然 無家不懸燈.”

좁에 위치하고 있다. 길에 큰 패루 3座를 세웠는데, 바깥 편액에는 모두 ‘국자감’ 석자가 쓰여져 있었다. 이곳의 왼편 누 안에는 국자감이, 중간 누 안에는 太學이, 오른편 누 안에는 辟雍이 자리잡았다. 이곳은 甲軍 수백 명이 붉은 柵을 빙 둘러쳐 놓고 항상 지키는데, 안팎의 學舍가 1830년대 초반의 경우 580여 칸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곳에는 식당, 창고, 주방, 의약방 등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있었고 감생 중에 병이 든 자가 거처하는 保安堂이란 곳도 있었다고 한다.⁷⁴⁾ 1833년 1월에 이곳을 방문한 서장관 김경선은 그 규모의 광대함과 시설 편의 등에 놀라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 모든 學舍의 10중 8~9가 텅 비었고 釋奠(공자탄일)을 당해서도 참배하는 유생이 400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천하가 태평하고 文教가 융성하니 生徒의 성대함은 전대보다 훨씬 나아가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쇠락하였다고 탄식하였다. 특히 그곳 2,000명 감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漢人 출신의 감생들이 서울(연경)에서 살림집을 가질 수 없는 법에 대해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⁷⁵⁾ 한편 태학의 두 戟門 안에는 石鼓가 있고 그 위에 경전의 내용을 새겨 놓았는데, 김경선은 그 돌로 된 북을 직접 보고 눈으로 직접 그 글자를 보니, 이번 관람의 가장 기이한 일이었다고 자평했다.⁷⁶⁾ 또 태학의 오른쪽에 위치했던 벽옹에는 隸書로 13경의 내용을 새겨 놓은 石經이 놓여 있었는데, 이에 대해 김경선은 “중원 황제의 거처하는 곳의 배포와 규모가 어느 것이나 다 宏大하지만 석경을 보고나서는 더욱 그 기구를 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⁷⁷⁾ 1856년에 이곳에 온 서경순도 오매불망 꿈에 본 그 石經을 직접 보았다고 무척 감격하였다.⁷⁸⁾ 이 석경은 마치 石碑처럼 생겨서 92좌가 끝없이 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탐본을 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교문화 시찰공간은 유학자인 사행원 자신들의 유학에 대한 자긍심을 확인해 주는 자리였던 동시에,

74) 『燕轅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十二日 「國子監記」.

75) 『燕轅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十二日 「國子監記」.

76) 『燕轅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十二日 「太學記」.

77) 『燕轅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十二日 「辟雍記」.

78) 『夢經堂日史』 編4, 紫禁瑣述 十二月 十五日(癸卯).

서세동점의 시대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연행사신들은 대부분 여러 곳에 산재한 불교사찰에도 자주 들러 그곳의 탑·대웅전 등의 규모와 아름다운 경관 등에 대해서 완상하곤 했다. 김정선의 『연원직지』에 따르면 직접 그 이름이 거명된 사찰만도 法藏寺, 金臺寺, 天慶寺, 憫忠寺, 崇福寺 등 북경 일대에 대략 20곳을 훨씬 상회한다. 이 중에는 법장사의 白塔, 五塔寺의 석탑, 妙應寺의 백담 등 그 경내에 북경 일대의 경관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고층탑도 있었으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북경타워에 해당된다.⁷⁹⁾ 보국사와 같은 곳에서는 절 가운데에서 정기적인 場市가 벌어져 각종 상인들이 몰려들어 하나의 큰 都會를 이루었다.⁸⁰⁾ 한편 隆福寺에서도 매순 9일과 10일에 廟市를 열어 온갖 물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모든 시장의 으뜸이 된다고 한다.⁸¹⁾

북경에는 불교사찰과 도교사찰이 거의 같은 경내에 나란히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 사찰이 민간풍속과 함께 어울려진 곳도 많았는데, 연행사 일행은 이런 곳들도 대개 유람했다. 도교시설로는 太陽宮, 藥王廟, 斗母宮, 大淸觀, 大高玄殿 등 이름이 거명된 곳만 대략 10여 곳에 달한다. 한편 天壇은 역대 황제가 자주 찾아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천자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유교의례에 입각한 유교의 祭壇이면서 동시에 옥황상제 등 도교 신들을 모신 도교의례 시설이기도 했다.

조선 사신들이 북경 주민들의 풍속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한 것은 「삼국지」의 등장인물인 關羽에 대한 숭배의식이었다.⁸²⁾ 이 관우를 숭배하는 사당인 關廟는 柵門에서 북경에 이르기까지 2,000여 리 사이에 없는 곳이 없으며, 樵

79) 『燕輶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三日 「法藏寺白塔題名記」; 『燕輶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正月 十六日 「五塔寺記」, 「妙應寺記」.

80) 『燕輶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正月 十九日 「報國寺記」.

81) 『燕輶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十二日 「隆福寺記」.

82) 『燕輶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正月 十四日 「地安門外關廟記」. 관제묘는 關羽를 모시는 곳으로 이곳에는 관우의 고조, 증조, 조부, 부 등이 함께 배향되어 있다.

童牧豎와 여염집 부인까지 온 천하가 한 마음으로 높이 받든다고 하였다. 특히 북경의 白馬關廟는 순치제의 전쟁터에서 앞길을 인도해서 승리를 가져다 준 관우를 기리는 것으로 적토마가 아닌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하여 세워진 이 관묘는 앞날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일이 너무나 영험하다고 믿게 되어 조선의 서울 南關廟 위에도 백마관묘의 내부에 새겨진 碑文이 그대로 새겨지게 된 것이다.⁸³⁾ 조선시대 연행사 일행의 관우 신앙의 일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의 관우 신앙 열기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그들이 조상에게 제사지내지 않음을 나무라는 연행사의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⁸⁴⁾ 傳統的 祖上祭禮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사행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勝景地로서 그 풍광을 관람하는 곳만도 그 이름이 거명된 것이 대략 30여 곳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西苑과 圓明園⁸⁵⁾은 그 내부에 호수와 섬, 사찰과 정자, 누각, 전각 등 각종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종합유원지에 해당된다. 西苑은 西華門 서쪽, 즉 太液池를 그 중심으로 하는 동산으로서 金·元 두 왕조가 이 일대에 궁궐을 지었던 곳이다.⁸⁶⁾ 북경 황성의 북쪽 德勝門에서 약 40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圓明園은 청 황제의 別宮에 해당되는 곳으로 황제는 이곳에서 정월 대보름날 놀이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선 사신을 비롯한 각국 사신들을 불러 연회를 베푼다. 西山 아래에 있으므로 일명 서산이라고도 한다.⁸⁷⁾ 이곳 정문에는 돌로 만든 사자상이 세워져 있고 그 내부에는 三公과 九卿의 관사로 사용되는 높다란 집들이 즐비하다. 또한 동쪽 담 밖에는 책을 두르고 호수를 파서 그곳에 다채로운 누각과 층층으로 된 정자들을 세워 놓았는데,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되었다.

원명원의 虎圈(호랑이 우리)은 지하에 돌로 둘러쌓은 석축에 의지하여 그

83) 『燕輶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二月 三日 「白馬關廟記」.

84) 『燕輶直指』 卷6, 留館別錄 「樓觀寺廟」.

85) 그림 1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북경성의 서북쪽으로 약 4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86) 『燕輶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十一日 「西苑諸勝記」.

87) 『燕輶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正月 十四日 「圓明園記」.

위 지붕을 철망으로 얹어놓아 구경꾼들이 우리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는데, 범 여러 마리를 이곳에 가두어 놓고 길렀다. 1791년 謝恩正使 金履素의 막료로 연행한 金士龍은 당시 호랑이 우리에게 8~9마리의 호랑이가 있었다고 말했는데,⁸⁸⁾ 1833년 호권을 목격한 김경선은 하루에 사료만도 고기 50근이 든다고 하는 이 같은 호권을 왜 만들었는지 자못 의아해했다.⁸⁹⁾ 그런데 이로부터 약 20년 후인 1850년대 중반 이곳을 방문한 서경순은 호권이 텅 비어 한 마리의 호랑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⁹⁰⁾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변화는 아편전쟁, 태평천국의 난 등 內憂外患에 시달린 청조의 재정이 고갈되어 황제의 위용을 과시하는 다소 사치스런 일에 더 이상 자금을 댈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짐작케 해 준다.⁹¹⁾

민간의 토속신앙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연행사들은 앞서 언급한 關帝廟 외에도 岳王廟와 娘娘,⁹²⁾ 堂子,⁹³⁾ 五帝廟,⁹⁴⁾ 三忠祠⁹⁵⁾ 등을 들었다. 한편 세시 풍속의 장소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정양문 내 기반가의 정월대보름 달맞이 장소⁹⁶⁾나 일종의 시민공원으로서 각종 詩畫活動이 이루어지는 萬柳堂⁹⁷⁾ 등을

88) 『燕行日記』(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47권), 壬子 正月 十五日, “往觀圈…… 虎之數凡八九.”

89)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正月 十四日 「虎圈記」.

90) 『夢經堂日史』 編4, 紫禁瑣述 十二月 十七日(乙巳).

91) 청조의 재정 곤궁 현상은 북경성 宣武門 안쪽에 있던 象房(코끼리 사육소)의 모습에서도 감지된다. 18세기 후반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는 무려 8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고 하나 19세기 전반 1830년대 김경선의 『연원직지』에서는 9마리만 남아 있어 우리가 텅텅 비었다고 한다. 『燕轅直指』 卷3, 留館錄(上) 「象房記」.

92) 『燕轅直指』 卷3, 留館錄(上), 壬辰年 十二月 二十二日 「岳王廟記」. 악왕묘는 남송의 충신 岳飛를 모신 사당이며, 낭낭은 아들을 낳기 위한 祈子信仰과 관련된 전설적 婦人이다.

93) 『燕轅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一日 「堂子記」. 당자는 일명 鄧廟라고도 하는 곳으로 동천안문 밖 옥하고 동쪽 1리쯤에 있으며, 설날 아침 황제가 친히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만 어느 신을 모셨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94) 『燕轅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六日 「五帝廟記」. 五帝란 五行의 주인이란 뜻으로 천자가 동서남북 사방의 정해진 곳에서 祈雨祭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95) 『燕轅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十三日 「三忠祠記」. 삼충사는 촉한의 諸葛亮, 남송의 岳飛, 송의 충신 文天祥 등 세 명의 충신을 모신 곳이다.

96)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正月 十六日. 이에 따르면 碁盤街는 정양문 안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길거리 등지에서 공연하는 각종 서커스와 곰·원숭이·개 등의 재주 피우기, 연극공연 등의 장소도 연행사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2_ 서양문화 관찰과 수입의 공간 - 천주당, 이마두묘, 관상대

신문물 수용과 관련하여 볼 때, 조선 후기 연행사가 북경에서 대서양 유럽의 문물을 접촉하고 이를 수용하는 통로로 이용한 대표적인 장소는 천주당, 악라사관, 월명원, 관상대, 유리창 등지이며, 이 외에도 황궁 내 여러 곳에 설치된 각종 기물에서 16세기부터 새롭게 중국에 진출한 유럽의 선교사들이 남긴 각종 서양문물의 편린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각각 상당한 분량으로 상세하게 논한 바가 있지만,⁹⁸⁾ 여기서는 기존에 미처 거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약간 보완해 보고자 한다.

연행록에서 천주당에 관한 기사는 대략 18세기 초반인 17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⁹⁹⁾ 이는 청이 중원을 차지한 후 사방의 반란을 대부분 평정하고 조선 등 주위 나라들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한 강희제(재위 1661~1722) 말년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 천주당은 1605년 리치 신부에 의해서 북경 선무문 안 동쪽(자금성 밖 서남쪽)에 세워지기 시작하여(남천주당), 1653년에는 살 신부에 의해 동안문 밖에도 세워지고(동천주당), 그 후 서안문 밖(북당, 1703년 드 폰타네)과 서직문 대로상(서당, 1725년 페드리

에 있으며 북경의 八景 중 하나라고 한다.

97) 『燕轅直指』 卷4, 留館錄(中) 癸巳年 正月 三日 「萬柳塘記」.

98) 원재연, 2000,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1~109쪽; 원재연, 2005, 「조선후기 연행과 서학수용」, 김태준 외,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136~167쪽.

99) 원재연, 2000, 위의 글, 98쪽. '표 1 1649~1876년 연행록에 나타난 천주당·악라사관 관련기록'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1695년 삼절연공사의 부사로 연행한 홍수주는 3~4번의 시도 끝에 결국 천주당을 방문하게 되는데, 최초의 북경 점령 이후에 쓰여진 연행록 중에서는 천주당을 방문한 최초의 현존기록으로 여겨진다. 앞의 표 1 참고.

니)에도 각각 세워졌다.¹⁰⁰⁾ 따라서 이미 17세기 초반 설립 직후부터 조선의 사신들은 천주당을 목격했을 것이며 때로 방문했을 가능성이 짙다.¹⁰¹⁾ 특히 병자호란 때 인질로 잡혀갔다가 심양(봉천)을 거쳐 북경에 가서 東華門 내 文淵閣에 머물면서 당시 남천주당에 거처하던 서양인 선교사 샬과 여러 차례 상호 방문하여 필담을 나누고 천주교 서적과 천체관측 기구들을 선물로 받았던 소현세자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¹⁰²⁾ 그러나 이때 세자와 함께 있었던 봉림대군(효종), 인평대군(이요) 등의 기록에서는 천주당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청의 入關 이후, 연행록에서 천주당을 방문한 최초의 기록은 1695년 三節年貢使의 副使로 북경에 간 洪受疇(1642~1704)의 『燕行日錄』에 등장한다.¹⁰³⁾ 그가 북경에 도착한 1695년 12월(음력)에는 그의 일행보다 4개월 앞서 먼저 북경으로 파견되었던 사은사 일행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던 때였으므로 두 사절단은 각각 옥하관의 南館과 北館에 나누어 거주하면서 이듬해 2월까지 서로 자주 내왕하면서 환담하고 또 이전까지와는 달리 북경 시내의 유람에 자주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그중에 홍수주는 正使 李世白, 書狀官 崔啓翁 등과

100) 명·청대 북경에 세워진 4곳 천주당의 설립과 폐지, 중건 등과 관련해서는 원재연, 2005, 앞의 글, 141쪽 참조.

101)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지적한 것 외에도, 1695년경에 洪禹鼎이 그의 숙부인 洪受疇를 따라 연행했다가 천주당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18세기 초반 연행사의 기록에 나타난다고 한다. 노대환, 1999, 「19세기 동도서기론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편 시현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천주당, 흠천감의 선교사들과 조선의 역관이나 사대부들이 상호 필담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요구된다.

102) 최소자, 1997, 앞의 글; 장정란, 1994, 「소현세자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교회사연구』 제9집, 한국교회사연구소; 원재연, 2000. 8, 앞의 글, 96쪽; 『燕輾直指』 卷3, 留館錄(上) 「城關位置」. 이에 따르면 “옛날 갑신년에 우리 세자 대군이 九王을 따라 북경에 들어가 이 각에서 유숙하였다. 뒷담 안에는 돌로 만든 산이 있고 奇花異草가 우거져 수풀을 이룬 것이 문틈으로 엿보인다. 圓明園의 文源閣, 熱河의 文津閣, 奉天의 文溯閣이 이 건물을 모방하여 지어 『四庫全書』를 저장한 것이 모두 御製記文으로 돌에 새겨져 있다”고 되어 있다.

103) 이하 홍수주의 천주당 방문과 관련된 기록은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39권, 54~62쪽에 나온다.

함께 1696년 1월 10일(음력) 처음으로 관소(북관)를 떠나 五龍臺와 天主堂을 찾아 나섰다가, 청조에서 궁녀를 간택하느라 시내의 차량이 황궁 주위에 몰린 바람에 길을 지나갈 수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왔다. 사흘 후인 13일 다시 정사와 함께 천주당으로 향했으나 도중에 천주당 선교사들이 출타 중이라는 전갈을 받고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 19일 다시 천주당을 가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바람과 추위 때문에 포기했다. 이렇게 세 번의 시도를 무위로 끝낸 후에 1월 21일 맑은 날씨를 이용하여 그는 정사 이세백과 함께 천주당을 방문하여 그곳 선교사 劉松齡(A. von Hallerstein)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천주당 내의 각종 벽화와 기물들을 소상히 구경하게 된다. 특히 그는 원근법을 이용한 西洋畵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림의 기술이 귀신의 경지에 든 것 같다(畵工合神)”고 감탄했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을 보고서는 그 소리를 내는 방법과 청아한 소리에 넋을 잃고 “누가 天機를 범하고 造化를 빼앗았다고 말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서양이 대·소의 서양으로 나뉘어 있고 중국은 동양에 속한다는 선교사의 설명을 들었으며, 大西洋(歐羅巴)에는 모두 33개 나라가 있는데, 각기 君長이 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설명도 들었다. 아울러 중국과는 다른 언어와 문자, 풍속, 건축, 곡식 등에 대해 듣고는 서양은 아마도 별천지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홍수주는 그 선교사들의 모습이 눈은 깊고 코가 우뚝하니 악라사(대비달자)와 닮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종교를 道教와 같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당시 북경에는 선교사가 거주하는 곳이 세 곳인데, 그가 현재 방문하고 있는 宣武門 안의 西堂(서천주당, 나중에 남당으로 개칭) 외에도 동천주당이 있고 또 西華門 밖에도 거처가 있다고 하면서, 선교사 25명 중에 6명만 서당에, 나머지는 대부분 동당에 거주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들 선교사가 대부분 欽天監의 관원으로 일하며, 특히 그를 영접해 준 유송령은 3품 벼슬인 欽天監正이라고 했다. 천주당을 방문한 다음 날 홍수주는 답례로 종이와 부채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천주당에서는 다시 呂宋果, 吸毒石, 洋鏡과 서양화 4장을 보내왔다. 이처럼 홍수주 일행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과감하고도 끈질긴 천주당 방문 시도는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소헌세자 이후에 약 50~60년간 단절된 천주당 방문과 서양인과의 교제 등의 물꼬를

다시 트는 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한편 천주당을 최초로 설립한 마테오 리치 신부의 묘지에 관하여¹⁰⁴⁾ 1832년 북경을 방문한 김정선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阜城門을 향하면 문 밖 멀지 않은 곳에 이마두의 묘가 있다 한다. (김경선의) 일행 중에 일찍이 본 자가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앞에는 3좌의 석패루를 세우고 좌우에는 석사자를 마주해서 앉혔다. 묘지의 둘레가 3리쯤 되고 빙 둘러 아로새긴 담을 쌓았는데 네모 반듯하기가 마치 바둑판과 같다. 대개 만력 경술년(1610)에 황제의 명으로 이마두의 장지를 이곳에 정해 주었다. 봉분의 높이는 두어 길에 회로 봉하고 벽돌로 쌓았는데 모양이 흡사 수키와가 네 귀퉁이로 나온 처마처럼 생겼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퍼지지 않은 큰 버섯과 같다.¹⁰⁵⁾

김정선은 마테오 리치의 묘비에 그가 대서양 意大利亞[이탈리아]국 출신이며 명나라에 선교하러 온 耶穌會[예수회] 선교사였음을 알리는 글귀가 새겨져 있음을 언급하고 아울러 그의 묘 주위에 백여 개의 무덤이 있는데, 모두 서양 사람으로 중국에서 죽은 자를 잇달아 장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의 소현세자와 교류를 가졌던 살 신부의 묘지도 마테오 리치의 무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¹⁰⁶⁾ 김정선이 이곳 묘를 방문한 때(1832)는 조선에서 이미 한 차례 전국적인 천주교 박해(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여서 국가의 천주교 금지령이 엄존하고 있었던 때였다. 따라서 이러한 때 천주교를 동양 사회에 홍보한 리치 선교사의 묘지를 방문하고 그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김정선의 천주교관이 결코 부정 일반도로 편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그의 천주교관은 서양의 과학기술에 적극적인 찬성과 수용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천주교는 단연코 배척했던 그의 선배들, 즉 홍대용·박지원 등 북학과 실학자들의 입장¹⁰⁷⁾보다도 더욱 개방적인 면모

104) 조창록, 2006, 앞의 글 ; 박현규, 2006b, 앞의 글 등의 선행 연구업적이 있다.

105)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正月 十六日 「利瑪竇墓記」.

106) 서양자, 2001, 『중국천주교회사』, 가톨릭신문사, 250쪽.

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김경선은 報國寺를 방문한 기록에서 “한 칸에 자그마한 감실이 있어 제도와 양식이 크게 교묘하고 그 가운데 자그마한 옥불은 가경 경자년(1819) 서양에서 진공한 것으로 황제가 이 절에 하사했다”고 하였는데,¹⁰⁸⁾ 이는 천주교의 聖人像이 아닌가 생각된다.

천주당과 함께 천체관측과 관련된 서양의 과학기들이 다수 간직된 곳으로 欽天監에서 직접 관리하는 觀象臺가 있다. 조선의 사신들이 일찍부터 이곳을 방문하고 싶어했던 곳으로 추정되지만 직접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765년 동지사 서장관 洪櫓의 막료로 연행한 담헌 洪大容이, “관상대는 성 동남 모퉁이에 있는데 儀器들로 천체를 관찰하는 곳이다”고 하면서 당시 그가 남천주당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欽天監正 劉松齡이 황제가 정한 금지구역이라고 한 말이나 당시 통역들이 얼마 전에 조선 사람이 뇌물을 주고 관상대를 구경한 일이 발각되어 담당관리가 파면되었다는 전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홍대용은 그 대위의 의기들을 관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여 문지기에게 통사정을 하자 문지기가 자신의 목이 잘린다는 표시를 하면서도 이른 아침이라 아직 관리가 출근하지 않았으니 얼른 보고 나가라고 일시 출입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들어가서 잠깐 볼 수 있었다.¹⁰⁹⁾ 그곳에서 그는 渾天儀와 簡儀를 비롯하여 강희 이후에 만들어진 天體儀, 赤道儀, 黃道儀, 地平經儀, 地平緯儀, 紀限儀 등 六儀를 살펴보다가 문지기의 재촉에 정신없이 나와 버렸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이 관상대에 대해서, 김경선은 그의 일행 중 하나가 들어가 보기를 원했으나 허락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개 성에 오르는 일은 이미 禁條에 관계되거나, 그 천문대는 성을 의지해서 높이 쌓았으므로 궁궐을 엿볼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儀器는 대부분 그 나라에서 제일가는 귀중한 보물들인데 그가 구경을 요구한 일은 참으로 망령된 일이었다”¹¹⁰⁾고 기술하였다. 선배 학자인 홍

107) 원재연, 2000, 앞의 글, 171~177쪽.

108)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正月 十九日 「報國寺記」.

109) 『洪軒書』 外集 第9卷 「燕記」 觀象臺.

110) 『燕轅直指』 卷5, 留館錄(下) 癸巳年 二月 十九日 「觀象臺記」.

대용의 적극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인 김정선의 이같은 소극적인 관람 자세는 그 자신이 청조 관현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행일행의 풍기를 단속하는 책임자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_ 상호 문물교류의 공간 - 북경의 城市, 유리창

1712년에 자제군관으로 연행한 김창업은 북경 城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성 안의 인가는 빈터가 없고 다 기와집이었으며, 길 옆의 인가는 비록 궁벽한 골목이라도 다 점포를 열었다. 인가 사이에는 간간이 절과 사당이 있었는데, 그 수가 열에 두셋이었다. 성중의 저자와 점포는 북쪽이 가장 성하였으며, 그다음은 동패루이다. …… 성밖 저자와 점포 및 인가는 남쪽이 가장 번화하였으니, 정양문 밖이 으뜸이요, 숭문문 밖이 그다음이며, 선무문 밖이 또 그다음이었다.¹¹¹⁾

위 기술에서 보면 북경 성내의 경우에는 『周禮』 考工記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前朝後市의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고,¹¹²⁾ 성외의 경우에는 성 남쪽이 모두 변화한 市街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가를 배경으로 18세기 중후반에는 상업지역이 정양문과 선무문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이곳들이 가장 변화한 상업지구 겸 문화지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¹¹³⁾

隆福寺는 옥하관(남관)에서 북쪽으로 약 5~6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1704년 10월에 연행한 동지사 일행이 임시로 유숙한 곳이기도 했다.¹¹⁴⁾ 이곳에서 매일 9~10일에 廟市가 이루어지는데, 백화가 쌓여 땅에 빈틈이 없을 정도이며, 남

111) 『燕行日記』 卷6, 癸巳年 2月 11日, “城內人家無空隙 皆瓦屋 而路傍人家 雖僻巷 盡開舖子 人家之間 間以寺廟 寺廟之數十居二三 城中市肆 北最盛 次則東牌樓街 …… 城外市肆人家 南取繁華 正陽門外爲上 崇文門外次之 宣武門外又次之.”

112) 정혜중, 2005, 앞의 글, 47쪽.

113) 김성남, 2004, 앞의 책, 95쪽.

114) 앞의 본문 제2장 조선관 부분 참조.

녀가 섞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일대 시장을 이루어 여러 저자 중의 으뜸이 되었다.¹¹⁵⁾ 특히 이곳에는 앵무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이한 새가 작은 대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지저귀고, 수많은 꽃과 풀과 나무 등을 화분에 담아서 파는 가게가 있었다.¹¹⁶⁾ 또한 죄를 지은 권세가에게서 몰수한 진귀한 金龜, 琉璃燈籠 등과 自鳴鐘 등도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었다.¹¹⁷⁾ 이러한 저자의 번성함에 대해 1832년 연행사 서장관 김경선은 한편으로는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치를 숭상하는 경박한 풍조로 비판하였다.¹¹⁸⁾ 김경선은 또 유리창을 방문하고 그곳에 들어선 수백~수천 개의 市肆를 둘러보고 그 화물의 工費가 몇 巨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기묘하게 눈가림한 것이고 백성들의 日用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면서 중국의 사치풍조를 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물건을 편리하게 交易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면서 중국 경제의 규모가 크다고 감탄했다. 또한 열흘마다 7·8·9일 연 3일간 유리창이 開市하면 북경 내 여러 곳의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이곳의 시장이 파한 뒤에는 隆福寺에서도 장이 열린다고 했다.¹¹⁹⁾

유리창의 유리는 유리로 만든 기와나 질그릇을 의미하는 琉璃瓦를 가리키는데, 궁전과 묘당 등의 건축물에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유리창은 元代부터 이러한 도기를 굽던 가마장이었는데, 명대 이후 정월 초하루부터 17일까지 東華門 일대에서 東城區 쪽에 형성된 燈市가 청대에는 유리창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일대는 각종 서적과 서화, 골동품, 문방도구 등을 파는 가판들이 즐비한 일대 상업지구를 형성하게 되었다.¹²⁰⁾ 이곳은 용복사와 함께 연행사 일행이 자주 왕래한 곳으로 단순히 상업지구만이 아니라 18세기 이후 문화거리로 변모하면서, 홍대용·박지원·박제가·서호수·유득공 등 조선의 북학과 학자

115) 『燕轅日錄』 「隆福寺記」(*저자 및 연기 미상, 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95권, 384~385, 440~441쪽).

116) 『夢經堂日史』 「隆福寺」(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94권, 80~81쪽).

117) 『心田稿』 「官貨房」(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85권, 463쪽).

118) 『燕轅直指』 卷6, 留館別錄 「城郭市肆」.

119) 『燕轅直指』 卷3, 留館錄(上) 壬辰年 十二月 二十二日 「琉璃廠記」.

120) 김성남, 2004, 앞의 책, 110~112쪽.

들과 김정희 등 그 후학들이 이곳에서 紀曉嵐(紀昀)·翁方綱·阮元 등 중국의 문사·관리들과 시를 짓고 필담을 나누며 상호간의 관심사를 비교적 자유롭게 나누는 한중 문화교류의 요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¹²¹⁾

우리창은 정양문에서 선무문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길게 형성된 시가로 다섯 곳의巷子 있었으며, 내성에서 선무문을 벗어나서 오른쪽 유리창 거리로 나오면 곧바로 五柳居라는 서점에 이르는데,¹²²⁾ 이곳이 바로 정조대 4검서관의 하나였던 이덕무·유득공을 비롯한 조선의 학자들이 자주 찾던 유리창 내의 책방으로 이곳 주인은 강남의 漢族으로 江蘇·浙江 등지에서 올라온 송대 이후의 귀한 책자들을 대규모로 운반해 와서 조선 학자들에게 팔았는데, 특히 청조에서 매매를 불허한 禁書였던 고염무의 『亭林集』도 이덕무에게 판매했으며, 서적 구매를 감시하며 미행하는 옥하관 상주 관리들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조선 사신 일행이 구매한 책들을 수레에 싣고 북경에서 통주까지 뒤쫓아올 정도로 상호간에 신의가 두터웠다고 한다.¹²³⁾ 정조대에 국왕의 명으로 구입했던 『古今圖書集成』 총 1만 권 중에서 5,200권, 모두 502상자에 달하는 대규모의 책을 銀 2,150냥을 주고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徐浩修와 禁書였던 『皇清開國方略』을 발견하고 즉시 십여 장에 달하는 관련기록을 베껴 써서 청에 인질로 끌려가서 조선의 충절을 지킨 三學士의 사적을 조선에 전해 준 박제가가 활동한 곳도 바로 이곳 유리창 서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리창은 서적의 購買를 통해서 일종의 고급문화정보를 수집하는 연행사 활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²⁴⁾ 또한 『算學啓蒙』과 같이 중국에서 일찍 절판된 서적이 조선의 사신들을 통하여 유리창에 흘러나와 고려본으로 유통되었고,¹²⁵⁾ 淸心元과 같은 조선의 귀한 약재가 이곳 상인들에 의해서 요청되고 있

121) 김성남, 2004, 앞의 책, 148~157쪽.

122) 『熱河日記』 卷4, 1780년 8월 3일(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54권, 95~99쪽).

123) 김성남, 2004, 앞의 책, 130~131쪽.

124) 유리창이 청대의 학술문화 도서관과 같았다는 김성남의 지적은 적절하다. 김성남, 2004, 앞의 글, 118쪽.

125) 김성남, 2004, 앞의 책, 136쪽.

었다¹²⁶⁾는 점 등에서 청과 조선이 서적을 비롯한 상호 필요한 물자를 교역하는 상호 문물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연암 박지원은 이러한 유리창 서점에 이르러서 변화하고 장려한 상업발전의 실상을 목도하고 한없이 초라해지는 自我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¹²⁷⁾ 그가 조선에서 청조의 발전된 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利用厚生하자고 주장하는 배경을 이루었다.¹²⁸⁾ 18세기 후반 연행사의 이러한 주장은 19세기에도 계승되었다. 김경선은 북경 시내 여러 곳을 두루 둘러본 뒤에 다음과 같은 利用厚生論을 폈다.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春秋』의 尊攘之義를 위한 일을 즐기차게 이어서 백 년을 하루같이 하니 참으로 장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주를 높이는 사상(尊周)은 주를 높이는 일에만 국한될 것이오, 夷狄의 문제는 이적에서만 쓸 일이다. 中華의 城郭, 宮室, 人民은 실로 그대로 남아 있고, 正德, 利用, 厚生의 기구도 그대로 남아 있다. …… 천하를 위하는 자는 실로 인민에게 이롭고 국가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夷狄에게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를 취하여 본받으려 하거든 ……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이 이적을 물리치려면 중화의 끼친 법을 모조리 배우고 먼저 우리나라의 유치한 문화를 변화시켜 밭갈기, 누에치기, 그릇 굽기, 풀무부는 것 등으로부터 공업, 상업에 이르기까지도 배우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 …… 나와 같은 사람은 下士(비천한 선비)이지만 “그들의 훌륭한 모습은 깨어진 기와조각에 있고, 또 똥무더기에도 있다”고 말하겠다. …… 곧 부서진 자갈돌을 버리지 않아 천하의 圖畫(그림)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똥은 지극히 더러운 것이지만 이를 밭에 뿌리기 위해서 아끼기를 금처럼 여겨 길에 내버린 糞灰가 없고 말뚝을 쭈는 자가 삼태기를 들고 말 뒤를 따라다니듯 하는

126) 『熱河日記』 卷4, 1780년 8월 3일(임기중 편, 2001, 앞의 책, 제54권, 97쪽).

127) 『熱河日記』 卷4, 100쪽, “今吾獨立於琉璃廠中 而其衣笠 天下之所不識也 其鬚天下之所初觀也 潘南之朴 天下之所聞也.”

128) 정혜중은 “18세기 후반 북학과 실학자들의 淸文物 수용을 통한 利用厚生論의 등장이 실상은 18세기 전반 김창업의 연행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중국 인식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정혜중, 2005, 앞의 글, 43, 52쪽.

것이다.¹²⁹⁾

김경선은 중국인들의 민속신앙이나 전통적인 풍속이 깃든 유적지를 둘러 보고는 종종 북경 사람들의 사치스러움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풍부한 財貨 활용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아서, 淸人들의 利用厚生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義理와 名分の 北伐論에 집착하여 청나라의 선진제도와 유용한 문물을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철저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특히 북경 시내에서 많이 보았던 太平車, 獨輪車, 小車, 大車, 水銃車(소화기), 水車(논밭에 물대는 기계), 纜車(누에고치 켜는 기계) 등 다양한 수레[車]의 이용을 힘써 본받아야 하고 이보다 더욱 더 중요한 운하의 건설과 선박 제도를 도입하여 조선 사회의 물류운송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³⁰⁾ 이러한 그의 주장은 곧 그가 존경하고 흠모하던 홍대용·박지원 등의 연행록에 나타난 이용후생적 실학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여 실천하자는 것이었고, 비록 박제가가 주장한 바와 같은 직접적인 對西洋 通商論은 아니었지만 천하 재화의 有無相通을 통해 조선을 富國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홍대용에서 김경선에 이르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연행 지식인들은 태학·국자감 등 청조의 유교적 교육시설을 방문하면서 전통 儒學의 가치를 견지하는 태도를 피력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천주당, 아라사관, 저잣거리 등지에서 서양문물의 우수함을 목격하고 ‘이용후생론’을 피력하면서 海外交易論을 직·간접적으로 지향하였다. 개항을 전후한 무렵에 개화파의

129) 『燕轅直指』卷6, 留館別錄「眺覽交游」, “我東士大夫之爲春秋尊攘之論者 磊落相望 百年如一日 可謂盛矣 然而尊周 自尊周也 夷狄 自夷狄也 中華之城郭宮室人民 固自在也 正德利用厚生之具 固自如也 …… 爲天下者 苟利於民而厚於國 雖其法之或出於夷狄 固將取而則之 …… 故今人誠欲攘夷也 莫如盡學中華之遺法 先變我俗之椎魯 自耕蚕陶冶 以至通工惠商 莫不學彥 …… 余下士也 日壯觀在瓦礫 日壯觀在糞壤 …… 不棄碎礫 而天下之畫圖 斯在矣 糞溷至穢之物也 爲其糞田也 則惜之如金 道無遺灰 拾馬矢者 奉畜而尾隨.”

130) 『燕轅直指』卷6, 留館別錄「器用」.

비조 박규수 문하에서 젊은 개화파 인재들이 양성되고, 자주적인 근대화 사상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던 사상적 배경도 18세기 후반 북학파의 맥을 잇는 이 같은 19세기 전반 실학자들의 실학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19세기의 연행사들이 개방적이고 선구적인 사회개혁 의지를 형성하는 데에는 연행의 경험, 그중에서도 북경에서 본 각종 문명의利器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연행사들은 중국인들이 서구문물을 수용하여 그들 나름의 새로운 淸歐文化¹³¹⁾를 이룩한 것을 자세히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바로 그들의 개방적인 對外觀과 진취적인 文明觀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감화를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연행사가 유람하던 북경 시내는 民生日用과 관련된 선진 문물로 채워진 공간들이었고, 이들 공간은 18세기 중반 이래 그들에게 찾아온 홍대용·박지원·김경선 등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들에게 對外開放의 큰 깨우침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경 내 연행사의 활동공간은 곧 조선의 지식인들이 해외의 선진문물을 배우는 생생한 實用學習의 場이자, 國利民福에 유용한 서양문물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西洋認識의 深化空間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약 250년간 매년 수차례씩 북경에 들어온 연행사의 공적 활동공간은 청의 통제를 받아 비록 외교문서와 공물을 전달하는 양대 축으로 기능한 조선사신관(옥하관), 황궁, 예부 및 황궁 일대의 황제 거동처에 제한되었지만, 사신관은 이러한 공적 활동공간의 중심지로서 그 활용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사신관은 西勢東漸의 동아시아 국제

131) 이원순, 1992, 앞의 글, 75쪽 참조.

정세와 淸朝의 군사·경제·정치 등과 관련된 고급 機密을 탐지하고 수집·분석하여 이를 대청외교에 활용하려는 실리주의 외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유럽 각국의 사신이 북경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중심지는 옥하관이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채, 17세기 후반부터 남관에서 여러 임시거소와 북관, 서관을 거쳐 다시 남소관으로 여러 차례 그 위치를 이동하여야 했지만 事大朝貢의 틀 속에서 조청관계를 평화적인 우호관계로 유지시켜온 연행사 활동의 핵심공간으로는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사신관은 역관과 상인 등 연행사절 일행의 공식적이고도 제한된 형태의 開市貿易이 이루어진 공간으로서, 각종 연회가 베풀어진 禮部와 함께 마부와 노자 등의 명목으로 사절 일행을 따라온 조선 하예들의 치열한 이권다툼과 음식물을 둘러싼 생존경쟁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했는데, 청초의 엄격한 질서체계가 18세기부터 점차 이완되면서 19세기에 가면 더욱 문란하고 과격한 경쟁의 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청초의 행정적·군사적·재정적 쇠퇴와 깊은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조선 사신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유교질서 체제의 복구의지를 다지게 하는 한편 대외개방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7세기 중반~19세기 후반 약 250년 동안의 이른바 燕行錄의 시대에 조·청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는, 청 예부나 조선사신관에서 펼쳐지고 예부에서 주관하던 조선 사신에 대한 각종 慰勞宴 곧 下馬宴·上馬宴·別宴 등의 접대 분위기에서도 감지된다. 청초(17세기 중반)만 해도 황제의 최측근 親王과 왕자 및 예부상서 등 고위 대신들이 풍성한 연회를 주관하다가 18세기에 들어서면 예부시랑이 대신하게 되고, 상을 차리는 수와 饌品の 질은 18세기 후반까지도 융숭한 편이었으나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형식화되어 질이 떨어지고 이전부터 있어온 무리한 하숙들의 난입행동도 그치지 않았다. 또한 청초부터 연행사 일행들을 괴롭히던 提督·序班 등의 苛斂誅求 행위는 점차 완화되었다가 1830년대 무렵부터는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황제가 예부를 통해 하사하던 賞物의 질이 떨어지다가 1850년대에는 그마저 완전히 虛飾化된 것과 그 궤를 같이한 것이었으니, 서세동점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휘말려 내우외환을 겪으며 軍費 마련에 급급하던 청초의 재정상황이 극히 궁핍해

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 황제는 유리창의 상인들에게 빈번하게 돈을 꾸어가고 예부의 관리들은 조선 사행에게 하사하는 상물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병폐가 고질화되었던 것이다. 조·청 간 사대조공예식이 행해지던 공적 의례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변화는 청조의 쇠퇴를 뚜렷이 반영한다. 이 같은 변화를 직시한 조선의 연행사들은 청조의 사치와 낭비 풍조가 그 원인이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淸初부터 明代와 마찬가지로 청조가 엄격한 제한 속에 원칙적으로 그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조선 사신 일행의 사적 활동공간은 1680년대 ‘三藩의亂’을 진압한 후 청의 중원지배가 확고해지면서 조청관계가 평화적인 교류관계로 정착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점차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원칙적인 制約은 청조의 법령상 여전히 상존하였는데, 그것을 조선 사신들은 약간의 선물을 활용하면서 문물시찰에 대한 호기심과 정보탐색에 대한 의지로 거뜬히 극복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유람 및 購賣 활동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갔다. 사행들은 天壇이나 太學과 같은 유교적 종교·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관우, 기타 민속신앙과 節日 행사 및 유락공간을 돌아다니면서 淸漢 양쪽의 다양한 풍속과 생활문화에도 호기심을 보였으나, 그보다는 그들의 일용생활에 편리하게 등장했던 각종 器械·器物과 기술의 발전 및 이를 토대로 한 시장의 광대함에 탄성을 보냈다. 이러한 곳은 청이 대서양[유럽]의 문물을 수용하여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시킨 淸歐文物의 진열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8세기 중반부터 홍대용·박지원·박제가 등 조선의 북학파 실학자들이 몸소 답사하면서 그들의 대외개방 의지와 이용후생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표출한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문물을 발전시킨 자극제로서 서구의 과학기술문명이 살아 숨쉬던 공간이 있었으니, 청초 소현세자를 통한 짧은 접촉이 단절된 후 17세기 말부터 다시 그 발을 내딛게 되고, 18세기 초반부터는 매우 정례적인 답사코스로 자리잡게 된 천주당과 서양 선교사들의 묘지 및 원명원 등의 서양기물 전시공간이었다. 그러나 유교적 祭祀의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17~18세기에 청에서 전개된 典禮論爭의 여파가 조선에도 미치면서 1791년 진산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 천주교 금압을 공식화하자, 이러한 서양문물

시찰공간에 대한 유람이 일시적으로 잠복 내지 위축되었다. 하지만 조선 사신들의 서양문물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천주당에서 러시아 정교의 산실인 아라사관으로 그 장소를 바꾸어 답사하는 것으로 다시 표면화되었다. 1765년 홍대용은 청말까지 폐쇄적 금역으로 남았던 欽天監·觀象臺 같은 곳까지 들어가서 기물들을 살펴보고자 했으니, 당시 조선 지식인의 서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지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공사행에 대한 청조의 전반적인 禁制緩和 분위기를 타고 조선 사신 일행은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풍광이 뛰어난 공원 등지를 활발하면서 청조의 제반 문물을 玩賞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유람 중에 북학파를 위시한 다수의 인사들은 당시 화려하고 변창했던 청조의 民生日用과 관련된 物貨와 제도 등에 대해 감탄하면서 曆法, 水車, 수레, 배, 건축(城壁) 등의 제반 분야에서 청조의 선진 문물제도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서양문물에 대한 열정들은 앞서 언급한 청구문화에 대한 이용후생적 관심과 합치되어 대외개방에 대한 의지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것은 1830년대 김경선의 사행 때 기록된 『연원직지』에서 최고조로 표출되었다. 비록 1840년대 초반 아편전쟁 이후부터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청조의 쇠퇴현상 때문에 그러한 이용후생적 관심이 줄어들고 전통적·복고적 유학사상의 확립 쪽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는 결과마저 초래하지만 이는 일시적·부분적 현상이었을 뿐이다. 서양문물 유람의 공간을 통해 조선 사행들에게 다가선 서세동점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그들의 피부에 닿는 서양문물의 위력이 확장될수록 그들의 서양 인식은 보다 심화되고 확장되었으며, 그결과 문호개방에 대한 의지는 약간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더욱 공고하게 다져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서구문물에 대한 연행사의 경험이 1860~1870년대 조선 사회 내부의 자생적 문호개방의 흐름을 재개하고 개화파를 형성하는 데 일정한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17~19세기 북경 내 연행사의 활동공간은 결국 조선 지식인들의 서구문물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대외개방 의지를 성장시키는 견고한 바탕을 제공하였다는 역사적 의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同文集攷』.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김경선, 『通文館志』.

吳長元 輯, 『宸垣識略』.

李誠 主編, 2005, 『北京歷史輿圖集』, 外文出版社.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1976, 『국역연행록선집』 제1~12권, 경인문화사.

임기중 편, 2001, 『燕行錄全集』 제1~100권, 동국대학교출판부.

〈단행본〉

김성남, 2004, 『이야기로 읽는 한중 문화 교류사』, 프로젝트409.

김태준 외, 2005,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김현미, 2007,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도서출판 혜안.

翁立, 2003, 『北京的胡同』, 북경도서관출판사.

원재연, 2003, 『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들출판사.

임기중 외, 2002, 『燕行錄研究』, 일지사.

최소자 · 정혜중 · 송미령 엮음, 2007,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

〈논문〉

祁慶富, 2004, 「明清時期北京的朝鮮使館」, 『亞細亞文化研究』 제8집, 경원대학교 아세아문화연구소 · 中國中央民族大韓國文化研究所.

김경록, 2005, 「朝鮮後期 事大文書の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김경록, 2006, 「조선시대 事大文書の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제134집, 한국사연구회.

김경록, 2006, 「朝鮮時代 使行과 使行記錄」, 『韓國文化』 3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金東錫, 2006, 「俞彦鎬의 『燕行錄』과 趙璣의 『燕行日記』에 대한 고찰-대청관계의 변

- 화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제56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소.
- 김영진, 2005, 「조선후기 중국사행과 서책문화」,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 金鍾圓, 1977, 「朝鮮後期 對淸貿易에 대한 一考察—潛商의 貿易活動을 中心으로」, 『진단학보』 제43집, 진단학회.
- 김효민, 2004, 「연행의 길잡이」, 김태준 외, 『연행노정—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 박현규, 2006, 「북경에서 조선인과 대면한 서방 선교사의 묘역(1)(2)」, 『교회와 역사』 제377~378호, 한국교회사연구소.
- 박현규, 2006, 「조선 사신들이 견문한 北京 琉璃廠」, 『연행록연구총서』 제10권, 학고방.
- 소재영 외, 2004, 『연행노정—그 고난과 깨달음의 길』, 박이정.
- 伍躍, 2007, 「朝貢關係と情報收集—朝鮮王朝對中國外交を考ふるに際して」, 夫馬進 著編,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學 學術出版會.
- 원재연, 2000, 「조선후기 서양인식의 변천과 대외개방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재연, 2005, 「조선후기 연행과 서학수용」,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 柳承宙, 1997, 「청과의 무역」, 『한국사』 제33집, 국사편찬위원회.
- 이영춘, 2006, 「麟坪大君의 燕行錄: 『燕途紀行』」, 『史學研究』 제82집, 한국사학회.
- 이원순, 1992, 「赴京使行의 經濟史의 一考—私貿易活動을 中心으로」, 『朝鮮時代史論集—안(한국)과 밖(세계)의 만남의 역사』, 느티나무.
- 임기중, 2001, 「연행록과 한국학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24집.
- 임기중 외, 2002, 『연행록연구』, 일지사.
- 정은주, 2007, 「朝鮮時代 淸淸使行 關聯 繪畫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중, 2005, 「조선 선비의 청국 수도 北京 見聞—김창업의 稼齋燕行錄을 중심으로」, 『淸淸史研究』 제23집.
- 조창록, 2006, 「鶴山 徐浩修의 『熱河紀遊』—18세기 西學史의 수준과 지향」, 『동방학지』 제135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최소자, 1997, 「청국과의 관계」, 『한국사』 제32집(조선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ABSTRACT]

A study on the acting spaces of the diplomatic mission from Joseon, in Beijing during the 17~19th centuries

Won, Jaeyeon

This article is a basic study of the diplomatic mission to the Beijing Qing China from Seoul Korea in late Joseon during the 17~19 centuries. It sought for systematic and synthetic comprehension of the mission's action through considering the places where they visited. The places are limi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of her own judgment, not only the official places but the private ones. That is the mission's official residence Joseon-Sasin-kwan including the Working, lodging and meeting places, it is also the imperial palace and office agency where diplomatic documents and tributes from Joseon are delivered. This is the sightseeing courses for cultural and technical purpose. As time goes by, the Qing's control of the mission became relaxed and the acting places were expanded through using some bribes. But some zone as the astronomical office were remained to prohibiting places till the last. The mission's working places are the vital one where they studied and introduced the advancing civilization and system of Europe and China.

keywords

the diplomatic mission to the Beijing Qing China from Seoul Korea in late Joseon (燕行使), Beijing (北京), the official places, the private places, the missal residence Joseon-Sasin-kwan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 일본의 만한정책과 연계하여 -

김원수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I. 머리말

간도문제는 간도를 둘러싼 한국·중국 간의 영유권문제를 시작으로 同地에서 전개된 조선 독립운동, 민족문제 등을 총칭한다. 간도 지역은 현재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지칭하지만, 한국에서는 두만강 이북의 송화강 일대를 일컫는다. 이 지역은 한국·러시아·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종래부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간도 귀속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에 분쟁은 원래 무주간지인 이곳에 19세기 후반 조선인이 다량으로 이주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양국은 국경회담을 열어 교섭을 거듭하였지만 논쟁은 계속되었다.¹⁾

특히 20세기 초 들어 쟁점화된 간도문제는 러일전쟁을 前後로 대별된다.

※ 투고일 : 2009년 8월 10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1) 최근 기술된 간도문제에 대한 요약은 川島眞·服部龍二, 2007, 『東アジア國際政治史』, 名古屋大學出版會, 77쪽에 게재된 李盛煥의 column 3-4가 참조된다.

전쟁 전인 1900~1904년까지의 간도문제는 대한제국의 주도로 적극적인 식민화를 위한 간도정책이 추진되었다.²⁾ 반면에 戰後의 그것은 이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 주된 변화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일본이 만주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간도협약을 체결,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발단이 된 외교혁명에 따른 국제관계의 새로운 변화, 즉 4국협조체제(Quadruple Entente)³⁾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간도협약을 둘러싼 국제관계 연구는 주로 러일전쟁과의 연계성에 초점이 맞춰져, 한일, 한중, 중일 또는 미일, 러일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일본의 간도 파출소 설치, 간도 포기 및 간도협약과 한일병합의 관련성, 만한문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간도와 만주 권익의 교환과 관련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⁴⁾ 하지만 이에 비해, 외교혁명의 여파나 4국협조체제와의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간과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제적인 연구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⁵⁾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의 접근방법이 유용성이 있다. 그것은 기존의 국가사, 국제관계사와 지역사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연구뿐만 아니라, 러일전쟁 연구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⁶⁾ 일례

2) 은정태, 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제71호.

3) John A. White, 1995, *Transition to Global Rivalry—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4) 최근 간도 관련 연구사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는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제43집; 배성준, 2004, 「중국의 조청국경문제 연구동향」, 『중국의 동북변방 연구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이성환, 2006, 「간도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새로운 연구지평의 확장을 위한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76; 한철호, 2003, 「근대한중국경조약과 국경문제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김춘선, 2003, 「조선인의 동북이주와 중조(한) 국경문제 연구동향—중국학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5) 최근 간도 관련 국제관계 연구로는 미일관계와 제1·2차 러일협약의 관련 내용을 규명, 기존 연구를 보완한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 『한국사연구』 145호, 한국사연구회, 151~185쪽.

로 글로벌한 전망으로 러일전쟁을 어프로치한 최근의 학제적 연구는 이 전쟁을 '제0차 세계대전' (World War Zero)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였다.⁷⁾ 이는 지역적 차원에 머물렀던 러일전쟁 연구의 시공간적 범주를 확대하였고, 기존의 러일 및 서구 중심의 러일전쟁 담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글은 1907~1909년에 걸친 간도문제의 전개과정을 20세기 초의 全地球的인 국제관계와의 관련하에, 글로벌한 시각(global perspective)에서 조망해본 것이다. 특히 4국협조체제와 일본의 만한정책의 상호 작동성의 분석을 통해, 간도문제가 단순한 한·중·일 3국 간의 영토분할문제뿐만 아니라, 구미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다계적인 동맹협조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세계체제의 변화과정의 산물이었음을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간도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타자 중심의 간도 담론을 넘어서 한국 중심의 초국가사(transnational history)를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II. 20세기 초 전 지구적 국제관계와 간도문제의 연계

간도문제가 현안화되었던 20세기 초는 국제관계 체제에 혁명적인 변화가 진

6) 글로벌한 관점에서 러일전쟁과 만한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김원수, 2007, 「글로벌히스토리학과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론』 92호, 한국서양사학회, 285~286쪽; 김원수, 2009, 「글로벌히스토리학과 국제관계사의 지평확대-압록강위기와 러일전쟁의 재접속」, 『제42회한국서양문화사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93~101쪽.

7) John W. Steinberg, Bruce W. Menning, David Schimmelpenninck Van Der Oye, and David Wolff eds., 200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Boston; 讀賣新聞取材班, 2005, 『檢證 日露戰爭』, 中央公論社.

행되고 있었다. 이 새로운 변화는 유럽이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만한문제에서 발화되었고, 동아시아의 지평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와 상호 연동되어 좌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직접적인 近因은 러일전쟁에 있었다. 러일전쟁은 국지·제한전쟁이었으나, 국제관계로 보면 일·영·미 對 러·프·독의 양대 진영이 포진한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⁸⁾ 물론 전쟁 자체가 1904년 영불협상과 1907년 영러협상을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유럽에 조성된 ‘무장된 양대 진영(two armed camps)’⁹⁾ 체제는 이후 세계대전 of 一因이 되었다. 특히 간도문제가 발단된 1907년의 여파는 일대 전환점이었다. 그해 여름, 불일협상, 제1차 러일협약 및 영러협상이 연이어 체결됨에 따라 동아시아를 중심한 국제관계는 4국협조체제의 등장이라는 혁명적 구조변화를 겪었다.¹⁰⁾

그런데 이 같은 4국협조체제하의 구미열강의 세계정책과 간도문제를 연대기화해 보면, 양자가 함께 연동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난다.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 즉 1907년 8월 18일 간도 용정에 통감부 임시파출소 개설을 청 정부에 통보한 간도 진출기도는 시기적으로 전통적인 영러대립, 즉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 종결되는 영러협상의 체결과 4국협조체제의 성립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¹¹⁾ 부연하자면 일본의 간도 개입과 진출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 외교의 주축인 제2차영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만한 침략구상의 연속과정이며, 그 배후에는 불일협상과 러일협약 및 영러협상을 통해 미국과 독일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전쟁위협을 제어한 다각적인 동맹협조체제의

8) 김원수, 1989, 「러일전쟁과 국제관계의 변화」, 『수선사회』 제4집,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의 결언 참조.

9) A. Palmer, 1983, *The Chancelleries of Europe*, George Allen & Unwin, p. 208.

10) 衛藤藩吉, 2004, 『近代東了ジア國際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83~104쪽. 제4장 일러전쟁과 동맹협조외교가 참조된다.

11) 영러협상에 대해서는 R. P. Churchill, 1939, *Anglo-Russian Convention of 1907*, Torch Press; John A. Murray, 1957, “British Policy and Opinion on the Anglo-Russian Entente, 1907-1914,” Ph. Dis., Duke University; Rosmary Tompkin, 1975, “Anglo-Russian Diplomatic Relations 1907-1914,” Denton Texas, Ph. Dis.가 참조된다.

구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일본이 간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放棄 결정을 통해 간도문제를 만주 동삼성 5안건과 일괄 처리키로 한 일련의 조치들 또한 당시 국제적 상황과 함께 연동되고 있다. 즉, 그 처리과정 역시 독일 카이저의 독미청 동맹 구축 기도의 좌절, 1909년 3월 22일 청의 만주 현안문제를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회부하려 한 외교적 제스처, 독점적인 만주 지배를 용인하지 않는 미국의 태프트-록스 행정부의 등장, 유럽에서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에 따른 전쟁위기, 일본의 일청 간의 간도와 만주 현안문제에 대한 영국의 사전양해 기도, 이후 영국의 청일 교섭중재 등 일련의 사태가 만한문제와 상호 작동되는 가운데 전개되고 있었다.

이처럼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의 정황과 상호 작동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외교혁명의 근본동인은 영러 대립의 전환에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외교혁명의 국제관계는 이후 모로코 위기, 보스니아 위기와 발칸전쟁 등 끊임없이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의 동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²⁾

하지만 상기 사실을 기존의 유럽·서구 중심적 시각의 지평을 넘어서, 오늘날의 글로벌 히스토리의 시각에서 재고찰해 보면, 유럽 주변부의 위기들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동아시아의 위기도 그 하나였다. 특히 러일전쟁 후 동북아시아, 만주를 중심한 전쟁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위기는 만한문제에서 발화되었고, 동아시아의 지평을 넘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상호 연동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러일전쟁을 제0차 세계대전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¹³⁾

기실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의해서도,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12) James Joll, 1984,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Longman ; Michael Sheehan, 1996, *The Balance of Power-History & Theory*, London : Routledge, pp. 134~136.

13) 러일전쟁, 만한문제와 20세기 초 국제관계의 전 지구적 연동성에 대해서는 Wonsoo, Kim, 2007, "The Yongampo Incident and the origin of the Russo-Japanese War," *Власть и общество в России-во врем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и революции 1905~1907*, олериус пресс, pp. 38~39.

충돌 가능성과 만한문제를 둘러싼 세력권 분쟁은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나아가 전후 구미열강의 세계정책과 연동된 4국협조체제 역시 유럽과 동북아의 잠정적인 평화를 보장했을 뿐이며, 전쟁위기는 상존하였다. 더구나 전후 일본은 불법적으로 보호국화한 한반도를 발판으로 만한을 연계한 대만주 적극적으로써 구미 자본주의 열강의 만주 진출을 저지하고, 제2차 러일전쟁을 대비하여, 사전에 간도에 전략적 거점의 구축을 구상하고 있었다.¹⁴⁾ 그러므로 간도협약을 둘러싼 간도문제는 청일 간의 지역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쟁지역으로서의 만주문제를 본격화한 국제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해결은 동북아시아의 무장된 잠정적 평화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먼저 외교혁명의 결과인 4국협조체제 성립하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만한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독미청 동맹구상과 연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Ⅲ. 4국협조체제, 독미청 동맹기도와 만한문제의 접속

러일전쟁은 러시아의 패전으로 인해 유럽의 국제관계에서는 유럽 협조체제의 근간이었던 전통적인 영리 대립을 해소함과 함께, 영독 대립관계를 전면에서 표출시키는 전기가 되었고,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직결하는 기본적인 대항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은 극동과 태평양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미일관계는 러일전쟁과 그 강화에서 그 정점에 달하였지만, 이후 일본의 대륙정책이 만주 독점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문호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중국 정책과 충돌·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영일동맹

14) 角田順, 1967, 『滿洲問題と國防方針』, 原書房, 680쪽; 森山茂徳, 1987, 『近代日韓國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243~245쪽.

국민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본을 대독 포위망의 일환으로서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영·미 보조가 필요할 때에도 미국의 반일정책을 지지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중국 진출은 유리한 데 반하여, 미국은 극동에서 국제적 고립을 맞볼 수밖에 없었다.¹⁵⁾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러일전쟁 중까지만 해도 만주 문호개방의 대변자로 구미열강에 비취졌고, 그렇게 행동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외교적인 제스처에 불과하였다.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통해 한반도를 보호국화한 일본은 기존의 만한철도 이권확보에 그치지 않고, 간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기도를 구체화하며 만주의 세력권 확보 야욕을 노골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만주에서의 일본의 일방적인 獨走는 전후 관동도독부의 군정서를 통해 만주 점령을 기정사실화한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¹⁶⁾ 그 목표는 러시아의 복수전, 이른바 제2의 러일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었고, 러일전쟁과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확보한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권익을 현실화하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하지만 전후 일본의 독점적인 만주 선점조치에 대해 구미열강은 좌시하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1906년 3월 19일, 주일 영국 공사 클로드 맥도널드(Claude MacDonald)와 3월 26일, 주일 미국 대리공사 헌팅톤 윌슨(Huntington Willson)의 대일 항의가 바로 그것이었다.¹⁷⁾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만주를 타국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조선과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고 보고, 이 문제가 한국에 파급될 것을 우려하여 5월 들어 긴급히 만주문제 협의회를 소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만주 선점기도는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달성

15) David Wolff, 2008, "Riding Rough : Regionalism, and the Birth of Anti-Americanism in Northeast Asia," Steven Ericson and allen Hockley, *The Treaty of Portsmouth and its Legacy*, Dartmouth College Press.

16) 馬場明, 2003, 『日露戰爭後の滿洲問題』, 東京: 原書房, 1~20쪽.

17) 日本外務省 編纂, 1956(昭和 31), 『日本外交文書』第39卷, 1册, 日本國際聯合協會刊, 195~199, 204~212, 212~213, 219~220項 (以下『日本外交文書』39-1, 195로 略함).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경우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였다. 이 때문이라도 일본은 러시아와 만주에서의 세력범위를 획정할 필요가 있었다. 러일협약의 계기는 바로 여기에 있었고, 협약안에서 간도가 일본의 세력범위 내로 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러일협약에 시종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고, 이로써 한국문제와 만주문제는 바로 일본의 간도 진출에 따라서 연관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 대응한 것은 미국·영국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그해 여름, 독일도 이에 대처하였다. 카이저(Keiser Wilhelm II)는 중국과의 양탕트 체결 의사를 타진하였던 것이다.¹⁸⁾ 당시 독일은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포위망에 빠져 있었다.¹⁹⁾ 4월에는 알헤시라스 국제회의에서 영국이 모로코에서 프랑스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3B정책과 페르시아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었던 독일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영국·러시아·프랑스 간의 협조가 모색되었다. 특히 동년에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와 알렉산드르 이즈볼스키(Alexander Izvolsky)가 영러 양국의 외상에 취임하자, 영러관계와 일러관계의 개선은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전개로 독일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었다. 고로 카이저는 이 흐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였다. 1906년 여름 카이저가 베를린 주재 청국 공사 잉소우(廕昌)에게 청국과 화친협상 체결의사를 타진한 것은 바로 여기서 발단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906년 6월을 기점으로 한 영러관계와 러일관계의 전환의 여파는 유럽에서 독일의 견제 움직임과 더불어 거의 즉각적으로 한국문제에 반영되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려고 했던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한국의 지

18) L. J. Hall, 1929, "The Abortive German-American-Chinese Entente of 1907-8,"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1, No. 2, pp. 219~221; 義井博, 1977, 『カイザードイツの世界政策と第1次世界大戦』, 清水書院, 98쪽.

19) 4국협조체제와 독일 포위망에 대해서는 I. Geiss, 1976, *German Foreign Policy, 1871-1914*, Routledge & Kegan Paul, pp. 92~95와 Dwright Condo Baker, 1927, "Germany and the Far East, 1895-1908," Ph. Dis., University of California, pp. 306~343. 제10장 The Quadruple Entente in Asia와 11장 Germany's Encirclement이 참조된다.

위 문제를 스스로 철회하고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수용해 헤이그 평화회의에 한국의 초대를 철회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²⁰⁾

실제로 1907년 6월 15일에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영러, 러일, 불일 간의 외교교섭은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한국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6월 29일 헤이그밀사의 참가 거부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헤이그 특사 파견문제도 고종이 퇴위했을 때, 주한 영국 총영사는 순종의 즉위에 참석함으로써, 다시금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 의무를 충실히 했던 것이다.²¹⁾

하지만 7월 23일 일본의 원로 내각회의에서 러일협약안이 결정되고,²²⁾ 하루만인 24일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 병합은 성립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병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년 3월부터 7월에 걸친 러일교섭에서도 러시아는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무보수로서는 승인하지 않는다”²³⁾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한일협약은 러일협약안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7월 19일 고종의 양위에서 24일의 체결까지의 유예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1907년 들어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는 이전 러일전쟁의 전후처리의 상황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전 지구적 변화로서, 독일의 우려를 배가하였다. 이 새로운 체제는 6월 10일에 불일협상, 7월 30일에 러일협약이 체결되고, 뒤이어 8월 영러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가시화되었

20) 이와 관련해서 1906년 6월 맥도널드는 “러시아 정부는 최근에 일본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처음 단계에서 한국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초대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인해서 즉각 초대를 철회시켰다. ……”고 언급했다. Memorandum communicated by Japanese Chargé d’ Affaires, August 10, 1906, No. 87405, Confidential, FO. 371/179, (22) p. 108.

21) 한승훈, 2007,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와 영국의 대한정책」,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대한제국, 그리고 열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2) 『日本外交文書』 40-1, 169. 1907년 7월 23일.

23) 『日本外交文書』 40-1, 131.

고, 이로써 영리 대립의 그레이트게임이 종식되고 4국협조체제가 구현되었다.²⁴⁾ 이 협조체제는 유럽에서는 3국협상국에게 대독 포위망을,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에게 대미 견제를 가능케 해 주었다. 특히 일본의 4국협조체제 참가는 반독진영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독일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4국협조체제 구축에 소외감을 느낀 것은 독일뿐만이 아니었다. 미국과 청국도 매한가지였다.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일본의 독점적인 대륙·만한 진출이 만주 문호개방정책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오렌지 계획을 책정할 만큼 일본을 견제하고 있었다.²⁵⁾ 한편 중국 역시 4국협조체제의 구축이 자국 분할의 사전 조치라는 의혹을 갖고 있었고, 특히 남만주와 북만주 및 몽골에서 상호 영향력을 인정한 제1차 러일협약은 이러한 의구심을 확실하게 만들었다.²⁶⁾

바로 이 틈을 이용, 독일은 反日정책을 취함으로써 독·미·청 3국 사이에는 反日이라는 점에서 제휴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실제로 독미청 동맹구상²⁷⁾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1907년 6월 불일협약이 체결되고 난 1개월 후인 7월 초 들어서였다.²⁸⁾ 이때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독일과 영국으로부터 일본이

24) 일본의 다각적 외교협조망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千葉功, 2008a, 『舊外交の形成』, 勁草書房.

25) William Braisted, 1954,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 Austin, pp. 204~207; 入江昭, 1995, 『轉換期の日美關係 1896-1914』, 細谷千博編, 『日美關係通史』, 東京大學出版會, 58~61쪽.

26) Charles Vevier, 1968,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06-1913*, New York, p. 43.

27) 독미청 동맹구상에 대해서는 Dwright Condo Baker, 1927, 앞의 글, pp. 344~409. 제11장 The way out : A German-Chinese-American Entente Projectin 1907 and 1908; L. J. Hall, 1929, 앞의 글, pp. 219~221; 설동은, 1986, 「만주문제를 둘러싼 T. 루스벨트의 대일외교-루트-高平협정의 성립배경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42쪽.

28) *Die Gross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XXV, No. 8547, pp. 67~69(이하 D. G. P.로 약함); Dwright Condo Baker, 1927, 앞의 글, pp. 344~345.

필리핀 또는 하와이를 탈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던 시기였고,²⁹⁾ 일본 각의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조선 내정 전권 장악에 관한 제3차 한일협약을 결정하기 직전이었다. 북경주재 독일 공사 렉스(Count Graf von Rex)는 1907년 7월 4일부 전문을 통해 영·불·일 간에 동맹협상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국가들의 중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독일은 극동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결속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영·불·일의 위압으로부터 중국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청국으로부터는 환영받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³⁰⁾

한편, 당시 렉스의 보고를 독일 정부가 수용하게 된 것은 제1차 러일협약이 성립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렉스는 러시아의 가입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러일협약이 체결된 이후 카이저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렉스의 제안을 승낙하고, 9월 16일에 주미 독일 대사 슈테른부르크(Baron Speck von Sternburg)에게 러시아를 제외한 독미청 동맹구상안에 관해서 미국 정부의 의향을 타진토록 하였던 것이다.³¹⁾ 1907년 10월 17일 슈테른부르크는 재상 블로우(Bülow)로부터 청국의 외무부 尙書 겸 군기대신 원세개(袁世凱)가 주미·주독 청국 공사들에게 미국과 청국 간의 동맹 가능성을 타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전갈을 받은바, 미 국무성에 독일은 미국 및 청국과 행동을 같이할 의사가 있으며, 일본에 맞서 중국의 독립과 영토보전 및 문화개방을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³²⁾ 따라서 일본의 간도 파출소 설치를 계기로 일본의 침략에 맞선 독·미·청 3국 간의 동맹체결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29) 미군부의 아시아 진출논의에 관하여는 R. D. Challener, 1973, *Admirals, General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898-19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제Ⅲ장을 참조할 것.

30) 義井博, 1977, 앞의 책, 86쪽.

31) L. J. Hall, 1929, 앞의 글, pp. 219~235; 義井博, 1977, 앞의 책.

32) 森山茂徳, 1987, 앞의 책, 249~251쪽. 독·미·청 동맹구상 논의를 배경으로 청국은 1907년 9월 23일 吉林督弁邊務를 신설하고 陳昭常과 吳祿貞의 지휘하에 2,000명의 군대를 간도에 주둔시켰다.

만주에서의 전선은 일본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독일의 대미 접근에 대해 루스벨트는 어떤 확약도 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의견상으로는 계속 독일에 동조하고 있었다. 1907년 9월 9일 슈테른부르크가 루스벨트를 방문하고, 본국에 발송한 보고서는 이를 입증해 준다.³³⁾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한 언급이지만 당시 루스벨트는 일본과의 위협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독일과의 협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루스벨트의 대독 유화 제스처는 계속되었고, 그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즉, 11월 초 스테른부르크가 렉스의 제안을 가지고 재차 루스벨트를 방문하였을 때, 후자는 “나는 중국의 영토보존에 관한 일본의 선언을 믿을 수 없으며, 더욱이 일본이 러시아·프랑스·영국과 협상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중국을 분할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나는 일본에 대항하여 독일 함대와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³⁴⁾는 의사표명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³⁵⁾ 동년 12월 5일자로 독일 외무성에 보낸 슈테른부르크의 보고에서도, “미국 정부는 고립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 동맹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할 수 없지만, 이를 대신해서 3국의 공동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좋다”는 루스벨트의 호의적인 입장이 표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또한 달러 공세를 획책하고 있던 미국의 봉천 총영사 윌라드 스트레이트(W. Straight)도 원세개의 反日政策을 후원하게끔 루스벨트에게 의견을 구신하고 있었다.³⁶⁾

33) D. G. P. XXV. 72. in selected and translated by E. T. S. Dugdale ed., *German Diplomatic Documents 1871-1914*, Vol. 3, pp. 262~264.

34) D. G. P. no. 8553 ; L. J. Hall, 1929, 앞의 글, pp. 224~226.

35) Masuda Hajimu, 2009, “Rumors of War : Immigration Disput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American-Japanese Relations, 1905~1913,” *Diplomatic History*, Vol. 33, No. 1 (January).

36) Helen D. Kahn, 1954, “The Great Game of Empire : Williard D. Straight and American Far Eastern Policy,” Unpublished Ph. Dis. University of Stanford,

따라서 이 같은 미독 간의 협조 분위기는 미일관계가 소원해지는 한 계속 유지되었고, 1908년 가을, 청국이 독·미·청 동맹교섭을 위한 밀사로서 唐紹儀를 우선 미국에 파견하고 있는 시점까지 이 교섭은 순풍의 돛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동년 8월 제2차 가쓰라 내각에 등용된 고무라 외상이 주도하는 대미 접근시도에 선수를 맞았고, 1908년 11월 30일의 루트-다카히라(Root-高平)협정의 성립과 동년 말 서태후의 죽음과 원세개의 실각으로 일단 저지되었다.³⁷⁾

이처럼 독일의 독미청 3국결합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카이저의 망상이 아니었으며, 청국의 반일정책의 일환으로서 취해진 ‘以夷制夷’ 정책에 결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층 더 미국의 극동정책에도 호소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청일 간에 간도문제가 현안화한 1907~1908년間に 전개된 독미 교섭의 경과로부터 명확해 진다. 하지만 그 成否를 좌우한 것은 미국의 진퇴에 있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간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한문제와 연동되었는가, 일본의 만한정책, 루트-다카히라협정과 간도협약과 연계하여 살펴보자. 이 과정에서 영일관계는 공조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간도는 일본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되고, 간도와 한반도 강점을 위한 사전 구상도 구체화된다.

pp. 177~178 ; L. J. Hall, 앞의 글, 1929 ; 義井博, 1977, 앞의 책.

37) Thomas A. Bailey, 1940, "The Root-Takahira Agreement of 1908,"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9, No. 1(Mar.), pp. 19~20.

IV. 일본의 만한정책과 간도문제의 접속 : 간도협약

러일전쟁 과정에서 영미가 일본을 지원한 것은 만주의 경제적 문호개방을 기대하고, 또한 동아시아에서 러일의 세력균형을 바라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일전쟁 前後, 일본의 대륙정책은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연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미의 만주 정책과는 보조나 타협이 불가하였다. 이에 일본은 自救의 대안으로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협정,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의 갱신에 의해 대륙정책의 발판으로서 한국을 확보하고, 만몽에의 진출의도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는 예상되는 러시아의 복수와 독일의 야심에 대비키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전후 일본의 만주 독점시장의 확보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였다. 그러므로 미국의 자본공세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러일의 제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1907년의 제1차 러일협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 달성될 수 없었고, 전쟁 재발 가능성은 상존하였다. 러일 대립의 초점은 만한문제였고, 그 중심에 간도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간도문제는 애초부터 일본의 만한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상관성은 간도협약의 발단이 된 통감부의 간도 임시파출소 개설 기도가 불일협상과 러일협약의 추이, 특히 러시아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치밀하게 진척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미 그 실행방안이 1907년 1월 들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³⁸⁾ 지체된 이유는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가 파리에서 불일 간에 교섭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불일협상의 타결과 함께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러일협약에 교량 역할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이토 통감은 5월 19일자 하야시 다다쓰[林董] 외상에게 보낸 전문에서 불일협상과 러일협약의 성립을 독촉하고, 고종이 밀사 헐버트를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것을 전함과 동시에 차제에 불일협상만이라도 속히 체결

38) 『日本外交文書』 40-2, 83-84.

을 독촉했던 것이다.³⁹⁾ 이런 연유로 동년 4월 13일의 간도 파견대 진출계획은 러일협약 체결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7월 30일 러일협약이 조인되고 난 약 3주 후인 8월 18일, 이토가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와 협의하고 한국 군대의 해산을 단행함과 동시에 통감부 간도 임시파출소 개설을 청국에 통보하고, 19일 사이트 스에지로(齊藤季治郎) 所長이 회령에서 용정으로 들어갔다.⁴⁰⁾ 이에 대해 청국은 공식 항의했고 이로써 간도문제를 둘러싼 청일 간의 교섭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간도 파출소 설치 이후 8월 31일에 영러협상까지 체결되자, 일본의 만주 침략에 맞서, 곧바로 9월초 독미청 삼국제휴 논의가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됨으로써, 만주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일본에게 더욱 불리하게 조성되기 시작했다. 1907년 11월 21일 이토가 하야시 외상에게 보낸 전보에서 “간도문제에 대해 청국이 강경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떤 제3국의 후원이 있기 때문”이라고⁴¹⁾ 판단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일 연대의 성립 가능성을 감지한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았다. 독미청 3국동맹에 맞서든가 아니면 중국의 영토보전과 문호개방의 원칙을 준수할 것임을 약속하든가 양자택일 뿐이었다. 4국협조체제에 연동되고 있던 일본으로서 선택의 길은 뻗은 것이었다. 戰後 제2차 영일동맹을 축으로 4국협조체제를 구축한 일본이 독일의 견제에서 벗어날 길은 악화된 미일관계를 개선, 즉 태프트-가쓰라[Taft-桂]각서의 후속조치를 완성하여 미일 협조체제를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 전환점은 1908년 7월, 가쓰라와 야마가타 계열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제2차 가쓰라-고무라 내각의 등장이었다.⁴²⁾ 그것은 戰前 영미의 협조하에 만 한 불가분 일체론에 입각한 만한 강경책을 주도해 러일 개전 외교로 몰고간 ‘고무라 외교’ 체제의 재등장이었다. 런던에서 귀국한 고무라 신임외상은 9월

39) 『日本外交文書』 40-1, 427.

40) 外務省 編, 1966a,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卷, 原書房, 165~171쪽.

41) 『日本外交文書』 40-2, 156-158.

42) 宇野俊一, 2006, 『桂太郎』, 吉川弘文館, 175~186쪽.

25일 각의에서 열국에 대한 기본자세와 대외경영 및 조약개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한 후 만주에 대한 제 문제에 관한 대청교섭의 방침을 결정하고,⁴³⁾ 간도문제를 비롯한 만주 현안의 해결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고무라 외교의 구체적인 방침은 영국과는 영일동맹을 '제국외교의 骨髄'로 하고, 제2차 영일동맹을 기초로 이후 체결된 러일협약, 영러협상 등과 연계하여 양국관계를 보다 친밀화하는 것이었다.⁴⁴⁾

고무라 외상은 10월 15일, 대청 외교방식의 전환을 모색키 위해 이주인 히코요시[伊集院彦吉]를 주청공사로 임명하고, 唐紹儀의 미국 방문길에 일본에서의 회담을 주도하고, 동시에 동월 26일 다카히라 주미대사로 하여금 루스벨트에게 협상안을 제출케 하여, 11월 30일 워싱턴에서 미국무장관 루트와 주미대사 다카히라 간에 '태평양양면에 관한 미일교환공문(루트-다카히라협정)'을 체결하였다.⁴⁵⁾ 이는 독미청 동맹교섭을 위해 당소외가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협정체결을 서두르고자 했던 고무라 외교의 선행조치였다.⁴⁶⁾ 이로써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미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보 전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으로서는 4국협조체제의 구도하에서 간도 진출을 통해 이를 거점으로 만주 침략의 기회를 엿보았지만 독일의 독·미·청 3국동맹구상이라는 대일

43) 고무라 외상의 '만주에 관한 제문제 해결방침'이 각의에서 결정되자, 이는 간도문제, 범고문철도, 대석교-영구철도의 철거, 신봉철도의 연장, 무순 및 연대탄광 그리고 안봉선 등 연선광산이라는 미해결의 6안건을 일괄해서 청국 정부와 협상한다는 것이었다

44) 寺本康俊, 1999, 『日露戰爭以後の日本外交』, 信山社, 399~413쪽; 外務省 編, 1966b, 『小村外交史』, 原書房, 743~757쪽.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일협상을 유지하고, 만주에서 양국이 제휴하여 이익을 확보하며, 청에 대해서는 만주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청국의 일본에의 신뢰를 양성하며, 불의의 사변이 있을 시 우세한 지위를 확보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교역상대국으로서 친선관계를 修復하고, 이민문제 등에서 배일적인 동태를 완화하고, 태평양문제 등에서 미일협상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45) 千葉功, 2008b, 『日露戰爭と日本外交』,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露戰爭と東アジア世界』, ゆまに書房, 41~46쪽.

46) 外務省 編, 1966b, 앞의 책, 764~776쪽.

견제에 직면하여 미일 접근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문호개방정책과 중국의 영토보전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현실은 일본의 간도 영유권 주장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일본의 만한문제와 간도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루트-다카히라협정은 독·미·청 3국동맹구상을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향후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미일 간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었다.⁴⁷⁾ 이는 간도협약 체결 2개월 후인 11월 초 제기된 미국무장관 녹스(Philander C. Knox)의 만주철도 중립안에서 실체화되고 있다.

태평양 방면에 관한 루트-다카히라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한 일본은 곧바로 만주 현안문제 타결에 착수했다. 1909년 1월 초부터 2월 17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간도문제를 포함한 만주 현안 타결을 위한 청일회담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간도 영유권 교섭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동월 26일, 일본은 간도 영유권만으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만주 지역에 관한 다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東三省 六案을 제기하였다.⁴⁸⁾

그 같은 전환의 배경에는 1909년 들어서 청국 내부의 세력변화도 한몫을 하였다. 서태후·光緒帝 사후에 반일파인 원세개 일파가 醇親王에 의해 축출되고, 동삼성의 徐世昌·당소의 체제도 붕괴되어, 錫良이 총독에 취임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본의 동삼성 6안 처리의 해결전망을 열어주는 것인 동시에, 구미열강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일본 지도자들은 만주에 대한 구미열강의 간섭을 우려하였으며, 간섭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만주뿐만 아니라 보호국 한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⁴⁹⁾

더구나 대외적으로 3월 21일, 독일의 대러시아 최후통첩으로 보스니아 위

47) Scott Nearing and Joseph Freeman, 1925, *Dollar Diplomacy—A Study in American Imperialism*, B. W. Huebsch and The Viking Press, pp. 42~55.

48) 일본의 간도문제에 대한 태도변경과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5, 『간도영유권관계 발췌문서』 1집, 241~249쪽; 노영돈, 2005, 『러일전쟁이후 간도영유권문제의 처리』, 정성희 외,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201~203쪽.

49) E. H. Zabriski, 1973, *American-Russian Rivalry in the Far East*, Greenwood, pp. 139~141.

기가 종식되어 3국협상국들의 약세가 드러났고, 동월 22일, 중국이 만주 현안을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탁할 것을 일본에 통보하였다. 당시 이주인 공사가 가와시마 나나와[川島浪速]를 통해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청국 정부에 중재재판설을 흘린 것은 신법철도문제에 관련하고 있는 영국인 브랜드(J. O. P. Bland, 中英公司代表)와 모리슨(G. E. Morrison, 런던 타임스 북경통신원)이었다.⁵⁰⁾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1909년 4월 10일 일본 원로회의에서 가쓰라·고무라·이토가 한국 병합을 결정한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⁵¹⁾ 한편 동월 29일, 청국에 의한 교섭중지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제2 대청정책’을 작성하여 가쓰라·고무라·테라우치에게 송부한 것도 이 같은 위기감에 따른 대안이었다. 야마가타는 만주 경영의 주축으로서 첫째로 안봉철도의 개축, 두 번째로 길회철도(길림-회령)의 부설을 거론하며,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이 철도를 부설하는 것은 간도에 대한 한국의 영주권을 확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동 철도의 부설권을 인환하고 간도의 영유권문제에는 양보하자는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청국이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년도 대청 정책소견과 비슷하게, 러일협약을 이용하여 러일이 제휴하여 청국으로 하여금 타협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⁵²⁾

다른 한편, 일본으로서의 제국외교의 중심축인 영일동맹의 연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당시 영일 양국 간에 청국에서의 철도 투자경쟁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법고문(신법)철도와 금에 철도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⁵³⁾ 1909년 5월 13일 이토와 맥도널드의 회담은

50) 『日本外交文書』 42-1, 244, 246, 264-263; 千葉功, 2008a, 앞의 책, 207쪽. 모리슨으로부터의 정보는 당초 청국 정부는 미국에 중재를 의뢰하려 하였다고 한다

51) 上担外憲一, 2000, 『暗殺・伊藤博文』, ちくま新書, 196쪽.

52) 『山縣意見書』 307-14; 千葉功, 2008a, 앞의 책, 208쪽.

53) 이미 1907년 8월 주청 阿部 일본 대리공사는 청국 외무부에 대하여 신민둔 법고문 철도 계획의 유무와 동삼성 총독 서세창의 외채 차입설의 관계 등을 질의한 이후로, 일본은 1905년의 북경 회의록의 명문을 들어 만주철도 병행선의 부당함을 지적

영국의 대일 오해 배제와 동맹강화에 관한 일본 당국의 고심을 해결하는 실마리였다.

1909년 5월 13일, 이토는 휴가차 귀국하는 주일 영국 대사 맥도널드를 자택에 초대하여 영일관계에 대하여 “나는 기회만 있으면 당로자들에게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국과의 교섭사건에 대해서 성실 돈후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고 하며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적 이해의 충돌은 없지만, 이를 대비해서 동맹을 강고히 하는 일대 요건을 준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⁵⁴⁾

한편, 같은 날 가쓰라 총리도 맥도널드와 회견하고, 영일동맹과 중국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의 의지를 밝혔다. 당시 청일 간에 현안 사안인 ① 간도문제, ② 신법철도 문제, ③ 경봉철도를 봉천성으로 연장하는 문제, ④ 대석교지선문제, ⑤ 무순 인대탄광문제, ⑥ 철도연선 광산문제, ⑦ 중재재판 부탁의 제의 문제, ⑧ 동청철도 부속지 내의 행정권 문제, ⑨ 남만주철도 부속지에서의 행정권문제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양해를 구하였다.⁵⁵⁾

다른 한편, 이 시기에 런던 타임스 외교주임 치롤(Valentine Chirol)은 영국 정부의 의향을 받아 청일 양국 간을 중개하여, 극동 시찰을 행하였다. 북경에서 가쓰라 수상에게 보낸 치롤의 의견서를 보면, 북경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이 영일동맹의 파멸과 동요를 절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영일동맹이 규정하는 양국 간의 공동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난항하는 중일교섭에서 일본이 양보할 것을 요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도의 영

하였고, 이후 수차례 경고를 발하였다. 한편 1909년 5월 7일 영국의 파울링은 주청 일본공사가 중국 정부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비밀협정에 따라 중국이 건설하지 말아야 할 범위에 대해 일본이 확정해 주기를 거부했다. 정부의 공식 지지가 없으면 일본인들은 과도하게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이 틀림없었다. Pauling and Co. to F.O., 7 May and 10 June 1909, F.O. 371/636.

54) G. P. Gooth & H. W. V. Temperley, ed., 1926-1938,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1894-1914*, Vol. VIII, London : H. M. Stationery Office, 467 (이하 B. D. Vol. VIII로 약함).

55) B. D. Vol. VIII, 469~470 ; 『日本外交文書』 42-1, 275.

사재판권문제에 대해서는 會審재판제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만철병행선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선의 구역을 한정하는 것으로 타협하기를 논하고 있다. 이 같은 치롤의 의견서는 일본 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⁵⁶⁾

또한 6월 24일, 치롤은 이주인에게 미국과 독일의 간섭 이전에 가급적 빨리 현안 해결을 권고하였다. 한편, 29일 영국 외상 그레이 역시 주영 일본 대사 가토에게 이토와 가쓰라의 말에는 영일동맹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취지인데, 본인도 같은 의견임을 밝히며, 영일동맹은 극동에서 다른 국제조약들과 더불어 균세의 유지상 심히 유력한 것이며, 만약 일본이 이를 철회한다면 국제 간에 불안정이 생겨 균세가 어려워질 것임을 주지시켰다.

이처럼 교착상태에 있던 청일 간의 대화가 재개된 데에는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영국의 역할이 컸다. 이는 앞서 1908년 9월 26일 당소위가 영국의 폴링(Pauling and Company) 철도회사와 남만주의 금주(錦州)와 조남(洮南)을 연결하는 철도부설을 체결한 계약과 관련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이 회사가 철도부설 권역이 일본의 세력권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주청 영국 공사 조던(J. A. Jordan)에게 조회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만주에서 동맹국 일본과의 이해충돌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 외상 그레이(E. Grey)는 중국이 만주에서 일본의 지위를 손상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금제철도 문제 역시 영국과 일본 사이를 음해하기 위한 중국의 음모라 판단하고 있었다.⁵⁷⁾ 이에 1909년 7월 20일, 그레이는 주영 일본 대사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와의 회견에서도 남만주철도는 일본이 러시아와 싸워 얻은 유일한 전리품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8월 13일 그레이는 조던 공사에게, 중국은 일본과 함께 만주에서 철도 발전을 위해 공동계획을 수

56) Lo Hui-Min, 1976, *The Correspondence of G. E. Morrison*, 3Vols, Cambridge, No. 309 ; 千葉功, 2008a, 앞의 책, 209~210쪽 ; 1909년 8월 25일부 山顯有朋 宛 加藤高明 書翰, 『山縣文書』 제19책, 『山縣有朋文書』 2권 10-12항.

57) E. W. Edwards, 1966, "Great Britain and the Manchurian Railways Question, 1909-1910,"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81, No. 321, pp. 744~745.

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이 이를 수용한다면 일본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⁵⁸⁾

이에 8월 20일 가토 대사가 중국이 주도할 경우 협상을 준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줌에 따라 조던에게 이주인과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⁵⁹⁾ 마침내 1909년 9월 2일 영국 외무성 관리 롬볼드(Rumbold)는 가토가 비록 금제철도(錦齊鐵道)가 신법철도(新法鐵道)보다 남만주철도에 위협적이지만, 일본이 금제철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청국이 신법철도를 포기하는 데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그레이에게 보고했다. 신법철도 포기는 일본이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만주 5안건(滿洲五案件에 관한 日清協約文) 제1조에 포함된 내용이었다.⁶⁰⁾ 이에 영국이 중재한 청일 간의 외교적 타협은 마침내 9월 4일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과 '만주 5안건에 관한 청일협약' 체결로 귀결되었다.⁶¹⁾ 그 결과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 제1조에서는 두만강을 한청 양국의 국경으로 설정하였고, 제4조에서 잡거지 거주 한인에 대한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으로 1905년의 북경조약의 실질적인 작업이 완성되었는데, 간도 영유권은 청국에 양도되고, 중국·한국의 국경이 획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간도협약은 구미 제국주의 열강·중국·일본 간의 타협과 이해가 개입된 다계적인 동맹협조체제 구축과정에서 나타난 이해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58) E. W. Edwards, 1966, 위의 글, pp. 746~747, Grey to Jordan, Private, 13 Aug. 1909, F.O. 800/43; 일본 정부 역시 1909년 8월 13일 “잡거지 조선인에 관해서는 굳이 재판권의 보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간도문제에 관한 중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청일교섭은 급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정치학회보』 8집 1호(여름), 259쪽.

59) E. W. Edwards, 1966, 앞의 글, Rumbold to Grey, 2 Sept. 1909, F.O. 371/636.

60) 본건 상의는 간도문제 및 만주 5안건 중에 1안건을 구성하고 있는데, 1909년 간도문제와 함께 북경에서 이주인 공사와 양돈업 간의 교섭으로, 회의를 거듭한 결과 9월 4일 체결된 만주 5안건에 관한 일청조약 제1조에 “청국 정부는 신민둔법고문 간의 철도를 부설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본 정부와 상의하는 데 동의한다”는 규정을 설치하여 그 해결을 보고 있다.

61) 國會圖書館 編, 1975, 『滿洲五案件에 관한 日清協約文, 淸韓兩國國境에 관한 日淸協約調印書』, 『間島領有權關係採萃文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250~253쪽.

하지만 다른 한편 일본의 만한정책과 간도 교섭방침이 전환된 이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만주 6안건 교섭과 병행하여, 한반도 병합을 위한 일련의 실질적인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1909년 3월 말 고무라 외상은 가쓰라 수상에게 한국 병합방침안을 건의하고 4월 10일 靈南坂 회담에서 이토 통감은 가쓰라·고무라와 함께 한일병합에 동의하였다.⁶²⁾ 이후 7월 6일, 일본 각의에서는 “이 차제에 병합방법으로서, 조약체결에 의한 임의적 방법을 최선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시 일본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강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구미열강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불명한 이 시점에서 병합의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⁶³⁾ 이어 7월 12일, 기유각서를 체결,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 전권을 일본에 위임시키고, 한국에서 영사재판권 폐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뒤이어 한국 중앙은행에 관한 한일각서 조인, 군부의 폐지에 이은 호남 의병에 대한 만한 대토벌작전 개시 등의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만한 적극책은 만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자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음을 인식한 결과였다. 당시 청의 동청철도 매각구상은 일본의 철도를 중심한 만주 진출계획에 우려를 초래하였고, 3월 22일 청의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중재회부를 위한 외교적 제스처,⁶⁴⁾ 4월 미국의 태프트-눅스 행정부의 등장은 일본의 만주 지배를 묵인한 루스벨트-루트 노선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一國에 의한 독점적인 만주 지배를 용인하지 않고 있었다.⁶⁵⁾ 한편 유럽에서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에 따른 전쟁위기가 3국협상 앙탕트 체제의

62) 上担外憲一, 2000, 앞의 책, 196쪽.

63) 『日本外交文書』 42-1, 179-80; 海野福壽, 2000, 『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349~351쪽; 森山武徳, 1987, 앞의 책, 243쪽; 제국정부는 한국에 대하여 정책을 확립할 필요를 인지해 客年 7월 중 조의로서 병합의 방침을 결정하고 右시기가 도래하면 …… (메이저 42년 7월 6일 각의 결정). 『日本外交文書』 42-1, 144文書.

64) 1911년 1월 26일, 치롤이 모리슨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당시 청국 정부의 중재재판 제기엔 타임스 통신원 모리슨이 관련된 데 대해 매우 놀라고 있다.

65) Minger, Ralph Eldin, 1925, *William Howard Taft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 The Apprenticeship Years 1900-1908*,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전면적인 패배로 이어짐에 따라 4국협조체제의 불안정성이 노출되었고,⁶⁶⁾ 특히 러일관계 개선의 주역인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가 에렌탈(A. L. von Aehrenthal)과의 외교교섭의 실패로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고 있었다. 이 같은 대외정세의 여건은 일본에게는 궁극적으로 한국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토의 만주문제협의회에서의 생각과 같이, 이 시기 일본 정책당로자들에게 만주문제의 조속한 해결뿐만 아니라 한국 강점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전 지구적 국제관계에서 보면, 1907년 외교혁명의 여파로 4국협조체제가 구현됨에 따라 유럽에서는 3국협상국의 대독 포위망 구축,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일본의 대미 견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4국협조체제는 청국·미국, 특히 독일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그 대항조치가 독일의 독·미·청 3국동맹구상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만한문제와 간도문제는 영일·러불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4국협조체제의 역학구도하에서 작동되었고, 이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간섭과 견제 속에서 그 속도와 강도가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관점에서 보면, 간도협약을 둘러싼 간도문제는 청일 간의 지역적 사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분쟁지역으로서의 만주문제를 본격화한 국제적인 사건이었다. 여기에는 청일 당사국뿐만 아니라 구미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가 보다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독·미·청

66) David Stevenson, 1996, *Armaments and the Coming of War : Europe 1904-1914*, Oxford, pp. 64~111.

동맹기도뿐만 아니라, 협약체결 전 청이 본건을 헤이그 중재재판에 회부하려 한 외교조치, 하르빈 출발 전 이토와 주일 영국 대사 맥도널드의 영일동맹 강화를 위한 회합,⁶⁷⁾ 가쓰라 수상이 맥도널드와의 회견을 통해 청일 간의 간도와 만주 현안문제에 대해 영국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사실,⁶⁸⁾ 영국의 청일교섭 재개 시도 등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협약체결 직후, 만주와 간도협약에 나타난 일본의 공격적인 남만정책에 대한 중국·미국·러시아의 즉각적인 대응조치들도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해 금에철도 부설을 위한 가계약을 스트레이트와 서둘렀고, 주청 미국 공사 플레처(Henry P. Fletcher)는 청일 간의 만주협정의 4조항에 대해 문호개방과 만주에서의 상업적 기회균등 원칙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였고,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 역시 주러 일본 대사 모토노 이치로[本野一朗]에게 일본의 최근 대청 외교가 러시아에 대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사례들에서도 당시 제국주의 열강이 본건의 귀추에 얼마나 민감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해결 역시 동북아시아의 잠정적 평화만을 보장하였을 뿐이었다. 즉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였고, 이 늑약에 근거한 간도협약은 무효이므로, 기존의 한청 간의 간도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었다. 또한 간도를 포함한 만주문제 역시 청일 간의 교섭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戰前 러시아가 한국 중립화를 통해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듯이, 간도협약 직후 미국은 녹스의 만주 중립화 제기를 통해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로써 태평양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는 기존의 러일 간의 충돌위기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 미일 간의 충돌위기는 가시화되고 있었다. 그 캐스팅보트는 러시아와 영국이었지만 영국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제2차 러일협약은 그 돌파구였다. 일본의 한국 병합과 남만주에서의 특수이익과 러시아의 북만주와 외몽골에서의 특수이익의 상호 인정이었으며, 이로써 만주에서 러일 양국의 두 세력범위가 규정되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67) B. D., Vol. VIII, 467.

68) B. D., Vol. VIII, 470.

다른 한편, 일본의 만한 정책과 연계해 보면, 간도협약은 일본의 만주철도 이권 확보와 한반도 강점 굳히기를 위한 만주 6안건 교섭의 협상 카드였으며, 만한문제를 둘러싼 러일전쟁의 전후처리의 부산물과 같은 것이었다. 이는 지난날 의화단사건, 영일동맹과 러일전쟁을 주도한 가쓰라와 고무라, 하야시로 대변되는 대만한 적극책을 구상·실천했던 소위 러일 개전 외교의 주역들에 의해 일본의 간도문제 처리과정이 주도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요컨대 간도문제는 러일전쟁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일본의 만한 교환론과 만한 불가분 일체론의 실천과정과 연속성을 갖는 사안이었으며,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목했던 만한문제 해결의 핵심 현안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청일전쟁과 3국간섭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연동된 구미열강의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후 일본 중심의 국제관계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했던 러일 개전 전 일본 대륙 정책의 속편 격이었다.

참고문헌

- 강동진 저,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1995, 『한국을 장악하라－통감부의 조선침략사』, 서울 : 아세아문화사.
- 국회도서관 편, 1975,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 대한민국국회도서관.
- 김영흠, 1988, 『미국의 아시아외교 100년사－20세기 미국, 아시아관계』, 신구문화사.
- 김원수, 1989, 「러일전쟁과 국제관계의 변화」, 『수선사회』 제4집,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 김원수, 2001, 「구미열강의 동아시아정책과 한국, 1898-1903」, 『동양학』 제31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김원수, 2004, 「한국의 러일전쟁 연구와 역사교육의 과제」, 『역사교육』 제90집, 역사교육연구회.
- 김원수, 2007, 「글로벌히스토리과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론』 제92집, 한국서양사학회.
- 김원수, 2009, 「간도문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간도협약 100년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국제관계와 변경문제”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 김원수, 2009, 「글로벌히스토리과 국제관계사의 지평확대－압록강위기와 러일전쟁의 재접속」, 『제42회한국서양문화사학회 정기학술발표회 자료집』, 한국서양문화사학회.
- 김춘선, 2003, 「조선인의 동북이주와 중조(한) 국경문제 연구동향－중국학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군사편찬위원회 · 한국사학회.
- 노영돈, 2005, 「러일전쟁이후 간도영유권문제의 처리」, 정성희 외, 『러일전쟁과 동북아의 변화』, 선인.
- 배성준, 2004, 「중국의 초청국경문제 연구동향」,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동향 분석』, 고려연구재단.
- 배성준, 2008,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양학』 제4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설동은, 1986, 「만주문제를 둘러싼 T. 루스벨트의 대일외교－루트－高平협정의 성립배경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상용, 1983, 「영국 ‘신로선’ 외교에 대한 일고」, 『사학연구』 제36호.
- 신상용, 1986, 「영일동맹과 일본의 한국침략」, 역사학회 편, 『로일전쟁전후 일본의 한

국침략, 일조각.

은정태, 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제71호.

이성환, 2000, 「간도협약과 한일합방」, 『대한 정치학회회보』 제8집 1호.

이성환, 2006, 「간도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새로운 연구지평의 확장을 위한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76.

이일걸, 1996, 「간도분쟁과 국제관계」,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최덕규, 2009, 「간도문제와 일본의 한국병합」, 『한국사연구』 145호, 한국사연구회.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최정수, 2000, 「T·루스벨트의 세계정책」,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크리스토퍼 하워드 저, 김원수·김상수 공역, 1995, 『대영제국의 영광스러운 고립』, 한양대학교출판부.

한승훈, 2007, 「일본의 한국 '보호국' 화와 영국의 대한정책」,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대한제국, 그리고 열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철호, 2003, 「근대한중국경조약과 국경문제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キース・ニールソン, 2004, 「日露戦争と國際關係 - 英國の戰略的外交政策」, 『日露戦争と世界』, 防衛廳防衛研究所.

讀賣新聞取材班, 2005, 『檢證 日露戦争』, 中央公論社.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2008, 『日露戦争と東アジア世界』, ゆまに書房.

ルネ・ジロ(Rene Girault) 著, 度邊啓貴・柳田陽子・濱口學・篠永宣孝 譯, 1998, 『國際關係史 1871~1914 - ヨーロッパ外交, 民族と帝國主義』, 東京: 未來社.

馬場明, 2003, 『日露戦争後の滿洲問題』, 東京: 原書房.

寺本康俊, 1999, 『日露戦争以後の日本外交』, 信山社.

山田郎, 2009, 『世界史の中の日露戦争』, 吉川弘文館.

上担外憲一, 2000, 『暗殺・伊藤博文』, ちくま新書.

石井修, 2004, 『國際政治史としての 20世紀』, 東京: 有信堂.

小林道彦, 1998,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 桂太郎と後藤信平』, 東京: 南窓社.

五百旗頭眞, 2008, 『日美關係史』, 有斐閣.

外務省 編, 196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卷, 原書房.

外務省 編, 1966, 『小村外交史』, 原書房.

- 宇野俊一, 2006, 『桂太郎』, 吉川弘文館.
- 衛藤藩吉, 2004, 『近代東アジア國際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義井博, 1977, 『カイザードイツの世界政策と第1次世界大戰』, 清水書院.
- 李盛煥, 1991, 『近代東アジアの政治力學—間島をめぐる日中朝關係の史的考察』, 錦正寺.
- 日本外務省 編纂, 1956, 『日本外交文書』第39卷, 1冊, 日本國際聯合協會刊.
- 日本外務省 編纂, 1956, 『日本外交文書』第40卷, 1冊, 日本國際聯合協會刊.
- 日本外務省 編纂, 1956, 『日本外交文書』第42卷, 1冊, 日本國際聯合協會刊.
- 林權助, 1935, 『わか70年を語る』, 第一書房.
- 入江昭, 1995, 『轉換期の日美關係 1896-1914』, 細谷千博 編, 『日美關係通史』, 東京大學出版會.
- 篠田治策 著, 신영길 譯, 2005, 『간도는 조선땅이다- 백두산정계미와 국경』, 지선당.
- 川島眞・服部龍二, 2007, 『東アジア國際政治史』, 名古屋大學出版會.
- 千葉功, 2008, 『舊外交の形成』, 勁草書房.
- 千葉功, 2008, 『日露戰爭と日本外交』, 東アジア近代史學會 編, 『日露戰爭と東アジア世界』, ゆまに書房.
- Baker, Dwright Condo, 1927, "Germany and the Far East, 1895-1908," Ph. Dis., University of California.
- Bartlett, C. J., 1984, *The Global Conflict 1880-1970 -The International Rivalry of the Great Powers*, Longman.
- Beale, H. W., 1968, *Theodore Roosevelt and Rise of America to World Powerx*, New York : Collier Books.
- Blouet, Brian W., 20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 Halford Mackinder and the Defence of the West*, London : Frank Cass.
- Braisted, William, 1954,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 Austin.
- Challener, R. D., 1973, *Admirals, General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898-191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urchill, R. P., 1939, *Anglo-Russian Convention of 1907*, Torch Press.
- Die Grosse politik der Europäischen Kabinette, 1871-1914*, XXV.
- Edwards, E. W., 1966, "Great Britain and the Manchurian Railways Question,

- 1909-1910," *The English Historical Review*, Vol. 81, No. 321.
- Ericson, Steven and Hockley, Allen, 2008, *The Treaty of Portsmouth and its Legacy*, Dartmouth College Press.
- Esthus, Raymond, 1967, *Theodore Roosevelt and Japa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Fromkin, David, 1989, *A Peace to End All Peace-The Fall of the Ottoman Empire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 Middle East*, Henry Holt & Company.
- Geiss, I., 1978, *German Foreign Policy, 1871-1914*, Routledge & Kegan Paul.
- Gillard, D., 1977, *The Struggle for Asia 1828-1914-A Study in British and Russian Imperialism*, Methuen & Co. Ltd.
- Gooth, G. P. & Temperley, H. W. V. ed., 1926-1938,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1894-1914*, Vol. VIII, London : H. M. Stationery Office.
- Hajimu, Masuda, 2009, "Rumors of War : Immigration Disput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American-Japanese Relations, 1905~1913," *Diplomatic History*, Vol. 33, No. 1 .
- Hall, L. J., 1929, "The Abortive German-American-Chinese Entente of 1907-8,"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1, No. 2.
- Iriye, A., 1977, *From Nationalism to Internationalism : U.S. Foreign Policy to 1914*, London.
- Joll, James, 1984,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Longman.
- Kahn, Helen D., 1954, "The Great Game of Empire ; Williard D. Straight and American Far Eastern Policy," Unpublished Ph. Dis., University of Stanford.
- Kim, Wonsoo, 2007, "The Yongampo Incident and the origin of the Russo-Japanese War," *Власть и общество в России-во врем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и революции 1905~1907*, олернус пресс.
- Langhorne, Richard, 1981, *The Collapse of the Concert of Europe : International Politics 1890-1914*, Macmillan.
- Lower, John, 1994, *The Great Powers, Imperialism, German Problem, 1868-1925*, Routledge.

- Minger, Ralph Eldin, 1925, *William Howard Taft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 The Apprenticeship Years 1900-1908*,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urray, John A., 1975, "British Policy and Opinion on the Anglo-Russian Entente, 1907-1914," Ph. Dis., Duke University.
- Nearing, Scott and Freeman, Joseph, 1925, *Dollar Diplomacy-A Study in American Imperialism*, B. W. Huebsch and The Viking Press.
- Palmer, A., 1983, *The Chancelleries of Europe*, George Allen & Unwin.
- Schrecker, J. E., 1971, *Imperialism and Chinese Nation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Sheehan, Michael, 2007, *The Balance of Power-History & Theory*, London : Routledge.
- Steinberg, John W., Menning, Bruce W., Van Der Oye, David Schimmelpenninck, and Wolff, David ed., 200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 World War Zero*, Boston.
- Stevenson, David, 1996, *Armaments and the Coming of War : Europe 1904-1914*, Oxford.
- Thompson, Willie, 1999, *Global Expansion-Britain and its Empire, 1870-1914*, Pluto Press.
- Tompkin, Rosmary, 1975, *Anglo-Russian Diplomatic Relations 1907-1914*, Denton Texas.
- Vevier, Charles, 1968,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06-1913*, New York.
- White, John A., 1995,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 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 Wolff, David, 2008, "Riding Rough : Regionalism, and the Birth of Anti-Americanism in Northeast Asia," Steven Ericson and Allen Hockley, *The Treaty of Portsmouth and its Legacy*, Dartmouth College Press.
- Zabriski, 1973, *American -Russian Rivalry in the Far East*, Greenwood.

[ABSTRACT]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and the Gando Agreement, 1907~1909

- connected with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Korea & Manchuria -

Kim, Wonsoo

This article is to reconside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Quadruple Entente and the Gando Problems occurred from 1907 until 1909 with the global historical perspective. This work will be revealed clear that Gando Problems was not merely territorial disput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but the result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which has been made by Western Powers and Japan. It was the multiple entente systems. In this reserch, I specially focused on the connection and interaction of the Quadruple Entente system and the Gando Problems which was overlooked until now. It will be broaden the horizon of Gando Studies.

Chapter 1 is related to connect the Gando Problems with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rly 20th century. In view of global history, its aim is to go beyond the traditional discourse of the Eurocentric International relation theory. Chapter 2 is to Quadruple Entente,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and Korean-Manchurian Problems. Chapter 3 is to connect the Japan's Manchurian-Korean policy with the Root-Dakahira Agreement, Anglo-Japanese Alliance and Gando Agreement. By this description, Gando Problems is to be connected with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Brief summary is as

follows

After the Russo-Japanese War, Japanese-French Agreement, Russo-Japanese Agreement, and Anglo-Russian convention were concluded in 1907. All these measures were to bring about the end of "the Great Game." With the result of "Diplomatic Revolution," Quadruple Entente system was constructed in Asia, and In Europe, Triple Entente system were operated. Interaction of Quadruple system was forced to threaten and encircle German in Europe. On the one hand, This system was efficiently able to restrict the American expansion from Asian Pacific. But It means that Japan took part in anti-German camp. It stimulated Germany to check and balance that activities. As the opposite activities, Germany took a plan for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Nevertheless, Japan had free hands in Northeastern Asia regions. Such a change in international situations was able to make shape of realizing Japanese penetration project toward Manchuria and Gando region from 1907 until 1909.

Therefore Manchurian-korean Problem and Gando Problems has been not only influenced by Quadruple system, but also controlled by intervention and restriction of German and America. Such actions were proved by Kaiser's Plan for German-American-Chinese Connection and America's Initiative on the Root-Dakahira Agreement. After this process, China had a diplomatic gesture to ask for arbitration to Hague Arbitration Committee in march 1909. Therefore Japan approached England to strengthen Anglo-Japanese alliance. For example, Japanese Minister Kastura and Komura had communicated the Gando and Manchu problem to Mcdonald, Foreign Minister in Japan in this period. Such diplomatic connections happened in Europe and Asia regions had great influence on Japanese foreign policy,

which gave up the claim on the Gando region and hurried up the preparatory operation for Seizure of Korea as well.

During this period, Japanese foreign policy had taken measures to step forward on Manchurian region including Gando, But Its main goal was to realize the Annexation of Korea. Therefore Gando Agreement in 1909 were only the Japanese's second best policy to secure the bridge head for penetration in Manchuria, as well as the bargaining point of Manchurian-Korean problem between Japanese and China. Consequently Gando Agreement was the same as a Japanese bargaining chip for establishing the real power in Korea and securing the interest for Manchurian railway concession. It looks like a by-product of the settlement of the post Russo-Japanese War. It was not only a case which has a continuity with Japanese claim on Manchurian-Korean Exchange theory or Manchurian-Korean United theory before the war, but also a question pending of Manchurian-Korean Problem which Japan had constantly focused on. In these point of view, Gando Agreement and the Japanese-Chinese treaty dealt with five issue about Manchuria, as well as Japan's preparatory operation for the Annexation of Korea were seemed to be a finishing and follow-up measures of 'Komura Diplomacy' before the war.

keywords

Gando, Gando Problems, Gando Agreement, the Great Game, Diplomatic Revolution, the Quadruple Entente,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Manchurian-Korean Problem, the Root-Dakahira Agreement, Komura Diplomacy

中國 統一的 多民族國家의 歷史認識과 그에 대한 對應論理

이인철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I. 머리말

2008년 7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리성[厲聲] 주임은, 中國은 마땅히 한국 사람들의 고구려 정서를 이해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사람들도 중국이 역사상 하나의 統一的 多民族國家이고 中華民族이 多元一體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 주기를 요청했다.¹⁾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임은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도 기재되어 있고,²⁾ 동북공정을 추진한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에도 게재되

※ 투고일 : 2009년 8월 27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30일.

- 1) 厲聲, 2008, 「東北邊疆歷史與現狀研究」, 밴쿠버 학술회의 발표문, 13쪽.
- 2)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임을 헌법에 처음 반영한 것은 1954년이다(김유리, 2005,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北方史論叢』 6, 240쪽). 1954년 9월 20일에 개정된 헌법 총강 3조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어 있는 바이다. 그 의미는 중국은 漢族만의 나라가 아니라 漢族과 55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이고, 그 56개 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의 중국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말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용어를 지나간 역사에까지 적용시켜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고,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등 한국의 고대국가를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그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핵심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厲聲에 따르면, 중국의 역사 강역은 先秦 초기국가 출현 시기에 형성되었는데, 역사 진행과 역방향 추리의 2개 방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역사 진행방면에서 말하면 중국의 역사 강역은 역대 봉건왕조의 관할범위이고, 할거시기에는 각 할거정권의 관할범위여서, 중국 역사 강역의 변화는 역대 봉건왕조의 대표적인 역사상의 중국 변화에 따라 정해지고, 역방향 추리방면에서 말하면 중국 역사 강역 확립 후에 통일국가 범위 내의 중화 각 민족 역사상 성장·번영 범위를 가리키므로 중화 각 민족의 역사를 소급·추론해서 정해진다.³⁾

사실 이러한 논법은 厲聲이 새롭게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1951년에 바이서우이[白壽彝]가 중국사 연구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 중의 하나가 本國史상에서 어떻게 조국 國土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해결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 하나의 방법은 역대 황조의 강역을 역대 국토의 범위로 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를 범위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바이서우이는 황조 강역의 관념을 사용하여 역사상의 국토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범위를 사용하여 역사상의 국토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라 주장하였다.⁴⁾

3) 厲聲, 2008, 앞의 글, 15쪽.

4) 白壽彝, 1951, 「論歷史上祖國國土問題的處理」, 『光明日報』 5月 5日; 國家民族事務

그 후 허즈취안(何茲全)이 이를 보충 논증하여 “중국 역사는 지금 중화인민 공화국 국경선 이내의 현재와 역사상 각 민족의 역사이다. 중국 역사를 말할 때 그 범위는 마땅히 역사상 당시 중원지대에 세워진 왕조뿐 아니라 당시에는 중원왕조 강역 밖이나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이내의 각 족과 각 지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이 설은 “중국은自古以來 통일적 다민족국가였다”는 주장으로 발전하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自古以來說’로 약칭한다.⁶⁾

이와 상반되는 또 하나의 설은 역사상 중국의 강역을 처리할 때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국토 범위를 근거로 소급할 수 없고, “역사상 역대 황조의 강역을 역대 국토의 범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각 황권의 통치범위가 다르고 역대 국토에 신축과 변동이 있기 때문이며, 어떠한 하나의 국가와 민족도 모두 그 형성과 발전의 역사가 있어서 처음 출현하면서부터 하나의 영토불변의 ‘定型’이 곧바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위대한 조국강역이 넓고 광대한 것은 긴 시기의 역사발전과정 중에 형성된 것”이라 주장한다.⁷⁾ 이런 관점은 쑨쥘민(孫祚民)과 쑨진지

委員政策研究室 編, 1982,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 207~209쪽.

- 5) 何茲全, 1959, 「中國古代史教學中存在的一個問題」, 『光明日報』 7月 5日; 國家民族事務委員政策研究室 編, 1982, 위의 책, 214~217쪽.
- 6) 翦伯贊이 처음으로 중국은 ‘自古以來 하나의 多民族國家’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翦伯贊, 1978, 「對處理若干歷史問題的初步意見」, 『北京大學學報』 3, 17쪽), 그 후 馬壽千·陳永齡·白壽彝·翁獨健 등이 ‘自古以來 統一의 多民族國家’라는 말을 사용하였다(馬壽千, 1979, 「民族關係與歷史劇」, 『中央民族學院學報』 1-2, 22쪽; 陳永齡, 1979, 「我國是各族人民共同締造的統一의 多民族國家」, 『歷史教學』 4; 國家民族事務委員政策研究室 編, 1982, 앞의 책, 260쪽; 白壽彝, 1981, 「關於中國民族關係史上的幾箇問題—在中國民族關係史座談會上的講話」, 『北京師範大學學報』 6, 1~12쪽; 翁獨健, 1981a, 「民族關係史研究中的幾個問題」, 『中央民族大學學報』 4, 42쪽; 白壽彝, 1991, 「關於“統一의 多民族國歌”的幾點體會」, 『史學史研究』 2, 5쪽; 白壽彝, 1996, 「不斷展開民族史理論學習」, 『史學史研究』 4, 3쪽). 이에 대해 쑨쥘민이 1951년 바이어서우이로부터 이어지는 이들의 일련의 주장을 ‘自古以來就是說’이라 칭하였으나(孫祚民, 1987, 「建國以來中國民族關係史若干理論問題研究評議」, 『東岳論叢』 1, 4쪽), 이 글에서는 이를 ‘자고이래설’로 약칭한다.
- 7) 孫祚民, 1961, 「中國古代史中有關祖國疆域和少數民族的問題」, 『文匯報』 11月 4日; 國家民族事務委員政策研究室 編, 1982, 앞의 책, 219~223쪽.

[孫進己]가 주로 주장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후 이를 ‘漸進形成說’이라 약칭한다.⁸⁾

자고이래설이나 점진형성설이나 중국사를 보는 관점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기초하고 있고 강역, 즉 영토를 중심으로 역사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⁹⁾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여 역사를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여 장기간 논쟁을 거쳤다.¹⁰⁾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논리의 허점이 드러났다.¹¹⁾

-
- 8) 孫祚民, 1987, 앞의 글, 4~5쪽. 쑨쥘민은 ‘逐漸發展形成說’이라 하였으나 여기서는 ‘점진형성설’이라 약칭한다.
- 9) 한국에서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나 중국에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또,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자고이래로 존속해 왔거나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자고이래설 혹은 점진형성설로 표현하였다. 이 점 양지하기 바란다.
- 10) 1999년 중국 정부 백서에서도 “중국은 자고이래로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 新聞辦公室, 1999, 『中國的少數民族及其實踐』, <http://www.china.com.cn/ch-book>), 이를 두고 통일적 다민족국가에 관한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김유리, 2005, 앞의 글, 247쪽). 그러나 2001년 이후에도 쑨진지가 점진형성설의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지부를 찍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孫進己, 2001, 『我國統一多民族國家的形成和發展』, 『史學集刊』 3, 11~17쪽; 孫進己, 2003, 『我國歷史上疆域形成, 變遷的理論研究』, 『中南民族大學學報』 3, 78~83쪽). 또, 변강사지연구 중심의 여성 주입은 오히려 비교적 많은 학자들이 점진형성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厲聲, 2008, 앞의 글, 17쪽).
- 11) 이 분야의 연구성과를 민족관계사 측면에서 연구사 정리를 한 논문은 다음 2편이다. 劉先照, 1983, 『我國民族關係史研究若干理論問題綜述』, 『民族研究』 3, 48~55쪽; 金翰奎, 1992, 『古代 東아시아의 民族關係史에 대한 現代 中國의 社會主義的 理解』, 『東亞研究』 24, 1~32쪽. 한편, 이 분야의 연구성과를 강역이론 측면에서 연구사 정리를 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邢玉林, 2001, 『1989-1998年中國古代疆域理論問題研究綜述』, 『中國邊疆史地研究』 3, 88~101쪽; 孫進己, 2003, 위의 글, 78~83쪽. 상위린은 역사상 중국의 범위에 대해 ① 아편전쟁 이전 청조의 판도, ② 오늘의 중국판도, ③ 역사상 다른 시기에 형성된 통일다민족국가의 강역, ④ 한족문화 혹은 유가 문화를 받아들인 지역, ⑤ 한족이 건립한 왕조의 판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5종의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고, ④·⑤의 견해는 근자에는 거의 주장하는 자가 없다고 하여 앞의 3종 견해에 대해서만 종합 서술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①·②의 견해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아 쑨쥘민의 견해에 따라 자고이래설과 점진형성설로 나누어 분석 정리한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1992에 김한규가 처음으로 국

이에 이 글에서는 두 설의 전개과정과 그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역사인식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統一的 多民族國家의 自古以來說

중국사의 범위를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 국토를 범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머리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이서우이[白壽彝]가 1951년에 가장 먼저 제기하였다. 그 후 1959년에 자오화푸[趙華富]가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하게 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漢族이 세운 국가를 중국과 동일시하는 관점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漢族과 중국을 동일시하는 관점은 봉건정통주의 사상의 표현이고, 일종의 大漢族主義 표현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오늘의 중국이고, 오늘의 중국은 한족 이외에도 55개 민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고대와 중세기는 이들 민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그는 예를 들어 10~13세기에 대리, 서하, 요, 금과 송의 관계는 중국 국내 문제이고, 국외의 문제가 아니라 하였다.¹²⁾ 하지만 이들 소수민족이 세운 국가와 송을 포괄하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의 문제를 오늘의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사 내부의 문제라고 말할 수

내에 소개하였고, 2002년 동북공정이 시작된 이후 그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① 윤휘탁, 2004, 「중국학계의 영토·민족·국가 인식—‘統一的 多民族國家論’과 그 한계」, 『韓國史論』 40, 3~63쪽. ② 조재송, 2006, 「중국 ‘통일다민족국가론’의 논거와 허실」, 『중국학연구』 38, 331~357쪽. ③ 조재송, 2006, 「‘통일다민족국가론’의 민족관계사 적용에 따른 쟁점과 허실」, 『中國研究』 38, 401~421쪽. ④ 우실하, 2007,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전개와 적용」, 『高句麗研究』 29, 63~85쪽. ⑤ 조영래, 2009, 「‘新중화주의’ 속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한중사회과학연구』 7-1, 301~327쪽.

12) 趙華富, 1959, 「爲正確闡明我國歷史上的民族關係而鬭爭」, 『山東大學學報』 第1期; 國家民族事務委員政策研究室 編, 1982, 앞의 책, 28~38쪽.

있을지 모르나 중국 국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바이셔우이는 1981년 향산에서 열린 중국 민족관계사 좌담회 강연에서도 “중국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 민족의 역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境内’는 중국 현재의 강역을 가리킨다”고 하였다.¹³⁾ 이처럼 중국 역사를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각 민족의 역사’라고 정의함으로써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가 중국 역사 범주를 확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고, 그 다음으로 그 영토 안에 사는 ‘민족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로 정의된다.

바이셔우이에 따르면 지금 중국 경내의 각 민족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중국 민족이었다고 한다. 몽골족은 오늘날 중국 경내의 일개 민족이고, 과거에도 그러하였는데, 후에 외몽골이 갈라져 나갔다고 한다. 그는 또 몽골군이 서방을 공격한 것은 침략적·임시적인 것이라 하여,¹⁴⁾ 현재의 중국 영토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바이셔우이는 거란·여진·몽골 이 세 민족에 대해서 처음부터 중국 민족이고, 흉노는 원래 鬼方·昆夷라 불렀는데, 흉노가 활동을 시작한 지구 역시 내몽골 일대가 아니라 内地이고, 주요 활동지구는 陝西·山西 일대라 하였다. 흉노는 원래 먼저 중원지구 민족에 속하였다가 후에 발전하여 중원을 떠나 내몽골에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했다는 것이다. 즉, 흉노는 원래 중원에 살았고, 그들은 원래 중국인이었다는 주장이다.¹⁵⁾ 바이셔우이에 따르면, 돌궐 역시 원래 중국인이다. 『수서』 「돌궐전」에 ‘돌궐의 선조는 平涼雜胡라 하였는데, 평량 지방은 漢朝의 安定郡으로 内地에 해당하므로 돌궐 역시 원래 중원에 있다’가 후에 옮겨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이처럼 거란·여진·몽골·흉노·돌궐 등 주요 민족이 모두 중원에서 나간 민족으로, 원래 모두 중국의 민족인 상황에서 한족이 거주한 지방을 중국이라 말하고, 흉노·돌궐이 활동한 지방을 중국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13) 白壽彝, 1981, 앞의 글, 1쪽.

14) 白壽彝, 1981, 앞의 글, 1쪽.

15) 白壽彝, 1981, 앞의 글, 3쪽.

16) 白壽彝, 1981, 앞의 글, 3쪽.

것이 바이서우이의 주장이다. 중원에서 나간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모두 중국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이서우이조차도 중원을 중국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이서우이는 또 당시에는 중국이란 명칭도 없었고, 漢도 중국이라 자칭한 것이 아니라 漢이라 칭하였다고 주장했다.¹⁷⁾

바이서우이에 따르면, 어떤 민족은 외래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경내에서 형성된 민족이 있다. 즉, 국외에서 형성된 후에 다시 중국에 온 것이 아닌 민족이 있다는 것이다. 回族이 그런 민족 중의 하나로, 회족의 來源은 페르시아인·아랍인·위구르인·몽골인·한인 등으로 많은데, 단지 회족은 중국 경내에서 형성된 것이고 중국 밖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다.¹⁸⁾

어떤 민족은 외국 민족이 중국에 들어온 후에 중국 민족으로 변하였는데, 新疆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¹⁹⁾

바이서우이가 주편하여 1986년에 나온 『중국통사』에서도 “중국은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다. 중국의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이며, 일찍이 이 광대한 영토상에 생존·번영하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민족의 역사도 포함한다”고 선언하고 있다.²⁰⁾ 이 논리에 따르면, 현재의 중국 경내에 그 영토가 있었다가 소멸된 민족의 역사로서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의 역사가 중국사에 포함된다.

젠보잔(翦伯贊)도 1978년에 중국은 자고이래 하나의 다민족국가였다고 선언하고, “한족 이외에도 많은 민족이 있다. 1개 민족으로서 그들은 모두 각기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다. 단, 다민족국가의 성원으로서 그들은 모두 중국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역사를 쓸 때 한족 인민의 역사와 중국 기타 민족 인민의 역사를 서로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한족 이외의 각 민족을 외국인으로 대우하지 않아야 하고, 오늘의 중국 영토 이내에서 생존하고 활동한 고대민족은 중원왕조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논하지 않고

17) 白壽彝, 1981, 앞의 글, 4쪽.

18) 白壽彝, 1981, 앞의 글, 4쪽.

19) 白壽彝, 1981, 앞의 글, 4쪽.

20) 白壽彝, 1986, 『中國通史』 제1권 제1장 統一의多民族의歷史.

마땅히 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승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²¹⁾

1979년에도 첸보잔은 자고이래설의 입장에서 “중국의 토지상에는 한족 이외에도 많은 민족이 있다. 이들 민족은 어떤 것은 소멸되고, 어떤 것은 현재까지도 다민족 중국의 일개 민족을 이루었다. 이들 민족과 한족왕조는 종속관계를 맺었는데 선과 후가 있다. 단, 그들의 조상은 자고이래로 중국 땅 위에서 생활하였는데, 그들과 한족이 종속관계를 맺기 이전에 어떻게 그들을 중국인이라고 칠 수 있는가. 중국이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통일적이고, 어떤 때에는 분열적이었다. 통일시기에 이들 민족은 한족을 받아들이거나 기타 민족이 건립한 왕조 통치하에 들어가고, 통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들은 한족 왕조 혹은 기타 지배민족이 건립한 왕조의 통치를 벗어나서 많은 독립왕국을 세웠고, 심지어는 일개 민족이 몇 개의 독립국가로 분열되기도 하였다. 한족왕조와의 종속관계에서 이탈한 이후에 어떻게 그들을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보기에 중국 역사상에 출현한 이들 민족은 한 개 민족으로서는 그들과 한족은 다른 민족에 속한다. 그러나 다민족국가의 한 개 성원으로서 분열 혹은 통일시기에 관계없이, 한족왕조 통치 범위 내에 들어왔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응당 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승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

왕두젠(翁獨健)도 역사상의 중국은 중원왕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중원왕조 이외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국가와 정권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고이래 중국은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논법에서 自古以來的 ‘古’는 일반적으로 秦漢을 지칭한다. 진한시기에 중원지구에는 이미 중앙집권적 봉건국가가 출현하였고, 이와 동시에 당시 북방에는 하나의 匈奴單于國이 있어서 그들이 북방민족을 통일하였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아 당시 중국은 실제상 두 개의 통일정권 혹은 두 개의 다민족국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강역 문제에서 중국은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이고, 중국의 역사는 各族 인민이 공동으로 만든, 각종 인민의 역사라 하였다.²³⁾

21) 翦伯贊, 1978, 앞의 글, 17~18쪽.

22) 翦伯贊, 1979, 「關於處理中國史上的民族關係問題」, 『中央民族大學學報』 1, 10쪽.

이처럼 자고이래 중국을 통일적 다민족국가로 인식하는 설법은 중국 민족 관계 연구를 심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왕두젠의 생각이다.²⁴⁾ 그에 따르면, 역사상의 중국은 중원왕조뿐 아니라 중원왕조 이외의 소수민족이 건립한 국가와 정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중국 각 민족이 역사상 장기간 분포하고 관할한 모든 지구는 곧 해당 시기에 전 중국의 강역범위가 된다. 지금 중국 판도 내에 있는 모든 각 민족은 모두 대가정의 일원이고, 역사상 발생했던 전쟁은 형제간 다툼에 불과하고 집안 내의 싸움이며 모두 응당 국가내부 모순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自古以來說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쑤쥘민[孫祚民]의 지적이 있다. 쑤쥘민에 따르면, 자고이래설은 우선 역사발전관의 과학적 원리를 위반하고 간단한 소급방식으로 역사문제를 처리하여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 형성과정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사발전과정을 부정하였다. 다음으로 역사상의 '과거'와 현재의 '오늘'의 다른 시간관념을 혼동하여, '오늘'의 표준을 사용하여 '과거' 역사상 다른 시기의 강역과 민족을 처리함으로써 중국 강역범위의 변천과 민족 간의 분리, 통일과 융합의 변화를 부정하였다. 최후의 잘못은 역사발전의 순서를 전도하여 몇천 년의 국가와 민족의 사이를 강박하여 모두 그들이 확정된 오늘의 테두리에 따라 표준을 삼아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오늘의 중국이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역사 이래로부터'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국토범위의 테두리를 사용하여 먼저 확정을 지어놓고 내려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성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논리적 추리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²⁶⁾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쑤쥘민은 두 개의 성질이 다른 문제를 혼동한 데 있다고 파악한다. 그 하나는 중국사 연구대상의 공간범위 문제이다. 즉,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강역을 범위로 하여 이를 소급, 지금 중화인민공화

23) 翁獨健, 1981a, 앞의 글, 42쪽.

24) 翁獨健, 1981b, 「再談民族關係史研究中的幾個問題」, 『民族研究』 3, 3쪽.

25) 翁獨健, 1985, 「民族關係史研究中的幾個理論問題」, 『滿族研究』 1, 10쪽.

26) 孫祚民, 1987, 앞의 글, 5쪽.

국 경내에 있는 각 민족, 인민과 그 조상, 이 강역 내의 역사상 각 민족 인민의 역사 모두가 중국사의 범위에 속하고, 모두가 중국사라 말하고 서술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²⁷⁾ 다른 하나는 역사상 중국 강역의 범위 문제이다. 이 방면에는 소급방식을 적용하여 말할 수 없고 응당 중국 역사상 역대왕조의 실제 강역을 역대 국토의 범위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가 후에 또 분열되었고, 당시에 많은 소수민족정권이 독립적 민족국가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역사상으로 중화민족대가정의 성원이라 말할 수 없다.²⁸⁾ 이처럼 중국사 연구 대상의 공간범위와 역사상 중국 강역의 범위는 둘이 서로 관련이 있지만 또 서로 다른 개념인데,²⁹⁾ 자고이래설은 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쑨쥘민은 자고이래설은 실사구시적 사상노선에 따르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³⁰⁾

1987년에 쑨쥘민은 자고이래설의 소급법 오류에 대한 인식이 날로 늘어나서 이미 극소수 학자들만이 자고이래설에 찬동하고 있다고 하였다.³¹⁾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 첫째는 ‘中原民族外遷說’의 오류이다. 러시아족 이외에도 카자흐·타지크·타타르·우즈베크·키르키즈 등의 민족은 원래 중원에 거주하다가 변강으로 옮겨간 것이 결코 아님이 드러났다는 것이다.³²⁾ 쑨진지도 이들 민족이 모두 중원에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해당 지역의 토착민족이라 지적하였다.³³⁾

그 둘째는 ‘國內性은 중국 역사상 민족관계의 기본특징이라는 설, 즉 중국 경내의 각 민족을 1개 국가 내부의 성원으로 보는 설의 오류이다. 쑨쥘민에 따

27) 孫祚民, 1985, 「開創中國民族關係史研究的新局面」, 『晉陽學刊』第3期, 61쪽; 孫祚民, 1987, 앞의 글, 5쪽.

28) 孫祚民, 1985, 위의 글, 61쪽.

29) 孫祚民, 1987, 앞의 글, 5쪽.

30) 孫祚民, 1987, 앞의 글, 5쪽.

31) 孫祚民, 1987, 앞의 글, 6쪽.

32) 孫祚民, 1985, 앞의 글, 62쪽.

33) 孫進己, 2001, 앞의 글, 12쪽.

르면, 華夏族에서 시작해서 진·한·남북조시기를 거쳐 수당시기에 이르러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기초가 다져졌고, 수당 이후 한족·돌궐·회궐·토번·거란·당항·여진·몽골족 등 각 민족 간의 관계가 또 진일보 발전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민족국가의 강역이 형성되고 확정되었다.³⁴⁾ 이처럼 수당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기초가 초보적으로 다져졌는데, 무슨 근거로 그 이전의 다른 독립된 민족국가를 하나의 국가내부 문제로 삼고, 각기 독립된 국가 간의 상호관계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이다.³⁵⁾

셋째는 완전한 중국 관념설의 오류이다. ‘중국’이란 개념의 완전한 의미는 현대의 중국인들이 지금 이해하는 중국이다. 흉노·남월·북위·토번·요·금은 양한·남조·당·송에게는 외국이지만 완전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같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앞의 국가들의 민족은 뒤의 국가민족에게 외국인이지만 완전한 중국에게는 같은 중국인이고 그들 모두 중화민족이다. 이런 설명은 모순으로 가득하다. ‘중국’이라는 개념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그러나 흉노·남월·북위·토번·요·금과 양한·남조·당·송 등이 모두 1100년 전에 ‘완전한 중국’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였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될 것을 예지하지 못하였는데,³⁶⁾ 어찌 1100년 전에 흉노·남월·북위·토번·요·금과 양한·남조·당·송 등이 같은 중국으로, 중국인으로 인식되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또 쑨쥘민은, ‘중국이 자고이래로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라고 단언하면, 중원지구를 통치하는 정부를 ‘皇朝’라 칭하고, 변강지구의 독립민족국가를 지방정권 혹은 할거정권이라 칭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이 비록 주관적으로 국가의 통일을 강조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대국주의를 도리어 선양하는 것이고, 독립민족국가의 지위를 낮게 평가하며 그들이 응당 가져야 할 존엄을 손상하는 것이라 비판했다.³⁷⁾

34) 孫祚民, 1985, 앞의 글, 62쪽; 孫祚民, 1987, 앞의 글, 6쪽.

35) 孫祚民, 1985, 앞의 글, 63쪽.

36) 孫祚民, 1985, 앞의 글, 63쪽; 孫祚民, 1987, 앞의 글, 6쪽.

37) 孫祚民, 1990, 「以民族不等的原則處理歷史上不平等的民族關係」, 『長沙水電師院學

쑨진지도 “지금의 강역으로서 역사상의 중국 범위를 확정하려는 것은 실 제상 오늘 우리나라에 속한 것인가 아닌가에 의거하여 역사상 어떤 강역은 우리나라에 속하고 어떤 민족은 국내이며, 오늘 우리나라의 것은 역사상 우리나라의 것이고, 오늘 우리나라의 것이 아닌 것은 역사상에도 우리나라의 것이 아 닌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의 인과관계가 전도된 것으로, 지금의 소유권을 가지고 역사상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이라 비판하였다.³⁸⁾

그러나 1989년에 저우웨이저우(周偉洲)는 쑨쥘민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 의 중국 강역으로서 역사상의 중국 및 강역, 민족을 확정하는 관점은 국내 대 다수 사람들의 찬동을 받고 있고, 특히 1981년 북경 향산에서 있었던 학술좌담 회 이후 이 논점은 사학계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³⁹⁾ 그러면서도 그는 자고이래설은 오늘의 중국 강역은 역사상 중국 강역이 발전해 온 것이라는 사 실을 부정하고,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도 부정하는 것이며, 중국의 통일적 다 민족국가 발전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⁴⁰⁾

하지만 탄치샹(譚其驤)도 우리 현대인은 고대인의 중국으로서 중국의 범위를 삼을 수 없다고 하여 자고이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⁴¹⁾ 다만 탄치샹은 현재의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淸朝 통일완성 이후, 제국주의 중 국 침입 이전의 청의 판도, 구체적으로 말해 1720년대에서 1840년 아편전쟁 이전, 이 시기의 중국 판도를 역사상의 중국 판도로 삼았다. 소위 역사시기의 중국은 이를 범위로 한다는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활동한 민족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민족으로, 이 범위 내에 건립한 정권은 모두 중국 역사상의 정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범위를 벗어난 것은 중국의 민족이 아니고, 중국의 정 권도 아니라 하였다.⁴²⁾

報』1, 51~52쪽.

38) 孫進己, 1984, 「我國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問題」, 『中國民族關係史研究』; 孫進己, 2003, 앞의 글, 79쪽.

39) 周偉洲, 1989, 「歷史上的中國及其疆域, 民族問題」, 『雲南社會科學』2, 52쪽.

40) 周偉洲, 1989, 위의 글, 53쪽.

41) 譚其驤, 1991,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1, 35쪽.

42) 譚其驤, 1991, 위의 글, 34쪽.

역사상 모든 북방민족, 흉노·선비·유연·돌궐·회궐 모두 漠北과 漠南에 동시에 분포하였다. 만일 지금의 국제로서 역사상의 민족을 처리한다면 동일정권 통치하의 하나의 민족이 막북의 것은 중국의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막남은 중국의 것이 된다. 그러나 1840년 이전의 청조 판도를 역사상의 중국 판도로 하면 막북·막남에서 출현한 몽골 및 역사상의 모든 민족이 모두 중국 민족으로 설명된다. 탄치양의 이런 주장은 중국이 최대판도를 이루었을 당시를 역사상의 중국 판도로 삼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몽골과 타이완이 역사상의 중국판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현실의 몽골인민공화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탄치양은 몽골인민공화국이 그들의 역사를 쓸 때 이들 고대민족을 그들의 先民으로 서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⁴³⁾

탄치양에 따르면, 타이완을 자고이래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이는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단, 이 말을 타이완을 자고이래 중원왕조의 일부분이라고 해석하면 이는 완전히 역사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한다. 명 이전 역대 중원왕조는 모두 대만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조가 되어서야 타이완은 청제국의 일부분이 되었고, 타이완의 토착민족-고산족도 중화민족의 1개 구성부분이 되어 중국의 1개 소수민족으로 되었다는 것이다.⁴⁴⁾

탄치양 역시 중국을 한족의 중국으로 절대 볼 수 없고, 중국은 각 민족 인민공동의 중국이라 선언하였다.⁴⁵⁾ 그러나 역사상의 중국 경내 국가와 국가 간의 투쟁에 대해서는 송조는 송조이고, 금조는 금조이며, 송금 사이에 투쟁은 당연히 국가 간의 투쟁이며, 민족영웅과 賣國賊이 있어 岳飛는 민족영웅이고, 秦檜는 매국적이라 하여, 바이서우이 등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⁴⁶⁾

탄치양의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로는 거젠승[葛劍雄]이 있고,⁴⁷⁾ 찬성하지

43) 譚其驤, 1991, 앞의 글, 38쪽. 이 견해는 중국이 최대의 판도를 이루었을 당시의 강역을 역사상의 중국 범위로 삼는다는 것으로 중국 측에게는 유리하지만, 일시적으로 청의 영토에 속했다는 이유로 현재뿐 아니라 청 이전에 엄연히 러시아와 몽골의 영토였던 곳이 역사상 중국 영토로 간주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44) 譚其驤, 1991, 앞의 글, 39쪽.

45) 譚其驤, 1991, 앞의 글, 41쪽.

46) 譚其驤, 1991, 앞의 글, 42쪽.

않는 학자로는 장보quan[張博泉]·웨이춘청[魏存成]⁴⁸⁾·장비보[張碧波]가 있다.⁴⁹⁾ 찬성하지 않는 학자들은 탄치상이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의 영토를 이웃 나라의 영토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2002년에 자오용춘[趙永春]은 1951년에 바이서우이가 『광명일보』에 발표한 「역사상 조국 국토문제의 처리에 대해 논함」이라는 글이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지금까지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자기 자신은 중국 역사상의 강역은 마땅히 지금 중국의 강역에 포괄된 민족을 출발점으로 해서 중국 각개 민족의 역사와 강역을 소급해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중국 강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족과 지금의 강역 내에서 역사상 생활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이미 소실된 민족이 모두 중화민족의 구성성분이고, 그들의 역사도 모두 중국 역사의 구성성분이며, 그들이 역사상으로 활동한 지구와 그 건립 정권의 강역도 모두 중국 역사상 강역의 구성성분이라 하였다.⁵⁰⁾

이렇게 말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아니고 부단히 발전·변화해 왔기 때문에 역사상의 ‘중국’ 개념으로 중국을 대표할 수 없어 단지 오늘의 중국의 개념으로서만 중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 데 있고, 여기서 소급한 중국의 역사로서 비로소 역사상의 중국과 그 강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⁵¹⁾

자오용춘도 바이서우이와 마찬가지로 몽골족을 중국의 소수민족이라 본다. 그에 따르면, 몽골족은 동호족에서 발전해 왔고, 역시 동호족에서 갈라져 나온 오환과 선비는 당연히 중국 역사상의 소수민족이라 한다. 그리고 그들의

47) 葛劍雄, 1994, 『統一與分裂—中國歷史的啓示』, 30~40쪽.

48) 張博泉·魏存成 主編, 1998,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14쪽.

49) 張碧波, 1999, 「高句麗研究中的誤區」, 『中國邊疆史地研究』 3, 34~41쪽.

50) 趙永春, 2002, 「關於中國歷史上疆域問題的幾點認識」, 『中國邊疆史地研究』 12, 1쪽. 殷麗萍은 趙永春의 견해에 따를 경우, 외래민족(예, 아라사족)의 고대인이 역사상 건립한 정권의 강역이 모두 역사상의 중국 강역이 되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殷麗萍, 2008 「論中國歷史疆域的理論界定」, 『廣東教育學院學報』 28-1, 76쪽).

51) 趙永春, 2002, 위의 글, 1~2쪽.

활동구역과 그 후에 건립된 전연·후연·남연·북연·서연·북위·서위·동위·북주 등 정권이 관할한 강역이 모두 중국 역사상 강역의 구성성분이라 하였다.⁵²⁾

자오용춘에 따르면, 소실된 민족의 역사 역시 중국 역사의 구성성분이다. 예를 들어, 흉노족은 은주 이래의 鬼方·葷粥·獫狁이 발전해 온 것으로 전국 시기에는 河套와 陽山(내몽골 양산) 일대, 즉 지금의 내몽골자치구 중부·남부와 오르도스 초원 일대에 거주하였고, 나중에 정권을 세웠는데, 지금의 중국 강역 내에 정권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흉노정권이 장악한 강역은 곧 중국 역사상 강역의 조성성분이고, 흉노가 장악한 강역의 어떤 일부만이 지금의 중국 경내에 있었는가 아닌가에 무관하게 모두 당시 중국의 강역이라 하였다.

고구려 민족에 대해서도 중국 唐朝 시기에 소멸되어 없어진 민족이나 단 그들도 지금 중국 강역 내에서 역사상으로 생활하였고 아울러 아주 일찍이 지금 중국 강역 내에 정권을 건립한 민족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고구려 정권이 지금의 國界를 뛰어넘었는가에 무관하게 고구려의 강역이 모두 중국의 강역이라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고구려 정권이 지금의 국계를 뛰어넘는 부분을 단지 역사상의 중국 강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의 토지를 지금의 중국의 토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⁵³⁾

요컨대 자고이래설은 지금의 중국 강역(혹은 청대의 강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현재 살고 있는 민족뿐 아니라 살다가 사라진 민족이 자고이래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현재 중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 상정하는 중국사의 범주와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하고 있다. 중국사의 범주를 상정할 때에는 56개 민족이 과거에 세운 국가의 역사가 중국사에 모두 포함되겠지만, 그들 역사상의 국가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 영토상에는 과거에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했는데, 그 국가들을 현재의 중국 관념을 투영하여 그들 전

52) 趙永春, 2002, 앞의 글, 3쪽.

53) 趙永春, 2002, 앞의 글, 3쪽.

체를 하나의 ‘중국’으로, 개별 독립국가를 정권으로, 이들 국가 간의 전쟁을 중국 내부의 전쟁, 즉 內戰으로 설명함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실사구시의 입장을 벗어난 역사인식이다. 또, 이는 현재의 중국 강역과 역사상 중국의 강역을 동일시함으로써 쑨쥘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역사발전과정을 외면하고 있다.

Ⅲ. 統一的 多民族國家의 漸進形成說

漸進形成說은 쑨쥘민[孫祚民]이 1961년에 먼저 제기하였다.⁵⁴⁾ 어떠한 국가와 민족도 모두 그 형성과 발전의 역사가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의 영원불변의 ‘定型’이 형성된다는 것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쑨쥘민의 견해이다. 강역으로 말하면 춘추전국 이전에는 황하 중하류와 江·淮 유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진·한·당·명·청 등 큰 통일왕조를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광대한 강역이 형성되었고, 역사상의 각 소수민족도 대부분 한 왕조 국경 밖에 존재하다가 오랜 역사시기 중에 한족과 융합하고 진·한·당·명·청 등 왕조를 거치면서 점차 오늘과 같은 이러한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⁵⁵⁾

쑨쥘민도 “중국사가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 강역을 범위로 삼고,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선 이내의 각 민족 인민과 이 강역 내의 역사상 각 민족 인민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의 범위에 속하고 모두 중국사가 마땅히 講述해야 할 대상”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오늘의 각도에서 말하는 것이고, 흉노·돌궐·거란·여진 등의 민족국가는 당시 중국의 한·당·송·명 등 왕조

54) 孫祚民, 1961, 앞의 글, 218~223쪽.

55) 孫祚民, 1961, 앞의 글, 219쪽.

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전히 外族이고 外國이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자고이래설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쑨쥘민은 역사발전의 시간관념을 모호하게 하고, 역사상의 '당시'와 현재의 '오늘'을 뒤섞어버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잘못된 경지로 유도하는 것이라 비판했다.⁵⁶⁾ 결국 중국 고대사 중의 강역과 소수민족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오늘의 시각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토범위를 마땅히 표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과거 역사단계에서는 응당 당시 각 해당 왕조의 강역을 역대 국토의 범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쑨쥘민의 주장이다. 당시에는 각 해당 왕조 밖에 존재한 독립민족국가를 당시 중국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점차 한족과 융합하거나, 혹은 한족왕조에 통일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중국의 민족성원 중의 하나가 되고, 그들의 역사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위대한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바로 이처럼 느리고 긴 역사의 江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⁵⁷⁾

1984년 12월 21일~27일에 廣州 화남사범대학에서 열린 중국고대민족관계사 토론회의 종합서술을 담당했던 李晉槐·杜紹順은 王佩環·歐陽熙 등 여러 학자가 쑨쥘민의 견해에 찬동하였고, 어떤 학자들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에서 통일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다민족국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⁵⁸⁾

쑨쥘민에 따르면, 역사는 기왕의 사실이다. 역사연구는 반드시 사실을 기초로 해야 한다. 사실이 없으면 곧 역사도 없다. 사실을 왜곡하면 시비가 전도될 수 있고, 역사의 본래 모습을 제시할 방법이 없다. 중국 역사상의 민족국가가 일찍이 '중국'과 '외국'으로 존재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국 역사상 특정시기에 독립적 소수민족국가들이 있었고 중원에 건립된 왕조인 중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확실히 이미 '外國'과 '外族'이었다.

56) 孫祚民, 1961, 앞의 글, 220쪽.

57) 孫祚民, 1961, 앞의 글, 223쪽.

58) 李晉槐·杜紹順, 1985, 「中國古代民族關係史學術討論會綜術」, 『華南師範大學學報』 2, 146~147쪽; 金翰圭, 1992, 앞의 글, 25~26쪽.

한과 서역의 관계를 보아도 武帝 이전에는 중국과 통하는 것이 없어서 서역에 대해 조금도 아는 것이 없었다. 나중에 張騫이 3차에 걸쳐 서역에 出使한 이후에 비로소 점차 소위 36국, 55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⁵⁹⁾ 冒頓시기에 흉노는 완전한 하나의 독립적 민족국가였다. 이 시기의 흉노 민족을 곧 중국 민족으로, 흉노를 중국의 일부분으로 말하는 것은 역사적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⁶⁰⁾ 이들 민족이 중국 판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외국과 외국의 민족일 뿐이다. 중국판도에 들어온 이후에는 곧 중국과 중화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사사실과 실사구시에 부합하는 것이다.⁶¹⁾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들 국가는 외국과 외국으로 독립적인 민족국가로 존재하였다. 이들과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간의 전쟁은 모두 침략과 반침략의 성질을 갖는다. 자고이래설은 민족모순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해서 근본적으로 민족전쟁의 성격을 부정한다. 이미 한 가족인데 누가 누구를 침범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元代 몽골귀족 통치자는 몽골, 색목, 한인, 남인 4개로 민족등급을 나누었고, 청대 만주 귀족 통치자는 剃髮과 圈田 등을 강요하였다. 어떻게 민족 압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⁶²⁾

개원 22년에 당과 토번이 '分界立碑'하여 국경을 획정하였으니 당연히 외국이다. 『二十四史』의 「외국전」을 보아도, 『구오대사』 「외국열전」에 거란·回紇·발해말갈·흑수말갈 당항 등과 고려·신라·점성 등이 동렬이고, 『송사』 「외국전」은 서하 토번·大理·龜茲·于闐·고창 발해국 당항과 대식·천축·拂菻·고려·일본 등을 동렬로, 『금사』 「외국전」은 서하와 고려를 동렬로, 『명사』 「외국전」은 韃靼·瓦剌 등과 조선·일본·태국·瓜哇·滿刺加·수마트라·이탈리아 등과 동렬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는 이들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강역 밖에 뿐 아니라 강역 이내에 있던 독립민족국가로서 똑같이 모

59) 孫祚民, 1985, 앞의 글, 65쪽.

60) 孫祚民, 1985, 앞의 글, 66쪽.

61) 孫祚民, 1985, 앞의 글, 66쪽.

62) 孫祚民, 1987, 앞의 글, 8쪽.

두 外國으로 지칭되었음을 보여준다.⁶³⁾

이에 대해 텐지저우[田繼周]는 秦漢 이후 한족의 족칭이 출현함에 따라 중국은 더욱 한족이 건립한 중원황조의 전유 명사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사학자와 정치가들이 중국을 이야기할 때 늘 한족이 건립한 중원황조의 관할구역을 지칭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념하에서 秦漢 국가정권의 관할구역을 중국으로 승인하고 흉노 등이 건립한 국가를 중국 밖으로 배척하였고, 隋唐 국가 관할구역을 중국으로, 토번·南詔 등의 국가를 異域으로 보았고, 송의 관할구역을 중국으로, 거란·여진·羌 등 민족이 건립한 국가를 외국으로, 명황조의 관할구역을 중국으로, 몽골족을 중국 밖으로 배척하였다고 한다. 원·청 왕조에 대해서는 異族統治로 “중국은 멸망하였다”고 보는데, 이런 관점은 그것이 생겨난 모종의 역사조건과 원인이 있을지라도 단지 大漢族主義의 산물일 뿐이라 비판하였다.⁶⁴⁾

텐지저우는 또, “옛적의 전통적 한족주의의 중국 관념에 따르면 원청시기에 중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정된 중국 관념에 따르면 중국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단지 중국 내부 통치민족이 변하였을 뿐이다. 몽골족과 만주족이 통치민족이 되는 것과 한족이 통치민족이 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완정된 중국 관념에서 출발하고 우리나라가 다민족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국의 역사발전엔 부합하고, 중국 역사의 민족관계를 정확히 연구하고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⁶⁵⁾

천우통[陳梧桐]은 쑤쥘민이 중화민족을 한족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중국과 한족이 중국 영토에 건립한 왕조를 동일시하는 것은 중국이 자고이래로 다민족국가였다는 역사사실에 위배되므로 마찬가지로 과학적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⁶⁶⁾ 秦漢 이후 2,000여 년 중에 봉건왕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63) 孫祚民, 1985, 앞의 글, 66쪽; 孫祚民, 1987, 앞의 글, 7쪽.

64) 田繼周, 1981, 「我國民族史研究中幾個問題」, 『文史哲』 3, 55쪽.

65) 田繼周, 1981, 위의 글, 56쪽.

66) 陳梧桐, 1981, 「關於處理我國民族關係史若干原則的商榷」, 『中央民族大學學報』 2, 9쪽.

통치민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계없이 중국은 시종 다민족국가로서 세계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쑨쥘민의 주장은 중국을 한족과 한족왕조의 판도에 국한하고, 소수민족과 그들이 건립한 국가를 중국 밖으로 배척하는 것이기에 중국 역사의 실제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고대민족관계를 잘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⁶⁷⁾ 쑨쥘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을 단순히 한족왕조가 소수민족 통치범위로 확대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과 소수민족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조국 역사창조에 참가한 자격을 취소시켰으며 소수민족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공헌을 과소평가하였다는 것 때문이라 하였다.⁶⁸⁾

저우웨이저우도 소수민족과 그들의 정권을 외족·외국으로 칭하고 심지어는 원과 청이 중원에 들어와 주인이 된 것을 '중국이 멸망'했다고 보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내에는 이런 관점을 가진 학자는 많지 않고, 근래 10여 년 내에 소련 사학계 학자들을 포함한 외국의 많은 자본계급 학자들의 논저 중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런 관점은 大漢族主義와 봉건정통사상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⁶⁹⁾

인리핑[殷麗萍]도 쑨쥘민의 관점이 중국이 자고이래로 하나의 다민족국가가였음을 간과하고, 국가분열시기의 소수민족정권을 외국과 외족으로 보고, 그들의 관할지역을 중국 강역 밖으로 배척하는 커다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⁷⁰⁾ 가령 5호 16국시기에 소수민족이 건립한 정권이 모두 외국으로, 그 관할 지역도 중국의 강역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천통밍[陳通明]과 쑨진지는 쑨쥘민과 같은 점진형 성설의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했다. 먼저, 천통밍에 따르면 역사상의 중국은 前代 역사의 기초를 부단히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

67) 陳梧桐, 1981, 위의 글, 10쪽.

68) 陳梧桐, 1981, 앞의 글, 10~11쪽.

69) 周偉洲, 1989, 앞의 글, 51쪽.

70) 殷麗萍, 2008, 앞의 글, 73쪽.

형성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진한시기, 수·당·요·송시기, 원·명·청시기가 그것이다.⁷¹⁾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하나의 점진적이고 부단한 공고화와 完善의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다.⁷²⁾

책봉의 방식을 통해 군신관계를 확립하고, 공납 통상사절로서 쌍방의 정치관계를 유지하여 이로써 각 소수민족 지방정권의 중앙통일왕조에 대한 종속관계를 형성하였고, 통일왕조에 신속한 이들 지방정권은 ‘外諸侯國’, ‘屬國’, ‘藩邦’ 등으로 칭해졌다고 한다. 중국의 역대 변경지구의 지방정권 대부분은 이런 책봉방식을 통해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성원이 되었다는 말이다.⁷³⁾

쑨진지도 이와 비슷한 입장인데, 그는 지금의 중국 경토는 점진적으로 발전 형성된 것이고 자고로 이렇게 큰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⁷⁴⁾ 바이서우이·젠보잔이 오늘날 중국 영토상의 각 민족은 자고이래로 중국인이었다고 한 데 대하여, 쑨진지는 역사상의 많은 민족이 다른 시기에 중앙황조와 종속관계가 발생하여 ‘중국’이란 하나의 다민족국가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들이 거주한 땅이 비로소 지금 중국의 일부분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들이 영원히 중앙황조와 종속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중국 밖에 존재하고 그들의 거주지는 지금의 중국 땅이 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⁷⁵⁾ 그러나 종속관계에 의해서만 역사상 중국 밖에 있던 국가나 민족이 중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니다.

역사상 중국 강역의 범위 문제와 중국사 연구대상의 범위 문제는 두 개의 다른 문제라는 것이 쑨진지의 생각이다.⁷⁶⁾ 오늘날 중국의 강역과 역사상 중국 강역의 구별, 오늘날 강역 내의 역사상의 민족과 역사상의 중국 강역 내의 민족구별, 역사상 ‘중국’의 의미와 오늘날 ‘중국’의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

71) 陳通明, 1992, 「試析中國統一의 多民族國家의 發展過程」, 『固原師專學報』 1, 30쪽.

72) 陳通明, 1992, 위의 글, 31쪽.

73) 陳通明, 1992, 앞의 글, 34쪽.

74) 孫進己, 2001, 앞의 글, 12쪽.

75) 孫進己, 2001, 앞의 글, 11쪽.

76) 楊建新, 1979, 「歷史上中國의 疆域問題」, 『中俄關係史論文集』(孫進己, 2001, 앞의 글, 12쪽 재인용).

다는 것이다.⁷⁷⁾

쑨진지는 1980년에 쑨쥘민이 행한 자고이래설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적극 지지한다. 자고이래설 착오의 관건은 중국이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한 역사적 과정을 빼버리고, 역사상의 '당시'와 당대의 '오늘' 두 개의 다른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떤 하나의 나라와 민족은 모두 형성과 발전의 역사가 있다. 때문에 1,100년 후 지금의 영토를 가지고 1,100년 전의 역대왕조 영토 범위에 덧씌울 수는 없다고 한다.⁷⁸⁾ 장기간의 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된 오늘의 중국 개념을 가지고, 당시에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금 규모의 '중국' 위에 덧씌우고, 당시에 아직 중국에 가입하지 않은 각 민족에 대해 당시의 중국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쑨진지의 비판 역시 쑨쥘민의 그것과 일치한다.⁷⁹⁾

쑨진지는 통일적 다민족국가 형성의 기점에 대해서 장기간 다른 2종의 관점이 있다고 하였다.⁸⁰⁾ 그 하나는 중원왕조와 북중통속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각 민족 간의 경제문화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정치상으로 일정한 의무관계가 형성되고 이 때문에 정식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관점이라 한다. 그러나 중원왕조를 지칭하는 '중국'이라는 말이 과연 국명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 쑨진지가 말하는 2종의 관점에 의해서만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형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쑨진지는 신복에도 3종의 다른 형태가 있다고 하였다.⁸¹⁾ 첫째는 신복칭신의 국가와 민족이 독립국가이고 명의상 칭신수봉하는 것이다. 둘째는 스스로 중국 중앙정권 관할하의 지방정권임을 자인하고, 唐이 말갈 정권을 忽汗州都督府로 삼은 것과 같이, 책봉받은 관직이 국왕이 아니라 도독자사, 위소지휘사

77) 孫進己, 2001, 앞의 글, 12쪽.

78) 孫祚民, 1980, 「處理歷史民族關係的幾個重要準則」, 『歷史研究』 5(孫進己, 2001, 앞의 글, 11쪽 재인용).

79) 孫進己, 2001, 앞의 글, 12쪽.

80) 孫進己, 2001, 앞의 글, 13쪽.

81) 孫進己, 2001, 앞의 글, 14쪽.

등인 경우이다. 셋째는 각 소수민족이 완전히 정치상의 독립지위를 잃어버리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통하여 관할하는 것이다.⁸²⁾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남흉노는 漢朝 때, 新疆은 전한 무제 때, 西藏은 원나라 때, 토번은 당나라 때 조공하고 책봉을 받아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 고구려는 현도군 고구려현 관할에 속하여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일원이 되었으며, 거란은 4세기 북위에 조공하였고, 당대에는 거란에 현주 송막도독부를 두었고, 몽골 민족의 조상과 중국 중앙정권이 경제문화관계와 조공관계를 시작한 것은 아주 이르고 정식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일부분이 된 것은 당대에 실위도독을 두면서부터라고 한다.⁸³⁾

칭신납공 등을 통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에 대한 천통밍과 쑤진지의 입장에 대해서는 탄치상의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과 월남은 역대로 중원왕조를 향해서 칭신납공을 하고, 중원왕조의 봉작을 받았는데, 조선과 월남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과 명조·청조의 관계는 단지 소국과 대국의 관계이고, 번속과 중주국의 관계이지 그들이 명조의 지방이거나 청조의 지방은 아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일본이 책봉되어 漢倭奴國王印을 받았는데, 일본을 중국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봉작납공관계의 유무로 역사상의 중국 범위 이내에 존재 유무를 말하는 것은 절대 말이 통하지 않는다.⁸⁴⁾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발전과정을 쑤진지는 중국 각 민족이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되는 과정이고, 각 민족이 점차 통일적 다민족국가에 가입하여 부단히 확대하는 과정이고, 각 민족 간 경제·문화·정치 연계가 점차 강화되어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날로 공고화되는 과정이고,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통일·분열·재통일을 거치면서 부단히 공고히 발전하

82) 孫進己, 2001, 앞의 글, 14쪽.

83) 孫進己, 2001, 앞의 글, 15쪽.

84) 譚其驥, 1991, 앞의 글, 39쪽. 김정희도 조공책봉 관계와 기미부주 제도를 신숙 또는 귀속의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김정희, 2008, 「중국의 다민족 통일 국가론」과 당대의 국제질서, 『사림』 31, 280쪽).

는 과정이고, 각 민족이 점차 융합하여 하나의 핵심민족과 각 민족 간 상호 확실히 이해하고, 너 가운데 내가 있고, 나 가운데 네가 있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점진적인 발전과정이라 정리하였다.⁸⁵⁾ 그리고 중국 통일적 다민족국가 형성발전과정의 분기를 6단계로 나누어, 2단계인 진한시기에 흉노·남월과 서역 각 민족이 새롭게 통일적 다민족국가에 들어왔고, 4단계에는 몽골족을 통치민족으로, 한족을 다수로 하는 다민족국가를 형성하였으며, 6단계인 20세기에 와서 재차 한족을 주체로 하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건립하였다고 주장했다.⁸⁶⁾ 그러나 秦·漢·唐·元·明·淸은 물론이고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조차도 쑨진지가 말하는 평화적 방법보다는 전쟁을 통해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 역시 실사구시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 중국변강사지연구 중심에서 변강총서로, 린룽구이[林榮貴]가 주편하여 발행한 『中國古代疆域史』는 자고이래설과 점진형성설을 결합시킨 형태를 하고 있다.⁸⁷⁾ 즉, “지금의 중국 강역은 역사상의 중국 강역과 다르다. 단지 지금 중국 강역은 역사상의 중국 강역이 발전해 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인식하는 중국 고대강역사의 기본 실마리이다.”⁸⁸⁾ “중국 고대강역은 각 민족 선인의 고향 고토에서 유래하였고 주권행사가 대대로 이어졌으며 여러 대에 계속되었다”⁸⁹⁾고 하여 현재의 중국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로 서술하여 점진형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華夏 혹은 漢族, 夷狄 혹은 소수민족정권(혹은 왕조)을 논할 것이 없이 모두 그 관할 강역에 주권을 행사함에 노력하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수 없다. 변강지구 역시 전국강역의 1개 구성성분이다”⁹⁰⁾라는 표현이나 “다원일체의 중화민족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개념이고 또 하나의 國

85) 孫進己, 2001, 앞의 글, 16쪽.

86) 孫進己, 2001, 앞의 글, 16쪽.

87) 景愛·苗天娥, 2008, 「詳述統一多民族國家的千秋功業—評〈中國古代疆域史〉」, 『中國邊疆史地研究』 18, 143~147쪽.

88) 林榮貴 주편, 2007, 『中國古代疆域史』, 4쪽.

89) 林榮貴 주편, 2007, 위의 책, 5쪽.

90)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2쪽.

族 개념이다”⁹¹⁾라는 표현을 보면, 현재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중원왕조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변강지역의 소수민족이 세운 국가까지를 모두 고대 중국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 서술을 보면 그 같은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진한시기의 전국강역은 중앙정부가 개창한 통일관할구역을 주체로 하고, 통일관할구 둘레에 다시 기타 민족관할구와 민족지구가 있어서 우리 역사상 통일적 다민족국가 초기 판도의 구조와 격식을 세우고 다졌다. 통일된 秦朝 관할구역 둘레에 또한 동북지구의 조선·고구려·옥저·숙신·부여·동호, 북부에서 서북지구의 흉노·丁靈·鬲昆·呼揭·월씨·烏孫·서역 성곽 제국, 서북 청장고원 지구의 羌, 서남지구의 滇月 등 민족정권 관할구와 민족 분포구가 진대 전국 기본판도를 구성하였다.”⁹²⁾

“서한시기의 전국강역은 서한왕조 관할구역, 북부에서 서북에 이르는 선비·흉노·丁零·呼揭·堅昆 등 민족정권의 통제구역 및 동북의 읍루(숙신)·옥저·부여 등 족 활동지구 혹은 통제구역, 서부 청장 고원 唐旄·發羌 및 기타 諸羌의 활동지구 혹은 통제구역을 포함한다.”⁹³⁾

이리하여 『중국고대강역사』는 서한시기의 전국강역을 대체로 동남쪽으로는 바다, 즉 오호츠크해·한국동해·발해·황해·중국동해·중국남해와 거기에 포함된 바다의 섬, 서쪽으로는 발하슈호(Balkhash Lake), 파미르고원 이서지구, 서남으로는 히말라야 산, 북으로는 외홍안령 이남, 앙카라하 이남과 예니세이 강, 이르티슈(Irtysh) 河 상단 지구에 이르렀다고 서술하고 있다.⁹⁴⁾ 이렇게 파악한 서한시기의 중국 강역은 현재의 중국 영토보다 더 넓다.

한국사와 관련해서도 漢이 기원전 108년에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진번·임둔·현도·낙랑 4군을 두었는데, 4군은 한반도 대부분을 포함하였다⁹⁵⁾

91)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2쪽. 중국의 인구는 13억, 56개 민족으로 그중 한족이 91.6%, 55개 소수민족이 8.4%이다(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3쪽).

92)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245쪽.

93)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290쪽.

94)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296쪽.

95)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292쪽.

고 서술하고 있다. 또, “낙랑군은 경내의 옥저·濊族을 관할하고, 현도군내 관할의 고구려는 북쪽 경계가 부여·숙신 등과 서로 접하였고, 숙신은 부여에 신속하였고, 부여는 현도군의 관할을 받았다”⁹⁶⁾고 하여, 낙랑·현도군뿐 아니라 옥저·동예·고구려·부여를 모두 서한시기 중국의 판도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고구려를 동한시기에는 변강민족지구,⁹⁷⁾ 서진시기에는 변강민족구역으로,⁹⁸⁾ 동진시기에는 북위·전연·후연 등과 같은 기타민족구역으로,⁹⁹⁾ 남북조시기에는 기타 민족정권의 관할구역으로,¹⁰⁰⁾ 수대에는 거란 등과 같은 동부지구 소수민족정권으로 서술하고,¹⁰¹⁾ 唐代에는 고구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발해에 대해서만 변강민족정권의 관할구역 중에 동부지구의 속말말갈 등 족이 세운 정권이라 표현하고, 남쪽으로 조선반도 용흥강과 대동강에 이르러 신라와 경계를 삼았다고 서술하였다.¹⁰²⁾

요컨대 점진형성설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 오늘의 중국은 점진적인 발전 형성과정을 거쳐서 이룩된 것으로, 지금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은 본래 외족·외국으로 존재했었다는 주장이다. 이 설에서 말하는 ‘역사상의 중국’은 ‘중원을 차지한 국가’, ‘한족의 국가’를 의미하고, 그것이 주변의 소수민족을 흡수 내지 통합하는 과정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변강지역의 많은 소수민족들은 본래 중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한족중심의 역사이해라는 비판이 있다. 중화민국 이전에는 역사상 ‘중국’이라는

96)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324쪽.

97)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338~339쪽.

98)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444쪽.

99)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503쪽.

100)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568쪽.

101)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722~724쪽.

102) 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778~779쪽. 이 책에는 “고종 상원 2년(675)에 신라를 평정하고 그 땅에 尙·良·康·熊·全·武·漢·朔·溟 9주를 두고 州에는 도독이 있어 10군 혹은 20군을 통할하고 군에는 태수, 현에는 소수가 있다(林榮貴 주편, 2007, 앞의 책, 792쪽)”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실수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 혹은 국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시기에 따라서 역사상의 ‘중국’이 갖는 의미도 다른 상황에서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중국사를 설명함은 부적절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사를 서술 혹은 설명함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중국’을 사용하고, 역사상의 ‘중국’은 역사상의 정식 국명이 아니므로 당시의 실제 국가 이름, 즉 漢·魏·晉·唐·宋·遼·金·元·明·淸 등의 국명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사의 범위를 설정할 때 ‘중국’의 개념과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함에서 오는 모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兩說의 問題點과 對應論理

‘강역’을 기준으로 중국사의 범위를 획정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자고이래설이나 점진형성설의 입장이 일치한다. 단지, 자고이래설은 오늘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자고이래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였다고 주장하고, 점진형성설은 역사상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그것이 점차 커져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김한규는 ‘중국’의 범주를 과거 수천 년 전까지 소급시킬 수 있다는 논의는 오직 현대 중국 사학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¹⁰³⁾

그러나 중국 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저우웨이저우에 따르면, 역사상의 중국 문제에 관해 건국 30여 년 이상 사학계의 토론을 거쳐서 한 가지 모두가 같이 동의하는 것은 오늘의 중국이란 국가 강역 내에 활동했던 역사상 각개 민족 및 그들이 건립한 정권의 역사는 모두 중국사의 일부분이고, 중국 역사의

103) 金翰奎, 1992, 앞의 글, 2쪽.

범위와 중국사 講述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오늘의 중국이 이미 1개 현대의 통일적 다민족국가이고 조국 경내의 각개 민족이 일찍이 조국대가정의 성원으로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과 본국 역사범위 처리의 원칙은 사실상 현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서 통행되고 있는 기본원칙이라 하였다.¹⁰⁴⁾

쑨진지도, 자신이 세계 각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들이 국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대다수가 모두 현재의 疆界에 의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즉, 세계 각국이 연구하는 본국사는 모두 현재의 국토를 출발점으로 해서 국토상의 역사를 소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사귀속과 국사범위는 다른 문제라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국사범위는 단지 현재 국토에 의거하여 한 국가가 계승한 토지, 인구, 역사, 문화를 표명하는 것이고, 한 시기의 역사를 이용하여 귀속을 판정할 수 없다고 한다. 역사귀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상 당시 중국의 관할범위'이고, '국사범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중국의 역사'로, 둘을 서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¹⁰⁵⁾ '국사범위'는 현실의 정치문제이고, '역사귀속'은 역사상의 학술문제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⁰⁶⁾

박찬규도 고구려 인식 문제에서 쟁점은 실제상 소위 '역사귀속' 문제라 전제하고, 단일민족국가에서는 민족사와 국사가 동일하지만 다민족국가에서는 어느 하나의 민족사로서 국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민족사로서 국사를 대체하는 사관은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세계학계에 보편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국사 범주는 대다수가 현재의 國境을 표준으로 하며, 민족원류를 소급하여 고대사의 始點으로 삼지 않는다고 소개하였다. 영국·프랑스·러시아·미국 등 구미 각국이 그러하고 일본의 고대사 서술체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준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¹⁰⁷⁾ 이 국가들이 현재의 국경을 표

104) 周偉洲, 1989, 앞의 글, 50~51쪽.

105) 孫進己, 2006, 「確定歷史歸屬的意義和依據」, 『高句麗問題學術研討會 發表集』, 6~7쪽.

106) 孫進己, 2006, 위의 글, 7쪽.

107) 朴燦奎, 2006, 「中韓學界的高句麗歷史認識, 問題在哪里?」, 『高句麗問題學術研討會

준으로 국사의 범주를 삼고 있는지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문에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 또, 다민족국가에서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민족의 역사를 국사의 범위로 설정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민족국가에서는 어느 하나의 민족사로서 국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사의 범주를 현재의 국경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회피가 아닌가 한다.

강역은 시기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르다. 같은 시기, 같은 국가에서도 강역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수시로 변화하는 강역을 기준으로 국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가령 여진족의 금이 宋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北宋 지역을 차지했을 때, 당초의 강역을 기준으로 금이 새로 차지한 지역의 역사를 여전히 宋의 역사로 설명하거나, 변화된 강역을 기준으로 금이 새로 차지한 북송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금의 역사라고 하고, 宋의 역사에서 빼 버리는 것 모두 불합리하다. 쏘진지도 최근 이에 대해 오늘의 강역으로서 역사상의 강역을 확정할 수 있다는 이론은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이 이론이 침략자에게 아주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하였다. 단지 누가 한 지역을 점령한다면, 이 이론에 따를 경우 역사상 그 지역은 침략자에 속하는 것으로 마땅히 칭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¹⁰⁸⁾

‘역사’는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 혹은 그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므로 국사의 범위도 인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지리학의 경우에는 강역이나 영토가 연구의 주 대상이 되겠지만 역사학은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를 연구하는 人間學이기 때문에 역사의 범위도 인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사는 중국의 역사이고,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이다. 당연히 중국사의 주체는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이고, 한국사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다. 국가는 흔히 국민(인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

發表集』, 11~13쪽.

108) 孫進己, 2003, 앞의 글, 80쪽.

고 이를 국가의 3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영토는 인간 행위의 결과로서 그 자체가 역사이다. 땅은 자연이며 그 땅을 인간들로 구성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토(강역)이다. 따라서 영토는 인간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난 역사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역사가 역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주권은 인간의 권리행사로서 행위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인 주권 역시 그것의 행사 자체가 역사이다. 국가의 3요소 중에 영토와 주권은 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가 역사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역사를 가지고 역사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것은 역사(A)의 역사(B)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A)의 주체가 필요하다. ‘역사는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역사(A)의 주체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국사는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중국사의 범주로 설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¹⁰⁹⁾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의 범주를 정할 경우, 중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일본이나 서구열강의 침략행위도 모두 중국사가 되어서 彼我的 구분이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인리핑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바이서우이 등의 주장은 현재 중국 경내에 있지 않으나 역사상 중국에 속하였던 영토를 역사상 중국 강역 밖으로 구획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 가령,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으로 분할되어 나간 흑룡강 이북과 오소리강 이동의 100만 km²가 역사상 중국 영토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¹¹⁰⁾

역사가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 혹은 그에 관한 기록을 의미하고, 국가의 3요소 중에 영토와 주권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때, 역사의 주체는 국민(인민)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사의 주체는 중국의 14억 인민이고, 한국사의 주체는 한국의 5,000만 국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과거에 행한 행위가 중국사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과거에 행한 행위가 한국사이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중국사의 범주를 설정하는 1차적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

109) 이인철, 2004, 「中역사학자들의 3가지 오류」, 『동아일보』 8월 13일자 ; 윤휘탁, 2004, 앞의 글, 380쪽.

110) 殷麗萍, 2008, 앞의 글, 74쪽.

민이 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행하지 않는 행위는 중국사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그것이 중국 영토 안에서 행하여진 행위이든, 영토 밖에서 행하여진 행위이든 상관없이 중국 국민이 행한 행위는 중국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중국사의 1차적 범주는 14억 인민들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정부조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진 公民과 자녀를 포함하는, 모든 중국 인민들로 조직된 인간집단으로서 국가를 의미한다. 인간집단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인민 14억은 동일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는 1949년 이전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 이전의 역사는 中華民國史, 淸史, 明史, 元史, 宋史, 唐史 등으로 정의함이 옳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명·청은 분명 다른 국가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들 다른 국가조직을 연결시키는 것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민인데, 개별 인민은 대개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전체 인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 역시 개별 인민의 국가적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시기 이전으로 역사를 소급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처럼 수많은 인종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미합중국 건국 이전으로 역사를 소급하기 어렵다.

여기서 국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민족이다. 국민은 국가의 흥망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민족은 국가의 흥망과 무관하게 장기간 존속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헌법 서문에서조차 전국의 각종 인민이 공동으로 건립한 '통일적 다민족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임을 선언한 마당에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으로 역사를 소급할 수 있는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國家를 이루고 있는 통일적 다민족, 즉 56개 민족의 역사를 중국사의 범주로 규정하는 것이다. 중국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56개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학자들도 '중국의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境內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라 하여 중국사 서술의 1차적 범주를 강역으로, 2차적 범주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적 범주를 민족으로 삼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과 인간을 기준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영토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 살다가 사라진 민족의 역사도 중국사에 포함되지만,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영토 안에 살다가 사라진 민족의 역사는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있지만 그 자체를 중국사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다. 가령, 고구려는 현재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사의 범주에 일부 포함되지만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중국 강역 범위 안에 살았기는 하지만 현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사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조선족의 역사로서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지도 모르지만,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한반도의 주민이 조선 후기에 중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다. 따라서 중국 내 조선족의 역사는 17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흉노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흉노가 현재의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에 연결되는지 잘 알 수 없지만,¹¹¹⁾ 흉노가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민족과 연결이 된다면 흉노의 역사가 중국사에 포함되겠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흉노의 역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¹¹²⁾ 단지, 흉노와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16국 중에 漢, 前趙, 大夏, 北涼은 남하한 흉노족이 세운 국가인데, 그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漢族이므로 이들 국가는 흉노족의 국가가 아니라 한족이 다른 민족과 함께 세운 다민족국가로서 중국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적 다민족국가임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사의 범주를 현재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중국사의 1차적 범주를 ‘중국’이라는 國家로 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인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각 민족의 역사를 중국사의 2차적 범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중국은

111) 殷麗萍은 흉노인이 현대 한족의 조상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殷麗萍, 2008, 앞의 글, 76쪽). 흉노가 한족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112) 몽골족을 흉노족의 후예로 보는 설이 있다고 한다(정재남, 2007, 『중국소수민족연구』, 236쪽).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어야 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구성하고 있는 56개 민족의 역사가 중국사가 된다.

문제는 전근대 역사서에서 사용된 ‘중국’이라는 용어와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서 ‘중국’을 혼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전근대에 ‘중국’이란 용어는 왕조를 대신 칭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역사상 ‘중국’이라는 개념은 1국의 중심, 즉 도성·京師·國中·王畿의 뜻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원왕조를 의미하였다. 춘추시기에는 중원지구의 周왕조와 衛·齊·魯·晉·宋·鄭 등이 모두 중국으로, 중원 이외의 秦·楚·吳·越 등의 국가가 戎·狄·蠻·夷로 간주되었다.¹¹³⁾ 秦이 중원을 점거하고 6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秦이 중국을 대표하게 되었고, 이후 兩漢이 중원을 점거하여 역시 중국으로 간주되었고, 삼국시기에는 魏가 중원을 점거하여 중국으로 간주되었고, 蜀은 비록 漢을 계승하였지만 중국으로 간주되지는 않았고, 吳는 더욱 邊鄙로 여겨졌다. 역사상 중원정권은 중국이라 말하고, 중원 이외의 정권은 중국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는 달리, 5호 16국과 북조는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晉과 남조가 중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여진인이 건립한 金이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남송이 그들을 중국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남조와 남송은 모두 중원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중국으로 간주되었다. 또 다른 개념은 한족왕조를 가리킨다. 그러나 한족왕조로서 중국을 대표하기에는 불완전하다. 삼국시기의 吳와 蜀은 비록 한족이 건립하였지만 중국으로 칭해지지 않았고, 5대 10국시기 후당·후진은 한인이 건립한 정권이 아니라 沙陀部인이 세운 왕조이지만 중국으로 칭해졌다. 북조시기에 선비족이 건립한 북위·동위·서위·북주도 모두 자기들을 중국이라 간주하였고, 거란족이 건립한 遼도 때로는 자칭 중국이라 하였다.¹¹⁴⁾

남북조시기에는 북조는 스스로 자신들을 중국으로, 남조를 자기들로부터

113) 史聞, 1981, 「開展中國民族關係史研究的一個新起點-中國民族關係史研究學術座談會簡記」, 『民族研究』 5, 76쪽.

114) 趙永春, 2002, 앞의 글, 2~3쪽.

분열되어 나간 일부분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남조도 자기들을 중국으로 생각하고, 북조는 응당 그들의 소유라 생각했다. 당시 역사가들은 북조는 남조를 ‘島夷’라 하여 그들을 정식정권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남조는 북조를 ‘索虜’라 칭하였다.¹¹⁵⁾ 하지만 이연수가 쓴 남북조사에서는 이들을 모두 중국으로 서술하고 있다.¹¹⁶⁾

송나라 사람들은 송을 중국으로 간주하고, 요·금·원을 夷狄으로 보았다. 그러나 脫脫이 주재하여 편찬한 前朝의 역사에서는 요·금·서하 등을 송과 마찬가지로 모두 중국의 왕조로 보았고, 그들 통치하의 민족을 모두 중국 민족으로 보았다. 명·청에 이르러서 명인·청인은 중국에 대해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청나라 사람 魏源이 쓴 『聖武記』는 몽골·西藏을 중국의 구성성분으로 보았고, 러시아와 인도를 외국으로 치부했다.¹¹⁷⁾

이처럼 중국 역사상에 사용된 ‘중국’이라는 개념은 시기에 따라서 혹은 그 말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기록상의 ‘중국’의 의미를 가지고 역사상의 ‘중국’ 혹은 ‘중국사’의 범주를 정하게 되면 커다란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사 서술의 범주는 오늘의 중국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국사 서술 범주의 1차적 기준이 영토가 아니고 국가라는 인간집단이어야 한다.¹¹⁸⁾ 현재의 중국은 56개 민족이라는 인간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56개 민족의 역사, 이들 민족이 과거에 건립하였거나 소속되었던 국가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민족의 역사를 중국사로 서술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남이 한 행위를 자기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115) 白壽彝, 1991, 앞의 글, 6쪽.

116) 史聞, 1981, 앞의 글, 76쪽; 譚其驥, 1991, 앞의 글, 35쪽.

117) 史聞, 1981, 앞의 글, 76~77쪽.

118) 그렇다고 영토(강역)를 역사서술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토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국사 서술의 1차적 범주를 영토를 기준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 인민을 구성하고 있는 56개 민족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과 현재의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강역 안에 살았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중국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후자는 현재의 중국 강역이 자고이래로 존재해 온 것으로 보아, 현재의 중국 강역을 과거의 역사에까지 덮어씌우는 형식의 역사인식이다. 이러한 역사인식에서는 56개 민족이 각기 세웠던 국가들이 현재 중국의 강역을 소급시킨 가상의 국가 내부에 존재했던 정권으로 규정되고, 당시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 중국 내부의 전쟁, 즉 內戰으로 설명된다. 이는 분명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실사구시의 학문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태도는 또 중국사의 서술범주와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하여 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¹¹⁹⁾

그렇다고 한족이 세운 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사를 서술하고 그것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 혹은 통합하여 오늘의 중국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점진형성설도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통일적 다민족국가인 현재의 중국에서 한족이 세운 국가 혹은 역사기록상에 중국을 자칭했던 국가만이 중국으로 간주되고 이들을 제외한 민족은 본래 외국인으로, 그들이 세운 국가는 외국이었던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중국사를 서술하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집단(한족)만을 중국인으로, 다른 집단을 외국인으로 서술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현재 중국사를 서술하는 시점에서 의미하는 '중국'은 역사상의 중국이 아니라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56개 민족 중에 어느 민족도 외국인으로 서술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 56개 민족이 과거에 세운 국가는 '역사상의 중국'이 아니라 '중국 역사상의 국가'로 규정되어야 한다.

중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하·상·주·진·한에서 나중의 당·송·금·원·명·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조는 모두 자기의 국호를 가지고 있었

119) 쑨쥘민은 중국사 연구대상의 공간범위와 역사상 중국 강역의 범위는 둘이 서로 관련이 있지만 또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하였다(孫祚民, 1987, 앞의 글, 5쪽).

고, 그 어느 하나의 왕조도 중국을 자기의 국호로 삼은 적이 없다. ‘중국’이 정식으로 하나의 국가정권의 칭호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¹²⁰⁾ 중화민국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국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진·한·당·송·금·원·명·청 등의 국명을 대신하여 부르는 명칭으로서 ‘중국’이라는 代稱만이 존재했다. 그런데 역사상 대칭으로서 ‘중국’과 오늘의 중국을 동일시하게 되면 커다란 혼란이 생긴다. 점진형성설은 바로 역사상 역대 왕조의 대칭으로서의 ‘중국’을 ‘역사상의 중국’으로 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각 해당 왕조 바깥에 존재한 독립민족국가들 당시 중국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그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해서 점차 한족과 융합하거나, 혹은 한족왕조에 통일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중국의 민족 성원 중의 하나가 되고, 그들의 역사가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 된다고 주장한다.¹²¹⁾ 하지만 이러한 역사인식은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元이나 淸은 한족이 중심이 되어 건립된 국가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고대에 56개 민족이 과거에 세운 국가를 모두 독립국가로 서술하는 것이다. 한·당·송·명 등이 각기 독립국가이듯이 흉노·돌궐·거란·여진 등이 세운 국가도 각기 독립국가이고, 흉노·돌궐·거란·여진이 한·당·송·명에 대해 외국·외족이라면 그 반대로 한·당·송·명도 흉노·돌궐·거란·여진에게는 외국·외족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시기에 이들은 각기 독립된 국가였고, 상호관계도 외국이었다. 이것이 실사구시의 관점이다. 자고이래설은 이처럼 상호 독립적인 외국으로 존재한 국가들을 오늘의 중국 강역을 적용하여 중앙왕조와 지방정권으로 설명하는 것은 실사구시와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56개 민족이 과거에 세운 국가들은 본래 중국 역사상의 독립국가로, 그들 상호간의 관계는 국제관계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들은 오늘의 중국이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조성성분이 되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120) 杜榮坤·白翠琴, 1979, 「試論古代少數民族政權與祖國的關係」, 『民族研究』, 228쪽.

121) 孫祚民, 1961, 앞의 글, 223쪽.

이를 한국사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하나가 韓國인 것도 아니고 그들 모두가 하나의 한국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각기 독립국가였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 즉 국제관계였다. 그런데 이들 삼국의 역사가 한국사에 속하는 까닭은 현재의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의 조상이 이들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국 역사상의 국가, 즉 한국 고대국가이고, 그 역사는 한국사의 일부분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역사상에 존재했던 국가 중의 특정 국가를 혹은 그들을 통합하여 중국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중국 역사상의 국가, 중국의 고대국가였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 국가 중의 하나를 중국으로 칭하거나 그들을 모두 합쳐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동일시하여 중국은 자고이래로 통일적 다민족국가였다고 하면 논리적 모순과 혼란이 발생한다.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은 한족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도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쑨궈민은 華夏族에서 시작해서 진·한, 남북조시기를 거쳐 수당시기에 이르러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기초가 다져졌고, 수당 이후 한족, 돌궐, 회궐, 토번, 거란, 당항, 여진, 몽골족 등 각 민족 간의 관계가 또 진일보 발전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다민족국가의 강역이 형성되고 확정되었다고 하였다.¹²²⁾ 그러나 이는 한족 중심의 일방적인 통일적 다민족국가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한족과 소수민족, 소수민족 상호간의 정복·통합과 분리가 거듭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일적 다민족국가가 형성되었다. 선비족 중심의 북위, 여진족 중심의 금, 몽골족 중심의 원, 만주족 중심의 청이 바로 소수민족이 세운 통일적 다민족국가들이다. 따라서 오늘의 중국이라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는 한족을 중심으로 증원에서 확장되는 일방적 형태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진행된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족이 세운 왕조를 중앙왕조로, 여타 민족이 세운 국가를 지방정권으로 설명함은 부적절하다. 56개 민족이 세운 역사상의

122) 孫祚民, 1985, 앞의 글, 62쪽 ; 孫祚民, 1987, 앞의 글, 6쪽.

국가들의 관계가 한족 중심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의 역사를 국사의 범주로 하게 되면, 중국의 경우 56개 민족이 과거에 세웠던 모든 국가의 역사는 중국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의 일부가 별도의 국가를 건설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중국의 경우, 싱가포르, 타이완, 몽골의 역사는 중국사에 포함되는가, 아닌가? 현재 이들은 별도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중국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인의 일부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세웠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들은 별개의 국가이므로 이들 국가의 역사는 영국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리되어 나간 민족이 세운 국가도 원래 소속되었던 국가의 역사를 자국사에 포함시킬 수 없다. 싱가포르가 자국사에 중국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인의 일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이지만 러시아의 역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는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역사는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 혹은 그에 관한 기록이므로,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고, 국사의 경우 그 주체는 당연히 인간들로 구성된 정치사회적 집단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가를 주체로 할 경우, 해당 시기 이전 역사를 국사의 범주에 넣을 수 없으므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의 역사를 자국사의 범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국가와 국명은 바뀌지만 민족은 영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중국사의 경우, 중국사 서술의 1차적 범주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이고, 2차적 범주는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56개 민족이 되어야 한다.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개념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혼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중국이라는 국가를 기준으로 중국사를 서술할 경우에 거기에 포함되는 과거의 국가들은 ‘역사상의 중국’이 아니라 ‘중국 역사상의 국가’로 인식되어야 한다.

V. 맺음말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각 민족·인민이 공동으로 세운 통일적 다민족국가이다.” 이는 중국 헌법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의 중국이 한족과 55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으니 이 말은 오늘의 중국 현실을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 학계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는 없다. 다만,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문제에 있어서는 자고이래설과 점진형성설로 나누어진다.

자고이래설은 지금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현재 살고 있는 민족뿐 아니라 살다가 사라진 민족이 자고이래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현재의 입장에서 중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 상정하는 중국사의 범주와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하고 있다. 중국사의 범주를 상정할 때에는 56개 민족이 과거에 세운 국가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에 포함되겠지만, 그들 국가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역사상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 영토상에는 과거에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했는데, 그 국가들을 현재의 중국 관념을 투영하여 그들 전체를 하나의 ‘중국’으로, 개별 독립국가를 정권으로, 이들 국가 간의 전쟁을 중국 내부의 전쟁, 즉 內戰으로 설명함은 실사구시의 입장을 벗어난 역사인식이다. 또, 이는 현재의 중국 강역과 역사상 중국의 강역을 동일시함으로써 중국의 역사발전과정을 도외시하는 역사인식이다.

점진형성설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 오늘의 중국은 점진적인 발전형성과정을 거쳐서 이룩된 것으로, 지금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은 본래 외족, 외국으로 존재했었다는 주장이다. 이 설에서 말하는 ‘역사상의 중국’은 ‘중원을 차지한 국가’, ‘한족의 국가’를 의미하고, 그것이 주변의 소수민족을 흡수 내지 통합하는 과정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변강지역의 많은 소수민족들은 본래 중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다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상

‘당시’의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56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중국이 그들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서술해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중화민국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국가 혹은 국명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기에 따라서 역사상의 ‘중국’이 갖는 의미도 다른 상황에서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중국사를 서술함은 역사인식에 혼동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사를 서술 혹은 설명함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중국’을 사용하고, 역사상의 ‘중국’은 역사상의 정식 국명이 아니므로 당시의 실제 국가 이름, 즉 漢·魏·晉·唐·宋·遼·金·元·明·淸 등의 국명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사의 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중국’의 개념과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함에서 오는 모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고이래설과 점진형성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국의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境內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라 하여 중국사 서술의 1차적 범주를 강역으로, 2차적 범주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 혹은 그에 관한 기록을 뜻하므로, 역사의 주체는 당연히 인간이 되어야 한다. 강역을 역사서술의 1차적 범주로 삼는 것은 역사학의 기본을 위배하는 것이다. 국사의 경우 그 주체는 당연히 인간들로 구성된 정치사회적 집단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가를 주체로 할 경우, 건국 이전 시기를 국사의 범주에 넣을 수 없으므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이 세운 조국의 역사를 자국사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건국 이전으로 역사를 소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와 국명은 바뀌지만 민족은 영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중국사의 경우, 중국사 서술의 1차적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이고, 2차적 기준은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56개 민족이 된다.

‘강역’이 아니라 인간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국가’를 국사서술 범주의 1차적 기준으로 삼는 역사학은 인간 중심의 역사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사가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 혹은 그에 대한 기록을 뜻하므로, 국사의 경우 그

서술 대상 내지는 범주가 국가가 되어야 함은 당연함에도 중국사에서는 강역으로 설정된 것은 ‘국가’를 보는 관점이 ‘인간집단’이 아니라 ‘강역’이라고 보는 관점이 더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강역, 즉 영토가 국가의 중요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역사 자체가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 혹은 그에 관한 기록이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인 인간, 그 인간들의 집합체로서 국가를 국사서술의 1차적 범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학자들도 오늘의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국사 서술의 1차적 범주를 ‘강역’이 아닌 인간집단으로서 ‘국가’로 설정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이를 ‘인간 중심의 역사인식’이라고 명명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강역 중심 역사인식’에 대한 대응논리로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중국 학계가 강역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실사구시의 역사학을 함으로써 중국사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주변국과 역사문제를 두고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葛劍雄, 1994, 『統一與分裂—中國歷史的啓示』, 三聯書店.
- 國家民族事務委員政策研究室 編, 1982, 『中國民族關係史論文集』, 北京: 民族出版社.
- 白壽彝, 1986, 『中國通史』, 上海人民出版社.
- 林榮貴 主編, 2007, 『中國古代疆域史』, 黑龍江教育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 新聞辦公室, 1999, 『中國的少數民族及其實踐』, 北京: 人民出版社.
- 張博泉·魏存成 主編, 1998,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 김유리, 2005,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교육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 『北方史論叢』 6.
- 김정희, 2008, 「중국의 '다민족 통일 국가론' 과 당대의 국제질서」, 『사람』 3.
- 金翰奎, 1992, 「古代 東아시아의 民族關係史에 대한 現代 中國의 社會主義의 理解」, 『東亞研究』 24.
- 우실하, 2007,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의 전개와 적용」, 『高句麗研究』 29.
- 윤휘탁, 2004, 「중국학계의 영토·민족·국가 인식- '統一의 多民族國家論' 과 그 한계」, 『韓國史論』 40.
- 이인철, 2004, 「중역사학자들의 3가지 오류」, 『동아일보』 8월 13일자.
- 조영래, 2009, 「'新중화주의' 속의 '통일적다민족국가론」, 『한중사회과학연구』 7-1.
- 조재송, 2006, 「"통일다민족국가론"의 민족관계사 적용에 따른 쟁점과 허실」, 『中國研究』 38.
- 조재송, 2006, 「중국 '통일다민족국가론'의 논거와 허실」, 『중국학연구』 38.
- 景愛·苗天娥, 2008, 「詳述統一多民族國家的千秋功業—評〈中國古代疆域史〉」, 『中國邊疆史地研究』 18.
- 譚其驤, 1991, 「歷史上的中國和中國歷代疆域」, 『中國邊疆史地研究』 1.
- 厲聲, 2008, 「東北邊疆歷史與現狀研究」, 밴쿠버 학술회의 발표문.
- 馬壽千, 1979, 「民族關係與歷史劇」, 『中央民族學院學報』 1-2.
- 朴燦奎, 2006, 「中韓學界的高句麗歷史認識, 問題在哪里?」, 『高句麗問題學術研討會 發表集』.

- 白壽彝, 1981, 「關於中國民族關係史上的幾箇問題-在中國民族關係史座談會上的講話」, 『北京師範大學學報』 6.
- 白壽彝, 1991, 「關於“統一的多民族國歌”的幾點體會」, 『史學史研究』 2.
- 白壽彝, 1996, 「不斷展開民族史理論學習」, 『史學史研究』 4.
- 史聞, 1981, 「開展中國民族關係史研究的一個新起點-中國民族關係史研究學術座談會簡記」, 『民族研究』 5.
- 孫祚民, 1980, 「處理歷史民族關係的幾個重要準則」, 『歷史研究』 5.
- 孫祚民, 1985, 「開創中國民族關係史研究的新局面」, 『晉陽學刊』 3.
- 孫祚民, 1987, 「建國以來中國民族關係史若干理論問題研究評議」, 『東岳論叢』 1.
- 孫祚民, 1990, 「以民族平等的原則處理歷史上不平等的民族關係」, 『長沙水電師院學報』 1.
- 孫進己, 1984, 「我國歷史上民族關係的幾個問題」, 『中國民族關係史研究』.
- 孫進己, 2001, 「我國統一多民族國家的形成和發展」, 『史學集刊』 3.
- 孫進己, 2003, 「我國歷史上疆域形成、變遷的理論研究」, 『中南民族大學學報』 3.
- 孫進己, 2006, 「確定歷史歸屬的意義和依據」, 『高句麗問題學術研討會發表集』.
- 翁獨健, 1981, 「民族關係史研究中的幾個問題」, 『中央民族大學學報』 4.
- 翁獨健, 1981, 「再談民族關係史研究中的幾個問題」, 『民族研究』 3.
- 翁獨健, 1985, 「民族關係史研究中的幾個理論問題」, 『滿族研究』 1.
- 劉先照, 1983, 「我國民族關係史研究若干理論問題綜述」, 『民族研究』 3.
- 殷麗萍, 2008, 「論中國歷史疆域的理論界定」, 『廣東教育學院學報』 28-1.
- 李晉槐·杜紹順, 1985, 「中國古代民族關係史學術討論會綜術」, 『華南師範大學學報』 2.
- 張碧波, 1999, 「高句麗研究中的誤區」, 『中國邊疆史地研究』 3.
- 田繼周, 1981, 「我國民族史研究中幾個問題」, 『文史哲』 3.
- 翦伯贊, 1978, 「對處理若干歷史問題的初步意見」, 『北京大學學報』 3.
- 翦伯贊, 1979, 「關於處理中國史上的民族關係問題」, 『中央民族大學學報』 1.
- 趙永春, 2002, 「關於中國歷史上疆域問題的幾點認識」, 『中國邊疆史地研究』 2.
- 周偉洲, 1989, 「歷史上的中國及其疆域、民族問題」, 『雲南社會科學』 2.
- 陳梧桐, 1981, 「關於處理我國民族關係史若干原則的商榷」, 『中央民族大學學報』 2.
- 陳通明, 1992, 「試析中國統一的多民族國家的發展過程」, 『固原師專學報』 1.
- 邢玉林, 2001, 「1989年-1998年中國古代疆域理論問題研究綜述」, 『中國邊疆史地研究』 3.

[ABSTRACT]

China's Historical Awareness and its Corresponding
Logic

Yi, Incho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sists that she is a unitary multi-ethnic state created jointly by the people of all its ethnic groups. There are 56 ethnic groups identified and confir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A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belongs to the Han ethnic group, China's other 55 ethnic groups are customarily referred to as the national minorit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census conducted in 2000, of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91.59 percent belong to the Han ethnic group, and 8.41 percent belong to minority ethnic groups. The national minorities, though small in numbers, are scattered over vast areas.

There are two types of theory about the formation of unitary multi-ethnic state. The one insists that China has been a unitary multi-ethnic state since ancient times. They think that the nationalities which live in the present territory of China and the ones which once lived in the domains and have now disappeared are the components of Chinese nationality. Their histories are the components of historical territory of China. But this theory confuse the China on the history and the category of Chinese history.

The other theory insists that China has gradually formated a unitary multi-ethnic state. A lot of national minorities who make up

the present China existed originally as a foreign ethnic and a foreign state. According to this theory, China on the history means Han ethnic's state. This description is not appropriate to the present China, because the present China must describe 56 ethnic groups' history as Chinese history.

The common feature of these two theories is to insist that the first category of historical description is "territory." But a history is human activities done in past and their records. Therefore the principal of history should be human beings. In the case of Chinese history, the first standard should be China which is a country as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 A history founded on a national historical discourse whose primary standard is the state as an organization comprising human beings rather than territory, is human-centered history. This paper believes that human-centered history should become the corresponding logic of Chinese territory-centered history.

keywords

unitary multi-ethnic state, human-centered history, territory-centered history, national minorities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제 1·2 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제1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연구실장이 수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 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참고문헌(필요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26호(2009. 12)

초판 1쇄 인쇄 2009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09년 12월 31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인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